

---

2019

문화예술교육 효과분석 연구

---



---

2019

문화예술교육 효과분석 연구

---

**발행인**

이규석

**발행일**

2019. 12.

**발행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기획**

교육R&D팀

**등록**

KACES-1940-R038

**ISBN**

978-89-6748-346-3(93370)

**문의**

Tel. (02)6209-5900

Fax. (02)6209-5999

E-mail. [contact@arte.or.kr](mailto:contact@arte.or.kr)

[www.arte.or.kr](http://www.arte.or.kr)

©본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서의 저작권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있습니다.



---

## 제출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 귀하

□2019 문화예술교육 효과분석 연구□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 연구진

#### 연구책임자

정태연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 공동연구자

이태현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성충모 광운대학교 원격평생교육원 교수

#### 연구보조원

전미연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수료

안정민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수료

신기원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수료

---

##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본 연구의 내용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 목차

---

요약	i
Abstract	xviii
I. 연구개요	3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방법	4
2.1. 문헌연구	4
2.2. 양적 연구	5
2.3. 질적 연구	6
2.4. 전문가 자문회의	9
2.5. 연구진 회의	10
II. 주요 결과	13
1. 문헌연구	13
1.1. 유아기	13
1.2. 아동기	17
1.3. 청소년기	21
1.4. 성인 전기	25
1.5. 성인 중기	29
1.6. 성인 후기	34
1.7. 노인기	38
2. 양적 연구	50
2.1. 대상 사업 및 응답자 인구 통계 특성	50
2.2.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효과	56
2.3. 사업별 문화예술교육 효과	98
2.4. 2018-2019 양적 연구 결과 비교	140

3. 질적 연구	148
3.1. 인터뷰 참여자 및 참여 집단 특성	148
3.2.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효과	157
3.3. 문화예술교육 효과성 증대요인	199
Ⅲ. 논의 및 제언	205
1. 논의	205
2. 제언	210
참고문헌	212
부록	220

## 표 목차

〈표 I-1〉	생애주기별, 사업별 FGI 구성표	7
〈표 I-2〉	전문가 자문위원	9
〈표 II-1〉	유아기 발달 특성 및 문화예술교육 효과	16
〈표 II-2〉	아동기 발달 특성 및 문화예술교육 효과	21
〈표 II-3〉	청소년기 발달 특성 및 문화예술교육 효과	25
〈표 II-4〉	성인 전기 발달 특성 및 문화예술교육 효과	29
〈표 II-5〉	성인 중기 발달 특성 및 문화예술교육 효과	33
〈표 II-6〉	성인 후기 발달 특성 및 문화예술교육 효과	38
〈표 II-7〉	노인기 발달 특성 및 문화예술교육 효과	47
〈표 II-8〉	생애주기별 발달 특성 및 문화예술교육 효과 요약	47
〈표 II-9〉	전체 참여자 인구 통계	50
〈표 II-10〉	참여자 인구 통계 특성(생애주기별)	52
〈표 II-11〉	참여자 인구 통계 특성(사업별)	54
〈표 II-12〉	유아기 문화예술교육 대응표본 t 검증 효과	56
〈표 II-13〉	유아기 문화예술교육 독립표본 t 검증 효과	57
〈표 II-14〉	아동기 문화예술교육 대응표본 t 검증 효과	59
〈표 II-15〉	아동기 문화예술교육 독립표본 t 검증 효과	61
〈표 II-16〉	청소년기 문화예술교육 대응표본 t 검증 효과	63
〈표 II-17〉	청소년기 문화예술교육 독립표본 t 검증 효과	65
〈표 II-18〉	성인 전기 문화예술교육 대응표본 t 검증 효과	67
〈표 II-19〉	성인 전기 문화예술교육 독립표본 t 검증 효과	69
〈표 II-20〉	성인 중기 문화예술교육 대응표본 t 검증 효과	71
〈표 II-21〉	성인 중기 문화예술교육 독립표본 t 검증 효과	73
〈표 II-22〉	성인 후기 문화예술교육 대응표본 t 검증 효과	76
〈표 II-23〉	성인 후기 문화예술교육 독립표본 t 검증 효과	78

〈표 II-24〉 노인 전기 문화예술교육 대응표본 t 검증 효과	80
〈표 II-25〉 노인 후기 문화예술교육 대응표본 t 검증 효과	82
〈표 II-26〉 노인기 전체 문화예술교육 대응표본 t 검증 효과	83
〈표 II-27〉 노인 전기 문화예술교육 독립표본 t 검증 효과	85
〈표 II-28〉 노인 후기 문화예술교육 독립표본 t 검증 효과	87
〈표 II-29〉 노인기 전체 문화예술교육 독립표본 t 검증 효과	89
〈표 II-30〉 생애주기별 대응표본 t 검증 결과	92
〈표 II-31〉 생애주기별 독립표본 t 검증 결과	94
〈표 II-32〉 생애주기별 대응표본 t 검증-독립표본 t 검증 결과 비교	96
〈표 II-33〉 유아문화예술교육 사업 문화예술교육 대응표본 t 검증 효과	98
〈표 II-34〉 유아문화예술교육 사업 문화예술교육 독립표본 t 검증 효과	99
〈표 II-35〉 예술꽃씨앗학교 사업 문화예술교육 대응표본 t 검증 효과	100
〈표 II-36〉 예술꽃씨앗학교 사업 문화예술교육 독립표본 t 검증 효과	102
〈표 II-37〉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 문화예술교육 대응표본 t 검증 효과	104
〈표 II-38〉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 문화예술교육 독립표본 t 검증 효과	105
〈표 II-39〉 아동복지시설 사업 문화예술교육 대응표본 t 검증 효과	108
〈표 II-40〉 아동복지시설 사업 문화예술교육 독립표본 t 검증 효과	109
〈표 II-41〉 노인복지시설 사업 문화예술교육 대응표본 t 검증 효과	111
〈표 II-42〉 노인복지시설 사업 문화예술교육 독립표본 t 검증 효과	113
〈표 II-43〉 부처 간 협력 문화예술교육 사업 문화예술교육 대응표본 t 검증 효과	116
〈표 II-44〉 부처 간 협력 문화예술교육 사업 문화예술교육 독립표본 t 검증 효과	117
〈표 II-45〉 지역특성화 사업 문화예술교육 대응표본 t 검증 효과	119
〈표 II-46〉 지역특성화 사업 문화예술교육 독립표본 t 검증 효과	120
〈표 II-47〉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사업 문화예술교육 대응표본 t 검증 효과	123
〈표 II-48〉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사업 문화예술교육 독립표본 t 검증 효과	124
〈표 II-49〉 생애전환 문화예술교육 사업 문화예술교육 대응표본 t 검증 효과	127
〈표 II-50〉 생애전환 문화예술교육 사업 문화예술교육 독립표본 t 검증 효과	129
〈표 II-51〉 직장인 문화예술교육 사업 문화예술교육 대응표본 t 검증 효과	131



〈표 II-52〉	직장인 문화예술교육 사업 문화예술교육 독립표본 t 검증 효과	133
〈표 II-53〉	사업별 대응표본 t 검증 결과	135
〈표 II-54〉	사업별 독립표본 t 검증 결과	137
〈표 II-55〉	사업별 대응표본 t 검증-독립표본 t 검증 결과 비교	138
〈표 II-56〉	2018-2019 전체 문화예술교육 효과 비교	140
〈표 II-57〉	2018-2019 사전-사후 문화예술교육 효과 비교(전체 생애주기)	142
〈표 II-58〉	2018-2019 사전-사후 문화예술교육 효과 비교(유아기)	142
〈표 II-59〉	2018-2019 사전-사후 문화예술교육 효과 비교(아동기)	143
〈표 II-60〉	2018-2019 사전-사후 문화예술교육 효과 비교(청소년기)	143
〈표 II-61〉	2018-2019 사전-사후 문화예술교육 효과 비교(성인 전기)	144
〈표 II-62〉	2018-2019 사전-사후 문화예술교육 효과 비교(성인 중기)	144
〈표 II-63〉	2018-2019 사전-사후 문화예술교육 효과 비교(성인 후기)	145
〈표 II-64〉	2018-2019 사전-사후 문화예술교육 효과 비교(노인 전기)	145
〈표 II-65〉	2018-2019 사전-사후 문화예술교육 효과 비교(노인 후기)	146
〈표 II-66〉	2018-2019 사전-사후 문화예술교육 효과 비교(노인기 전체)	146
〈표 II-67〉	2018-2019 유의 효과차 비교	147
〈표 II-68〉	유아 대상 문화예술교육 인터뷰 참여자 기본 정보	148
〈표 II-69〉	아동 대상 문화예술교육 인터뷰 참여자 기본 정보	149
〈표 II-70〉	청소년 대상 문화예술교육 인터뷰 참여자 기본 정보	151
〈표 II-71〉	성인 전기 대상 문화예술교육 인터뷰 참여자 기본 정보	152
〈표 II-72〉	성인 중기 대상 문화예술교육 인터뷰 참여자 기본 정보	153
〈표 II-73〉	성인 후기 대상 문화예술교육 인터뷰 참여자 기본 정보	154
〈표 II-74〉	노인기 대상 문화예술교육 인터뷰 참여자 기본 정보	155
〈표 II-75〉	유아기 문화예술교육의 차원별 효과	157
〈표 II-76〉	아동기 문화예술교육의 차원별 효과	162
〈표 II-77〉	청소년기 문화예술교육의 차원별 효과	168
〈표 II-78〉	성인 전기 문화예술교육의 차원별 효과	172
〈표 II-79〉	성인 중기 문화예술교육의 차원별 효과	179

〈표 II-80〉 성인 후기 문화예술교육의 차원별 효과	185
〈표 II-81〉 노인기 문화예술교육의 차원별 효과	193
〈표 II-82〉 생애주기별·차원별 문화예술교육의 효과	197

---

## 그림 목차

---

〈그림 II-1〉 유아기 기간별 사전-사후 평균(독립표본 t 검증)	58
〈그림 II-2〉 아동기 기간별 사전-사후 평균(대응표본 t 검증)	60
〈그림 II-3〉 아동기 기간별 사전-사후 평균(독립표본 t 검증)	62
〈그림 II-4〉 청소년기 기간별 사전-사후 평균(대응표본 t 검증)	64
〈그림 II-5〉 청소년기 기간별 사전-사후 평균(독립표본 t 검증)	66
〈그림 II-6〉 성인 전기 기간별 사전-사후 평균(대응표본 t 검증)	68
〈그림 II-7〉 성인 전기 기간별 사전-사후 평균(독립표본 t 검증)	70
〈그림 II-8〉 성인 중기 기간별 사전-사후 평균(대응표본 t 검증)	72
〈그림 II-9〉 성인 중기 기간별 사전-사후 평균(독립표본 t 검증)	74
〈그림 II-10〉 성인 후기 기간별 사전-사후 평균(대응표본 t 검증)	77
〈그림 II-11〉 성인 후기 기간별 사전-사후 평균(독립표본 t 검증)	79
〈그림 II-12〉 노인 전기 기간별 사전-사후 평균(대응표본 t 검증)	81
〈그림 II-13〉 노인 후기 기간별 사전-사후 평균(대응표본 t 검증)	83
〈그림 II-14〉 노년기 전체 기간별 사전-사후 평균(대응표본 t 검증)	84
〈그림 II-15〉 노인 전기 기간별 사전-사후 평균(독립표본 t 검증)	86
〈그림 II-16〉 노인 후기 기간별 사전-사후 평균(독립표본 t 검증)	88
〈그림 II-17〉 노년기 전체 기간별 사전-사후 평균(독립표본 t 검증)	91
〈그림 II-18〉 예술꽃씨앗학교 기간별 사전-사후 평균(대응표본 t 검증)	101
〈그림 II-19〉 예술꽃씨앗학교 기간별 사전-사후 평균(독립표본 t 검증)	103
〈그림 II-20〉 꿈의 오케스트라 기간별 사전-사후 평균(대응표본 t 검증)	105
〈그림 II-21〉 꿈의 오케스트라 기간별 사전-사후 평균(독립표본 t 검증)	107
〈그림 II-22〉 아동복지시설 기간별 사전-사후 평균(대응표본 t 검증)	109
〈그림 II-23〉 아동복지시설 기간별 사전-사후 평균(독립표본 t 검증)	110
〈그림 II-24〉 노인복지시설 기간별 사전-사후 평균(대응표본 t 검증)	112
〈그림 II-25〉 노인복지시설 기간별 사전-사후 평균(대응표본 t 검증)	115

〈그림 II-26〉 부처 간 협력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기간별 사전-사후 평균(대응 표본 t 검증)	117
〈그림 II-27〉 지역특성화 기간별 사전-사후 평균(대응표본 t 검증)	120
〈그림 II-28〉 지역특성화 기간별 사전-사후 평균(독립표본 t 검증)	122
〈그림 II-29〉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기간별 사전-사후 평균(대응표본 t 검증)	124
〈그림 II-30〉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기간별 사전-사후 평균(독립표본 t 검증)	126
〈그림 II-31〉 생애전환 문화예술교육 기간별 사전-사후 평균(독립표본 t 검증)	128
〈그림 II-32〉 생애전환 문화예술교육 기간별 사전-사후 평균(독립표본 t 검증)	130
〈그림 II-33〉 직장인 문화예술교육 기간별 사전-사후 평균(대응표본 t 검증)	132
〈그림 II-34〉 직장인 문화예술교육 기간별 사전-사후 평균(대응표본 t 검증)	134

---

# I. 요약

---

##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 문화재를 교육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교육”으로, 정부는 모든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창조력 함양을 위해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이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의 효과지표를 체계화하고,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18~2022)」에 따라 대상자의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문화예술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함.
- 대상자들은 발달과정에 따라 공통적 심리특성을 보이며, 이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의 효과 역시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음. 따라서 생애주기에 따른 교육효과를 파악하고 집단유형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개발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음. 또한 문화예술교육의 효과는 교육환경에 따라 변화할 수 있음. 따라서 교육효과에 영향 미치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효과적인 교육환경을 마련할 필요 있음. 특히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정책적 차원에서 방안이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임.
- 본 연구는 문화예술교육 효과 및 효과를 증대시키는 요인을 분석하고, 문화예술교육 효과가 보이는 변화양상을 파악함으로써, 생애주기별·사업별 특성을 반영하는 효과적인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차별화된 방안을 도출하고, 이러한 방안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목적으로 함.

## 2. 연구내용 및 방법

### 2.1. 문헌연구

- 발달심리학 관련 국내외 학술연구와 생애주기별·사업별 문화예술 교육 효과분석 정책보고서 및 연구물(『2018 문화예술교육 효과분석 연구』 포함)들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사업별 문화예술교육 현황 및 효과를 파악함. 이를 통해 집단과 사업별 교육효과의 차이를

규명하고 이를 설명할 수 있는 학술적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향후 체계적으로 양적 조사를 설계할 수 있도록 체계적 문헌분석 실시함.

## 2.2. 양적 연구

- 2019년 문화예술교육 참여자 또는 참여자의 보호자(유아 및 아동 대상 교육의 경우) 총 1,969명을 대상으로 2017년 기 개발된 효과지표를 조사도구로 사용하여 문화예술교육 사전 및 사후 설문조사를 실시함. 이를 통해 문화예술교육 효과의 참여 전 설문조사를 비교함으로써 2019년 실시되는 문화예술교육의 생애주기별·직업별 효과분석을 실시함. 또한 2018년과 2019년의 문화예술교육 효과의 전반적 차이 비교분석함.

## 2.3. 질적 연구

- 2019년 문화예술교육 참여자 또는 참여자의 보호자(유아 및 아동 대상 교육의 경우) 총 73명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시점에 심층 인터뷰 및 초점집단 인터뷰를 실시함. 주요 인터뷰 내용은 문화예술교육 내용, 참여 동기, 만족도 및 개선점, 교육효과 등으로 이를 통해 양적 지표의 타당도 보완하고, 생애주기별·직업별 문화예술교육 특성 및 효과를 개인적, 관계적, 사회·환경적 차원에서 심층적으로 이해함. 또한 양적 지표의 타당도 보완하고 문화예술교육 효과를 증대시키는 여러 요인에 대하여 탐색함

## 2.4. 전문가 자문

- 효과분석 및 정책제안에 있어 문화예술교육 현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특수집단의 특성 및 생애주기에 따른 발달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책임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전문가 자문회의 실시하였음. 이를 통해 문화예술교육 참여자의 생애주기별·직업별 특성 및 각 프로그램별·직업별 특성 자문 후 생애주기별 FGI 인터뷰 설계에 반영하였음.

## 3. 연구 결과

### 3.1. 문헌연구

#### 3.1.1. 유아기

##### □ 유아기 발달

- 유아기는 신체적, 정서적, 언어적으로 많은 발달이 일어나는 시기임. 신체적으로는 대근육과 소근육의 발달로 신체활동의 폭이 넓어지고 보다 정교한 활동이 가능해짐. 유아는 자아 중심적인 인지 특성으로 인해 타인의 관점에서 조망하지 못하고, 직관적 사고를 함. 상징적 사고능력의 발달로 표상적 사고를 할 수 있게 되며, 이는 언어발달을 통해 급격히 발달함. 또 자아개념이 발달하는 시기로 자아존중감이 출현하고, 부모, 교사, 또래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긍정적인 자기개념을 갖게 됨.
- 유아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놀이를 하면서 성장하는데, 놀이터나 자연환경에서 노는 것, 반려견이나 또래 친구들과 노는 것 등 모든 놀이가 유아의 발달을 촉진함. 영아와 달리 유아의 활동 범위는 유치원, 어린이집 등으로 넓어지고, 대인관계의 폭이 넓어져 가족 이외의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통해 바깥세상을 탐험하고 사회의 가치관과 규범을 습득함. 즉, 유아는 놀이를 통해 전인 발달을 이룸.

##### □ 유아기의 문화예술교육 효과

- 유아기는 신체발달과 함께 부모와 교사,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세상을 탐색하고 익혀나가는 시기임. 문화예술교육은 유아의 문화예술감수성과 친숙성을 향상하여 유아가 문화예술을 익히고 즐기는 데에 도움이 됨. 또 유아의 자기표현력과 자기조절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창의성과 행복감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

#### 3.1.2. 아동기

##### □ 아동기 발달

- 아동기는 신체발달로 다양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악기 연주 등 정교하고 유연한 활동을 할 수 있음. 인지적으로 점차 자아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나와 다른 사람을 구

분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이 나와 다를 수 있음을 이해함. 기초적인 논리적 사고를 할 수 있게 되며, 여러 사람을 기준으로 사회 비교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자아개념에 변화가 생김. 자아존중감이 분화되고 보다 현실과 조화를 이루게 되며, 자신의 능력을 예견할 수 있을 정도로 인지능력이 발달하기 때문에 자기효능감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이기도 함.

- 학교에서의 집단생활을 통해 단체 의식을 형성하기 시작하고, 학교의 규칙이나 법을 준수함으로써 사회생활의 기초를 닦고, 가치관의 토대를 형성하며, 또래 친구와 우정을 쌓음. 유아와 달리 또래 친구와 보내는 시간이 비교적 길며, 친구를 통해 신뢰감, 소속감, 친밀감, 안정감을 얻음.

#### □ 아동기의 문화예술교육 효과

- 아동기는 학교생활을 시작하는 시기로 교사, 친구와 상호작용을 통해 자아개념, 자기효능감 등을 형성함과 동시에 사회적 기술을 익힘. 문화예술교육은 아동의 문화예술감수성과 문화예술친숙성을 향상하여 문화예술을 익히고 즐기는 데 도움이 됨. 또, 아동의 자기표현력, 창의성, 행복감과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사회성, 학교적응력, 가족관계, 예의범절, 긍정적 대화법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 아동의 사회적 발달에도 도움이 됨.

### 3.1.3. 청소년기

#### □ 청소년기 발달

- 청소년기는 2차 성징과 성장 급등으로 신체와 용모에 관심이 커지고 자신의 신체에 대한 다른 사람의 반응에도 민감해짐. 심리·사회적으로는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는 시기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자기 탐색을 통해 자기 이해가 깊어지며, 가치관과 세계관을 통합함. 인지적으로는 최고의 지적 확장이 이루어짐. 추상적 명제에 대한 논리적 사고와 가설적, 연역적, 논리적 사고를 할 수 있음. 또, 청소년기 자아 중심성이라는 독특한 특징을 보이는데, 청소년은 자의식이 강해 자신의 행동이 모든 사람의 관심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을 남들과는 다른 아주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함.
- 청소년기 발달에는 친구가 중요함. 청소년은 부모보다 동성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냄. 인지발달로 부모가 제시하는 가치관이나 규칙에 대한 모순에 설명을 요구할 수 있게 되면서 부모와 갈등이 증가함. 청소년은 주로 친구를 통해 친밀감, 도움, 유대감 등의 정서적 지지를 얻고 우울, 불안으로부터 보호받음. 우정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타인을 이해하며, 집



단에서 자신의 위치를 평가하는 기술 등을 학습함.

#### □ 청소년기 문화예술교육 효과

- 청소년기는 인지능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자기 탐구의 증가로 자기 이해가 깊어지며, 친구들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받음.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예술감수성과 친숙성을 높여 문화예술 능력을 함양하고 이를 즐기는 데 도움이 됨. 또, 창의력, 학습능력, 자아정체감, 감정-정서 순화, 정서발달, 자기조절력, 행복감, 성취감, 자아존중감 증가에 도움이 되었으며, 긍정적인 인간관계 형성, 관계 내 긍정적 변화, 소통역량, 공감능력, 사회성, 정서지능, 감정표현의 풍부화 및 구체화, ‘나’에서 ‘우리’로의 성장 등 사회적 기술 함양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임. 마지막으로, 공동체 역량 향상, 공동체의 힘 깨닫기와 같은 효과가 있었음.

### 3.1.4. 성인 전기

#### □ 성인 전기 발달

- 성인 전기는 신체□인지 발달상 가장 건강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시기임. 이 시기 정신운동 능력과 신체 능력은 최정점이며 30대 초반 이후 서서히 감퇴함. 성인 전기 인지 사고는 세상의 진리에 대해 절대적 이분법으로 해석하는 이원론적 사고에서 다양한 관점과 견해를 인정하는 상대적 사고로 변화함. 이를 통해 청소년기 형식적 사고에서 벗어나 모순을 이해하는 변증법적 사고가 가능해지고 성인기 인지발달의 중요한 성취인 이상과 현실의 통합이 가능해짐.
- 이 시기에 개인은 친밀감과 직업 정체성 확보를 통해 사회적 정체성을 획득하고 생애 전기 삶의 구조를 완성하기 위해 탐색하는 발달 과업에 도전해야 함. 따라서 청소년기의 환상에서 벗어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현실적으로 미래 직업을 위해 탐색해야 하는 시기임. 대인관계 측면에서 특정 이성과의 친밀감 형성과 더불어 20대는 가장 많은 또래 관계를 경험하며 이를 통해 학교생활에 적응하거나 혹은 갈등을 경험하는 시기이기도 함.

#### □ 성인 전기 문화예술교육 효과

- 성인 전기는 친밀감과 직업 정체성을 위한 직업 탐색 등 주요 발달 과업으로 개인의 스트레스 발생 가능. 대학에서 경험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등은 개인의 스트레스 감소, 정서적 안정, 학업 및 대학생활 적응에 유의미한 도움이 됨.

### 3.1.5. 성인 중기

#### □ 성인 중기 발달

- 성인 중기는 신체적으로는 20대보다 건강 상태가 다소 감소하나 신체 건강에 여전히 자신 있는 상태임. 30대 후반까지는 최고의 신체 기능 유지하지만 이후 점차 생물학적 노화 시작됨. 성인 전기와 마찬가지로 이원론적 사고에서 벗어나 상대적 사고로 변화하는 시기임. 지적 능력으로 보면 20대에 비해 기계적 지능은 감소하지만 실용적 지능은 더욱 증가하는 시기임.
- 가족과 직업,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전반적 삶의 구조 안정하고 정착하는 시기로 가정에서는 어린 자녀의 양육과 흥미 발달을 지지해야 하는 한편 직업 사회에서는 경력 초기를 지나 안정적인 경력 개발을 해야 하는 시기임. 따라서 개인이 달성해야 하는 과업이 무거운 시기임. 과업에 대한 과부하와 가정과 직장에서의 역할 갈등으로 인한 개인 스트레스 발생 가능한 시기이며 이로 인해 부부 만족은 자녀를 양육하며 점차 감소하게 됨.

#### □ 성인 전기 문화예술교육 효과

- 성인 중기는 결혼 후 양육과 취업, 직업 사회에서 경력 개발 등 성인이 다양한 역할 스트레스와 역할 갈등 경험함. 문화예술교육은 경험 만족도 높을수록 성인의 정서 안정과 자기효능감 향상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이 시기 성인은 부모로서 역할 역시 중요한데 문화예술교육은 성인 중기 주요 발달 과업인 자녀 양육을 위해 필요한 부모의 심리적 성숙에 유의미한 영향 미침.

### 3.1.6. 성인 후기

#### □ 성인 후기 발달

- 성인 후기는 신체인지 능력이 감퇴하는 시기임. 그러나 실용적 지능 등 개인의 실생활에 적응 가능한 지능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거나 오히려 증가 가능. 이 시기 개인은 자신이 더 이상 젊지 않음을 인정하고, 그 동안의 삶의 목표를 조망하며,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방향을 전환하는 중년기의 위기를 경험. 그러나 이것이 중년기 위기가 될지 아니면 중년의 ‘새로운 출발’이 될지는 개인의 환경과 자원에 따라 달라짐. 청소년기 양육과 성인 자녀의 독립을 경험하는 이 시기에 중년기 부부는 결혼 만족도가 가장 낮아졌다가 성인 자녀의 독립

이후 다시 증가하기 시작.

#### □ 성인 후기 문화예술교육 효과

- 청소년기 자녀를 양육하는 성인 후기 부부는 결혼 만족도가 극히 낮음. 문화예술교육에 부부가 참여함으로써 부부 공감의 향상이 되고 부부 관계의 질 역시 상승함. 또한 중년기는 사회로 생산성이 확장되는 시기로 문화예술교육의 가치와 효과는 사회적으로 확장됨. 문화예술교육은 개인의 문화 자본 및 사회 자본을 향상시키면서 성인 후기 개인은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가족과 직업이 아닌 개인 관계 형성하고 소통이 증가하며, 지역 재생, 공동체성 회복 등 공동체 의식이 더욱 함양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3.1.7. 노인기

#### □ 노인기 발달

- 노인기에는 일반적으로 신체적 기능이 쇠퇴하여 뇌, 호흡기 약화, 감각 둔화, 자기 조절, 반사속도 감소가 나타나므로 격렬한 동작, 고도로 섬세한 활동은 적절치 않음. 기억력 감퇴가 흔히 나타나나 인지능력은 노력에 따라 유지되고 때로는 상승하기도 하며, 공예, 음악 등 인지능력을 활용하는 활동이 능력 보존에 도움이 될 수 있음. 주의집중, 기억 인출 능력은 감소하지만 의미나 절차에 대한 지식은 감소하지 않으며, 삶에 대한 깊은 이해, 풍부한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를 통해 좋은 조언자 역할을 할 수 있음.
- 노인기에 전반적인 사회적 관계의 폭은 은퇴, 지인의 사망 등으로 인해 좁아지는 편이며, 이러한 사회 관계망의 축소는 심리적, 정서적 위축을 초래할 수 있음. 우리나라 노인에게 중요한 관계는 배우자, 자녀, 친구가 있는데, 배우자와의 사별이나 이혼, 자녀와의 갈등은 노인기의 주요한 스트레스 요인임. 이들을 비롯한 지인들과의 정기적 연락과 만남, 취미활동과 대화의 공유를 통한 사회적 관계망의 유지와 확장은 노인기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유지, 삶의 의미 재정립에 핵심적인 역할을 함.

#### □ 노인기 문화예술교육 효과

- 노인기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인지능력 보존, 사회적 관계망 유지 및 확장 외 스트레스 해소, 삶의 활력, 자아존중감 회복, 사회 참여에 대한 관심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이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 삶의 만족 및 성공적 노화로 이어짐.

### 3.2. 양적 연구

- 문화예술교육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사전, 사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사전, 사후 설문조사에 모두 참여한 집단을 대상으로 대응표본 t 검증, 설문조사에 참여한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함.
- 생애주기별 대응표본 t 검증 결과, 유아기에서는 핵심지표인 문화예술감수성, 아동기에서는 핵심지표인 문화예술감수성, 문화예술친숙성, 성인 전기에서는 핵심지표인 문화예술감수성, 특수지표인 행복감, 자기표현력, 성인 중기에서는 핵심지표인 문화예술감수성, 문화예술친숙성, 특수지표인 자기표현력, 소통능력, 자아존중감, 성인 후기에서는 핵심지표인 문화예술감수성, 문화수용력, 창의성, 자기조절력, 노인 전기에서는 핵심지표인 문화예술감수성, 노인 후기에서는 핵심지표인 문화예술감수성, 특수지표인 공감능력, 행복감, 문화수용력, 자기표현력에서 평균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상승하였음. 청소년기에서는 핵심지표와 특수지표에 대해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음.
- 생애주기별 독립표본 t 검증 결과, 생애주기별로 유아기에서는 특수지표인 자아존중감, 아동기에서는 핵심지표인 문화예술감수성, 성인 중기에서는 핵심지표인 문화예술감수성, 특수지표인 공감능력, 자기표현력, 소통능력, 문화수용력, 창의성, 성인 후기에서는 핵심지표인 문화예술감수성, 문화예술친숙성, 특수지표인 문화수용력, 창의력, 자기조절력, 노인 전기에서는 핵심지표인 문화예술감수성, 특수지표인 창의성, 자기표현력, 문제해결력, 노인 후기에서는 핵심지표인 문화예술감수성, 특수지표인 공감능력, 행복감, 소통능력, 친밀감, 자아존중감, 문화수용력, 창의성, 자기표현력, 문제해결력에서 평균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상승하였음. 청소년기, 성인 전기에서는 핵심지표와 특수지표에서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음.
- 사업별 대응표본 t 검증 결과, 유아문화예술교육에서는 핵심지표인 문화예술감수성, 문화예술친숙성, 예술꽃씨앗학교에서는 핵심지표인 문화예술감수성, 특수지표인 문제해결력, 노인복지시설에서 핵심지표인 문화예술감수성, 특수지표인 공감능력, 행복감, 문화수용력, 문제해결력, 부처 간 협력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근로자 문화예술교육)에서는 특수지표인 창의성, 지역 특성화에서는 핵심지표인 문화예술감수성, 특수지표인 창의성, 자기표현력, 소통능력, 자기조절력,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에서는 특수지표인 공감능력, 행복감, 자아존중감, 생애전환 문화예술교육에서는 핵심지표인 문화예술감수성에서, 특수지표인 문화수용력, 창의성, 자기표현력, 직장인 문화예술교육에서는 핵심지표인 문화예술감수성,

특수지표인 창의성, 자기조절력에서 평균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상승하였음. 꿈의 오케스트라, 아동복지시설에서는 핵심지표와 특수지표에서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음.

- 사업별 독립표본 t 검증 결과, 유아문화예술교육에서는 핵심지표인 문화예술감수성, 문화예술친숙성, 특수지표인 문화수용력, 자아존중감, 예술꽃씨앗학교에서는 핵심지표인 문화예술감수성, 노인복지시설에서는 핵심지표인 문화예술감수성, 특수지표인 공감능력, 행복감, 문화수용력, 창의성, 자기표현력, 문제해결력, 친밀감, 자아존중감, 자기조절력, 부처간 협력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근로자 문화예술교육)에서는 핵심지표인 문화예술감수성, 특수지표인 자기표현력, 지역 특성화에서 핵심지표인 문화예술감수성, 문화예술친숙성, 특수지표인 문화수용력, 창의성, 자기표현력, 문제해결력,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에서는 특수지표인 공감능력, 생애전환 문화예술교육에서는 핵심지표인 문화예술감수성, 문화예술친숙성에서 평균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상승하였음. 꿈의 오케스트라, 아동복지시설에서는 핵심지표와 특수지표에서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음.

### 3.3. 질적 연구

#### 3.3.1.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효과

- 질적 연구를 통해 생애주기에 따라 다른 문화예술교육 효과가 발견됨. 특히, 성인 전기의 워크-라이프 밸런스 효과, 성인 중기의 자녀 이해 증진 효과, 성인 후기의 삶에 대한 긍정 효과와 자기초월 효과는 각 생애주기에 따른 발달 특성과 일치함.
- 성인과 달리 유아, 아동, 청소년의 경우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는 사례가 있어 지루함과 같은 부정 정서가 보고됨. 또, 아동 참여자에게 나타난 사회·환경 차원의 효과는 교육 프로그램 내용이 지역 사회를 다루고 있는지와 같은 예술 강사 및 기관 특성을 반영함.
  - 성인 전기 참여 집단에서만 워크-라이프 밸런스 향상 효과가 발견됨. 이는 워크-라이프 밸런스에 대한 이들의 욕구로 인한 것으로 보임. 또, 관계적 차원의 자기 초월 효과와 사회·환경 차원의 문화예술을 통한 타인과의 소통 욕구가 나타났는데, 이는 협업 작업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예술교육 특성과 관련이 있었음.

- 성인 중기 집단에서는 자녀를 포함한 가족 및 지역 주민과의 관계적 효과가 크게 나타남. 이들은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통해 긍정 정서를 경험하고 학생의 입장에서 자녀를 이해하게 되며, 자녀(가족)와 긍정적인 상호작용의 계기가 증가함. 또 지역 주민인 참여자 및 그 가족 구성원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됨, 이러한 효과는 기관 또는 사업의 특성과는 관계없이 성인 중기 참여자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남.

- 성인 후기 참여자들은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가장 큰 변화를 경험함. 이들은 자기 발견, 자기 이해, 자기 탐구와 같은 '자기'를 키워드로 한 변화를 가장 많이 보고하였으며 이러한 변화는 '좋은 참여자들'이 있기에 가능했다고 하였음. 지지적이고 수용적인 다른 참여자들과의 교류를 통해 자기 이해의 폭이 깊어지고 관계적 차원의 열린 우리, 자기 초월과 같은 효과가 나타났으며, 이는 초월적 감사, 삶의 의미, 삶의 긍정, 자기 수용과 같은 삶에 대한 긍정 효과로 이어짐. 이들은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문화예술을 통해 사회적 차원에서 타인과 소통하고자 하는 욕구를 보였음.

- 노인기 참여자들은 즐거움, 활기, 열정과 같은 긍정 정서 경험 효과를 가장 많이 보였음. 특히 배움에 대한 즐거움, 해 보고 싶었지만 기회가 없어 할 수 없었던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즐거움을 경험하였다는 점에서 다른 생애주기와 차이가 있었음.

□ 문화예술교육의 효과는 생애주기 및 생애주기에 따른 발달과업뿐 아니라 참여자 개인과 기관 특성, 문화예술교육 사업 특성, 참여자 개인과 기관 특성, 문화예술교육 사업의 특성을 반영함. 따라서 사업, 기관, 개인의 특성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의 효과가 나타나는 정도와 그 양상에 차이가 있었음.

□ 질적 연구 결과, 양적 지표가 포함하지 않는 새로운 효과가 발견됨. 문화예술과 관련하여 아동과 성인 참여자에게 문화예술 감상 태도의 성숙 효과가 나타남. 성인의 경우 이러한 감상 태도의 성숙이 문화예술을 매개로 하여 지역 사회 주민 또는 불특정 다수와 소통하고자 하는 욕구로 이어짐. 이 외에, 자기효능감, 자기발견, 정서 경험의 다양화, 외부 세계 탐색, 사회적 관계 확대, 긍정적 상호작용의 계기, 공동체 의식 함양 효과가 발견됨.

□ 문화예술교육 효과는 생애주기뿐 아니라 사업 특성, 기관 특성, 참여자 개인 특성을 반영하여 나타남. 예로, 협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차원과 사회·문화 차원의 효과가 두드러졌으나, 개인 작업을 주로 하는 경우 힐링과 자기효능감 등 개인 차원의 효과가 두드러짐. 또, 협동이 필요한 경우라도 악기 연습 등 문화예술 능력이 강조되는 경우에는 문화예술감수성과 문화예술감상 태도 성숙 효과가 두드러짐.

□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발생한 변화 중 참여자들이 실제로 의미 있고 중요하게 여기는 변화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경험하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였음.

- 인터뷰 참여자가 실제로 의미 있다고 보고하는 지표가 따로 있었음. 유아의 경우 즐거움, 자유로움 등의 긍정 정서, 자기표현의 성숙이었고, 아동의 경우, 협동 능력과 친밀감을 의미 있고 중요한 변화로 꼽았음. 청소년의 경우 스트레스 해소를, 성인 초기는 문화예술을 통한 자기 발견과 이를 매개로 한 소통 욕구, 스트레스 해소를 주로 언급하였으며, 성인 중기는 자기 발견과 지역 주민과의 관계 확장 및 유대감, 자녀 이해 증진을 주로 언급하였음. 성인 후기의 경우, 자기 발견, 자기 이해 등 ‘자기’와 관련된 언급이 아주 많았으며 참여자와의 관계적 측면이 강조되었음. 노인기는 즐거움이 주로 언급됨.
- 이러한 지표들이 구체적으로 경험되는 방식도 생애주기에 따라 차이가 있음. 예를 들어, 유아는 놀이를 통해 움직이고 에너지를 발산하며 즐거움과 자유로움 속에서 행복을 느끼지만, 성인 후기의 경우 자신을 발견하고 타인과의 연결이 확장되고 깊어지면서 삶을 긍정하게 되는 행복을 경험함. 이러한 경험의 차이로 인해 질적 연구에서 나타난 효과가 양적 연구에 서는 포착되지 않았을 수 있음.

### 3.3.2. 문화예술교육 효과성 증대요인

□ 질적 연구를 통해 문화예술교육 효과성 증대를 위한 전 생애주기 공통적 · 차별적 요인을 발견함(표 요약-1 참조).

〈표 요약-1〉 문화예술교육 효과성 증대 환경

	효과성을 증대하는 환경	환경 조성
공통	즐겁고 자유롭게 자기표현이 가능한 환경	수용적이고 지지적인 강사 및 기관
유아기	자유롭고 안전한 놀이 환경	기관 교사, 기관 및 부모의 협조, 충분한 강사 및 교사의 수
아동기	자유롭고 즐겁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환경	수용적이고 지지적인 예술 강사, 예술 강사와 기관의 원활한 소통, 충분한 강사 및 교사의 수
	문화예술 능력의 발전이 이루어지는 환경	
청소년기	평가하지 않는 자유로운 환경	‘평가 없음’에 적응하는 시간, 예술 강사와 기관의 원활한 소통
성인 전기	평가하지 않는 자유로운 환경	‘평가 없음’에 적응하는 시간, 문화를 매개로 한 소통의 장(場) 마련
	지역 내 또는 지역 간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	
	관계 부담에서 벗어나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성인 중기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환경	강사 및 가족 구성원의 지지, 문화를 매개로 한 소통의 장(場) 마련
	지역 내 또는 지역 간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	
성인 후기	자유롭고 지지적이며 따뜻한 환경	문화예술을 매개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낼 수 있도록 돕는 예술 강사, 지지적인 참여자
노인기	문화예술활동만을 오롯이 즐길 수 있는 환경	참여자들 간 갈등을 원만히 조율할 수 있는 강사, 예술 강사와 기관의 원활한 소통



〈표 요약-2〉 연구결과(문화예술교육 효과) 종합

생애 주기	효과*
유아기	<p><b>문헌연구</b>  <input type="checkbox"/> 개인적 차원: 문화예술감수성 및 친숙성, 창의성, 상상력, 자기표현력, 자기조절력, 문화수용력, 공감능력, 행복감</p> <p><b>양적 연구</b>  <input type="checkbox"/> 개인적 차원: 문화예술감수성, 자아존중감(*)</p> <p><b>질적 연구</b>  <input type="checkbox"/> 개인적 차원: 문화예술감수성 및 친숙성, 창의력, 상상력, 호기심, 자기 조절, 자기표현의 성숙, 자아존중감, 친밀감, 긍정 정서, 협동 능력, 의사소통 능력, 자기효능감(*), 집중력 향상(*), 외부 세계 탐색(*), 정서 안정(*)</p>
아동기	<p><b>문헌연구</b>  <input type="checkbox"/> 개인적 차원: 문화예술감수성 및 친숙성, 창의성, 자기표현력, 사회성, 학교적응력, 행복감, 친밀감, 생활만족도  <input type="checkbox"/> 관계적 차원: 협동 능력, 가족관계 개선, 예의범절 및 긍정적 대화법 학습</p> <p><b>양적 연구</b>  <input type="checkbox"/> 개인적 차원: 문화예술 감수성 및 친숙성</p> <p><b>질적 연구</b>  <input type="checkbox"/> 개인적 차원: 문화예술감수성 및 친숙성, 창의력, 호기심, 자기 조절, 문화예술 감상 태도 성숙(*), 자기효능감(*), 집중력(*), 자기 발견(*), 외부 세계 탐색(*), 자기표현의 성숙, 긍정 정서(*), 정서 안정(*)  <input type="checkbox"/> 관계적 차원: 유대감, 친밀감, 의사소통 능력(*), 또래 관계 형성(*), 긍정적 상호작용의 계기(*), 협동 능력(*)  <input type="checkbox"/> 사회적 차원: 동네에 대한 애정(*), 지역 내 문화예술 활동(*)</p>
청소년기	<p><b>문헌연구</b>  <input type="checkbox"/> 개인적 차원: 문화예술감수성 및 친숙성, 창의력, 자기조절력, 학습능력, 행복감, 자아존중감, 공감능력, 정서발달, 감정-정서 순화, 감정 표현의 풍부화 및 구체화, 성취감  <input type="checkbox"/> 사회적 차원: '나'에서 '우리'로의 성장, 공동체의 힘 깨닫기</p> <p><b>질적 연구</b>  <input type="checkbox"/> 개인적 차원: 문화예술감수성 및 친숙성, 자기표현의 성숙, 자기효능감(*), 집중력(*), 독서능력(*), 자기 발견(*), 외부세계 탐색(*), 긍정 정서(*), 정서 안정(*)  <input type="checkbox"/> 관계적 차원: 사회성, 소통능력 향상, 긍정적 인간관계 형성, 긍정적 상호작용의 계기(*)  <input type="checkbox"/> 사회적 차원: 지역 내 문화예술 활동(*)</p>
성인기	<p><b>문헌연구</b>  <input type="checkbox"/> 개인적 차원: 문화예술감수성 및 친숙성, 자기표현력, 대학생의 학교 적응, 행복감, 자아존중감 증진, 대인관계 문제 관련 스트레스 해소, 정서 안정  <input type="checkbox"/> 관계적 차원: 대인관계 문제 해결에 필요한 사회적 기술 학습</p> <p><b>양적 연구</b>  <input type="checkbox"/> 개인적 차원: 문화예술감수성, 자기표현력, 행복감</p> <p><b>질적 연구</b>  <input type="checkbox"/> 개인적 차원: 문화예술감수성 및 친숙성, 창의력, 자기 조절, 자기표현의 성숙, 자아존중감  <input type="checkbox"/> 관계적 차원: 협동 능력, 의사소통 능력</p>

생애 주기	효과*
성인 초기	<p><b>문헌연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적 차원: 심미적 감수성, 자기효능감, 자기표현력, 긍정적 사고, 행복감, 자아존중감, 정서 안정</li> <li>□ 관계적 차원: 자녀 양육을 위해 필요한 심리적 성숙</li> </ul> <p><b>양적 연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적 차원: 문화예술감수성, 자기표현력, 자아존중감, 문화예술친숙성, 문화수용력(*), 창의성(*)</li> <li>□ 관계적 차원: 소통능력, 공감능력</li> </ul> <p><b>질적 연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적 차원: 문화예술감수성 및 친숙성, 호기심, 자기표현의 성숙, 친밀감, 문화예술 감상 태도 성숙(*), 자기효능감(*), 자아 실현(*), 외부세계 탐색 및 이해(*), 긍정 정서(*), 정서 안정(*)</li> <li>□ 관계적 차원: 친구 관계 확대(*), 긍정적 상호작용의 계기(*), 자녀에 대한 이해 증진(*)</li> <li>□ 사회적 차원: 지역 사회에 대한 긍정적 인식 및 자부심(*), 지역 사회 적응(*), 주민, 타인과 소통(*)</li> </ul>
성인 후기	<p><b>문헌연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적 차원: 문화예술에 대한 지식 및 체험, 자기표현력, 소통능력, 공감능력, 행복감, 자아존중감</li> <li>□ 관계적 차원: 부부 공감 및 관계의 질 향상, 인간관계의 폭과 소통 확대</li> <li>□ 사회적 차원: 지역 공동체성 회복</li> </ul> <p><b>양적 연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적 차원: 문화예술친숙성, 문화예술감수성, 문화수용력(*), 창의성(*), 자기조절력(*)</li> </ul> <p><b>질적 연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적 차원: 문화예술감수성 및 친숙성, 자아존중감, 자기 조절, 자기표현의 성숙, 문화예술 감상 태도 성숙(*), 자기효능감(*), 집중력(*), 자기 이해(*), 자기 발견(*), 자기 탐구(*), 외부세계 탐색 및 이해(*), 긍정 정서(*), 정서 안정(*), 초월적 감사(*), 삶의 의미 발견(*), 삶에 대한 긍정(*), 자기 수용(*)</li> <li>□ 관계적 차원: 타인에 대한 공감, 참여자와의 관계 형성(*), 긍정적 상호작용의 계기(*), 사회적 지지(*), 열린 우리(*), 수용적 태도(*), 생성감(*)</li> <li>□ 사회적 차원: 기관에 대한 감사(*), 타인과의 소통(*)</li> </ul>
노인기	<p><b>문헌연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적 차원: 문화예술감수성 및 친숙성 향상, 배움에 대한 욕구 충족, 행복감, 친밀감, 자아존중감, 스트레스 및 부정적 정서 해소, 생활만족도 향상, 소통과 공감을 통한 치유</li> <li>□ 사회적 차원: 창조적 공동체 형성, 사회 참여에 대한 관심</li> </ul> <p><b>양적 연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적 차원: 문화예술감수성, 행복감, 친밀감, 자아존중감, 문화수용력(*), 자기표현력(*), 창의성(*), 문제해결력(*)</li> <li>□ 관계적 차원: 공감능력, 소통능력(*)</li> </ul> <p><b>질적 연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적 차원: 문화예술감수성 및 친숙성, 호기심, 자기표현의 성숙, 자기효능감(*), 집중력 향상(*), 외부세계 탐색 및 이해(*), 긍정 정서(*)</li> <li>□ 관계적 차원: 공감능력, 의사소통 능력, 참여자와의 관계 형성(*), 긍정적 상호작용의 계기(*), 협동 능력(*)</li> <li>□ 사회적 차원: 지역 내 문화예술 활동(*)</li> </ul>

※ 본 연구에서 새롭게 나타난 효과는 (\*)로 표시함.

※ 양적 연구에서 나타난 효과는 설문조사에 사용한 지표명을 사용하여 제시함.

#### 4. 논의 및 제언

- 본 연구는 문화예술교육 참여자를 대상으로 생애주기별·사업별로 문화예술교육 효과를 비교 분석하였음. 사업별 문화예술교육 효과는 사업 대상자의 생애주기 특성 및 환경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따라서 논의는 각 생애단계를 중심으로 문화예술교육의 양적, 질적 효과에 대해 논의하고자 함.
- 문헌연구에서 유아, 아동, 청소년들은 문화예술교육으로 인해 문화예술 능력이 향상되고, 창의성, 자기표현력 등 인지능력 향상과 행복감 등 정서적 효과를 경험함. 그러나 유아, 아동, 청소년 참여자들은 핵심지표와 특수지표에서 모두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났던 2018년과 달리 2019년에는 특수지표에서 유의미한 결과 나타나지 않았음. 특히 청소년기는 핵심지표에서도 유의미한 효과 나타나지 않음.
- 그러나 질적 분석 결과에서는 문화예술능력의 상승과 집중력, 창의력 등 인지적 효과, 자기 표현 및 자기 조절 등 정서적 효과를 모두 발견할 수 있었음.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다른 결과는 양적 연구에서 사용하는 자기보고식 설문조사가 성인이 아닌 참여자들의 미성숙한 인지능력을 고려할 때 부적절할 수 있음을 의미함. 실제 인터뷰에서 이 생애단계의 참여자 본인보다 부모와 강사 등 관계자들이 문화예술교육으로 인한 긍정적 변화를 보고하였음.
- 성인기 또한 2018년과 2019년도에 유의미한 효과 지표가 다르게 나타남. 문헌연구에서 성인기는 문화예술 능력 상승과 인지적 효과, 정서적 효과를 경험하고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함으로써 관계적 질 역시 향상함. 2019년에는 성인 전기, 중기, 후기에서 유의미한 지표가 다르게 나타났음. 특히 성인 중기에서 일부 특수지표와 특수지표가 아닌 지표에서 유의미한 문화예술교육 효과 나타났음.
- 질적 분석에서는 양적 지표에서 발견되지 않은 자기표현, 친밀감 등의 특수지표가 유의미한 효과 나타났음. 또한 자기에 대한 폭넓은 이해, 자아실현 등 기존 문헌과 양적 연구에서 발견되지 않은 새로운 효과가 발견되었음. 워크-라이프 밸런스(성인 전기), 자녀에 대한 이해 증진(성인 중기) 등은 성인기 세부 단계에서 양적 연구로는 발견할 수 없는 각 단계만의 고유한 문화예술교육 효과가 있음을 암시함.
-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는 성인 대상자들은 유아, 아동, 청소년에 비해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장기적이며 기간에 따라 문화예술교육 효과가 다른 지표가 발견

되었음. 예를 들어 성인 전기의 문화예술감수성은 1년 미만 집단에 비해 1년~3년 미만 경험 집단이 더 낮고, 3년~5년 미만 집단은 1년 미만 집단보다 더 높아짐. 기간에 비례하여 효과가 상승하기보다 어느 정도의 경험이 있는 집단이 상대적으로 기간이 짧은 집단이나 높은 집단에 비해 효과지표가 낮게 나타남.

□ 양적 분석으로는 이러한 기간별 집단 차이를 해석하기 어려움. 질적 인터뷰 분석에서 이에 대한 추론을 해볼 수 있음. 인터뷰 분석결과 성인 참여자 중 비교적 장기간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했던 참여자들은 문화예술 숙련에 대한 욕구가 크다는 공통점을 보였음. 이것을 기간별 차이로 해석하는 것은 본 연구에서는 무리이며 다만 욕구의 질적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염두에 두어야 함. 예를 들어, 문화예술교육 기간이 길어지면 숙달에 대한 욕구가 새롭게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음. 그러나 이후 문화예술교육에 계속 참여하여 숙달 욕구가 충족되면 이전보다 만족도가 더 높아질 수 있음. 추후 종단 연구와 질적 연구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임.

□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모두 동일 집단의 기간별 변화 추세를 연구한 것이기 아니기 때문에 양적 결과와 질적 결과를 바탕으로 기간별 효과에 대해 추론이 가능한 것뿐이며, 향후 참여 기간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효과의 변화를 위해 종단적인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모두 필요할 수 있음.

□ 노인의 문화예술교육 효과는 양적 지표로 보면 대응표본 검증 시 문화예술감수성, 행복감, 문제해결력 등 18년 특수지표와 다른 유의미한 결과 나타남. 문헌연구에서 이 시기 참여자들은 인지 능력 감소와 사회적 관계 축소로 전반적으로 활동이 제한되는 시기임. 따라서 문화예술교육으로 인한 문제해결력 증가 등 양적 지표에서의 긍정적 향상은 노인기의 인지 능력에 대한 문화예술교육의 유의미한 효과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음을 암시함.

□ 질적 인터뷰에서 노인 참여자들은 문화예술활동과 배움에 대한 욕구가 다른 생애단계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남. 이들은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함으로써 활동과 배움에 욕구를 충족하고 이러한 점에서 만족감이 크게 나타났음. 이 점은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가 자기 주도적 참여보다 다른 가족의 권유로 인해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는 것과 대비되는 특성으로 노인 참여자들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참여 자체가 참여자들의 긍정 정서와 웰빙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함.

□ 또한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함으로써 소통능력과 협동 능력 등 노인이 참여자의 사회적 관

계 능력 확장이 나타나고, 더불어 공동체 의식 함양 등을 보임으로써 노인기 참여자들이 생애단계에서 경험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 축소 등의 위기에 문화예술교육이 어느 정도 해결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추측할 수 있음.

□ 문화예술교육이 참여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프로그램의 사전-사후의 차이로 보는 단기적 효과보다 지속적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함으로써 얻는 종단적 변화를 보는 것이 더 적합할 수 있음. 기간별 양적 지표 분석에서 생애주기별 효과 차이가 나타났으며 이러한 효과 차이는 문화예술교육의 효과에 대해 생애주기와 사업 특성을 반영한 종단적으로 설계된 패널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제안하게끔 함.

□ 또한 문화예술교육 효과 파악과 효과 증대를 위해 양적 연구와 더불어 지속적인 질적 연구를 제언함. 질적 연구는 구체적인 프로그램 진행 과정 및 개인, 기관, 생애주기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효과 양상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음. 따라서 문화예술교육 효과의 양적 자료에 대한 지속적 추적과 변화 추이 분석과 질적 연구를 통한 문화예술교육 효과에 대한 구체적 맥락에 대한 정보 제공이 가능한 질적 연구를 병행할 필요가 있음.

---

# Abstract

---

## □ Necessity and Purpose of Study

Cultural arts education is "Education that uses cultural art, cultural industries, and cultural properties as contents or incorporates them in the curriculum." It is showing that the government is making efforts to promote cultural and artistic education to foster the cultural and creative power of all people. In response, the Korea Arts & Culture Education Service aims to systematize the effectiveness indicators of cultural arts education and to maximize effectiveness by providing optimized cultural arts education to subjects according to the stages of life cycle of participants by following [Comprehensive Culture and Arts Education Plan (2018-2022).]

Subjects show common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depending on their stages in the development process. And the effect of the cultural arts education can var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educational effects depending on the subject's life cycle and to develop and provide customized education based on group types. Also, the effects of cultural arts education can differ depending on the educational environme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effective educational environment by identifying factors that affect the effectiveness of education. In order to improve the educational environment, it is important to reflect measures from a policy perspective in particula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cultural arts education, derive the differentiated solutions that can provide effective education which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the life cycle and business by identifying changes coming from the cultural arts education, and to implement policy suggestions.

## □ Contents and Methods of Study

### 1) Literature Review

The current status and effectiveness of the cultural arts education according to the life cycle and business are identified using domestic and foreign academic studies in developmental psychology and the research on cultural arts education effect analysis and policy report (including 「2018 Research on the Effect of Culture and Arts Education」 ). As a result, differences in educational effects between groups and businesses have been identified and an academic basis to explain such results has been provided. Thus, the systematic literature analysis is carried out to

enable the designing of quantitative study in future.

## 2) Quantitative Study

A total of 1,969 subjects and/or their guardians (in the case of infants and children) who participated in cultural arts education program in 2019 have completed the pre-and post-survey. The effectiveness indicators, previously devised in 2017, were used as an investigative tool in this study. Through comparison of pre-education surveys on the effects of cultural arts education, effectiveness analysis of cultural art education in 2019 according to life cycle and business was conducted. Also, the overall differences in cultural arts education effects in 2018 and in 2019 were analyzed and compared.

## 3) Qualitative Study

In-depth interviews and focus group interviews were conducted to a total of 73 subjects and/or their guardians (in the case of infants and children) right after the cultural arts education program in 2019. The main questionnaires on the interviews included the contents of the cultural arts education program, motivation for participation, level of satisfaction, room for improvements, educational effects, etc. Through the interviews, we were able to supplement the validity of quantitative indicators and to gain an in-depth understanding of the characteristics and effects of cultural arts education by life cycle and business in terms of personal, relational, social and environmental aspects. We also explored various factors that supplement the validity of quantitative indicators and ways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cultural arts education.

## 4) Expert Consultation

The duty advisory board was gathered to enhance the understanding of cultural arts education on sites when analyzing effects and coming up with policy suggestions, and to reflect special group's distinctiveness and developmental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ir life cycle. Result of consultations on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of the life cycle and business and on characteristics of program and business were reflected in the life cycle FGI interview design.

## □ Result

### 1) Literature Review

## ○ Infancy

### Infancy Development

Infancy is the period where many physical, emotional and verbal developments occur. Large and small muscle development allows infants to perform more motor skills and delicate physical activities. Infants cannot take perspective of others due to their self-centered cognitive properties, and they follow their intuition. Infants are able to have superficial thinking through the acquisitions of symbolic thought, and it draws a rapid growth through language development. Also, self-esteem emerges in the self-concept development period, and positive self-concept is developed through positive interactions with parents, teachers, and peers.

Infants grow by constantly moving and playing, and all play, including playing in the playground or the natural environment, and hanging out with their dogs or peers, promote infant development. Unlike newborns, infants' social boundary is expanded to kindergartens, daycare centers, and their range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lso expands to people other than family members who can help to acquire the values and norms of society. Thus, infants achieve well-rounded development through play.

### Effects of Cultural Arts Education in Infancy

Infancy is the period when infants explore and learn the world through interaction with parents, teachers, and peers, along with physical development. Cultural arts education improves the cultural and artistic sensibility and familiarity of infants so that they can learn and enjoy cultural arts. It also helps to improve infants' self-expression and self-regulation abilities and has a significant impact on their creativity and happiness.

## ○ Childhood

### Childhood Development

Childhood enables children to participate in a variety of sports activities through physical development and perform sophisticated and flexible activities such as playing musical instruments. Cognitively, children begin to show gradual divergence from self-centered thinking to distinguishing themselves from others and begin to understand that other people may think differently from them. Children become capable of basic logical thinking and make social comparisons on different people which lead to changes in self-concept. Childhood is also an important time to form a sense of self-efficacy as self-esteem becomes divided and more



harmonized with reality, and as cognitive skills are developed enough to predict one's ability.

Children start to form group consciousness through group life in school, lay the foundation of social life by observing school rules or laws, form the foundation of values, and build a friendship with peers. Unlike infants, time spent with peer group is relatively long, and through friends they gain trust, sense of belonging, intimacy and stability.

#### Effects of Cultural Arts Education in Childhood

Childhood is the period to start school, form self-concepts, self-efficacy, and learn social skills from interactions with teachers and peers. Cultural arts education improves children's sensitivity and familiarity with cultural arts which help them to learn and enjoy cultural art. Besides, it has positive effects on children's self-expression, creativity, happiness, and life satisfaction, and it is also helpful for children's social development such as sociality, adaptation to school life, family relationships, etiquette, and positive conversation manners.

#### ○ Adolescence

##### Adolescence Development

Adolescence is the period of a pubertal growth spurt which marks for becoming more interested in the body and appearance, and more sensitive to other people's reactions to their body. Psychosocially, it is a time when one develops self-identity, gains deepened understanding of self through self-discovery of 'who I am', and incorporates values and outlook of the world. Cognitively, it reaches a peak to achieve intellectual expansion. They become capable of logical thinking about abstract propositions and hypothetical deductive logical thinking. Also, the unique character of the adolescent period is egocentrism. As adolescents have a strong sense of self, they think everyone is highly attentive to their actions and think of themselves as very special beings different from others.

Friends are important in adolescent development. Adolescents spend more time with same-sex friends than their parents. Cognitive developments allow them to demand explanations for inconsistencies in values and rules presented by parents, thus the conflict with parents increase. Adolescents usually get emotional support such as intimacy, help, and bond through friends and such support protects them from having depression and anxiety. Through friendship, they learn to express themselves, understand others, and evaluate one's position in a group.

## Effects of Cultural Arts Education in Adolescence

Adolescence is a period marked by an explosive increase in cognitive ability, deepened self-understanding due to an increase in self-exploration, and receiving emotional support from friends. Cultural arts education enhances cultural and artistic sensibility and familiarity, helps to foster cultural and artistic skills, and to enjoy. In addition, it has helped to enhance creativity, learning ability, self-identity, emotional-sentimental refinement, emotional development, self-control, happiness, fulfillment, self-respect, and self-esteem. It also showed a positive effect on cultivating social skills such as forming positive relationships, introducing positive changes within relationships, enriching and concretizing of communication skills, empathy, social skills, emotional intelligence, and growing from 'I' to 'We'. Finally, it showed effects such as fostering sense of community and realizing community power.

### ○ Early Adulthood

#### Early Adulthood Development

Early adulthood is the healthiest and most energetic period of physical and cognitive development. In this period, mental and physical abilities are at their peak and gradually decline after their early 30s. Cognitive thinking in early adulthood changes from binary thinking, which interprets the truth of the world as an absolute dichotomy, to relative thinking that acknowledges various views and opinions. This allows diversion from formal thinking in adolescence to dialectical thinking to understand contradictions. Also, the integration of ideals and reality, which is an important achievement in cognitive development in adulthood, becomes possible.

During this period, individuals should challenge the developmental task of gaining social identity and exploring to complete the structure of life by securing intimacy and career identity. Therefore, it is time to break away from the fantasy of adolescence and realistically explore for a future career as a part of society. In terms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long with establishing an intimate relationship with a specific partner, young adults in their 20s experience the most peer-to-peer relationships. Through this, they experience adjustment or conflict in school life.

#### Effects of Cultural Arts Education in Early Adulthood

Early Adulthood can cause stress for individuals due to major developmental tasks, such as forming intimacy and job searching for job identity. Cultural arts education programs provided by universities can significantly help in reducing stress, maintaining emotional stability, and adapting to academic and university life.

## ○ Middle Age

### Middle Age Development

Middle age is slightly less healthy than those in their 20s, but still confident in their physical health. They maintain the best bodily functions until their late 30s, but gradually begin to age biologically. This is the time to change from binary thinking to relative thinking, as is the case with early adulthood. This period shows reduced mechanical intelligence compared to that of their 20s, but shows increased practical intelligence.

It is a time to stabilize and settle one's position in family, occupation, and community. Individuals should be in charge of the upbringing of young children and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interests at home, while in a professional society, it is time to develop a stable career beyond the early stages of their careers. Therefore, middle age individuals bear a heavy burden of accomplishing developmental tasks. Personal stress can occur due to an overload of tasks and conflicts in roles at home and work. Raising children leads to a gradual decrease in marital satisfaction.

### Effects of Cultural Arts Education in Middle Age

After marriage, adults experience various role-stresses and role-conflicts from raising children, employment, and career development in a professional society. Cultural arts education shows that the more satisfied by the experience, the better in terms of their emotional stability and self-efficacy. The role of adults as parents is also important in this period as it is a major developmental task of middle age adults. Cultural arts education has a significant impact on parents' psychological maturity which is much needed to raise their children.

## ○ Late Adulthood

### Late Adulthood Development

Late Adulthood is the time when physical and cognitive abilities begin to decline. However, intelligence adaptable to an individual's real life, such as practical intelligence, can be maintained or even be increased. In this period, individuals experience a mid-life crisis in which they acknowledge that they are no longer young, see their goals of life so far, and change their life direction to find meaning in life. However, whether this will be a mid-life crisis or a 'new start' in middle age depends on the individual's environment and resources. Middle-aged couples reach the lowest level of marital satisfaction at this period due to raising adolescents and experiencing their adult children's independence. However, after their adult children's independence, the level of marital satisfaction begins to increase.

## Effects of Cultural Arts Education in Late Adulthood

Couples who raise adolescent children in their late adulthood have extremely low level of marital satisfaction. Participating in cultural arts education together improves their level of empathy and the quality of their relationship. Middle age is a period when productivity is expanded to societal level, and so the value and effect of cultural arts education also expands to societal level. While cultural arts education improves individual's cultural and social capital, it also enables individuals to form personal relationships, not occupational relationships, and increase communication with them. Also, it helps to foster a greater sense of community, such as regional regeneration and restoration of community spirit.

### ○ Senescence

#### Senescence Development

In the senescence period, physical functions generally decline, resulting in weakening of the brain, respiratory system, sensory system, self-control, and reflective capacity. Therefore, intense movements and highly delicate activities are not appropriate. Memory loss is common, but cognitive skills are maintained depending on the efforts made and sometimes it is possible to be enhanced. Activities that utilize cognitive skills such as crafts and music can help one's cognitive maintenance. The ability to concentrate and retrieve memory decreases but knowledge of meanings or procedural knowledge does not. Individuals can play a good advisory role through deep understanding of life and wisdom from their rich experience.

In the senescence period, the overall extent of social relations tends to narrow down due to retirement, the death of an acquaintance, and the reduction of such social networks, which can lead to psychological and emotional contractions. The most important relationships for the elderly in our country are spouse, children, and friends. Separation or divorce with a spouse and conflict with the children are the main stressors in this period. Maintaining and expanding the social network through regular contacts, visits, sharing hobbies and conversations play a key role in maintaining the physical and mental health and in re-establishing the meaning in life.

#### Effects of Cultural Arts Education in Senescence

Through cultural arts education in senescence, we can expect the effects of preserving cognitive abilities, maintaining and expanding social networks, relieving stress, restoring vitality in life, recovering self-esteem, and having an interest in social participation. Such results lead to physical and mental health, life satisfaction, and successful aging.

## 2) Quantitative Study

To investigate the effectiveness of cultural art education, pre- and post-survey were conducted to participants. A paired t-test was carried out to a group that completed both pre- and post-surveys and an independent t-test was carried out to an entire group that completed the survey.

The result of the paired t-test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ncrease in the average value of the core and special indicators in each of the life cycles. The core indicator in infancy, which is the cultural and artistic sensibility, increased. The core indicators in childhood, which are the cultural and artistic sensibility and familiarity, increased. The core indicator in early adulthood, which is the cultural and artistic sensibility, and special indicators, which are the sense of happiness and self-expression ability, increased. The core indicators in middle age, which are the cultural and artistic sensibility and familiarity, and special indicators, which are the ability of self-expression, communication, and self-esteem, increased. The core indicators in late adulthood, which are the cultural and artistic sensibility, cultural capacity, creativity, self-control, increased. The core indicator in early senescence, which is the cultural and artistic sensibility, increased. The core indicator in late senescence, which is the cultural and artistic sensibility, and special indicators, which are empathic ability, happiness, cultural capacity, self-expression ability, increased. In adolescence, there was no significant effect on the core and special indicators.

The result of the independent t-test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increase in the average value of the core and special indicators in each of the life cycles. The special indicator in infancy, which is the self-esteem, increased. The core indicator in childhood, which is the cultural and artistic sensibility, increased. The core indicator in middle age, which is the cultural and artistic sensibility, and special indicators, which are the empathic ability, self-expression ability, communication ability, cultural capacity, and creativity, increased. The core indicators in late adulthood, which are the cultural and artistic sensibility and familiarity, and special indicators, which are cultural capacity, creativity, self-control, increased. The core indicator in early senescence, which is the cultural and artistic sensibility, and special indicators, which are creativity, self-expression ability, and problem solving capability, increased. The core indicator in late senescence, which is the cultural and artistic sensibility, and special indicators, which are empathic ability, happiness, communication ability, intimacy, self-esteem, cultural capacity, creativity, and self-expression ability, increased. Adolescence and early adulthood did not show a significant effect on the core and special indicators.

The result of the paired t-test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ncrease in the average

value of the core and special indicators in each of the business. The core indicators in the Infant Cultural Arts Education business, which is the cultural and artistic sensibility and familiarity, increased. The core indicator in the Seed School business, which is the cultural and artistic sensibility, and special indicator, which is problem solving ability, increased. The core indicator in the senior welfare business, which is the cultural and artistic sensibility, and special indicators, which are the empathic ability, sense of happiness, cultural capacity, and problem solving ability, increased. The special indicator for the cooperation between ministries and projects to support cultural arts education (Cultural arts education for workers) business, which is creativity, increased. The core indicator for the regional characterization business, which is the cultural and artistic sensibility, and special indicators, which are creativity, self-expression, communication, self-control, increased. The special indicators in the Toyo business, which are the empathic ability, sense of happiness, self-esteem, increased. The core indicator for the life-changing cultural arts education business, which is the cultural and artistic sensibility, and special indicators, which are the cultural capacity, creativity, self-expression, increased. The core indicator for the cultural arts education for office workers business, which is the cultural and artistic sensibility, and special indicators, which are the creativity, self-control, increased. There was no significant effect on the core and special indicators for the Dream Orchestra business and the child welfare facilities.

The result of the independent t-test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increase in the average value of the core and special indicators in each of the business. The core indicators in the Infant Cultural Arts Education business, which is the cultural and artistic sensibility and familiarity, and the special indicators, which are cultural capacity, self-esteem, increased. The core indicator in the Seed School business, which is the cultural and artistic sensibility, increased. The core indicator in the senior welfare business, which is the cultural and artistic sensibility, and special indicators, which are the empathic ability, sense of happiness, cultural capacity, creativity, self-expression, problem solving ability, intimacy, self-esteem, and self-control, increased. The core indicator for the cooperation between ministries and projects to support cultural arts education (Cultural arts education for workers) business, which is the cultural and artistic sensibility, and for the special indicator, which is self-expression, increased. The core indicators for the regional characterization business, which are the cultural and artistic sensibility and familiarity, and special indicators, which are cultural capacity, creativity, self-expression, problem solving ability, increased. The special indicator in the Toyo business, which is the empathic ability, increased. The core indicators for the life-changing cultural arts education business, which are the cultural and artistic sensibility and familiarity, increased. There was no significant effect on the core and

special indicators for the Dream Orchestra business and the child welfare facilities.

### 3) Qualitative Research

#### ○ Effects of Cultural Art Education in Life Cycle

Through qualitative research, different effects of cultural arts education were discovered by the stages in the life cycle. Specifically, the work-life balance in the early adulthood, improved understanding of children in the middle age, and the positive attitude toward life and self-transcendence in the late adulthood were consistent with the developmental characteristics of each life cycle.

Unlike adults, infants, children and teenagers who have participated in cultural arts education regardless of their own will, showed negative emotions such as boredom. Also, the socio-environmental effects on children participants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art instructors and institutions, such as whether the content of education programs deals with the community.

Work-life balance improvement was only found in early adulthood groups. This appears to be due to their desire for work-life balance. Besides, there was a self-transcendence effect at the relational level and desire to communicate with others through cultural art at the social and environmental level, which was related to the characteristics of cultural arts education which emphasizes on collaborative work.

In middle age groups, there was a significant relational effect on the family including children and local residents. They experience positive emotions, understand their children from the perspective of students, and have more motivation for a positive interaction with their children (families). Additionally, they were able to form a very close relationship with local residents and their family members. Such effects are common to middle age participants regardless of the nature of the institution or business.

Participants in late adulthood experienced the biggest change through cultural art education. Changes described with a keyword ‘Self’ as in self-discovery, self-understanding, and self-exploration were the most shared report. They said their changes were because of other ‘good participants.’ Interacting with other supportive and accepting participants deepened the scope of self-understanding and showed effects such as other-acceptance, and self-transcendence. It leads to positive attitude towards life, such as transcendent gratitude, the meaning in life, an affirmation of life and self-acceptance. Based on these experiences, they showed a desire to communicate with others at a social level through cultural arts.

Senile participants showed the most positive emotional experience such as pleasure, vitality, and passion. In particular, they were different from other life cycles in that they experienced the joy of learning and were gracious of having opportunities to participate in cultural and artistic activities that they wanted to try but couldn't because they didn't have a chance.

The effects of cultural arts education not only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life cycles and tasks that come along, but also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s and institutions of cultural arts education, as well as the characteristics of cultural arts education business. Therefore,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degree and aspects of cultural arts education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business, institution, and individual.

Qualitative research has found new effects that were not included in quantitative indicators. Children and adult participants showed a mature appreciation of culture and arts. For adults, the maturity of this sentiment and attitude leads to a desire to communicate with local residents or unspecified individuals through cultural arts. In addition, self-efficacy, self-discovery, diversity of emotional experiences, exploring the outside world, expanding social relationships, motivation for positive interaction, and fostering sense of community were found.

The effects of cultural arts education revealed that not only they are reflecting the participant's life cycle but also reflecting business, institutional, and individual characteristics. For example, when cooperation is needed, the effects on relational, social, and cultural levels were prominent, but the effects of the individual level such as healing and self-efficacy, were noticeable when individual work was mainly done. In addition, even if cooperation is needed, when cultural and artistic skills such as instrument practice were emphasized, cultural and artistic sensibility and appreciation of cultural arts were noticeable.

There were indicators that the interviewee actually found meaningful. The infant group chose that positive emotion such as joy and freedom, and maturity of self-expression as meaningful and important changes. The children group chose that cooperative skills and intimacy as meaningful and important changes. The adolescent group mentioned stress relief and early adulthood group mentioned self-discovery through cultural arts, the desire to communicate, and stress relief as meaningful and important changes. The middle age group mentioned self-discovery, expanding and bonding with local residents, and enhancing the understanding of children. The late adulthood group emphasized relational aspects. Also, there were a lot of 'self' references, such as self-discovery and self-understanding. The senescence group mainly mentioned pleasure as meaningful and important change.



The way these indicators are experienced varies with the life cycle. For example, infants move through play, radiate energy, and feel happiness, joy, and freedom, but in the case of adults in late adulthood, they experience happiness in which they discover themselves and become positive as the connection with others expands and deepens. Differences in these experiences captured by qualitative studies may not be captured in quantitative studies.

#### ○ Factors that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Cultural Art Education

Through qualitative research, we have found common and discriminatory factors throughout the life cycle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cultural arts education (see Table-1).

#### □ Discussion and Suggestion

This study compared and analyzed the effects of cultural arts education by life cycle and business. The effectiveness of cultural arts education by business may vary depending on the life cycle characteristics and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Therefore, the discussion will focus on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effects of cultural arts education by the life cycle.

The literature review showed that infants, children, and adolescents experience improvements on cultural and artistic abilities, improvements on cognitive abilities such as creativity and self-expression, and effects on emotions such as happiness through cultural arts education. However, infant, child and adolescent participants did not show a significant result in special indicators in 2019, compared to 2018 when both core and special indicators showed significant effects. Adolescence, in particular, did not show a significant result even on core indicators.

However, the qualitative analysis revealed improvements in all areas including cultural and artistic abilities, cognitive abilities such as concentration and creativity, and emotional abilities such as self-expression and self-regulation. Other results from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studies indicate that the self-reporting survey used in quantitative studies may be inappropriate considering the immature cognitive abilities of non-adult participants. In the interview, parents and instructors reported positive changes due to cultural arts education rather than participants in non-adult stages of life.

There was a difference in significant effect indicators in adulthood for 2018 and 2019 as well. The literature review study showed that people experience improvements in cultural and artistic abilities, cognitive abilities, and emotional abilities by participating in cultural arts education during the adulthood. Also, the quality of relationships improved as well. In 2019, significant indicators were different in early adulthood, middle age, and late adulthood. In particular, significant effects were shown in some special and non-special indicators in the middle age group.

〈Table-1〉 Environments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Cultrual Arts Education

	An environment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Environment
Commonality	An environment in which one can express oneself freely and joyfully	Accepting and supportive instructors and institutions
Infancy	Free and safe play environment	Collaboration of institutions, instructors, and parents Enough number of instructors and teachers
Childhood	An environment in which one can express oneself freely and joyfully	Art instructor who is receptive and supportive Smooth communication between art instructor and institution Enough number of instructors and teachers
	An environment in which cultural and artistic abilities are developed	
Adolescence	An environment free from judgment	Time to adapt to 'non-judgment' Smooth communication between art instructor and institution
Early Adulthood	An environment free from judgment	Time to adapt to 'non-judgment' Providing a place for communication based on culture
	An environment where cultural activities can be carried out within or across regions	
	An environment free from burden of relationships to solely focus on myself	
Middle Age	An environment in which one can express oneself freely	Support from instructors and family members Providing a place for communication based on culture
	An environment where cultural activities can be carried out within or across regions	
Late Adulthood	Free, supportive, and warm environment	An art instructor who can bring out one's narrative through cultural arts Supportive participants
Senescence	An environment where only cultural and artistic activities can be enjoyed	An instructor who can resolve conflicts among participants Smooth communication between art instructor and institution

**In qualitative analysis, special indicators such as self-expression and intimacy, which**

were not found in quantitative indicators, showed significant effects. Additionally, new effects such as extensive understanding of oneself and self-realization that have not been found in the existing literature and quantitative research were found. Effects such as work-life balance (Early Adulthood) and enhancement of understanding of children (Middle Age) suggest that each stage has its own cultural and artistic educational effects that cannot be found by quantitative research.

Adults were found to have a relatively longer period of participating in cultural arts education compared to infants, children, and teenagers, and had different effects of cultural arts education depending on the period. For example, the cultural and artistic sensitivities of the early adulthood showed lower for groups with less than one to three years of experience compared to those with less than one year, and those with less than three to five years of experience showed higher than those with less than one year of experience. The effects of cultural arts did not improve proportionally with time rather groups with some experience had lower effectiveness indicators than groups with relatively little or a lot of experience.

It is difficult to interpret differences in education periods with quantitative analysis. This can be inferred from the qualitative interview analysis. According to the interview analysis, participants who participated in cultural arts education for a relatively long period of time showed in common that they had a strong desire for proficiency in culture and art. It is irrational to interpret this as a difference by a period in this study, but it is important to bear in mind that a qualitative change in desire is possible. For example, a prolonged period of cultural arts education may lead to a renewed desire for mastery, and if these needs are not met, satisfaction may decrease. However, if the desire for mastery is satisfied by continuing to participate in cultural art education, satisfaction level may be higher than before. This can be confirmed through a later longitudinal study and qualitative research.

Since neither quantitative nor qualitative research has studied the trend of change by a period of the same group, it is only possible to infer the effects of each period based on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results. Both longitudinal and qualitative studies may be necessary to change the effectiveness of cultural arts education according to the period of participation in the future.

In terms of quantitative indicators, the effect of cultural arts education for seniors has shown a significant result different from the special indicators of 2018 such as cultural arts sensitivity, euphoria, and problem-solving ability, when verifying paired t-test results. The literature review reveals that participants in this period are generally restricted by reduced cognitive skills and reduced social relationships. Therefore, positive improvement in quantitative indicators such as

increased problem-solving ability due to cultural arts education suggests that significant effects of cultural art education on the cognitive ability of the elderly can be confirmed once again.

In the qualitative interview, elderly participants have shown a greater appetite for cultural and artistic activities and learning compared to other life stages. They met their needs for activities and learning by participating in cultural arts education, and their satisfaction was great in this regard. Because seniors participate in the program with self-directed manner and it can be far different from participating by the recommendation of other family members. It suggests that participation in cultural arts education by senior participants themselves may help their positive sentiments and well-being.

Furthermore, cultural arts education enhanced the ability of elderly participants to expand their social relations such as communication skills and cooperative skills. Also, the effect of fostering a sense of community can be assumed that cultural art education can play a role to some extent in the crisis such as the reduction of social relationships experienced by elderly participants at this stage of their lives.

Analyzing the impact of cultural arts education on participants may be more appropriate by observing changes from a longitudinal study than observing the short-term effect indicated by a pre-post difference study. The quantitative indicators analysis by a period showed differences in the effectiveness of each life cycle, and these differences in effectiveness of cultural arts education led to suggestions on the need for longitudinal design panel research reflecting life cycle and business characteristics.

In addition to quantitative research, continuous qualitative research is recommended to understand and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cultural arts education. Qualitative research helps to identify detailed program progress and differences in the effectiveness cultural arts education according to individuals, institutions, and life cycle.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combine qualitative research along with quantitative research in that it can provide detailed information on the effects of cultural arts education through continuous accumulation of qualitative data and qualitative analysis of the trend.

<Table-2> A Comprehensive Result (Effects of Cultural Arts Education)

Life Cycle	Effectiveness*
Infancy	<p><b>Literature Review</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ersonal Dimension: cultural arts sensibility and familiarity, creativity, imagination, self-expression, self-control, cultural acceptance, empathic ability, happiness</li> </ul> <p><b>Quantitative Study</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ersonal Dimension: cultural arts sensibility, self-esteem(*)</li> </ul> <p><b>Qualitative Study</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ersonal Dimension: cultural arts sensibility and familiarity, creativity, imagination, curiosity, self-control, maturation of self-expression, self-esteem, intimacy, positive emotion, cooperation, communication, self-efficacy(*), concentration(*), exploration of outside world(*), emotional stability(*)</li> </ul>
Childhood	<p><b>Literature Review</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ersonal Dimension: cultural arts sensibility and familiarity, creativity, self-expression, sociality, school adaptation, happiness, intimacy, life satisfaction</li> <li>□ Relational Dimension: cooperation, improvement in family relationships, acquisition of etiquette and positive conversation method</li> </ul> <p><b>Quantitative Study</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ersonal Dimension: cultural arts sensibility and familiarity</li> </ul> <p><b>Qualitative Study</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ersonal Dimension: cultural arts sensibility and familiarity, creativity, curiosity, self-control, a mature appreciation of culture and arts(*), self-efficacy(*), concentration(*), self-discovery(*), exploration of outside world(*), maturation of self-expression(*), positive emotion(*), emotional stability(*)</li> <li>□ Relational Dimension: connectedness, intimacy, communication(*), peer relationship(*), opportunity for positive interaction(*), cooperation(*)</li> <li>□ Social Dimension: love for neighborhood(*), cultural arts activity within community(*)</li> </ul>
Adolescence	<p><b>Literature Review</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ersonal Dimension: cultural arts sensibility and familiarity, creativity, self-control, learning ability, happiness, self-esteem, empathic ability, emotional development, emotional-sentimental refinement, enrichment and materialization of emotional expression, sense of accomplishment</li> <li>□ Social Dimension: growth from 'I' to 'We', realization of power of community</li> </ul> <p><b>Qualitative Study</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ersonal Dimension: cultural arts sensibility and familiarity, maturation of self-expression, self-efficacy(*), concentration(*), ability to read(*), self-discovery(*), exploration of outside world(*), positive emotion(*), emotional stability(*)</li> <li>□ Relational Dimension: sociality, improvement in communication, formation of positive relationship, opportunity for positive interaction(*)</li> <li>□ Social Dimension: cultural arts activity within community(*)</li> </ul>
Early adulthood	<p><b>Literature Review</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ersonal Dimension: cultural arts sensibility and familiarity, self-expression, adaptation to university life, happiness, improvement of self-esteem, stress relief related to interpersonal relationship, emotional stability</li> <li>□ Relational Dimension: acquisition of social skills required to solve interpersonal problems</li> </ul> <p><b>Quantitative Study</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ersonal Dimension: cultural arts sensibility, self-expression, happiness</li> </ul> <p><b>Qualitative Study</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ersonal Dimension: cultural arts sensibility and familiarity, creativity, self-control, maturation of self-expression, self-esteem</li> <li>□ Relational Dimension: cooperation, communication</li> </ul>

Life Cycle		Effectiveness*
Ad ult ho od	Mi dd le Ag e	<b>Literature Review</b> <input type="checkbox"/> Personal Dimension: aesthetic sensibility, self-efficacy, self-expression, positive thinking, happiness, self-esteem, emotional stability <input type="checkbox"/> Relational Dimension: psychological maturation needed for children rearing <b>Quantitative Study</b> <input type="checkbox"/> Personal Dimension: cultural arts sensibility, self-expression, self-esteem, cultural arts familiarity(*), cultural acceptance(*), creativity(*) <input type="checkbox"/> Relational Dimension: communicaiton(*), empathic ability(*) <b>Qualitative Study</b> <input type="checkbox"/> Personal Dimension: cultural arts sensibility and familiarity, curiosity, maturation of self-expression, intimacy, mature appreciation of culture and arts(*), self-efficacy(*), self-realization(*), exploration and understanding of outside world(*), positive emotion(*), emotional stability(*) <input type="checkbox"/> Relational Dimension: expansion of peer relationship(*), opportunity for positive interaction(*), improvements in understanding of children(*) <input type="checkbox"/> Social Dimension: positive perception and pride of community(*), adaptation to community(*), communication with residents and others(*)
	Lat e Ad ult ho od	<b>Literature Review</b> <input type="checkbox"/> Personal Dimension: knowledge and experience of cultural arts, self-expression, communication, empathic ability, happiness, self-esteem <input type="checkbox"/> Relational Dimension: improvement of marital empathy and marital relationship quality, expansion of scope and communication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input type="checkbox"/> Social Dimension: recovery of community <b>Quantitative Study</b> <input type="checkbox"/> Personal Dimension: cultural arts sensibility, cultural arts familiarity(*), cultural acceptance(*), creativity(*), self-control(*) <b>Qualitative Study</b> <input type="checkbox"/> Personal Dimension: cultural arts sensibility and familiarity, self-esteem, self-control, maturation of self-expression, mature appreciation of culture and arts(*), self-efficacy(*), concentration(*), self-understanding(*), self-discovery(*), self-exploration(*), exploration and understanding of outside world(*), positive emotion(*), emotional stability(*), transcendental gratitude(*), discovery of meaning in life(*), positive attitude toward life(*), self-acceptance(*) <input type="checkbox"/> Relational Dimension: showing empathy to others, forming relationship with participants(*), opportunity for positive interaction(*), social support(*), open 'us'(*), receptive attitude(*), a sense of creation(*) <input type="checkbox"/> Social Dimension: appreciation to institution(*), communication with others(*)
Senes cence		<b>Literature Review</b> <input type="checkbox"/> Personal Dimension: improvement in cultural arts sensibility and familiarity, fulfillment of desire to learn, happiness, intimacy, self-esteem, relief of stress and negative emotions, improvement on life satisfaction, healing through communication and empathy <input type="checkbox"/> Social Dimension: formation of creative community, interest in social participation <b>Quantitative Study</b> <input type="checkbox"/> Personal Dimension: cultural arts sensibility, happiness, intimacy, self-esteem, cultural acceptance(*), self-expression(*), creativity(*), problem solving(*) <input type="checkbox"/> Relational Dimension: empathic ability, communication(*) <b>Qualitative Study</b> <input type="checkbox"/> Personal Dimension: cultural arts sensibility and familiarity, curiosity, maturation of self-expression, self-efficacy(*), concentration(*), exploration and understanding of outside world(*), positive emotion(*) <input type="checkbox"/> Relational Dimension: empathic ability, communication, forming relationship with participants(*), opportunity for positive interaction(*), cooperation(*) <input type="checkbox"/> Social Dimension: cultural arts activity within community(*)

※ The new effects discovered in this study were indicated as (\*).

※ The effects of quantitative research are presented using the indicators used in the survey.

---

# I. 연구개요

---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방법





---

# I. 연구개요

---

##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조에 따르면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 문화재를 교육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교육”으로, 정부는 모든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창조력 함양을 위해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이러한 노력은 문화예술이 갖는 효과를 검증하고 확대함으로써 그 결실을 맺을 수 있음.
- 이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노력의 일환으로 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의 효과지표를 체계화하고,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18~2022)」에 따라 생애주기별·사업별 교육 효과를 분석(2018)하여 대상자의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문화예술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함.
- 교육 대상자의 생애주기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2018년도에 이어 2019년 문화예술교육의 생애주기별·사업별 효과를 개인적, 관계적, 사회·환경적 차원으로 나누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의 효과를 파악하고, 이를 전해 년도 교육 효과와 비교하여 종단적으로 효과의 변화양상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분석은 현재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문화예술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 데 필수적인 과정임.
- 교육의 효과는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음. 특히 유아기, 아동·청소년기, 청장년기, 중년기, 노년기와 같이 발달과정에 따라 공통적인 심리특성이 나타날 수 있음. 따라서 생애주기에 따른 교육효과를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할 경우 집단유형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개발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음.
- 교육의 효과는 교육환경의 영향에 따라 변화할 수 있음. 따라서 효과적인 교육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교육 효과를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 요인을 차원별로 파악하고 그러한 요인을 감소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여기에는 특히 정책적 차원에서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반영되어 있어야 할 것임.
- 본 연구는 문화예술교육 효과 및 효과를 증대시키는 요인을 분석하고, 문화예술교육 효과가 보이는 변화양상을 파악함으로써, 생애주기별·사업별 특성을 반영하는 효과적인 교

육을 제공할 수 있는 차별화된 방안을 도출하고, 이러한 방안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목적으로 함.

□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음

- 2019년 실시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사업별 문화예술교육 효과를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을 하되 개인적, 관계적, 사회·환경적 차원에서 분석함.
-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각 생애주기별 특징과 사업별 특징에 대해 분석하고 효과성을 증대시키는 요인에 대해 분석함.
- 2018년 문화예술교육 효과와 2019 문화예술교육 효과를 비교하여 변화양상 분석함.
- 문화예술교육의 생애주기별·사업별 특성을 반영하는 효과적 교육내용 및 환경 마련을 위하여 향후 필요한 연구 및 정책에 대하여 제언함.

## 2. 연구방법

□ 본 연구는 앞서 언급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2019년 4월부터 12월까지 총 8개월 동안 진행이 되었음. 구체적으로, 연구는 크게 문헌 조사, 양적 조사, 질적 조사, 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필요에 따라 연구진 회의 진행하였음.

□ 양적 측정도구는 “2017 문화예술교육 효과 세부지표 구축 및 조사 연구”를 통해 개발된 문화예술교육 핵심 지표 2개, 특수 지표 10개 총 36문항을 사용하였음. 질적 조사는 문헌 고찰, 전문가 자문, 그리고 기관별 프로그램 참가자 및 그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초점 집단 인터뷰(FGI)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음. 또한 2018년 문화예술교육 효과 분석 연구와 2019년 문화예술교육 효과 분석 연구 자료를 비교 분석하여 18년과 19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변화를 분석하였음.

### 2.1. 문헌연구

□ 생애주기별 발달 특성에 대한 국내외 관련 이론 문헌을 고찰함. 이러한 고찰은 생애주기

별사업별 문화예술교육 참가자의 발달 특성에 따른 효과 분석 이해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다.

- 생애주기별사업별 문화예술교육 효과에 대한 국내외 관련 정책보고서 및 연구물을 고찰함(『2018 문화예술교육 효과분석 연구』 포함). 이러한 고찰은 생애주기별사업별 문화예술교육 현황 및 효과를 파악하고 차별화된 효과 분석 연구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다.
- 문헌 고찰의 결과 발달 특성에 따른 생애주기별 교육효과와 사업별 교육효과의 차이를 규명하고, 이를 설명할 수 있는 학술적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향후 체계적으로 양적 조사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예술교육의 효과에 대한 이론적 혹은 개념적 틀을 마련하고, 이것을 2019 문화예술교육 효과분석 연구의 양적 조사 설계 및 질적 결과를 분석하는 데 활용.

## 2.2. 양적 연구

- 2019년도 실시되는 문화예술교육의 생애주기별사업별 효과분석을 위해 2017년 개발된 문화예술교육 핵심지표(문화예술감수성, 문화예술친숙성) 및 특수지표(공감능력, 행복감, 문화수용력, 창의성, 자기표현력, 문제해결력, 소통능력, 친밀감, 자아존중감, 자기조절력) 36문항을 사용.
  - 문화예술교육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특수지표의 선택적 적용을 위해서는 생애주기별, 사업별로 적용 가능한 특수지표를 확정하는 과정이 필요함(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화예술교육 참여자들의 생애주기별, 사업별 특수지표의 변화에 대한 자료를 추적하는 의미로 모든 특수지표를 사용함.
- 2019 문화예술교육 참여자 또는 참여자의 보호자(유아 및 아동 대상 교육의 경우)를 대상으로 사전-사후 총 1,969명(사전: 1,541명, 사후: 1,158명)의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였음.
  - ※ 사전조사의 경우 교육 시작일로부터 3주 이내, 사후 조사의 경우 교육 종료일로부터 2주 이내에 실시

- 각 기관과 규모를 고려하여 층위표집방식을 사용하였으며, 우편을 통해 설문조사 진행함.  
노인의 경우 필요 시 1:1 설문조사 진행하였음.
- 유아 및 아동(특히, 초등 저학년)의 경우 설문조사 응답에 한계가 있으므로 참여자의 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진행
-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에게 프로그램 시작 전과 시작 후에 각각 설문조사에 참여하도록 하여 참여 전 문화예술교육 효과와 참여 후 문화예술교육 효과 수준을 비교하고자 하였음.
- 2018년 문화예술교육 효과 분석 연구는 사후 시점에서 참가자들로 하여금 교육 전과 교육 후를 비교 보고하도록 함. 그러나 이는 참가자의 문화예술교육 효과에 대한 주관적 판단이 개입된 자기보고식 응답이기 때문에 보다 객관적으로 문화예술교육 효과를 변별하기 위하여 사전, 사후 조사 시점을 나누어 조사할 것을 제안하였음(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8),
- 생애주기별사업별 문화예술교육 효과를 사전·사후 비교함으로써 각 발달주기별로 독특한 문화예술교육 효과 지표와 사업 별 독특한 문화예술교육 효과 지표에 대해 파악하고, 문헌 조사 및 질적 조사 결과와 같이 해석하여 생애주기별사업별 문화예술교육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을 규명하는 데 활용.

## 2.3. 질적 연구

- 질적 연구는 양적 연구를 통해 밝히기 어려운 문화예술교육의 특성 및 효과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교육 효과를 증대시키는 요인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각 생애주기별 사업별 문화예술교육의 효과를 심도 깊게 이해하기 위해 1:1 면접 및 초점집단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함. 질적 조사를 통해 양적 지표의 타당도를 보완하고, 생애주기별사업별 문화예술교육 특성 및 효과를 구체적, 심층적으로 이해(개인적, 관계적, 사회적·환경적 효과)
- 연구 대상 및 일정
  - 일정: 2019년 7월 말 ~ 12월 초(문화예술교육 종료 2주 전~종료 2주 후)

〈표 1-1〉 생애주기별, 사업별 FGI 구성표

팀명	아동청소년교육팀			교육나눔팀			시민교육팀		교육 R&D팀	총계
사업명	유아 문화 예술 교육	예술꽃 씨앗 학교	꿈의 오케 스트라	아동 복지 시설	노인 복지 시설	부처간 협력 문화 예술 교육 (근로자 문화예술 교육)	지역 특성화	꿈다락 토요 문화 학교	생애 전환 문화 예술	
유아기 (0~5세)	1팀 2명									1팀 2명
아동기 (6~12세)		1팀 5명	1팀 9명	2팀*** 4명				2팀* 7명		6팀 25명
청소년기 (13~19세)				1팀*** 2명				1팀 5명		2팀 7명
청년기 (20~29세)						2팀** 4명	1팀 6명			3팀 10명
장년기 (30~49세)							1팀 4명	1팀* 6명		2팀 10명
중년기 (50~63세)						1팀** 3명			2팀 16명	3팀 19명
노인기 (65세~)					1팀 2명		1팀 5명			2팀 7명
계	1팀 2명	1팀 5명	1팀 9명	3팀 6명	1팀 2명	3팀 7명	3팀 15명	3팀 12명	2팀 16명	16팀 73명

※ \*, \*\*, \*\*\* 표시된 기관은 중복됨

□ 대상: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참여자, 교육 운영 강사 및 담당자, 참여자 부모(아동참여자의 경우)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총 16개 기관에서 73명이 인터뷰에 참여함.

- 자문위원의 자문을 통해 문화예술교육 참여자의 변화를 가장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교육 운영 강사 및 담당자를 인터뷰 대상자에 포함.

□ 주요 내용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참여 동기와 만족도: 참여자를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참

여 동기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및 개선점에 대하여 질문함.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참여 동기는 참여하게 된 계기, 참여 전 기대했던 점, 이전 문화예술(교육) 경험에 대하여 인터뷰함.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및 개선점에는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및 그 이유, 구체적 프로그램 중 만족도가 높았던 프로그램 내용과 그 이유, 개선점에 대하여 질문함.
- 운영 강사 및 담당자는 프로그램 내용 중 강사가 진행하기에 보람 있거나 좋았던 경험, 각 프로그램의 장점 및 단점, 진행 시 어려웠던 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도움이 됐던 점이나 향후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질문함.
- 참여자는 프로그램 참여 후 생긴 변화에 대하여 개인 차원, 가족 및 교우 관계 등 대인관계, 직장 내 변화, 워라벨 등에 대하여 구체적 응답 요청함. 또한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참여 전에 힘들었던 부분(생활습관, 문제행동 등)에 대한 변화 발생 유무, 예상했던 혹은 하지 못했던 변화 유무, 프로그램 참여 후 나타난 부정적 변화와 각 변화에 대한 이유에 대해 인터뷰함.
- 운영 강사 및 담당자는 프로그램 참여 과정 또는 참여 후 강사 및 담당자가 관찰한 참여자에게 생긴 변화에 대하여 개인 차원, 작품의 변화, 프로그램 내에서의 활동 및 대인관계 변화 측면에서 인터뷰함.

#### □ 분석 절차

-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하여 약 15분~1시간 30분 정도 진행된 인터뷰 내용을 전사함. 전사된 녹취록은 MAXQDA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문화예술교육 효과와 효과성 증대요인을 코딩하였으며, 그 결과 총 1,174개의 코드가 생성됨.
- 연구진의 논의를 거쳐 각 코드를 범주화하고 재분류하여 생애주기별로 개인적, 관계적, 사회·환경적 문화예술교육의 효과 및 효과성 증대요인을 파악.

#### □ 결과 활용

- 문화예술교육 사업 참여자가 밝히는 참여에 구체적 동기와 프로그램의 만족도 및 이유는 향후 문화예술교육 사업의 전반적 목표 및 구체적 운영 지침에 반영하여 참여자의 문화예술교육 효과 및 만족도를 더욱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또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생애주기별 사업별 미치는 효과를 질적 분석함으로써 향후

생애주기별직업별 특성을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효과적인 문화예술교육 내용 및 환경 마련하고자 함.

- 기존 양적 효과지표를 통해서 검증되지 않았던 문화예술교육의 효과 검증의 한계를 보완하고 보다 다차원적으로 문화예술교육 효과를 측정하는 질적 평가도구에 대해 제안하고자 함.

## 2.4. 전문가 자문회의

- 효과분석 및 정책제안에 있어 문화예술교육 현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특수집단의 특성 및 생애주기에 따른 발달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위원을 섭외하여 전문가 자문회의 실시.
- 문화예술교육 전문가로 국내 문화예술교육 효과 연구 분야에서 다년 간 연구 경력을 소유한 자문위원을 섭외한 후 1회 서면으로 전문가 자문회의 진행하였음.

〈표 1-2〉 전문가 자문위원

이름	소속	직함
정문성	경인교육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 □ 주요 자문 내용

- 전문가 자문위원의 현장 경험 및 문화예술교육 효과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문화예술교육 참여자들의 생애주기별직업별 특성을 자문하였음.
- 전문가 자문위원의 현장 경험 및 문화예술교육 효과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별직업별 특성을 자문하였음.
-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하여 문화예술교육 생애주기별 FGI 인터뷰 문항 및 전반적 설계의 타당성과 보완사항에 대하여 자문하였음.

## 2.5. 연구진 회의

### □ 정례회의

- 연구진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으로 구성된 정례회의를 운영함. 연구과정 및 전반적 추진상황에 대해 필요할 때마다 전화 또는 대면 회의로 진행.

### □ 수시회의

- 연구진들로 구성된 수시회의를 통해 연구 과정 및 추진 방향을 협의하고 성과 공유.

### □ 결과 활용

- 당초 연구계획 대비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연구과제의 원활한 관리와 목표 달성을 위해 활용.



---

## Ⅱ. 주요 결과

---

1. 문헌연구
2. 양적 연구
3. 질적 연구



---

## Ⅱ. 주요 결과

---

### 1. 문헌연구

#### 1.1. 유아기

##### 1.1.1. 유아기의 발달

###### □ 신체발달

- 유아기는 대근육 발달과 소근육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임. 대근육 발달로 근육과 뼈가 단단해지고 폐 기능이 발달하여 달리기, 높이뛰기 등을 할 수 있게 됨. 이와 더불어 지각과 근육의 협응 능력이 발달하여 가위질, 그림 그리기 같은 정교하고 세밀한 활동이 가능해지고, 소근육 발달이 급격히 이루어짐. 유아기 초기(2~3세)에는 수저를 사용하고 옷을 입고 벗는 수준에서 5~6세가 되면 신발 끈을 묶을 수 있고, 사람을 더 정교하게 그릴 수 있음.
- 유아는 크레파스, 연필, 블록 장난감, 찰흙 놀이 등을 하면서 소근육 운동기술과 그림 표현력을 발달시킴. 이러한 발달을 촉진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Kellogg(1970)는 이러한 발달이 유아의 내면에서 일어나므로 성인의 개입이 적을 때 더 잘 발달한다고 본 반면, Vygotsky는 유아가 어른의 그림에서 사물을 찾아내고 다른 사람을 통해 모방하면서 그림을 배운다고 보았기 때문에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그림의 기술이 발달한다고 보았음.

###### □ 인지발달

- 유아기는 뇌 발달이 급격히 이루어지며, 신체적 협응 능력, 지각, 주의, 기억, 언어, 논리적 사고, 상상력 등 다양한 능력을 발달시킴. 특히 뇌 좌반구의 성장이 급등하여, 좌뇌의 영역으로 알려진 언어발달이 놀랍게 발달함. 대조적으로 뇌 우반구는 유아기와 아동기에 걸쳐 천천히 발달하며, 8~10세 사이에 활동이 활발해짐(Tatcher, Walker, & Giduidice, 1987). 우뇌 영역에 속하는 공간적 능력은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걸쳐 점진적으로 발달함.
- 유아는 인지적으로 사물의 여러 측면에 주의를 기울일 줄 모르고 현재 지각되는 한 사실에만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대상을 규정하는 직관적 사고를 함. 따라서 사물의 다른 중요한 특성을 인지하지 못함. 또한, 유아의 자기중심적 특성으로 인해 타인이 자신과 똑같이 지각하

고, 느끼고, 생각한다고 여기고 타인의 관점에서 조망하지 못함. 또, 아직 논리적으로 원인과 결과를 연결 짓지 못하는 인지적 특성을 보임. 그러나 늘 반복되어 잘 알고 있는 일상적 상황과 주제에 대해서는 인과적 사고를 보여주기도 함(Hickling, & Wellman, 2001).

- 3~6세에 유아는 점차 주의집중력이 향상되고, 정보를 처리하는 속도와 양이 증가하며 오랫동안 기억하기 시작함. 2~4세 유아는 2~3분 정도 주의집중을 할 수 있지만, 3~5세경이 되면 10~15분으로 주의 집중능력이 현저히 증가함. 과제와 관련된 자극에만 선택적으로 주의를 집중하거나 행동하기 전에 계획을 세우는 등의 주의 전략을 사용하면 주의집중 능력이 향상될 수 있음.
- 유아기 표상적 사고가 가능해지면서 언어발달이 폭발적으로 이루어짐. 2~3세 유아는 450개 단어 정도의 어휘를 사용하지만 5~6세경에는 모국어가 기본적으로 완성됨. 이러한 폭발적인 언어발달이 이루어지면서 유아는 실제 생활에서 언어 사용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게 되며, 이야기를 시작하고, 대화를 이끌어가며,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적절하게 반응하는 사회적 언어로 발전할 수 있게 됨. 따라서 유아가 부모나 교사와 같은 성인뿐만 아니라 다른 유아들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유아의 언어발달에 매우 중요함.
- 유아의 지적 능력은 성인 또는 친구의 적절한 도움을 통해 크게 향상됨(Neitzel & Stright, 2003). 유아는 성인의 도움을 통해 스스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음. 또한, 소꿉놀이, 병원놀이 등 또래와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언어발달과 인지발달이 촉진됨. 따라서 유아가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풍부한 경험과 정보를 제공하고 격려하는 것은 유아의 인지발달에 매우 효과적임.

#### □ 심리·사회 발달

- 유아기에 자신의 특성, 능력, 태도, 느낌을 모두 포괄하는 자아개념(self-concept)이 발달함. 이러한 자아개념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평가하는지에 의해 크게 영향받으므로 다른 사람과 사회적 관계를 맺으면서 더욱 구체적으로 형성됨. 대체로 유아의 자기개념은 비현실적으로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경향이 있음. 또 유아기에 자아존중감이 출현하는데, 자아존중감이란 자기 자신의 가치에 대한 포괄적인 긍정적 혹은 부정적 평가를 의미하며, 자신감과 같은 정서적 반응을 포함함.
- 유아기 동안 개인은 타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주위를 탐색하고자 하는 자율성을 형성함. 자신의 방법과 속도대로 행동하도록 지지와 격려를 받을 때 자율성이 발달하며, 그렇지 못하면 수치심을 발달하게 됨. 이 시기 자율성을 획득한 유아는 이후, 진취적으로 목적의식을

갖고 성장함. 반면 이때 유아의 진취적이고 주도적인 행동을 어른이 못하게 하면 유아가 혼나고 있다고 느껴 죄의식을 갖게 되어 자신감을 잃고 외부세계에 두려움을 갖게 됨.

- 유아는 정서발달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을 갖추. 유아는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자신과 다른 사람의 감정이 다르다는 것을 알지 못함. 유아는 성인이 감정을 다루는 것을 관찰하면서 정서조절 전략을 배움. 예술적이고 정서가 풍부한 동화책을 많이 읽고 부모와 안정적 애정을 교류하는 것은 유아의 정서발달에 도움이 됨. 유아기 감정 조절능력 발달은 행동 통제에 도움이 되며, 다른 사람과 잘 어울려 지낼 수 있는 능력의 발달을 의미함.
- 유아기에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능력인 양심이 형성됨. Kohlberg에 따르면, 인지발달을 바탕으로 도덕성 발달이 이뤄짐. 유아는 자신의 행위 결과가 별인지 칭찬인지, 또는 행위를 강요하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선악을 판별하거나, 자신 또는 타인의 필요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행위이면 옳다고 판단함. 인지발달이 유아의 도덕적 이해에 도움을 주지만, 한편으로 유아는 성인 혹은 또래 집단과 도덕적 문제에 논의하고 그들이 도덕적 문제를 다루는 방식을 관찰하는 사회적 경험을 통해서 도덕적 사고가 발달함.

#### □ 사회적 관계 발달

- 유아는 또래와의 대화가 더 빈번해지고 상호작용이 증가함. 이들은 친구를 함께 놀이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친구와 친구가 아닌 사람을 구별함. 4세경부터 성인보다 또래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하며, 그 이후 또래와의 접촉이 계속 증가함. 유아의 성장에 따라 놀이 유형도 변화함. 특히, 역할놀이 등 가상놀이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실제로 표현하고, 타인의 반응과 감정을 이해할 수 있게 됨. 또 가상놀이에서 역할을 나누고, 놀이 계획을 타협하면서 관찰력, 주의집중, 기억, 창의성, 의사 표현, 타인의 의견 수용 등 다양한 정신 능력을 강화함(신명희 외, 2017; Bergen & Meuer, 2000; Ruff & Capozzoli, 2003).

#### □ 요약

- 유아기는 신체적, 언어적, 정서적으로 많은 발달이 일어나는 시기임. 대근육과 소근육의 발달로 신체활동의 폭이 넓어지고 보다 정교한 활동이 가능해짐. 유아는 자아중심적인 인지 특성으로 인해 타인의 관점에서 조망하지 못하고, 직관적 사고를 함. 상징적 사고능력의 발달로 표상적 사고를 할 수 있게 되며, 이는 언어발달을 통해 급격히 발달함.
- 또한, 유아기는 자아개념이 발달하는 시기로 자아존중감이 출현하고, 부모, 교사, 또래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긍정적인 자기개념을 갖게 됨. 유아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놀이를

하면서 성장하는데, 모든 놀이가 유아의 발달을 촉진함. 유아의 활동 범위는 유치원, 어린이 집 등으로 넓어지고, 가족 이외의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통해 바깥세상을 탐험하고 사회의 가치관과 규범을 습득함.

### 1.1.2. 유아기와 문화예술교육 효과

#### □ 유아기 문화예술교육 효과

- 문화예술 활동은 유아의 창의성에 영향을 미침. 한 연구에서 만 5세의 유아 23명을 대상으로 유아의 통합문화예술 활동이 유아의 창의성에 변화를 주는지 살펴본 결과, 문화예술 활동을 한 유아 집단의 유창성, 상상력, 신체 창의성이 활동을 하지 않은 유아 집단보다 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이은영, 고영미, 김은영, 2016). 강은영과 최미숙(2014)의 연구에서도, 문화예술교육을 받은 유아는 그렇지 않은 유아보다 언어 창의성, 도형 창의성, 신체 창의성이 더 높았으며, 자기인식·표현 능력, 자기조절능력, 타인인식 능력, 타인조절/대인관계 능력과 같은 정서지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문화예술교육은 유아의 문화예술 능력과 정서지능을 향상시키며(이채영, 박연선, 2017), 자기표현력과 행복감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박민지, 김지은, 2017). 생애주기별 문화예술 교육의 효과를 살펴본 결과, 유아기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예술감수성, 문화예술친숙성, 문화수용력, 자기표현력, 공감능력, 창의성의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8).

#### □ 요약

- 유아기는 신체발달과 함께 부모와 교사,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세상을 탐색하고 익혀나가는 시기임. 문화예술교육은 유아의 문화예술 감수성과 친숙성을 향상하여 유아가 문화예술을 익히고 즐기는 데에 도움이 됨. 또 유아의 자기 표현력과 자기 조절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창의성과 행복감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

〈표 II-1〉 유아기 발달 특성 및 문화예술교육 효과

생애주기	연령	생애주기 특징 및 주요 발달과업	문화예술교육 효과
유아기	2~6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체발달: 대근육(운동) 및 소근육(세밀한 조작), 신체적 협응 능력 발달</li> <li>인지발달: 사고력, 상상력 및 급격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예술 능력 향상 효과: 문화예술감수성 및 친숙성 향상</li> <li>인지적 효과: 창의성, 상상력, 자기표</li> </ul>

		언어 발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심리사회적 발달: 부모, 어린이집 및 유치원 교사, 또래집단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사회화, 자아개념 형성, 자신과 타인의 정서 이해, 기초적 도덕개념 형성</li> <li>발달과업: 놀이를 통한 전인적 발달, 자율성 및 주도성 획득</li> </ul>	현력, 자기조절력, 문화수용력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서적 효과: 공감능력, 행복감 증진</li> </ul>
--	--	--	--

## 1.2. 아동기

### 1.2.1. 아동기의 발달

#### □ 신체발달

- 아동의 신장과 체중은 점점 증가하여 성인과 비슷한 모습을 하게 됨. 학령기 아동은 많은 신체활동으로 대근육, 소근육 운동 능력을 발달시킴. 활발하고 활동적인 운동량의 증가로 정교하고 유연한 운동 능력을 갖추게 됨. 유아기에 습득하지 못했던 대근육 운동 기능을 습득하면서 달리는 속도가 빨라지고, 옆으로 걷기 등을 할 수 있음. 또 수영이나 자전거 타기, 줄넘기, 농구 등 다양한 체육 활동에 참여하며, 특히 경쟁이 없는 분위기에서 체육 활동을 할 때 아동은 지속적으로 운동을 즐기며 자존감도 높아짐.
- 대근육 발달과 더불어 소근육 발달도 이루어지는데, 아동은 손놀림이 매우 안정적이며, 글씨를 쓰는 속도가 빨라지고, 악기 연주나 정교한 조작 등을 할 수 있게 됨. 이에 따라 다양한 취미 활동을 하게 되고 더불어 독립심도 증가함.

#### □ 인지발달

- 아동기에는 인지능력이 획기적으로 발달함. 아동은 좀 더 세련된 방법으로 상장을 사용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며, 사물의 여러 측면을 고려하여 사고함. 나아가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음을 이해함. 즉, 유아기의 자아 중심성으로부터 점차 탈중심화함. 그러나 이 시기 사고는 구체적인 것, 자신이 직접 경험하는 세계에 한정되며 추상적이고 가설적인 개념은 이해하지 못함. 즉, '구체적인 경험 중심의 논리적 사고'라는 특성을 보임.
- 아동은 논리적 사고로 분류, 보존개념, 서열화 기능을 획득함. 분류란, 공통된 속성에 따라 물건을 분류하고 특정 물건이 다른 물건의 상·하위 범주에 속함을 아는 것임. 아동은 다중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이는 일정한 대상을 두 개 이상의 속성에 따라 분류하는 것임. 보존개념이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눈에 보이는 지각적 특성이나 직관에 의존하기보다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규칙을 적용하는 것임. 서열화는 물체 간의 상호관계에 따라 순서대로 배열하는 것임. 아동은 한 가지 속성에 따른 단순 서열화뿐만 아니라 두 개 이상의 속성에 따라 물체를 비교하여 배열하는 다중서열화 능력도 획득함.

#### □ 심리·사회 발달

- 초등학교 시기, 아동의 자아개념에 변화가 생김. 이제 아동은 자신의 심리적 특성으로 자아를 인식하기 시작하며, 자신의 신체적 특성이나 능력, 행동, 소유물, 타인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자신을 정의함. 이는 아동기가 되면서 사회 비교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임. 아동은 자신을 포함한 여러 명의 개인을 비교할 수 있게 되어 다양한 기준을 활용해 자아를 규정함. 이를 통해 자신을 이해하고 더욱 복잡한 자아상을 구성함.
- 아동기 자아존중감은 보다 분화되고 현실과 조화를 이루는 수준으로 재형성됨. 이는 아동의 사회 비교뿐 아니라 또래의 피드백, 학업성적, 교사의 평가가 아동의 자기 평가 속에 통합되기 때문임.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2학년 즈음 자아존중감이 소폭 하락하다가 4학년과 6학년 사이 상승하고, 중학교에 들어가면 다시 하락함. 실제 성취에 기초하지 않은 자아존중감은 아동이 경쟁과 비판에 대처하지 못하고 쉽게 좌절하게 하므로 아동에게 유해할 뿐임. 따라서 아동 스스로 자연스럽게 자신의 단점이나 한계점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함.
- 아동기는 자아효능감 형성에 중요함. 자기효능감이란 자신이 스스로 어떤 상황을 극복할 수 있고, 주어진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개인의 신념이나 기대를 의미함. 아동은 특정한 영역에서 자신이 얼마만큼 잘 해낼 수 있는지 스스로 예견할 수 있을 정도로 인지가 발달하므로 이 시기 자기효능감 형성이 시작됨. 높은 자기효능감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 자아개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고 지향적 노력을 촉진하여 높은 성취수준에 도달하게 하지만, 낮은 자기효능감은 부정적 자아개념을 형성하고 낮은 성취수준에 머무르게 함 (Bandura, 1993).
- 아동은 학교에서 또래 친구와 집단생활로 집단 혹은 단체 의식을 형성하기 시작함. 아동은 또래와의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경험’을 함. 이에 따라 자신과 또래를 비교할 수도 있고, 가치관의 토대를 형성하며, 또래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는 안정감도 획득함. 또 학교의 규칙이나 법을 준수함으로써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기초를 닦음.



- 아동은 자랑스러움, 수치심과 같은 자의식적 정서를 더 잘 이해하며, 이러한 정서는 개인적 책임감과 통합됨. 이들은 한 상황에서 하나 이상의 정서가 경험될 수 있음을 이해하고, 정서 반응을 일으킨 사건을 더 잘 인지함. 아동의 정서표현은 성장 과정을 통하여 수용 가능한 형태로 사회화되는데, 효과적인 정서조절 능력을 보이는 아동일수록 사회적 유능감이 높고, 스트레스에 더 잘 대처함(장미경, 정태연, 김근영, 2014).
- 아동의 도덕 판단 기준이 변화함. Kohlberg에 따르면,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도움을 주는 행위의 여부가 선악을 결정하는 준거가 되며, 도덕적 판단에 있어 타인의 승인을 중요하게 생각함.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은 사회질서와 권위를 지향하고, 법은 절대적이고 사회질서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인식에 기초하여 도덕성을 판단함. 개인적인 문제보다 전체를 위한 의무감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주어진 사회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행동이 나타남.

#### □ 사회적 관계 발달

- 아동은 성장하면서 점차 좋아하는 친구와 싫어하는 친구가 분명해지고 보다 안정된 또래 관계가 형성됨. 한국의 초등학교 아동은 공부나 운동을 잘하고 정직하며 착한 아동 즉, 도덕성이 강한 아동을 좋아함(신명희 외, 2017). 초등학교 연령에서 아동의 놀이는 공식적인 게임으로 발전하고, 여러 사람이 동의한 목표와 지켜야 할 규칙을 갖게 됨. 협동 놀이는 또래와의 상호작용방법을 학습할 기회를 풍부하게 제공함.
- 아동이 경험하는 우정의 기능은 다양함. 초등학교 아동은 가까운 동성 친구와 자주 만나 함께 즐거운 활동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우정을 느낌(Buhrmester & Furman, 1987). 친구에게 도움을 받기도 하고, 친구가 어려울 때 도움을 주기도 하며, 신뢰감과 소속감, 친밀감, 안정감을 얻음(Buhrmester & Furman, 1985). 특히, 가까운 친구는 중요한 정서적 자원이 됨. 또래 집단에 수용되고, 또래와 친구가 되면서 자기 가치감이 향상되며, 친구의 수와 우정의 질은 낮은 외로움과 우울, 불안 및 높은 자아존중감과 관련이 있음.
- 또한, 아동은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하나의 문제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존재할 수 있음을 학습하고, 자기 견해의 한계를 이해하기 시작함. 친구와 서로 주장하고, 흥정하며 결국 우정을 유지하기 위해 절충함. 또, 또래와 함께 놀이함으로써 사회적 규칙과 또래 집단의 압력에 대한 민감한 반응을 나타낼 수 있게 됨. 즉, 또래 집단과의 상호작용은 아동이 자기 중심성에서 탈피하여 융통성 있는 성인사고에 접근하도록 도와주고, 사회 속에서 타인과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줌.

## □ 요약

- 아동기는 신체발달로 다양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악기 연주 등 정교하고 유연한 활동을 할 수 있음. 인지적으로 점차 자아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나와 다른 사람을 구분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이 나와 다를 수 있음을 이해함. 기초적인 논리적 사고를 할 수 있게 되며, 여러 사람을 기준으로 사회 비교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자아 개념에 변화가 생김. 자아존중감이 분화되고 보다 현실과 조화를 이루게 되며, 자신의 능력을 예견할 수 있을 정도로 인지능력이 발달하기 때문에 자기효능감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이기도 함.
- 학교에서의 집단생활을 통해 단체 의식을 형성하기 시작하고, 학교의 규칙이나 법을 준수함으로써 사회생활의 기초를 닦고, 가치관의 토대를 형성하며, 또래 친구와 우정을 쌓음. 유아와 달리 또래 친구와 보내는 시간이 비교적 길며, 친구를 통해 신뢰감, 소속감, 친밀감, 안정감을 얻음.

### 1.2.2. 아동기와 문화예술교육 효과

## □ 아동기의 문화예술교육 효과

- 서울 지역의 초등학교생을 대상으로 음악교과 역량 관련 단소 지도 프로그램을 설계 및 시행한 결과, 음악적 표현에 대한 이해와 공감, 타인의 음악적 표현 및 실수에 대한 존중과 격려, 음악을 통한 효율적 소통과 조정이 향상되었음(김화숙, 2018).
- 질적 연구 방법론 중 하나인 현상학적 접근을 통해 지역아동센터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효과를 연구한 결과, 아동들은 전통 춤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스럽게 예의범절을 익혔으며, 차츰 대화법도 긍정적으로 변화. 또, 전통춤 프로그램에 부정적 태도를 보이던 아동들이 점차 긍정적으로 활동에 참여함(배나래, 2017).
- 박소연과 이진구(2019)는 생애단계별 문화예술교육 효과를 분석함에 있어 문화예술 감수성, 문화예술 친숙성과 더불어 행복감, 창의성, 자기 표현력을 아동기에 중요한 효과지표로 선정하였으며, 박소연과 이용호(2016)는 초등학교생을 중심으로 학교문화예술교육 효과에 대한 측정지표를 개발. 문헌 연구, 예비조사, 전문가 타당성 검토, 설문조사를 거쳐 요인분석을 한 결과 문화예술 감수성, 자기 효능감, 자기 표현력, 사회성, 행복감, 창의인성을 중요한 요인으로 선정.

- 아동기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예술감수성, 문화예술친숙성, 행복감, 창의성, 자기표현력, 친밀감의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8).

#### □ 요약

- 아동기는 학교생활을 시작하는 시기로 교사, 친구와 상호작용을 통해 자아개념, 자기효능감 등을 형성함과 동시에 사회적 기술을 익힘. 문화예술교육은 아동의 문화예술 감수성과 문화예술 친숙성을 향상하여 문화예술을 익히고 즐기는 데 도움이 됨. 또, 아동의 자기 표현력, 창의성, 행복감과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사회성, 학교적응력, 가족관계, 예의범절, 긍정적 대화법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 아동의 사회적 발달에도 도움이 됨.

〈표 II -2〉 아동기 발달 특성 및 문화예술교육 효과

생애주기	연령	생애주기 특징 및 주요 발달과업	문화예술교육 효과
아동기	6~12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체발달: 유아기에 이어 대근육 및 소근육 추가적 발달(보다 어려운 동작 및 조작이 가능해짐)</li> <li>• 인지발달: 유아기의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 경험 중심적인 구체적, 논리적 사고가 발달하나, 추상적 사고는 어려울 수 있음</li> <li>• 심리사회적 발달: 또래와의 비교를 통한 자아개념 및 자기효능감 형성, 학교생활을 통한 사회적 규칙 학습</li> <li>• 발달과업: 학업, 또래관계에서의 근면성(성실성) 및 유능감 획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예술 능력 향상 효과: 문화예술감수성 및 친숙성 향상</li> <li>• 인지적 효과: 창의성, 자기표현력, 사회성, 학교적응력 향상</li> <li>• 정서적 효과: 행복감, 친밀감, 생활만족도 향상</li> <li>• 관계적 효과: 가족관계 개선, 예의범절 및 긍정적 대화법 학습</li> </ul>

### 1.3. 청소년기

#### 1.3.1. 청소년기 발달

##### □ 신체발달

- 사춘기로 시작하는 청소년기는 성장 급등을 경험하는 시기로 신장과 체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2차 성징이 나타남. 사춘기가 시작되는 나이는 개인차가 있음. 청소년기는 자신의 신체와 용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급격히 변화하는 신체적 특징에 민감하게 반응함. 자신의 신체에 대해 자신이 얼마나 만족하는가 하는 느낌뿐 아니라 자신의 신체에 대한 다른 사람

의 반응에 크게 영향을 받음. 일반적으로 청소년이 자신의 신체상에 대해 만족할수록 학업 성취가 높을 뿐만 아니라 심리적 행복감을 더 많이 느낌.

#### □ 인지발달

- 청소년기는 인지발달에 있어 최고의 지적 확장이 이루어지는 시기임. 청소년은 모든 상황의 가설을 설정할 수 있고,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성까지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수준이 됨. 청소년은 구체적인 예시가 없어도 추상적 논리를 사용하여 추론할 수 있음. 또, 가설 연역적 논리 사고가 가능하여 다양한 현상에 대해 여러 가설을 세우고 이를 검증하는 자료를 수집하여 문제 해결에 필요한 변인만 골라내어 체계적으로 조합, 구성하는 조합적 추리 능력이 발달함. 이러한 형식적 조작 사고는 개인차 및 문화적 차이가 있음(Capon & Kuhn, 1979; Keating, 1980; Linn, 1983).
- 청소년의 인지는 청소년기 자아중심성(Elkind, 1967)이라는 특성을 가짐. 이는 상상적 청중과 개인적 우화 현상으로 나타남. 상상적 청중이란, 자의식을 지나치게 과장한 나머지 자신의 행동이 모든 사람의 관심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현상임. 개인적 우화란 자신의 경험이 독특하고 특이하기 때문에 자신이 남들과는 다른 아주 특별한 존재라고 느끼는 상태임. 이로 인해 청소년은 자신에게 위기나 위험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함. 청소년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면서 점차 타인의 관심을 수용하고, 상상 속의 청중과 개인적 우화를 줄임.
- 청소년기는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고 식별하는 능력인 사회적 조망능력이 발달함. 이러한 지적 성숙은 언어 사용에도 영향을 미쳐서, 작문능력이 향상되고 은유, 비유, 풍자 등을 이용한 화법을 즐겨 사용함. 또 인터넷이나 휴대폰을 통해 그들만의 통신언어를 사용하면서 일상 언어와 다른 형태의 언어를 사용하며, 이를 통해 새로움과 재미, 자유로움 등을 경험함.

#### □ 심리·사회적 발달

- 청소년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자기 탐색에 열중하여 자아 정체감을 형성함. 이들은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에 관심이 많으며, 앞으로 어떤 교육을 받고 직업을 가질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 갈등에 직면함. 에릭슨은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인 자아 정체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 시기 정체감의 위기를 제안함. 자아 정체감이란 자기의 성격, 취향, 가치관, 능력, 관심, 인간관, 세계관, 미래관 등에 대해 비교적 명료한 이해를 하고 있으며, 그런 이해가 지속성과 통합성을 갖는 상태임.
- 청소년기 도덕적 판단의 기준이 발달함. Kohlberg에 의하면 12~17세 청소년은 타인의 관점과 의도를 이해할 수 있으므로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을 중시함. 이 시기 청소년

년은 타인, 특히 권위 있는 타인에게 칭찬을 받는 행위가 도덕적 행위라고 생각함. 따라서 신뢰, 의리, 충성이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여김. 그 다음 단계의 도덕성에 도달한 청소년은 법과 사회질서를 기준으로 도덕적 판단을 함. 법과 사회질서를 지키는 것을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함.

#### □ 사회적 관계 발달

- 청소년기에 부모와의 갈등이 증가함. 신체적, 인지적 발달로 부모의 물리적 처벌이 어려워지고, 부모가 제시하는 규칙이나 가치관에서 발견되는 논리적 모순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게 되면서 청소년들은 부모와 가족으로부터 점차 멀어지며, 점점 자기 자신과 친구에게 의존하기 시작함. 이에 따라 청소년-부모 사이의 갈등이 증가함. 이러한 갈등은 중학교 시기에 가장 높고 고등학교 시기 동안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차츰 감소함.
- 우정은 청소년기에 급격하게 중요해짐. 친구는 아동기 가족에 의해 제공되었던 정서적 지원의 일부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안녕에 기여함(Bukowski et al., 2009). 청소년기에 친구 사이의 친밀감이 크게 증가하며, 부모보다 가까운 친구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더 많은 개인적 정보를 노출함(Buhrmester & Cabery, 1992). 청소년기에는 아동기와 비교하여 우정의 질이 더 중요해짐. 청소년기 가장 좋아하는 친구는 주로 동성으로 구성되며 친한 친구는 단 한 사람이거나 작은 집단인 동년배 집단을 형성함.
- 청소년은 우정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타인을 이해함. 청소년은 동조압력의 영향으로 아동보다 동년배의 표준에 더 많이 일치하려고 하며, 동년배 집단에 가입함으로써 집단압력의 영향을 받음. 청소년은 동년배 집단이 자신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 인식할 수 있으며, 이 기대대로 행동함으로써 집단 동일시를 통해 긍정적 자기상을 형성할 수 있음. 또, 자기가치감을 확장하고 외로움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으며 정서적 지원을 받음. 즉, 친구와 함께하는 경험의 다양한 측면이 청소년기 학업 및 사회 정서적 기능과 관련되어 있음(Cynthia, & Hellen, 2017).
- 청소년은 주로 동성 친구들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우정을 나누지만, 이성 친구도 중요한 의미를 갖기 시작함. 사춘기의 시작과 함께 호르몬 분비의 변화는 이성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성적 인간으로서 자신에 대한 개념을 형성하게 함.

#### □ 요약

- 청소년기는 2차 성징과 성장 급등으로 신체와 용모에 관심이 커지고 자신의 신체에 대한 다른 사람의 반응에도 민감해짐. 심리·사회적으로는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는 시기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자기 탐색을 통해 자기 이해가 깊어지며, 가치관과 세계관을 통합함. 인지적으로는 최고의 지적 확장이 이루어짐. 추상적 명제에 대한 논리적 사고와 가설 연역적 논리적 사고를 할 수 있음. 또, 청소년기 자아 중심성이라는 독특한 특징을 보이는데, 청소년은 자의식이 강해 자신의 행동이 모든 사람의 관심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을 남들과는 다른 아주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함.

- 청소년기 발달에는 친구가 중요함. 청소년은 부모보다 동성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냄. 인지발달로 부모가 제시하는 가치관이나 규칙에 대한 모순에 설명을 요구할 수 있게 되면서 부모와 갈등이 증가함. 청소년은 주로 친구를 통해 친밀감, 도움, 유대감 등의 정서적 지지를 얻고 우울, 불안으로부터 보호받음. 우정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타인을 이해하며, 집단에서 자신의 위치를 평가하는 기술 등을 학습함.

### 1.3.2. 청소년기와 문화예술교육 효과

#### □ 청소년기의 문화예술교육 효과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자아 정체감 형성과 관련된 문화예술교육 효과 분석연구가 다수 존재. 김소영과 이근매(2010)는 청소년 문화예술교육이 예술적 소양을 개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자아형성 및 인성교육에도 효과가 있음을 밝힘. 또 청소년의 정서발달과 자아정체감 확립, 자기 이해에도 도움이 됨(맹영임, 2005; 백령, 2012; 정경은, 임영식, 조영미, 2019; Hapshire & Matthijsse, 2010).
- 노승환과 조덕주(2018)는 문학, 음악, 연극을 중심으로 개발한 중학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양적, 질적으로 분석. 분석결과 해당 프로그램은 창의성 및 자아 정체감 향상에 긍정적 효과가 있었으며 공감 능력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질적인 측면에서는 창의성의 경우 감정 표현의 풍부화·구체화 및 능동적 사고의 신장, 자아정체감의 경우 자기성찰을 통한 성장, 공감 능력의 경우 '나'에서 '우리'로의 성장과 공동체의 힘 깨닫기 등의 구체적인 변화를 파악할 수 있었음.
- FGI와 문헌조사를 통해 청소년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효과 척도를 개발(임영식, 정경은, 2017). 문화예술교육 사회적 효과 척도는 개인적 역량(즐거움, 자존감, 창의성), 소통(가족 응집력, 우정), 사회적 상호작용(유대감, 공감, 참여, 교류), 문화예술 일상화(문화 예술 태도, 문화예술 경험 변화), 여가 향유 태도(여가 태도, 여가 경험) 요인으로 구성. 실제 문화

예술교육 참여 청소년과 비참여자를 비교한 결과 참여자의 개인적 역량, 소통, 사회적 상호 작용, 문화예술 일상화, 여가 문화 향유의 모든 요인의 평균값이 비참여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아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효과를 검증.

- 생애주기별 문화예술 교육의 효과를 살펴본 결과, 청소년기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예술감수성, 문화예술친숙성, 소통능력, 자아존중감, 자기조절력의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8).

#### □ 요약

- 청소년기는 인지능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자기 탐구의 증가로 자기 이해가 깊어지며, 친구들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받음.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예술 감수성과 친숙성을 높여 문화예술 능력을 함양하고 이를 즐기는 데 도움이 됨. 또, 창의력, 학습능력, 자아정체감, 감정-정서 순화, 정서발달, 자기조절력, 행복감, 성취감, 자아존중감 증가에 도움이 되었으며, 긍정적인 인간관계 형성, 관계 내 긍정적 변화, 소통역량, 공감 능력, 사회성, 정서지능, 감정표현의 풍부화 및 구체화, ‘나’에서 ‘우리’로의 성장 등 사회적 기술 함양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임. 마지막으로, 공동체 역량 향상, 공동체의 힘 깨닫기와 같은 효과가 있었음. .

〈표 II -3〉 청소년기 발달 특성 및 문화예술교육 효과

생애주기	연령	생애주기 특징 및 주요 발달과업	문화예술교육 효과
청소년기	13~18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체발달: 2차 성징이 나타남</li> <li>• 인지발달: 사춘기에 접어들며 급격한 지적 성장이 일어나며, 추상적, 가설적 사고가 발달함</li> <li>• 심리사회적 발달: 타인의 입장에 대한 이해 향상, 법과 사회질서 준수에 대한 의무감 형성, 부모와의 갈등과 이해를 통한 독립적 자아 형성, 친구들과의 우정 및 친밀감 형성</li> <li>• 발달과업: 긍정적, 통합적 자아정체감 확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예술 능력 향상 효과: 문화예술감수성 및 친숙성 향상</li> <li>• 인지적 효과: 창의력, 자기조절력, 학습능력 향상</li> <li>• 정서적 효과: 행복감, 자아존중감, 공감능력, 정서발달, 감정-정서 순화, 감정 표현의 풍부화 및 구체화, 성취감 향상</li> <li>• 관계적 효과: 사회성, 소통능력 향상, 긍정적 인간관계 형성</li> <li>• 사회적 효과: ‘나’에서 ‘우리’로의 성장, 공동체의 힘 깨닫기</li> </ul>

## 1.4. 성인 전기

### 1.4.1. 성인 전기의 발달

#### □ 신체발달

- 성인 전기는 신체 발달 특성 상 가장 건강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시기임. 정신운동능력이 정점에 이르러 생애 다른 시기보다 반응 시간 빠르고, 근육의 힘 가장 강하며, 눈과 손의 협응 능력 좋음. 30대 중반 이후 신체 기능 감소 시작되려 신체적 외모가 변화하지만 느린 속도로 일어남. 이로 인해 이 시기 성인들은 건강 증진을 위한 노력은 별로 하지 않음. 불규칙적 식사, 과도한 음주, 흡연 등 건강에 해로운 행동을 하지만 이러한 생활방식이 성인 전기 이후 건강 상태에 많은 영향 미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함. 이는 청년기 자기중심적 사고가 성인 전기의 건강 지각에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임.

#### □ 인지발달

- 성인 전기 인지 사고는 자신의 경험을 옳고 그름의 절대적 이분법으로 해석하는 이원론적 사고에서 사고를 바라보는 다양한 견해나 관점이 존재함을 인정하는 상대적 사고로 변화함 (Perry, 1970).
- 이러한 인지적 변화는 청소년기 형식적 사고에서 성인 전기 동안 실용적 사고(pragmatic thought)로 전환되기 때문임(Lavouvie-Vief, 1985). 청소년기 형식적 조작 논리에 의존하는 형식적 사고는 성인기로 전환하면서 실제적, 구체적 상황에 초점 맞추는 실용적 사고로 질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되며, 여러 대안 중 하나를 선택하며 불완전함과 타협을 수용하는 후형식적 사고(postformal thought) 가능하게 됨.
- 또한 성인기 인지 발달은 문제점이나 모순 인식하고 정(theses)과 반(antitheses)으로부터 합(synthesis)을 이끌어내는 변증법적 사고(dialectical thinking)가 가능해짐(Riegel, 1973). 모순을 이해하는 것은 성인기 인지 발달의 중요한 성취로 이상과 현실의 통합을 가능하게 함. 형식적 사고는 인지적 평형 상태에 도달하지만, 변증법적 사고는 항상 인지적 불평형 상태에 있으면서 자신이 확립한 관점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모순을 극복하는 더 나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높은 차원의 사고 발달이 일어난다고 설명함.
- 이 시기는 또한 Schaie(1977)의 성인기 인지발달 단계 중 성취 단계(achieving stage)에 해당함. 성인기는 형식적 조작 사고 이상의 발달은 어려우나 습득한 지식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단계라고 설명함. 성인 전기는 여기-현재에 초점을 두고 청소년기의 지식 획득에 대한 관심 보다 그것을 일상에 적용하는데 더 많은 관심 가짐. 직업이나 가족, 사회 기여와 관련하여 스스로 설정한 인생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그들의 지적 능력 사용함.

#### □ 심리·사회적 발달

- 성인 전기 동안 개인은 정체성의 확립을 바탕으로 개인의 정체성과 타인의 정체성을 융합



시킬 수 있는 친밀감을 형성해야 함. 이 단계에서 긍정적인 결과는 성적 친밀감, 진정한 우정, 안정된 사랑, 결혼 생활로 나타나며, 부정적 결과는 고립과 고독으로 나타남.

- 또한 성인 전기는 생계와 관련하여 직업 선택하고, 관련 경력을 쌓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업임. 대학생 시기는 특정 영역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전공을 선택하고, 20대 중후반이 되면 직업을 가지며 이후 성년기 동안 특정 영역에서 자신의 경력을 쌓기 위해 노력함. 따라서 이 시기는 개인 정체성 확립에서 더 나아가 직업 세계에서 사회 정체성을 확립해야 함.
- 즉 성인 전기는 잠정적인 삶의 구조를 형성하는 시기(Levinson, 1978). 이 시기에 직업 세계에서 성취 이루기 위해 자신의 삶을 현실적이고 긍정적 방식으로 구성함. 따라서 성인 전기는 직업 선택을 탐색하는 현실적 시기(realistic period)로 특정 직업에 필요한 훈련, 자신의 흥미나 재능, 직업 기회 등을 현실적으로 고려하여 직업 선택하는 시기(Ginzberg, 1990). 자신의 개인적 특성과 잘 어울리는 직업 선택 가능성에 대해 더 많은 정보 수집하고, 실험하여 한 가지 직업 선택함.
- 즉, 이 시기에는 자신의 특성 이해하고 다양한 역할 수행하면서 자신의 정체감 형성하고 이를 기초로 진로에 대한 구체적 탐색과 의사결정 하는 시기임(Super, 1990). 청소년기(15~17세)에 욕구, 흥미, 능력 등 고려하여 잠정적으로 진로 선택한다면, 전환기(18~21세)에는 희망하는 직업에 필요한 교육이나 훈련을 받으며 현실적 요소를 탐색하고, 시행기(22~24세)에는 자신에게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직업을 선택하여 종사하기 시작함. 한국 사회의 발달 맥락에서 성인 전기는 직업에 필요한 교육을 받으며 현실 요소를 탐색하고 마침내 자신에게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직업 선택하는 전환기와 시행기에 해당됨.

#### □ 사회적 관계 발달

- 친밀한 관계 형성은 성인전기의 중요 과제임(Erikson, 1963). 사람들은 자기 공개를 하고 상대방의 요구에 부응하면서 상호 간 수용과 존중을 통해 친밀감 발달시킴.
- 친구 관계: 우정은 즐거움, 수용, 신뢰, 조력, 이해, 편안함 포함하는 친밀한 관계 의미함. 친구는 자기 자신과 자신의 삶을 평가하는 비교 준거의 역할 해주고, 재미와 즐거움 공유하며, 안정된 소속감 제공함, 또한 물질적 도움이나 지식 제공 등 현실적 도움 제공
- 친구 관계는 후기 청소년기와 성인 전기에 대체로 정점 이루는 경향. 이 시기에 성인들은 가장 많은 친구와 가장 빈번하게 상호작용 함. 성인의 삶을 준비하는 이 시기에 같은 경험을 하는 친구는 가장 큰 정서적 지원이 됨.

- 한편 이 시기 대학생들은 친구 관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함. 친밀한 교우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어려움을 경험, 친구 관계 심화시키는데 어려움 느끼기도 함. 또한 교우 관계에서 나타나는 심각한 다툼과 갈등으로 인해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고, 과도한 교우 관계 때문에 생활 관리에 문제가 생기는 학생들 있음(권석만, 2000).

#### □ 요약

- 성인 전기는 신체□인지 발달 상 가장 건강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시기임. 이 시기 정신운동 능력과 신체 능력은 최정점이며 30대 초반 이후 서서히 감퇴함. 성인 전기 인지 사고는 세상의 진리에 대해 절대적 이분법으로 해석하는 이원론적 사고에서 다양한 관점과 견해를 인정하는 상대적 사고로 변화함. 이를 통해 청소년기 형식적 사고에서 벗어나 모순을 이해하는 변증법적 사고가 가능해지고 성인기 인지 발달의 중요한 성취인 이상과 현실의 통합이 가능해짐.
- 이 시기에 개인은 친밀감과 직업 정체성 확보를 통해 사회적 정체성을 획득하고 생애 전기 삶의 구조를 완성하기 위해 탐색하는 발달 과업에 도전해야 함. 따라서 청소년기의 환상에서 벗어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현실적으로 미래 직업을 위해 탐색해야 하는 시기임. 대인관계 측면에서 특정 이성과의 친밀감 형성과 더불어 20대는 가장 많은 또래 관계를 경험하며 이를 통해 학교 생활에 적응하거나 혹은 갈등을 경험하는 시기이기도 함.

#### 1.4.2. 성인 전기와 문화예술교육 효과

- 생애주기 발달에 따라 청년기, 중·장년기, 노인기는 각기 다른 발달과업을 가지고 있으며 문화예술교육 역시 발달과업에 따라 수용자 중심의 세분화된 프로그램으로 운영 필요하며, 문화예술교육이 발달과업에 적절한 효과가 있는지 연구되어야 함. 그러나 지금까지의 문화예술교육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주로 학교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연구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사회문화예술교육 역시 사회적 취약 계층 대상 연구가 주를 이루어 왔음(전경란, 2017).
- 성인 전기의 주요 발달과업은 친밀감 형성임. 이 시기의 주요 인생사건은 결혼, 육아, 취업 등으로 타인과 친밀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어 유지하고, 직업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함. 발달과업을 완수하지 못하면 사회적인 고립감과 외로움을 경험하게 됨.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대인관계 문제를 다루고 관련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회적 기술을 학습할 수 있음.

- 성인 전기 대학생의 주요 발달 과업 중 하나로 학교적응을 들 수 있음. 음악교양수업을 통한 다양한 예술프로그램의 경험은 대학에서의 학업 적응, 대학 사회 적응, 개인 정서와 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한수정, 한경훈, 2013).
- 이는 음악 매체의 효과로 집단의 유대성을 약화시키지 않으면서 개인으로 하여금 적응적 수준에서 긴장 및 이완을 돕는 기능으로 인한 효과임(Kogan, 1997). 또한, 음악을 통한 자기표현은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감 길러주며, 반복적 연습은 두뇌 뿐 아니라 학생들의 전반적 발달 능력을 길러줌(Wood, 1996). 성인 전기 문화예술교육은 행복감, 자기표현력, 자아존중감 향상 효과가 있었음(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8)

#### □ 요약

- 성인 전기는 친밀감과 직업 정체성을 위한 직업 탐색 등 주요 발달 과업으로 개인의 스트레스 발생 가능. 대학에서 경험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등은 개인의 스트레스 감소, 정서적 안정, 학업 및 대학 생활 적응에 유의미한 도움이 됨.

〈표 II-4〉 성인 전기 발달 특성 및 문화예술교육 효과

생애주기	연령	생애주기 특징 및 주요 발달과업	문화예술교육 효과
성인 전기	19~28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체발달: 신체적, 정신적 기능이 최고조에 이룸</li> <li>• 인지발달: 현실에 맞는 실용적 사고, 불완전함과 모순을 수용함, 자신의 인생목표를 이루기 위해 지적 능력 활용, 취업, 결혼으로 인한 스트레스</li> <li>• 심리사회적 발달: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에서의 학업, 진로 탐색, 배우자와의 만남 및 관계 유지, 자녀 출산 및 양육</li> <li>• 발달과업: 직업적 정체성 확립, 배우자, 가족, 친구와의 친밀감 형성 및 유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예술 능력 향상 효과: 문화예술감수성 및 친숙성 향상</li> <li>• 인지적 효과: 자기표현력 증진, 대학생의 학교 적응</li> <li>• 정서적 효과: 행복감, 자아존중감 증진, 대인관계 문제 관련 스트레스 해소, 정서적 안정</li> <li>• 관계적 효과: 대인관계 문제 해결에 필요한 사회적 기술 학습</li> </ul>

## 1.5. 성인 중기

### 1.5.1. 성인 중기의 발달

#### □ 신체발달

- 30-40대는 여전히 인생에서 가장 건강한 생활을 하는 시기임. 30대 후반까지는 최고의 신체 기능 수준 유지하지만 점차 생물학적 노화 시작됨. 30대 이후에는 점차 노화 빨라짐. 시

력은 20세경 가장 좋으며 40세쯤 되면 노안이 진행됨. 청력의 점진적 감퇴는 25세 이전 시작되어 25세 이후 뚜렷해짐. 운동 폐활량은 35세 혹은 40세부터 1년에 1% 감소. 여성의 가임 능력은 10대 말과 20대 초에 절정, 그 이후 계속 줄어들어 폐경 후 완전히 상실됨. 남성의 경우 40세 이후 정자 농도와 활동성 점차 감소하는 등 생식 능력 저하됨.

#### □ 인지발달

- 성인 중기 인지 사고는 성인 전기 인지 사고와 마찬가지로 이원론적 사고에서 다양한 견해나 관점의 존재를 인정하는 상대적 사고로 변화하는 시기임(Perry, 1970). 전반적으로 성인 후기(50대 이후) 전까지 성인 전기의 인지 발달 특성이 이어짐.
- Schaie(1977)의 성인기 인지발달 단계 중 2 단계인 성취 단계에 이어 3 단계 책임 단계(responsible stage)로 넘어감. 성인 중기에 성인들은 가정과 양육의 책임과 직업인 또는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책임을 지고, 타인에 대한 책임과 관련 있는 실제적 문제 해결하기 위하여 지적 능력을 사용함.
- 인간의 지능은 20대 초반에 절정에 달하고 이후 쇠퇴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음(Wechsler, 1944). 그러나 정신 기능의 안정성과 성장은 성인기 전반에 걸쳐 발달할 수 있다고 보았음(Baltes et al., 1999). 이중 요인 모델(the dual-component model of intellectual functioning)은 지능을 정보처리와 문제해결과 관련된 '기계적 지능'과 일상의 인지적 수행이나 적응과 관계있는 '실용적 지능'으로 구분하도록 제안함. 기계적 지능은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가장 많이 변화하고 실용적 지능은 주로 성인기에 성장함.
- 언어 의미, 귀납적 추론, 수능력, 공간지향 등의 능력은 30대 후반 또는 40대 초반까지 계속해서 향상되는 경향 있음(Schaie, 2005). 이후 50대 중반이나 60대 초반까지 안정적으로 유지되다가 60대 후반이 되면 일관적으로 감소함.

#### □ 심리·사회적 발달

- Levinson(1978)의 인생의 사계절에서 30세 전후는 전환기로 첫 번째 인생 구조에 대해 재평가하는 시기임. 자기 인생에서 무엇인가 잘못되었거나 미래를 위해 변화가 필요하다는 느낌 경험하면서 초기 선택 재고해보고, 변화 시도해보는 기회 가짐. 전환기 마지막 무렵에는 인생 방향 발견하거나, 새로운 선택 혹은 이미 선택한 것에 대해 다른 것을 개입하기도 함. 이 시기 친밀감과 직업 성취 못한 경우 위기가 될 수 있지만 이를 잘 극복하면 성인초기 생애 구조 완성하면서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생활양식 확립함.

- 30대 전환기 후에 가족, 직업, 지역사회 내에서 자신의 삶 정착시킴. 30대 후반은 안정기의 목표 성취하고, 직업 사회에서 좀 더 상급 멤버가 되고, 더 큰 권위를 갖는 것등이 발달 과제가 됨.
- 여성의 경우도 성인기로의 진입이 꿈을 찾고, 멘토 찾고, 직업 선택하고, 특별한 사람과 친밀한 관계 형성하는 것이지만 직업성취보다 가정에서의 역할 수행이 더 중요한 생애 구조적 요인이며, 일과 가정의 조화 이루는데 남성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경험함.
- 직업적으로 이 시기는 확립기(25~44세)로 자신에게 적절한 분야를 발견하여 이에 종사하면서 직업세계에서 자신의 지위를 확립함(Super, 1990). 선택한 직업 분야가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이를 바꾸는 시행기(25~30세)와 선택한 직업 세계에서 만족과 소속감 경험하며 승진을 위해 노력하는 안정기(31~44세)로 나눌 수 있음.

#### □ 사회적 관계 발달

- 또래 관계: 취업과 결혼, 육아 등 이후 발달 과업의 성취 과정 중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을 줄어들게 되지만 여전히 친구 관계는 중요함. 교우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더 행복하다고 느끼며, 스트레스 상황에 더 잘 대처하고 더 높은 자존감 가짐.
- 부부 관계: 이 시기에 성인들은 결혼을 통해 합법적이고 사회적으로 승인된 결합을 이룸. 결혼생활의 만족은 가족의 발달 과정인 가족 생활 주기에 따라서 달라지며 가족 발달 과정은 가족 구성원들과 그들의 수행 역할이 시간 경과에 따라 변화한다고 가정함. 첫 자녀의 성장을 기준으로 8단계 가족 생활 주기 제시함(Duvall & Miller, 1985).
- 1단계는 신혼기, 성인 전기와 성인 중기의 일부 경험 가능한 시기로 결혼 하고 첫 자녀를 출산하기까지의 시기임. 이 시기에 신혼 부부는 둘만의 시간을 만끽하고, 부부 간 친밀감이 최고도에 달하며 애정 교환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남. 부부 역할에 적응하고 새롭게 형성된 배우자 가족과 배우자 지인들과의 인간관계에 자연스럽게 적응하는 일이 중요한 과제임. 또한 이 시기에 부모가 되는 것에 대한 준비 필요함.
- 2단계는 출산 및 유아 양육기로 첫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30개월까지의 기간임.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와 역할에 변화 가져오며, 부부는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고 부모로서의 역할을 배워야 함. 아이의 반응을 적절하게 파악하여 아이의 욕구 충족시키고, 발달 촉진시키며, 안정된 애착 관계를 형성하도록 노력함. 이 시기부터 부부의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은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함. 아이 중심의 생활은 부부 간 관심이 감소했다고 느낄 수 있으므로 부부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도록 노력해야 함.

- 3단계는 첫째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시기임. 자녀의 언어 능력 비롯한 지적 기능과 운동 기능이 급격하게 발달하는 시기로, 부모로서 자녀 성장 촉진하고 아동이 지닌 욕구와 흥미에 관심 가지고 키워주는 것이 필요함. 이 시기 남편은 아내의 고충을 이해하고 자녀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협동적 노력 기울이는 것이 중요. 또한 부부만이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대처할 수 있어야 함.
- 4단계는 학령기 자녀 양육기로, 첫째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졸업하기까지의 기간에 해당함. 자녀가 학업에서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 및 격려하며 학부형으로서 학교 공동체에 참여해야 함.
- 5단계는 청소년기 자녀 양육시기로 첫째 자녀가 중학교에 재학하는 시기. 자녀가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서서히 부모로부터 심리적 독립 하게 되고, 부모와 자녀의 갈등 역시 증폭될 수 있음. 이 시기 자녀는 대학 진학이라는 학업 부담 지게 되며, 부모 역시 자녀 교육에 가장 높은 관심 지님. 이 시기 결혼 생활에 대한 부부 만족 수준은 최하점에 도달함.

#### □ 요약

- 성인 중기는 신체적으로는 20대보다 건강 상태가 다소 감소하나 신체 건강에 여전히 자신 있는 상태임. 30대 후반까지는 최고의 신체 기능 유지하지만 이후 점차 생물학적 노화 시작됨. 성인 전기와 마찬가지로 이원론적 사고에서 벗어나 상대적 사고로 변화하는 시기임. 지적 능력으로 보면 20대에 비해 기계적 지능은 감소하지만 실용적 지능은 더욱 증가하는 시기임.
- 가족과 직업,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전반적 삶의 구조 안정하고 정착하는 시기로 가정에서는 어린 자녀의 양육과 흥미 발달을 지지해야 하는 한 편 직업 사회에서는 경력 초기를 지나 안정적인 경력 개발을 해야 하는 시기임. 따라서 개인이 달성해야하는 과업이 무거운 시기임. 과업에 대한 과부하와 가정과 직장에서의 역할 갈등으로 인한 개인 스트레스 발생 가능한 시기이며 이로 인해 부부 만족은 자녀를 양육하며 점차 감소하게 됨.

### 1.5.2. 성인 중기와 문화예술교육 효과

- 결혼과 취업 이후 성인은 다양한 역할 사이에서 스트레스와 역할 갈등 경험함. 가정 내 역할 수행과 직무 수행의 이중부담은 역할과중, 역할갈등, 부부 갈등을 유발하며, 이러한 갈등에 잘 대처하지 못할 경우 정서적 불안정, 부적응 등 문제 상황에 처하게 됨(이규용, 2012).

- 문화예술교육 경험 만족도가 높을수록 성인의 자기효능감 향상과 정서 안정에 유의미한 영향 나타남(강명임, 정민, 2018). 또한 문화예술교육의 한 종류인 무용과 다도프로그램의 경험을 통해 성인의 정서 안정성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남(유정분, 2014). 유사한 연구로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운영한 무용교육 프로그램 역시 성인여성의 우울감에 긍정적 영향 미친 것을 확인하였음(박선우, 2017).
- 성인기의 주요 발달과업으로 부모 역할 역시 빠질 수 없음.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심리적 성숙은 성인으로서의 주요 발달과업이자 자녀 양육과 교육을 위한 부모로서의 발달과업임. 심리적 성숙은 자존감, 자기효능감, 정서적 안정성과 긍정적 사고 등의 특성을 가짐(서봉연, 황상민, 1993; 박정희, 2002).
- 초등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에서 문화예술교육의 경험과 동기는 학부모의 심리적 성숙에 영향 미치는 변인임을 확인하였음(장영희, 최성우, 2016). 문화예술교육은 학부모의 심미적 감수성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심리적 성숙을 향상시킴. 성인 중기 문화예술교육은 행복감, 자기표현력, 자아존중감 향상 효과가 있었음(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8)

#### □ 요약

- 성인 중기는 결혼 후 양육과 취업, 직업 사회에서 경력 개발 등 성인이 다양한 역할 스트레스와 역할 갈등 경험함. 문화예술교육은 경험 만족도 높을수록 성인의 정서 안정과 자기 효능감 향상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이 시기 성인은 부모로서 역할 역시 중요한데 문화예술교육은 성인 중기 주요 발달 과업인 자녀 양육을 위해 필요한 부모의 심리적 성숙에 유의미한 영향 미침.

〈표 II-5〉 성인 중기 발달 특성 및 문화예술교육 효과

생애주기	연령	생애주기 특징 및 주요 발달과업	문화예술교육 효과
성인 중기	29~48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체발달: 신체적, 정신적 기능은 여전히 활발하지만 생물학적 노화가 시작됨</li> <li>• 인지발달: 가정, 직장, 지역사회에서의 역할 및 책임 완수를 위해 지적 능력 사용, 현실적, 안정적 생활양식 확립, 다양한 역할 수행에 따른 스트레스 및 역할 갈등</li> <li>• 심리사회적 발달: 배우자, 가족, 자녀와의 친밀한 관계 유지, 직장, 지역사회에서의 역할 수행</li> <li>• 발달과업: 중요한 타인들과의 친밀감 유지, 성공적인 사회적 역할 수행을 통한 성취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예술 능력 향상 효과: 심미적 감수성 향상</li> <li>• 인지적 효과: 자기효능감, 자기표현력 향상, 긍정적 사고 함양</li> <li>• 정서적 효과: 행복감, 자아존중감 증진, 정서적 안정</li> <li>• 관계적 효과: 자녀 양육을 위해 필요한 심리적 성숙</li> </ul>

## 1.6. 성인 후기

### 1.6.1. 성인 후기의 발달

#### □ 신체발달

- 성인 후기에 시청각, 후각, 미각 등 감각기관과 신경계, 심폐기능, 생식능력 등 거의 모든 기관의 기능 저하됨. 50대 이후 수정체 조절 능력 감소로 가까운 것을 보는 것이 어려워지고, 골밀도 감소 가속화됨. 이 시기 남성은 간질환, 간암, 심장질환 등으로 인한 사망률이 여성보다 높음(통계청, 2007). 여성은 이 시기에 폐경 및 갱년기 증상, 내분비계 이상 등 신체적 증상과 가슴 두근거림, 현기증, 불면, 우울 등 정신적 증상 경험. 그러나 대체적으로 성인들은 아직까지 본인의 건강이 좋은 편이라고 인식하고 있음(정경희 외, 2010).
- 대부분의 성인들은 신체 기능 저하로 인해 삶의 질이 다소 감소하나, 신체 변화에 적응하면서 건강 유지 위해 노력함. 노화로 인한 신체 기능 감소는 성인으로 하여금 삶의 유한성에 대한 조망을 갖고 삶의 의미를 추구하게끔 하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신명희 외, 2017).

#### □ 인지발달

- 앞서 기술하였듯이 인간의 지능을 ‘기계적 지능’과 ‘실용적 지능’으로 구분하였을 때 실용적 지능은 성인 후기까지 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음(Baltes et al., 1999).
- Schaie(1977)의 성인기 인지발달 단계에서 성인 후기는 4단계 실행 단계(executive stage)와 5단계 재조직 단계(reorganizational stage)에 해당됨. 실행 단계에서 개인에 대한 관심은 세계에 대한 관심으로 확장되고, 삶의 중심이 개인에서 사회 조직으로 좀 더 옮겨가는 시기임. 재조직 단계는 중년기 후반과 노년기 초반에 해당되며 은퇴 이후 자신의 삶을 재조명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시기임.

#### □ 심리사회적 발달

- 성인기 인성 발달을 설명하는 규범적 위기 모델(normative crisis model)은 각 단계에 따라 개인의 삶의 목표, 일, 관계 등 인성이 변화하며, 각 단계마다 특정 위기가 있다고 설명함. 최근 들어 연령으로 개인 발달을 설명하기에는 사회 변화(예: 성별에 따른 역할 변화)의 영향이 크다는 의견이 있으나 연령으로 인성 발달을 구별할 때 중년기는 심리적 성숙이 계속 되는 중요한 시기임(신명희 외, 2017).



- Erikson의 발달 이론에서 중년기 성인들은 다음 세대와 가족, 지역사회, 직장, 사회에 기여함으로써 자신을 영속화하는 데 관심 가짐. 이 시기에 중년들은 미래 세대의 멘토 역할, 자녀 양육에 힘쓰는 부모 역할, 예술적·창의적 작품 통해 자신의 생산성에 대한 욕구 만족을 위해 노력함.
- Jung은 개인이 가족과 사회의 요구와 의무를 다하기 위해 필요한 인성적 측면을 발달시켜 왔다면, 중년기에 개성화(individuation)을 통해 이전에 부정했던 인성의 갈등 요소를 통합함으로써 진실된 자아가 출현한다고 봄. 예를 들어 중년기 남성은 점차 가정과 자녀에 대한 관심 많아지고, 중년 여성은 사회적 활동에 관심 가지며 적극적이고 외향적으로 바뀌게 됨. 즉 Erikson의 중년이 외적인 전환을 설명한다면 Jung의 중년은 내적 전환의 시기로 설명함.
- Levinson(1978)의 생애 구조에 따른 인성발달이론을 보면 성인중기는 40~65세 시기로 중년기는 자신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를 재평가하기 위해 4가지 발달 과제에 직면해야 한다고 설명함. 각 발달 과제는 다음과 같음.
- ‘젊음과 늙음’은 중년기에 어떤 젊음 특질은 포기하고 어떤 것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 ‘파괴와 창조’는 자신이 지금까지 자신과 주변을 괴롭히거나 파괴적 행동 해 왔던 것이 있다면 반성하고, 자신과 주변을 위한 가치 있는 결과를 만드는 행동에 참여하는 것. ‘남성성과 여성성’은 중년 되면서 남성들은 더욱 공감과 양육에 관심 보이고, 여성들은 자율적이 되면서 자기주장 강해지는 것. ‘참여와 분리’는 주로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던 남성은 점차 야망과 성공에서 벗어나 자신에게 더 관심 가지는 반면, 여성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사회 활동이나 공동체에 참여함을 의미함.
- 한편 중년기의 성격과 생활 스타일의 변화는 인생의 재평가와 스트레스를 동반함. 이를 중년의 위기(midlife crisis)라고 함. 이 시기는 청소년기 이후 두 번째 정체성의 위기로 성인들은 의미 있는 삶의 목표를 찾아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함. 위에서 언급한 발달 심리학자(Erikson, Jung, Levinson)들은 중년기의 위기를 피할 수 없는 경험이라고 보지만 많은 연구에서 중년기 위기는 모든 사람들이 겪는 것은 아님이 드러남(Bums & Leonard, 2005). 오히려 중년은 ‘새로운 출발’의 시기로 인식되며 다른 과거 시기보다 더 만족스러운 시기로 인식되기도 함.
- 중년의 전환이 위기인지 혹은 ‘새로운 출발’인지는 나이보다 개인의 환경과 자원에 의해 더 영향 받음. 자아탄력성(ego resilience)이 높은 사람들은 중년기를 변화와 성장으로 경험함. 반면 자아탄력성이 낮은 사람들은 중년기에 정체와 쇠퇴를 경험함.

- 이 시기는 직업 세계에서 유지기(45~64세)로 자신의 분야에서 높은 지위 획득하고 전문가가 되는 시기임. 이 시기는 지위의 향상보다 성취한 지위 및 권력의 안정성, 특권 등을 지키는 것을 목표로 함

#### □ 사회적 관계 발달

- 중년기 부부관계에서는 청소년기 자녀 양육, 성인 자녀의 결혼, 독립을 경험하며 자녀 양육에서 자유로워지면서 부부 간 상호의존성이 증가함. 이 시기 자녀의 배우자와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고 자녀의 결혼생활이 행복하도록 지원함.
- 중년기 부부는 과거에 비해 기대수명의 증가로 부부관계의 유지 기간 역시 증가하였으며, 많은 자녀를 키우지 않아 자녀 독립 후 부부 둘이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음. 중년 초기는 청소년기 자녀 양육과 직업에서의 경력 개발이 중요한 시기라 결혼 만족도가 극히 낮음. 이후 자녀가 성인이 되고 직장에서 은퇴하면서, 경제적 안정을 어느 정도 경험할 때 부부 만족도가 정점에 달함(Orbuch et al., 1996).
- 부부의 결혼 만족도는 가사노동이 공평할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성적 만족도가 높을수록 높아지며(최문임, 최규련, 2007; Wilkie et al., 1998), 부부의 의사소통 방식 역시 결혼 만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비난과 공격이 포함된 의사소통이나 대화 회피가 많은 부부일수록 결혼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박영화, 고재홍, 2005).
- 중년기 부부가 위기감을 줄이고 건강한 인생주기 형성하기 위해서 여가 활동 중요함. 여가 활동은 결혼 만족도 높이고, 중년의 위기 줄이며, 부부 간 대화를 증가시킴으로써 갈등 감소시킴.

#### □ 요약

- 성인 후기는 신체□인지 능력이 감퇴하는 시기임. 그러나 실용적 지능 등 개인의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지능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거나 오히려 증가 가능. 이 시기 개인은 자신이 더 이상 젊지 않음을 인정하고, 그 동안의 삶의 목표를 조망하며,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방향을 전환하는 중년기의 위기를 경험. 그러나 이것이 중년기 위기가 될지 ‘새로운 출발’이 될지는 개인의 환경, 자원에 따라 달라짐. 청소년기 자녀 양육, 성인 자녀의 독립을 경험하는 중년기 부부는 결혼 만족도가 낮아졌다가 성인 자녀의 독립 이후 다시 증가하기 시작.

### 1.6.2. 성인 후기와 문화예술교육 효과

- 중년기의 주요 발달과업은 생산성, 즉 자녀를 양육하거나 직업을 통해 후속세대에게 사회적 가치, 기술을 전수함으로써 사회에 기여하는 가치 있는 존재로 자신을 확립하는 것임. 인생 전반에서 후반으로 바뀌는 과도기이자 가정, 사회에서의 역할 발달 및 변화와 다가올 노인기를 대비하여 삶을 재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가치관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중대한 성찰의 시기로 발달과업을 완수하지 못하면 침체를 경험하게 됨.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스트레스에 대처하고 자아를 재정비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중년기는 부모 역할 감소 및 전술한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변화 등으로 인해 부부관계 역시 가장 어려운 시기임. 반면 평균 수명의 증가로 인해 부부가 함께 생활하는 기간은 연장되어 부부관계의 질이 더욱 중시되고 있음(문현주, 권순재, 2015).
- 부부관계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부부 개인의 자기성찰, 상호 소통의 증진을 위한 부부공감이 필요함. 일반 댄스스포츠 프로그램과 무용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부부들을 대조한 결과, 무용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부부의 자기성찰, 부부공감, 부부갈등 대처 전략이 향상되었음(홍혜전, 2018).
- 문화예술교육의 가치와 효과는 사회적 가치로 확장될 수 있음. 문화의 가치가 문화의 ‘존재의의’라면 문화의 효과란 ‘실현된 가치’로 정의할 수 있음(양혜영, 2012). 한국의 문화예술교육이 목적으로 하는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은 중요한 사회적 가치임(정현수, 한준, 김기현, 박종효, 2017).
- 문화예술교육의 경험을 통한 개인의 문화 및 사회자본의 향상 역시 중요한 사회가치로 볼 수 있음. 문화예술교육은 개인의 문화 지식의 수준, 문화소양적 태도, 문화 활동의 체험으로 이어지며 이는 문화자본의 향상으로 이어짐(Guetzkow, 2002). 또한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개인의 관계 형성, 문화예술을 통한 소통의 증가, 지역 재생, 공동체성 회복은 주요한 사회자본의 형성으로 볼 수 있음(Guetzkow, 2002).
-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꽃 씨앗학교 등 학교문화예술교육 사업과 노인복지시설, 산업단지 종사자 등 사회문화예술교육 사업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개인의 삶의 질 및 문화자본 향상, 공동체 의식 고양 등을 조사한 결과 문화예술교육의 경험은 개인의 더 나은 삶의 질, 더 높은 사회자본과 문화자본 경험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남(정현수, 한준, 김기현, 박종효, 2017).

- 또한 마을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미술교육에서 문화예술교육은 개인의 예술적 본능, 창조성, 내면의 자아를 성찰하는 기회를 제공함. 또한 스스로에 대한 가치 경험은 예술 공동체적 실천에 대한 적극적 참여로 이어지며 공동체 문화의 회복과 확장의 가능성을 보여줌(신현경, 이은영, 2017). 이는 문화예술교육이 개인의 심리적 성숙에 그치지 않고 관계와 사회에 대한 소통, 공감을 통해 공동체 의식의 함양에 기여한다는 것을 보여줌.
- 성인 후기 문화예술교육은 공감능력, 행복감, 자기표현력, 소통능력, 자아존중감 향상 효과가 있었음(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8)

#### □ 요약

- 청소년기 자녀를 양육하는 성인 후기 부부는 결혼 만족도가 극히 낮음. 문화예술교육에 부부가 참여함으로써 부부 공감이 향상되고 부부 관계의 질 역시 상승함. 또한 중년기는 사회로 생산성이 확장되는 시기로 문화예술교육의 가치와 효과는 사회적으로 확장됨. 문화예술교육은 개인의 문화자본 및 사회자본을 향상시키면서 성인 후기 개인은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가족과 직업이 아닌 개인 관계 형성하고 소통이 증가하며, 지역 재생, 공동체성 회복 등 공동체 의식이 더욱 함양하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II-6〉 성인 후기 발달 특성 및 문화예술교육 효과

생애주기	연령	생애주기 특징 및 주요 발달과업	문화예술교육 효과
성인 후기	49~63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체발달: 감각, 내부기관 등 신체 노화 가속화(갱년기, 여성의 경우 폐경)</li> <li>• 인지발달: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의미를 재조각화하며(생애전환기), 이에 실패할 경우 중년의 위기를 경험함</li> <li>• 심리사회적 발달: 다음 세대에게 자신의 생물학적 노화 및 죽음을 넘어서는 영속적 유산을 남기고자 함, 자녀의 독립 및 결혼으로 인한 부부관계의 변화, 직업적 변화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li> <li>• 발달과업: 삶의 의미 재정립, 사회적 생산성 확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예술 능력 향상 효과: 문화예술에 대한 지식 및 체험 향상</li> <li>• 인지적 효과: 자기표현력, 소통능력 향상</li> <li>• 정서적 효과: 공감능력, 행복감, 자아존중감 향상</li> <li>• 관계적 효과: 부부 공감 및 관계의 질 향상, 인간관계의 폭과 소통 확대</li> <li>• 사회적 효과: 지역 공동체성 회복</li> </ul>

### 1.7. 노인기

- 노인기의 시작점이 언제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으며, 법률에서도 하나의 통일된 연령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예: 고령인구의 비율 구성은 65세를 기준으로 하나 「국민연금법」에서는 노령연금 수급권자를 60세로 규정함), 현재 확산되고 있는 견해는

생활연령보다 동일 연령대와 비교했을 때 신체적, 사회적으로 얼마나 잘 기능하고 있는지로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임(예: 중증질환이 없고 사회적 활동을 하는 90세 노인이 건강하지 못한 65세 노인보다 기능적으로 젊다고 봄)

-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유전적, 환경적 요인과 과학,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노인기는 인생의 3분의 1을 차지할 만큼 길어졌으며, 우리나라의 노년인구는 빠르고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6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함. 따라서 문화예술교육에 있어 노인기의 일반적 특성, 문화예술교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성, 새롭게 노인기에 진입하는 세대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전체 문화예술교육의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 1.7.1. 노인기 발달

#### □ 신체발달

- 노화는 나이가 들면서 여러 신체적, 정신적 기능이 변화하고 쇠퇴하는 것을 가리킴. 노화는 일반적으로 일차적 노화(primary aging)와 이차적 노화(secondary aging)로 구분하는데, 일차적 노화는 생물학적 연령의 증가에 따른 필연적 노화, 이차적 노화는 환경적 요인(예: 식이 및 운동습관, 환경오염 등)에 따른 노화임. 개인의 노화는 일차적, 이차적 노화가 상호작용하며 일어난다고 봄.
- 노화에 대한 이론은 크게 두 종류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째가 유전적 계획 이론(genetic programming theory), 둘째가 오류이론(error theory)임. 유전적 계획 이론은 노화는 이미 유전자에 프로그래밍된 과정이 순서대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생물학적 노화는 불가피하다는 내용이며, 오류이론은 세포의 우연적 오류 및 손상이 축적되어 노화와 죽음을 야기하며 이 과정에서 환경적 요인이 노화의 속도와 양상을 결정한다는 것임.
- 유전적 계획 이론과 오류이론을 함께 고려했을 때, 노화를 피할 수 없다는 점은 모두에게 같지만, 개개인의 삶의 궤적, 환경, 습관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노화의 양태를 일반화할 수 없으며, 개인의 노화에 대해 이해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적용하려면 노화의 일반적 특징과 개인의 독특성을 함께 이해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음.
- 노인기의 신체적 변화는 피부, 머리카락 등 외형뿐만 아니라 내부기관, 감각기관에서도 일어남. 이러한 변화에는 뇌의 신경세포 손실 가속화, 호흡기 근육의 약화, 원시 및 색채감각

저하, 백내장, 녹내장과 같은 안구질환, 청력 감소, 촉각 및 미각 둔화 등이 있음. 일반적으로 노인들은 초기 성인들에 비해 덜 예민하고 긍정적인 경향이 있으나, 자기조절이나 반사 속도는 떨어짐. 격렬한 동작이나 운동, 고도로 섬세한 감각적 조작이 필요한 활동은 노인 참여자에게는 적절치 않다고 할 수 있음.

-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에는 알츠하이머병,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 등이 있으며, 이들과 기타 만성질환이 있는 노인은 질환이 없는 노인과는 구분되는 특성이 있을 수 있고, 질환 치료제가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질환의 일반적 증상과 경과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대상자 문화예술교육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 인지발달

- 노인기의 인지능력 변화에는 일반적 패턴이 없으며, 개인의 노력에 따라 능력이 감퇴하지 않거나 증가하는 경우도 있음. 인지 감퇴를 늦추기 위해서는 생활 속에서 인지능력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함. 이에 음악활동(예: 노래 부르기, 악기 연주), 신체활동(예: 레크리에이션), 미술활동(예: 색칠하기, 종이 접기, 점토 공예)과 같은 문화예술 활동이 도움이 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일상적인 정보 처리 속도, 예를 들어 잔돈 계산이나 전화번호 찾기와 같은 활동의 속도는 느려지며, 한 과업에서 다른 과업으로 주의를 전환하는 속도가 느림. 반면 대인관계의 문제 해결, 익숙한 과업에는 큰 지장이 없음.
- 노인기의 기억력 감퇴는 치매에 대한 걱정과 스트레스를 유발하나, 연령의 증가가 곧 기억력 감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님. 노화와 기억의 관계에 대한 최신 이론은 보상-상호작용 이론(compensatory-interaction model)으로 연령에 따라 기억 처리 자원은 감소하지만 축적된 지식과 그 사용 경험이 이를 보상해 줄 수 있다는 내용임. 보상-상호작용 이론에 따르면 축적된 지식이 많거나, 지식을 정교하게 사용하는 훈련이 되어 있으면 기억 수행의 손상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음.
- 노인기의 단기기억 감퇴는 새로운 정보 처리에 필요한 주의집중과 작업기억(working memory) 감소로 인한 것임. 연구 결과 글 내용 암기에 있어서는 노인의 속도가 느릴 수 있으나 글의 의미를 중심으로 한 요약에서는 젊은 성인과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Hultsch et al., 1984), 복잡한 과제에 비해 단순한 암송 과제에서는 연령에 따른 기억력 감퇴가 적게 나타났음(Craik & Jennings, 1992; Kausler, 1990). 즉 노인의 암기에는 기억

하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새로운 정보를 이미 알고 있는 정보와 결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음.

- 노인기의 장기기억 감퇴는 전에 일어난 일에 대한 회상, 새롭게 접한 정보를 회상하는 데서 두드러짐. 이러한 점을 보완하려면 사건이나 정보에 대한 맥락, 즉 그 일이 언제 일어났고 그때 누구와 있었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기억을 떠올릴 수 있는 매개체가 되게끔 할 수 있음. 또한 장기기억 중 지식, 일의 절차나 방법에 대한 기억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인출이 느려질 수는 있지만 감퇴하지 않음.
- 노인기 인지발달의 특징으로 사물의 이치를 빠르게 파악하고 그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 능력인 지혜(wisdom)가 있음. 지혜의 특성은 인간과 세상에 대한 깊은 이해, 인생의 역설, 모순, 불확실성에 대한 수용, 풍부한 경험적 지식의 유연한 적용으로 지혜와 관련된 대뇌전두 피질과 같은 뇌 영역이 젊은이에 비해 노인이 더 많이 활성화됨(Jester, 2010). 노인들은 이러한 이점을 활용하여 타인을 격려하거나, 위로하거나, 조언하는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음.

#### □ 관계발달

- 일반적으로 노인기 대인관계의 폭 자체는 지인의 사망, 선택적 인간관계 등으로 인해 좁아짐. 이러한 대인관계의 축소는 심리적, 사회적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음.
- 노인기의 전반적 부부관계 만족도는 신체적 쇠약, 질병, 수발, 은퇴, 역할 변화 등으로 인해 낮아질 수 있음. 우리나라 노인기 부부의 관계는 크게 가부장적 관계, 수정된 가부장적 관계, 평등한 관계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이 중 가부장적 관계는 남편의 가부장 위치, 부인의 종속적 위치가 확고하게 굳어져 부부 사이가 냉랭한 관계로 노인의 신체적, 심리적 건강을 저하시키는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음.
- 노인기 이혼(황혼이혼)과 별거(예: 졸혼)는 증가하는 추세이며, 노인기 스트레스의 주요한 원인이 될 수 있음. ‘2014년 이혼 통계 결과’에 따르면 20년 이상 동거한 부부의 이혼은 33,100건으로 10년 전보다 7,700건 증가했으며, 30년 이상 동거한 부부의 이혼도 10년 전에 비해 2.3배 증가하였음.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평균 수명 연장, 여성의 경제적 독립 증가, 이혼에 대해 허용적으로 변한 사회적 인식과 가치관의 변화(성인이 된 자녀를 위해 언제까지나 자신을 희생하며 불행한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는 생각)인 것으로 보임.
- 배우자와의 사별은 이혼만큼 고통스러운 스트레스 사건으로, 심각한 경우 우울증, 자살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도움이 필요함. 사별은 남은 배우자에게 큰 충격이며 무감각, 회피, 부정 등 혼돈의 시기를 지나면 죄책감, 우울, 그리움, 외로움을

느끼게 되며,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사별을 받아들이고 삶을 재정비하여 새롭게 적응하려고 노력하게 됨. 이러한 사별 극복 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비슷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슬픔을 나누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모임,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취미 활동이나 운동, 지인과의 대화 등 사회적 교류임.

- 노인과 자녀의 관계는 우리나라에서 노인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관계이며, 평균 수명의 연장에 따라 기간이 더 길어졌기 때문에 중요성이 더 높아졌다고 할 수 있음. 노부모가 자녀에게 제공하는 지원은 손자녀 돌보기, 가사 보조, 경제적 보조, 심리적 지지 등이며, 성인 자녀는 노부모에게 경제적 보조, 일상생활 보조, 심리적 지지를 제공함. 노부모가 제공하는 지원에 비해 자녀의 부모에 대한 지원이 너무 적다고 느낄 경우 불만과 스트레스의 원인이 될 수 있음.
- 친구는 자기개방을 통해 관심사와 가치관을 서로 공유하고 애정, 배려, 이해, 수용, 존중, 조언, 도움을 제공하는 관계임. 노인기의 우정은 이전부터 유지해 온 것일 수도 있으나, 취미 생활을 통해 새로운 우정을 쌓을 수도 있는 정서적 역량과 가능성이 있음. 친구와의 정기적 만남과 연락, 함께하는 여행이나 휴가를 통해 필요한 실질적, 정서적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음.
- 노인기의 사회적 관계는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핵심적인 요소임. 신체적 노화, 배우자 및 지인들과의 사별, 은퇴, 경제적 어려움 등 스트레스 사건 속에서 주변인들이 제공하는 정서적 지지, 생활 보조는 긍정적 자아 정체성을 유지하고 위기에 잘 대처할 수 있게 해줌. 지인과의 관계망이 넓고 접촉 빈도가 높을수록 노인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활발하고 삶의 질이 높으며 우울감, 사망률이 낮음(김병하, 남철현, 1999; Blazer, 1982). 노인기 사회적 관계망 유지를 위해서 은퇴와 사별의 부정적 영향을 보완할 수 있는 지인들과의 정기적 만남 및 연락, 단체 및 모임에 규칙적으로 참여하는 것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음.

#### □ 심리·사회적 발달

- 노인기에 성격이 변화하는지에 대해서는 두 가지 상반된 입장, 즉 변화하지 않고 유지된다는 입장과 계속해서 변해간다는 입장이 공존함.
- Erikson의 심리사회적 발달단계 이론에 따르면, 노인기의 발달 과제는 자아 통합(ego integrity)임.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고 그 의미를 생각했을 때 자부심과 보람을 느끼면 자아 통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지만, 삶이 무의미했다고 생각하면 절망(despair)과 무력감을 경험함. 이러한 절망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초래함. 반면



자아 통합을 완수하면 죽음을 수용할 수 있음. 자아 통합을 위해서는 과거에 대한 반성도 필요하지만 사회적 참여, 창조적 작업을 하는 것이 중요함(Erikson, Erikson, & Kivnik, 1996)

- Peck은 Erikson의 노인기 발달단계를 세분화하여 노인의 발달과제를 직업적 역할의 변화 인정, 신체적 변화 인정, 다가오는 죽음에 대한 인정의 세 가지로 나누었음. Peck에 따르면 은퇴로 인한 사회적 지위의 변화를 인정하고 가족, 친구관계를 비롯해 지역사회 안에서 새로운 관계를 맺으며 자신의 위치를 재정의하고, 피할 수 없는 신체적 노화를 받아들이고 대인관계나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활동으로 주의를 돌리며, 죽음의 불가피성을 수용하고 자신의 죽음을 넘어서 다음 세대의 안녕과 행복에 기여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성공적 노화임.
- Levinson은 노인기에 일어나는 사회적 역할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노인기를 ‘노인기의 전환기(60~65세)’와 ‘노인기(65세 이상)’으로 구분하였음. 노인기의 전환기는 중년기를 정리하고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재평가하며,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노화를 확연히 인식하는 시기임. 이어지는 노인기는 사회적 권력으로부터는 멀어지지만 가정에서 손자녀에게 조부모, 자녀에게 지혜와 조력을 제공하는 지원자 역할을 하는 시기임.
- 위 여러 이론을 정리하면 성공적 노화는 고령에 따른 신체적, 사회적 변화를 수용하고 사회적 활동을 통해 삶의 의미를 재정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성공적 노화의 요소는 크게 신체적 질병, 장애 예방, 인지적, 신체적 기능 수준 유지, 적극적 사회 참여의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은퇴는 노인기에 경험하는 주요 생애사건 중 하나로, 65세를 전후로 하여 직업활동에서 물러나는 것을 뜻함. 은퇴는 오랫동안 유지해 온 사회적 역할 및 지위 상실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경제적 문제 외에도 정체성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음. 특히 은퇴연령에 진입했지만 여전히 현역으로 활동하기를 원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음.
- Atchley(2000)는 노인의 일반적인 은퇴 경험을 은퇴 준비 단계, 은퇴 단계, 환멸 단계, 적응 단계, 은퇴 안정기 단계, 은퇴 종결 단계의 여섯 단계로 나누었음. 은퇴자들은 초기에 일 때문에 할 수 없었던 여가활동, 휴식을 하며 여유, 행복감을 느끼나 시간이 지나면 은퇴생활의 현실에 대한 실망, 불안을 느낄 수 있음.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심각한 경우 우울증으로 이어지기도 함.
- 은퇴 이후 삶의 만족도는 은퇴자가 은퇴를 심각한 위기로 보는지, 새로운 기회로 보는지에 큰 영향을 받음. 사회적 역할과 지위를 박탈당했다고 느끼면 자아 정체성의 위기를 겪게 되

며 이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으나, 새로운 역할을 탐색하면 바뀐 상황에 맞게 자아 정체성을 재정립할 수 있음. 또한 충분한 자산, 꾸준히 유지한 좋은 부부관계, 탄탄한 사회적 관계망, 신체 및 정신 건강은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그러나 부양해야 할 자녀나 가족이 있는데 조기 은퇴했거나 과업 지향적으로 살아 온 경우에는 은퇴 후 삶의 만족도가 낮을 수 있음.

#### □ 요약

- 생활환경 변화, 의학기술 발달, 사회적 인식 변화 등으로 노인기는 이전에 비해 길어졌으며, 인구 구성에 있어서도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남. 생물학적, 신체적 노화는 불가피한 것이지만 개인의 환경, 습관이 노화의 양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개개인의 노화 양상은 모두 다르게 나타남.
- 노인기의 인지능력 변화 역시 마찬가지로 노인이 되었다고 해서 인지능력이 감퇴하는 것은 아님. 생활 속에서 인지능력을 계속 활용하려는 개인의 노력에 따라 인지기능은 유지되거나 향상될 수 있음. 노화에 따라 주의집중력, 새로운 사건을 기억하는 능력은 떨어지지만 의미나 절차에 대한 지식, 사고력이 감소하지는 않음. 또한 노인기 인지발달의 특성인 지혜는 삶의 모순과 불확실성에 대한 수용, 풍부한 경험을 통해 서두르지 않고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능력으로 지혜를 활용하여 타인에게 격려와 조언을 줄 수 있음.
- 노인기 대인관계에서 중요한 타인은 배우자, 자녀, 친구 등으로 이들을 비롯한 친척, 지인 등의 지지적 타인들과 사회적 관계망을 유지하고 취미생활, 운동 등 활동을 공유하는 것은 노인기 삶의 만족도의 중요한 요인임. 한편 배우자와의 사별, 이혼은 노인기의 주요 스트레스 요인 중 하나임. 심리사회적 발달의 측면에서 노인기의 과제는 삶을 정리하고 의미를 재정립하며 가능한 생산적 활동으로 주의를 돌리는 것으로, 은퇴와 같이 사회적 역할과 지위를 크게 변화시키는 사건을 새로운 삶을 위한 기회로 인지하고 새 역할 탐색을 통해 자아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것이 자아 통합에 도움이 됨.

### 1.7.2. 노인기와 문화예술교육 효과

-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노인기의 주요 발달과제인 자아 통합에 어려움이 되는 요인에는 신체적,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 요인이 있는데, 이는 신체 노화에 따른 기능의 변화, 은퇴로 인한 사회적 지위의 상실과 경제적 어려움, 주변인들의 노화와 사망

으로 인한 심리적 충격, 배우자, 자녀를 비롯한 가족과의 갈등, 노인의 사회적 지위 변화로 인한 소외감, 슬픔, 우울감, 분노 등임.

- 최근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빠른 고령화(노인인구 비율의 급격한 증가), 은퇴기를 맞은 베이비붐 세대의 이전과는 다른 노화 양상,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높은 욕구를 지적함(박민진, 권지연, 2019; 이송하, 안지연, 2019; 이원아, 문지영, 2019).
- 지금의 노인층은 의학기술 발달, 영양상태 개선으로 과거에 비하여 정신적, 신체적으로 보다 건강한 상태에서 노년을 맞이하게 되었음. 노인층들의 지속적 사회적, 경제적 활동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으며, 사회 전반의 교육 및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노인층들의 교육에 대한 욕구도 다양해지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노인인구가 누릴 수 있는 문화적 기반이 선진국에 비해 열악하며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노인복지시설은 단순 요양원, 보호소 수준에 그치고 있음(박민진, 권지연, 2019).
- 50+세대는 기존 노인층과 달리 고졸 이상 학력이 많으며 소득수준도 높기 때문에 삶의 질 향상과 여가시간을 활용하기 위한 일환으로 문화적 욕구가 높음. 문화예술은 50+세대의 여가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 로버트 스텐빈스(Robert Stebbins)에 의하면 여가는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이 중 삶의 질과 자아실현을 위해 기술, 지식, 경험을 얻고 표출하면서 경력을 쌓는 진지한 여가(Serious Leisure)가 필요함(이송하, 안지연, 2019).
- 문화예술교육 효과는 크게 1) 삶의 질 향상, 2)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자기표현을 통한 사회정체성, 자아존중감 회복이었음. 삶의 질 향상에는 스트레스 및 부정 정서 해소, 생활만족 향상, 배움에 대한 욕구 충족, 예술적 취향의 발견 및 계발, 삶의 활력 및 감성 회복, 소통과 공감을 통한 치유, 사회정체성 및 자아존중감 회복에는 창조적 공동체 형성, 기존 관계에 대한 성찰 및 자신감 회복, 사회 참여에 대한 관심 등이 포함됨. 특히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혼자 생활하거나, 문해가 불가능하거나, 질병이 있는 노인들에게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심리적 자원을 제공할 수 있음(노유진, 심교린, 2019; 이송하, 안지연, 2019; 이원아, 문지영, 2019; 한수정, 한경훈, 2019; 민경숙, 2018; 정혜연, 2018)
- 문화예술교육을 받는 50+ 세대를 대상으로 초점집단 면접(FGI)을 실시한 결과, 자기발견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예술적 취향 발견, 주체적 사회활동 참여가 문화예술교육의 효과로 나타났다(이송하, 안지연, 2019)
- 중산층 연소노인(60대) 7명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 체험 관찰, 심층면담을 실시한 결과,

문화예술교육은 사회참여 유도, 예술을 통한 창조적 커뮤니티의 형성, 문화적 생산자로서의 역할, 감정의 정화작용을 통한 치유, 문화적 양극화 해소, 공동체 의식 형성 등에 기여(재인용: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0)하여 노인들의 위축된 삶을 전환시켜 사회구성원들과의 관계맺음에 도움을 줄 수 있음(민경숙, 2018)

- 한국춤 활동과 같은 노인기의 신체활동은 생리학적 측면에서 체력증진, 신체조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와 일상생활의 수행력을 높여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신체조성 요인 중 BMI, 근육량, 체지방률, 체중, 민첩성, 동적 평형성, 평형성, 심폐지구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김영옥, 오수학, 2017)
- 서울 소재 노인복지관, 평생교육기관에서 음악을 통한 문해학습에 참여하는 여성 노인 64명과 참여 교사를 대상으로 양적, 질적 연구(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음악 수업 만족도는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정적 효과가 있었으며, 인터뷰에 참여한 음악 교사들은 교육 참여자들이 못 배운 한을 풀고, 자존감을 회복하며, 행복감, 만족감을 느끼며, 교사 자신들도 이러한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끼고 더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 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등 성장을 위해 노력하게 되었다고 보고했음(한수정, 한경훈, 2019)
- 치매 환자와 간병 가족이 짝을 이루어 참여하는 미술관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참여자들은 프로그램 참여가 일상생활과 자신에 대한 의미를 변화시키는 지적 자극이 되었고, 공유하는 경험을 통해 정체성을 확인했으며, 치매로 인한 사회관계의 위축에서 벗어나 사회적 상호작용을 경험했다고 말했음(정혜연, 2018)
- 노인기 문화예술교육은 행복감, 친밀감, 자아존중감 향상 효과가 있었음(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8)

□ 요약하면, 노인기 발달의 특성을 고려할 때 노인들에게는 인지기능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인지기술 활용, 정기적인 만남과 교류, 활동을 통한 실질적, 심리적 지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사회적 관계망의 유지 및 확대가 신체적, 정신적 건강, 삶의 만족 및 성공적 노화를 위해 필요한데, 문화예술교육이 이러한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다고 할 수 있음.

-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고령화 사회에 들어선 우리나라에서는 노인에 대한 정책적,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고, 이전 노인세대보다 상대적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경험과 관심이 많은 베이비붐 세대의 노화에 대비해야 하며, 이는 치료나 지식 위주의 접근보다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편이 바람직함.

- Erikson 이론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노인 참여자가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창조적 집단에서

지적, 예술적,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새로운 사회정체성을 정립하고,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며, 따라서 자신에 대한 긍정적 인지와 정서를 계발할 수 있기 때문에 성공적 자아통합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긍정적 효과는 대인관계 및 기타 사회적 관계(예: 지역사회와의 관계)로 확대될 수 있음.

- 개인의 사회적, 경제적 수준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필요와 욕구가 다르기 때문에 노인 인구에 대해 집단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함. 또한 다수의 논문에서 노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예술강사 역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었음.

〈표 II-7〉 노인기 발달 특성 및 문화예술교육 효과

생애주기	연령	생애주기 특징 및 주요 발달과업	문화예술교육 효과
노인기	65세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체발달: 신체 노화의 가시화(예: 흰 머리, 주름), 운동능력 및 반사기능 감소</li> <li>인지발달: 주의 집중 및 정보 처리 속도 감소, 일상적 인지능력 활용을 통한 인지능력 유지 및 발달, 지혜를 활용한 문제 해결 및 조언</li> <li>심리사회적 발달: 배우자, 자녀, 친구와의 친밀한 관계의 유지 및 새로운 관계 형성, 배우자, 지인과의 사별, 직장에서의 은퇴, 자녀와의 불화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li> <li>발달과업: 신체적 노화, 사회적 역할 변화에 대한 수용, 삶의 의미 통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예술 능력 향상 효과: 문화예술감수성 및 친숙성 향상</li> <li>인지적 효과: 배움에 대한 욕구 충족</li> <li>정서적 효과: 행복감, 친밀감, 자아존중감 증진, 스트레스 및 부정적 정서 해소, 생활만족도 향상, 소통과 공감을 통한 치유</li> <li>사회적 효과: 창조적 공동체 형성, 사회 참여에 대한 관심 증가</li> </ul>

〈표 II-8〉 생애주기별 발달 특성 및 문화예술교육 효과 요약

생애주기	연령	생애주기 특징 및 주요 발달과업	문화예술교육 효과
유아기	2~6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체발달: 대근육(운동) 및 소근육(세밀한 조작), 신체적 협응 능력 발달</li> <li>인지발달: 사고력, 상상력 및 급격한 언어 발달</li> <li>심리사회적 발달: 부모, 어린이집 및 유치원 교사, 또래집단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사회화, 자아개념 형성, 자신과 타인의 정서 이해, 기초적 도덕개념 형성</li> <li>발달과업: 놀이를 통한 전인적 발달, 자율성 및 주도성 획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예술 능력 향상 효과: 문화예술감수성 및 친숙성 향상</li> <li>인지적 효과: 창의성, 상상력, 자기표현력, 자기조절력, 문화수용력 증진</li> <li>정서적 효과: 공감능력, 행복감 증진</li> </ul>
아동기	6~12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체발달: 유아기에 이어 대근육 및 소근육 추가적 발달(보다 어려운 동작 및 조작이 가능해짐)</li> <li>인지발달: 유아기의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 경험 중심적인 구체적, 논리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예술 능력 향상 효과: 문화예술감수성 및 친숙성 향상</li> <li>인지적 효과: 창의성, 자기표현력, 사회성, 학교적응력 향상</li> <li>정서적 효과: 행복감, 친밀감, 생활만</li> </ul>

		<p>사고가 발달하나, 추상적 사고는 어려울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심리사회적 발달: 또래와의 비교를 통한 자아개념 및 자기효능감 형성, 학교생활을 통한 사회적 규칙 학습</li><li>발달과업: 학업, 또래관계에서의 근면성(성실성) 및 유능감 획득</li></ul>	<p>죽도 향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관계적 효과: 가족관계 개선, 예의범절 및 긍정적인 대화법 학습</li></ul>	
청소년기	13~18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신체발달: 2차 성징이 나타남</li><li>인지발달: 사춘기에 접어들며 급격한 지적 성장이 일어나며, 추상적, 가설적 사고가 발달함</li><li>심리사회적 발달: 타인의 입장에 대한 이해 향상, 법과 사회질서 준수에 대한 의무감 형성, 부모와의 갈등과 이해를 통한 독립적 자아 형성, 친구들과의 우정 및 친밀감 형성</li><li>발달과업: 긍정적, 통합적 자아정체감 확립</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문화예술 능력 향상 효과: 문화예술감수성 및 친숙성 향상</li><li>인지적 효과: 창의력, 자기조절력, 학습능력 향상</li><li>정서적 효과: 행복감, 자아존중감, 공감능력, 정서발달, 감정-정서 순화, 감정 표현의 풍부화 및 구체화, 성취감 향상</li><li>관계적 효과: 사회성, 소통능력 향상, 긍정적 인간관계 형성</li><li>사회적 효과: '나'에서 '우리'로의 성장, 공동체의 힘 깨닫기</li></ul>	
성인기	성인 전기	19~28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신체발달: 신체적, 정신적 기능이 최고조에 이름</li><li>인지발달: 현실에 맞는 실용적 사고, 불완전함과 모순을 수용함, 자신의 인생목표를 이루기 위해 지적 능력 활용, 취업, 결혼으로 인한 스트레스</li><li>심리사회적 발달: 대학 등 고등교육 기관에서의 학업, 진로 탐색, 배우자와의 만남 및 관계 유지, 자녀 출산 및 양육</li><li>발달과업: 직업적 정체성 확립, 배우자, 가족, 친구와의 친밀감 형성 및 유지</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문화예술 능력 향상 효과: 문화예술감수성 및 친숙성 향상</li><li>인지적 효과: 자기표현력 증진, 대학 생활의 학교 적응</li><li>정서적 효과: 행복감, 자아존중감 증진, 대인관계 문제 관련 스트레스 해소, 정서적 안정</li><li>관계적 효과: 대인관계 문제 해결에 필요한 사회적 기술 학습</li></ul>
	성인 중기	29~48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신체발달: 신체적, 정신적 기능은 여전히 활발하지만 생물학적 노화가 시작됨</li><li>인지발달: 가정, 직장, 지역사회에서의 역할 및 책임 완수를 위해 지적 능력 사용, 현실적, 안정적 생활양식 확립, 다양한 역할 수행에 따른 스트레스 및 역할 갈등</li><li>심리사회적 발달: 배우자, 가족, 자녀와의 친밀한 관계 유지, 직장, 지역사회에서의 역할 수행</li><li>발달과업: 중요한 타인들과의 친밀감 유지, 성공적인 사회적 역할 수행을 통한 성취감</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문화예술 능력 향상 효과: 심미적 감수성 향상</li><li>인지적 효과: 자기효능감, 자기표현력 향상, 긍정적 사고 함양</li><li>정서적 효과: 행복감, 자아존중감 증진, 정서적 안정</li><li>관계적 효과: 자녀 양육을 위해 필요한 심리적 성숙</li></ul>
	성인 후기	49~63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신체발달: 감각, 내부기관 등 신체 노화 가속화(갱년기, 여성의 경우 폐경)</li><li>인지발달: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의미를 재조직화하며(생애전환기), 이에 실패할 경우 중년의 위기를 경험함</li><li>심리사회적 발달: 다음 세대에게 자신의 생물학적 노화 및 죽음을 넘어서는 영속적 유산을 남기고자 함, 자녀의 독립 및 결혼으로 인한 부부관계의 변화, 직업적 변화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문화예술 능력 향상 효과: 문화예술에 대한 지식 및 체험 향상</li><li>인지적 효과: 자기표현력, 소통능력 향상</li><li>정서적 효과: 공감능력, 행복감, 자아존중감 향상</li><li>관계적 효과: 부부 공감 및 관계의 질 향상, 인간관계의 폭과 소통 확대</li><li>사회적 효과: 지역 공동체성 회복</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발달과업: 삶의 의미 재정립, 사회적 생산성 확보</li></ul>	
노인기	65세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신체발달: 신체 노화의 가시화(예: 흰 머리, 주름), 운동능력 및 반사기능 감소</li><li>인지발달: 주의 집중 및 정보 처리 속도 감소, 일상적 인지능력 활용을 통한 인지능력 유지 및 발달, 지혜를 활용한 문제 해결 및 조언</li><li>심리사회적 발달: 배우자, 자녀, 친구와의 친밀한 관계의 유지 및 새로운 관계 형성, 배우자, 지인과의 사별, 직장에서의 은퇴, 자녀와의 불화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li><li>발달과업: 신체적 노화, 사회적 역할 변화에 대한 수용, 삶의 의미 통합</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문화예술 능력 향상 효과: 문화예술감수성 및 친숙성 향상</li><li>인지적 효과: 배움에 대한 욕구 충족</li><li>정서적 효과: 행복감, 친밀감, 자아존중감 증진, 스트레스 및 부정적 정서 해소, 생활만족도 향상, 소통과 공감을 통한 치유</li><li>사회적 효과: 창조적 공동체 형성, 사회 참여에 대한 관심 증가</li></ul>	

## 2. 양적 연구

### 2.1. 대상 사업 및 응답자 인구 통계 특성

□ 총 참여자: 1,937명

- 사전조사만 참가한 참여자, 사후조사만 참가한 참여자, 사전사후에 모두 참가한 참여자를 합산한 수임.
- 연령이 오기재되었거나 응답하지 않은 경우 분석에서 제외되어 분석별로 대상인원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참여자 연령

- 본 연구에서 사용한 문화예술교육 효과지표는 진흥원에서 개발한 효과지표로 설문지에서 참여자의 만 나이를 평정함. 유아기 연령은 1~7세, 아동기 연령은 8~13세이나 사전조사를 시작한 시기를 고려했을 때 초등학교 저학년의 연령이 만 6세 혹은 7세일 수 있음.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만 1~6세까지 유아기로, 만 7~12세까지 아동기로 구분하였으며 이후 생애주기 역시 만 나이를 고려하여 기존 생애주기보다 1살씩 적은 연령으로 생애주기를 구별하였음.
- 연령이 오기재되었거나 응답하지 않은 경우 분석에서 제외되어 분석별로 대상인원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표 II-9〉 전체 참여자 인구통계( $n = 1,937$ )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생애주기 (만 연령)	유아기(1~6세)	110	5.7
	아동기(7~12세)	520	26.8
	청소년기(13~18세)	230	11.9
	성인 전기(19~28세)	152	7.8
	성인 중기(29~48세)	268	13.8
	성인 후기(49~63세)	317	16.4
	노인 전기(64~73세)	177	9.1



	노인 후기(74~98세)	149	7.7
	연령 미상	14	0.7
	<b>합계</b>	1,937	100.0
<b>성별</b>	남성	763	39.4
	여성	1,145	59.1
	성별 미상	29	1.5
	<b>합계</b>	1,937	100.0
<b>참여사업</b>	유아문화예술교육	98	5.1
	예술꽃씨앗학교	277	14.3
	꿈의 오케스트라	101	5.2
	아동복지시설	253	13.1
	노인복지시설	290	15.0
	부처 간 협력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근로자 문화예술교육)	161	8.3
	지역 특성화*	139	7.2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210	10.8
	생애전환 문화예술학교	225	11.6
	직장인 문화예술교육	183	9.4
	<b>합계</b>	1,937	100.0
<b>교육기간</b>	사전 교육 경험 없음	456	23.5
	1년 미만	538	27.8
	1년~3년 미만	475	24.5
	3년~5년 미만	218	11.3
	5년~7년 미만	97	5.0
	7년~9년 미만	103	5.3
	9년 이상	9	0.5
	응답 없음	41	2.1
	<b>합계</b>	1,937	100.0

\*프로그램 예시: 꼬끼리 이웃작가, 마고의 이야기 공작소, 프로젝트 식물의 땅 등

### 2.1.1. 생애주기별, 사업별 참여자(표): 대응표본 검증 참여자, 독립표본 검증 참여자

□ 조사 중 프로그램 일정 변화, 참여자 개인 사정 등으로 사전-사후 조사 표본에서 이탈한 참여자가 생겨 사전-사후 동일인 비교를 할 수 있는 표본이 감소함. 이에 되도록 많은 참여자들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 효과를 다각도로 파악하기 위해 동일인 비교가 가능한 표본을 대상으로 사전-사후 대응표본 t 검증, 조사에 참여한 전체 표본의 사전조사 결과와 사후조사 결과를 비교하는 사전-사후 독립표본 t 검증을 함께 생애주기별, 사업별로 실시함.

〈표 II-10〉 참여자 인구 통계 특성(생애주기별)

구분	사업명	대응표본 검증	독립표본 검증	
		사례 수	사전 사례 수	사후 사례 수
유아기	유아문화예술교육	50	65	80
	예술꽃씨앗학교	7	7	2
	아동복지시설	1	3	1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0	3	7
	<b>소계</b>	<b>58</b>	<b>78</b>	<b>90</b>
아동기	예술꽃씨앗학교	136	161	144
	꿈의 오케스트라	69	84	83
	아동복지시설	25	87	77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57	99	71
	<b>소계</b>	<b>287</b>	<b>431</b>	<b>375</b>
청소년기	예술꽃씨앗학교	53	73	81
	꿈의 오케스트라	2	2	2
	아동복지시설	25	88	39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13	14	23
	<b>소계</b>	<b>93</b>	<b>177</b>	<b>145</b>
성인기	노인복지시설	3	12	47
	부처 간 협력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근로자 문화예술교육)	22	156	23
	지역 특성화	52	99	7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29	53	61
	생애전환 문화예술교육	67	164	101
	직장인 문화예술교육	77	104	151
	<b>소계</b>	<b>250</b>	<b>588</b>	<b>390</b>
노인기	노인복지시설	44	186	128
	부처 간 협력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근로자 문화예술교육)	1	4	1
	지역 특성화	0	31	0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2	2	2
	생애전환 문화예술교육	3	11	7
	직장인 문화예술교육	2	2	3
	<b>소계</b>	<b>52</b>	<b>236</b>	<b>141</b>

연령 미상	예술꽃씨앗학교	0	0	1
	꿈의 오케스트라	1	2	1
	아동복지시설	0	1	0
	노인복지시설	0	1	1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0	0	1
	생애전환 문화예술교육	0	4	2
	직장인 문화예술교육	1	0	1
	소계	2	8	7
합계		742	1,518	1,148

〈표 II-11〉 참여자 인구 통계 특성(사업별)

구분		대응표본 검증	독립표본 검증	
		사례 수	사전 사례 수	사후 사례 수
유아문화 예술교육	유아기(만 6세 이하)	50	65	80
	소계	50	65	80
예술꽃 씨앗학교	유아기(만 6세 이하)	7	7	7
	아동기(만 7~12세)	136	161	144
	청소년기(만 13~18세)	53	73	81
	연령 미상	0	0	1
	소계	196	241	233
꿈의 오케스트라	아동기(만 7~12세)	69	84	83
	청소년기(만 13~18세)	2	2	2
	연령 미상	1	2	1
	소계	72	88	86
아동 복지시설	유아기(만 6세 이하)	1	3	1
	아동기(만 7~12세)	25	99	71
	청소년기(만 13~18세)	25	88	39
	연령 미상	0	1	0
	소계	51	191	111
노인 복지시설	성인 후기(만 49~63세)	3	12	7
	노인 전기(만 64~73세)	32	107	70
	노인 후기(만 74세 이상)	12	79	58
	연령 미상	0	1	1
	소계	47	199	136
부처 간 협력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성인 전기(만 19~28세)	1	19	2
	성인 중기(만 29~48세)	7	67	7
	성인 후기(만 49~63세)	14	70	14
	노인 전기(만 64~73세)	1	4	1
	소계	23	160	24
지역 특성화	성인 전기(만 19~28세)	15	32	16
	성인 중기(만 29~48세)	31	59	39
	성인 후기(만 49~63세)	6	8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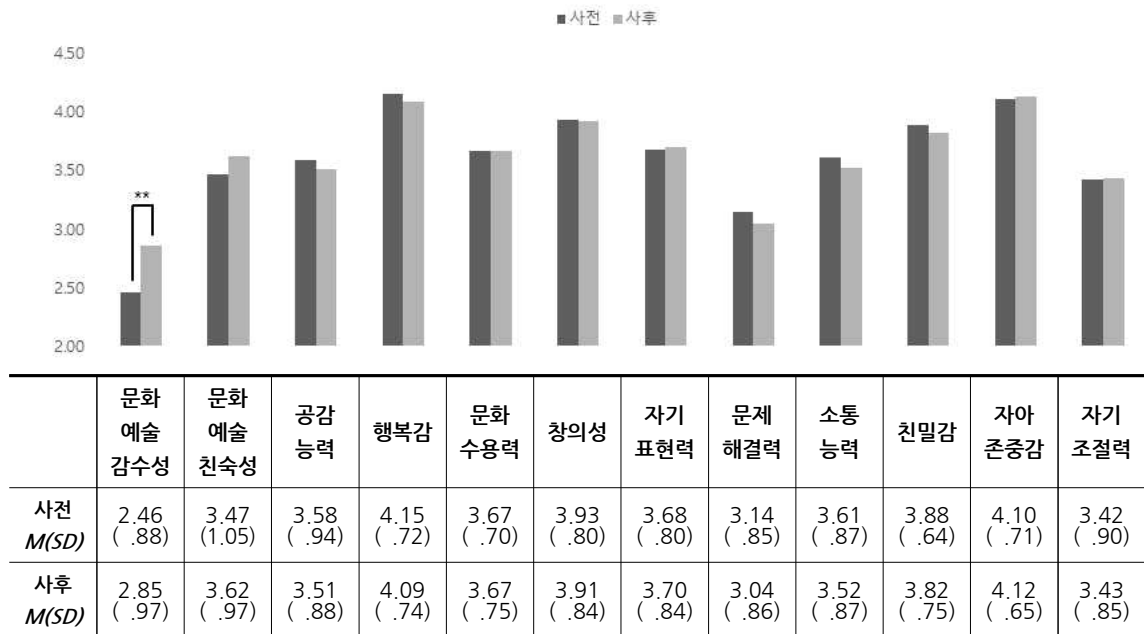
	노인 전기(만 64~73세)	0	8	0
	노인 후기(만 74세 이상)	0	23	0
	<b>소계</b>	<b>52</b>	<b>130</b>	<b>61</b>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유아기(만 6세 이하)	0	3	2
	아동기(만 7~12세)	57	87	77
	청소년기(만 13~18세)	13	14	23
	성인 전기(만 19~28세)	1	1	1
	성인 중기(만 29~48세)	22	45	36
	성인 후기(만 49~63세)	6	7	10
	노인 전기(만 64~73세)	2	2	2
	연령 미상	0	0	1
	<b>소계</b>	<b>101</b>	<b>159</b>	<b>152</b>
생애전환	성인 후기(만 49~63세)	67	164	101
	노인 전기(만 64~73세)	3	10	7
	노인 후기(만 74세 이상)	0	1	0
	연령 미상	1	4	2
	<b>소계</b>	<b>71</b>	<b>179</b>	<b>110</b>
직장인 문화예술교육	성인 전기(만 19~28세)	35	51	81
	성인 중기(만 29~48세)	35	43	58
	성인 후기(만 49~63세)	7	10	12
	노인 전기(만 64~73세)	2	2	3
	연령 미상	0	0	1
	<b>소계</b>	<b>79</b>	<b>106</b>	<b>155</b>
<b>합계</b>		<b>742</b>	<b>1,518</b>	<b>1,148</b>

## 2.2.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효과

### 2.2.1. 유아 대상 문화예술교육 효과

#### □ 대응표본 t 검증 결과

〈표 II-12〉 유아기 문화예술교육 대응표본 t 검증 효과( $n = 5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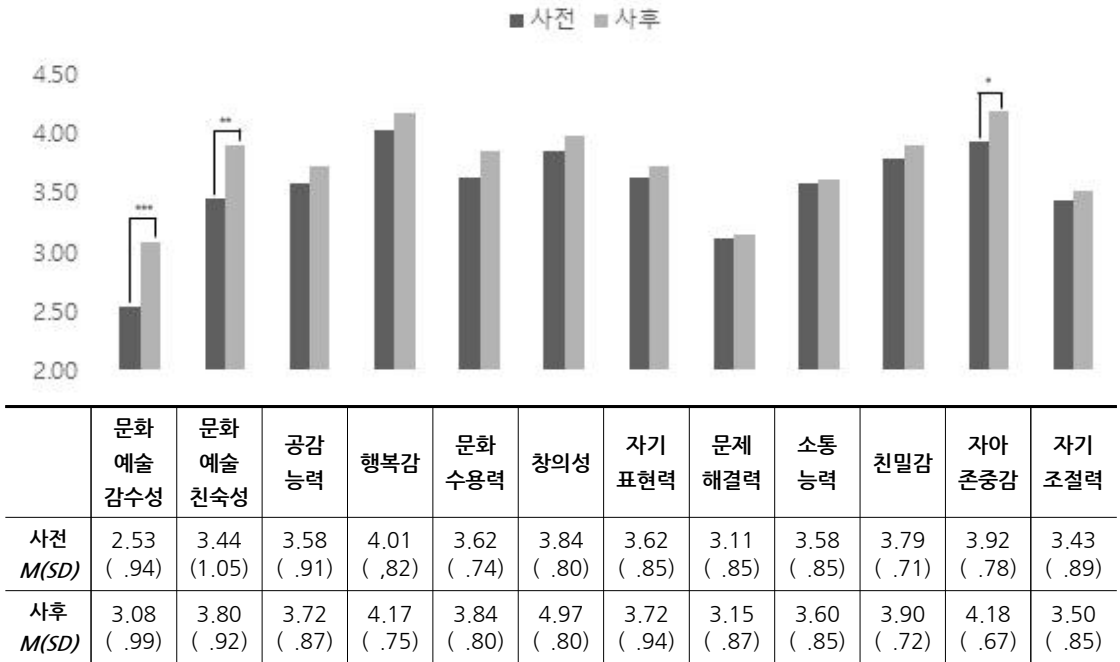
\*\* $p < .01$

※ *M*: 평균, *SD*: 표준편차

- 조사에 참여한 유아기 참여자(유아 보호자) 중 사전-사후 설문에 모두 응답한 참여자 58명을 대상으로 대응표본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문화예술감수성 평균이 유의하게 높아짐( $t = 3.55, p < .01$ ).
-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지표 중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는 문항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문항별 사전-사후 비교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음.
- 문화예술교육 기간에 따른 효과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유아기 대응표본 집단에 대한 사전-사후 반복측정을 실시한 결과, 기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 □ 독립표본 t 검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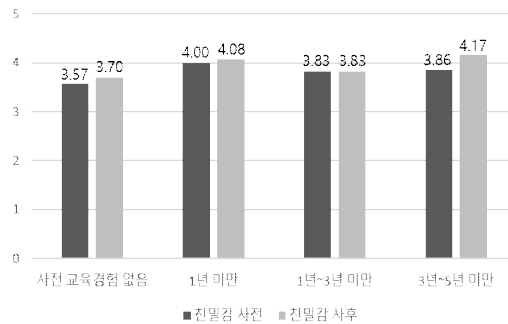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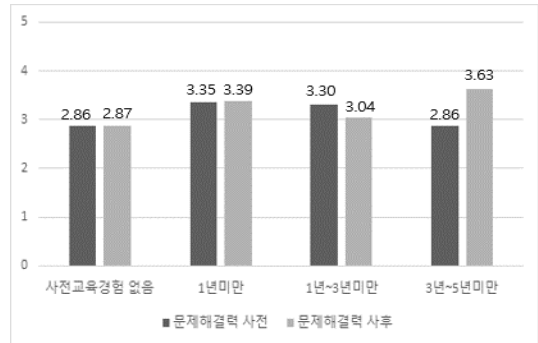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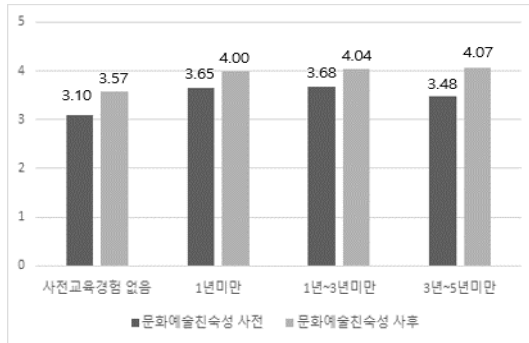
〈표 II-13〉 유아기 문화예술교육 독립표본 t 검증 효과(사전  $n = 77$ , 사후  $n = 90$ )



\* $p < .05$ , \*\* $p < .01$ , \*\*\* $p < .001$

※ *M*: 평균, *SD*: 표준편차

- 조사에 참여한 유아기 참여자(유아 보호자) 중 사전조사 참여 집단 77명, 사후조사 참여 집단 90명을 대상으로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문화예술감수성( $t = 3.63$ ,  $p < .001$ ), 문화예술친숙성( $t = 2.90$ ,  $p < .01$ ), 자아존중감( $t = 2.29$ ,  $p < .05$ ) 평균이 유의하게 높아짐.
-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지표에 대한 문항별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문화수용력 지표의 ‘귀하 자녀는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고 이해하려고 한다’ 문항(사전 평균 3.49 → 사후 평균 3.78,  $t = 1.84$ ,  $p < .08$ ), 창의력 지표의 ‘귀하 자녀는 평소 다양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잘 생각하는 것 같다’ 문항(사전 평균 3.68 → 사후 평균 3.94,  $t = 1.76$ ,  $p < .08$ )에서 주변 수준에서 유의한 효과가 나타남.
- 문화예술교육 기간에 따른 효과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유아기 독립표본 집단에 대한 2 way ANOVA 분석을 실시한 결과, 문화예술친숙성( $F(3, 159) = 3.28$ ,  $p < .05$ ), 문제해결력( $F(3, 156) = 3.24$ ,  $p < .05$ ), 친밀감( $F(3, 159) = 3.07$ ,  $p < .05$ ) 지표에서 기간별 효과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음.



〈그림 II-1〉 유아기 기간별 사전-사후 평균(독립표본 t 검증)

#### □ 유아기 문화예술교육 효과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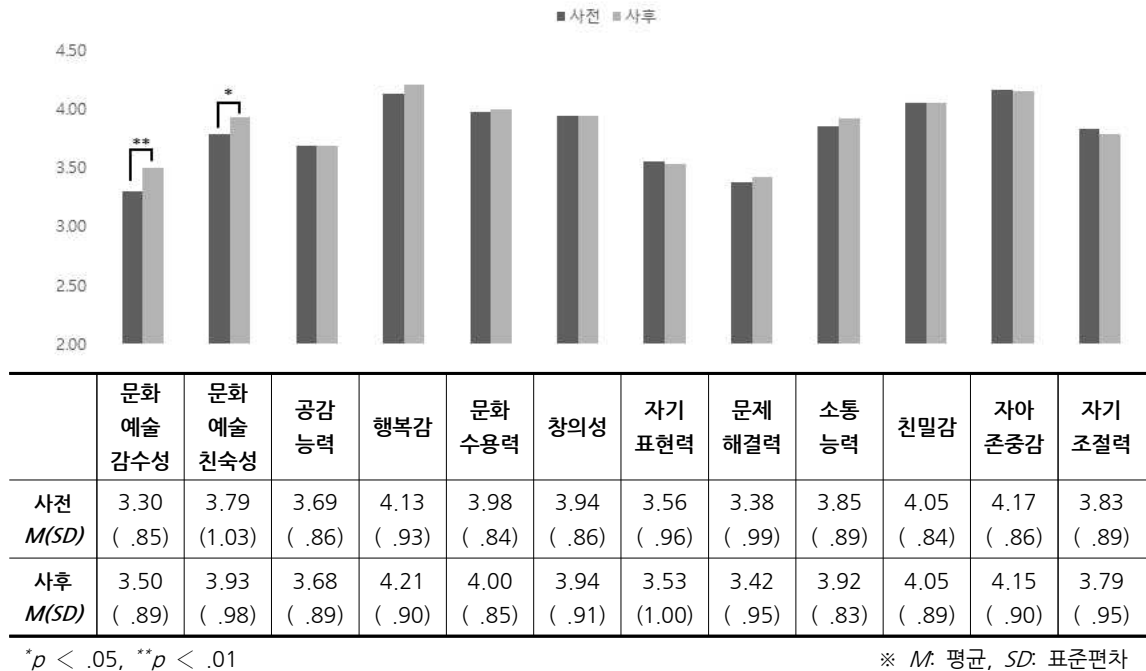
- 유아기 참여자에 대한 대응표본, 독립표본 t 검증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조사에 비해 사후조사 평균이 오르는 추세였으며, 두 검증 모두에서 문화예술감수성에서 유의한 효과가 나타났음. 또한 독립표본 t 검증에서는 문화예술친숙성, 자아존중감에 대한 유의한 효과가 나타났음.
- 유아기 참여자의 문화예술교육 기간별 효과 분석에서 대응표본은 유의한 차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독립표본 집단에서 문화예술친숙성, 문제해결력, 친밀감에서 유의한 차이 나타났음. 문화예술친숙성은 기간이 긴 집단이 효과 역시 큰 추세를 보였으나, 문제해결력과 친밀감은 기간의 길이와 지표 효과가 비례하지 않았음.

### 2.2.2. 아동 대상 문화예술교육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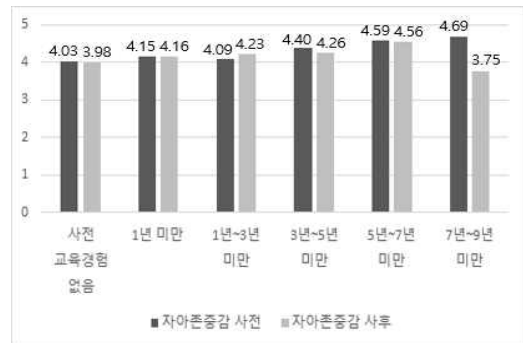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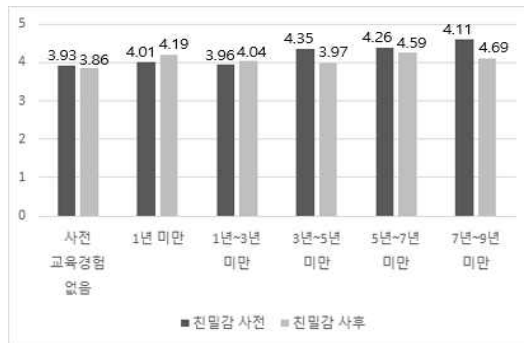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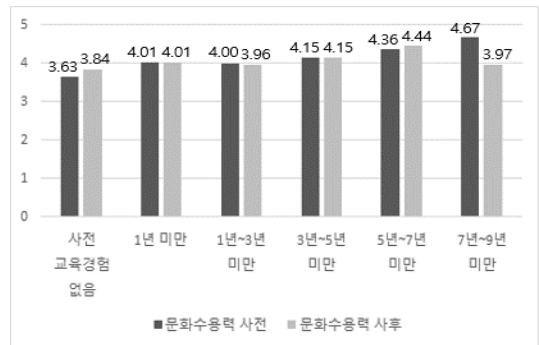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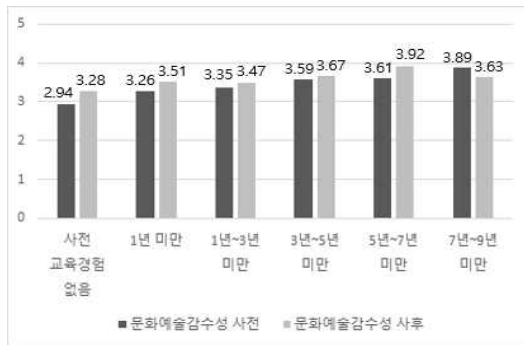
#### □ 대응표본 t 검증 결과



〈표 II-14〉 아동기 문화예술교육 대응표본 t 검증 효과( $n = 28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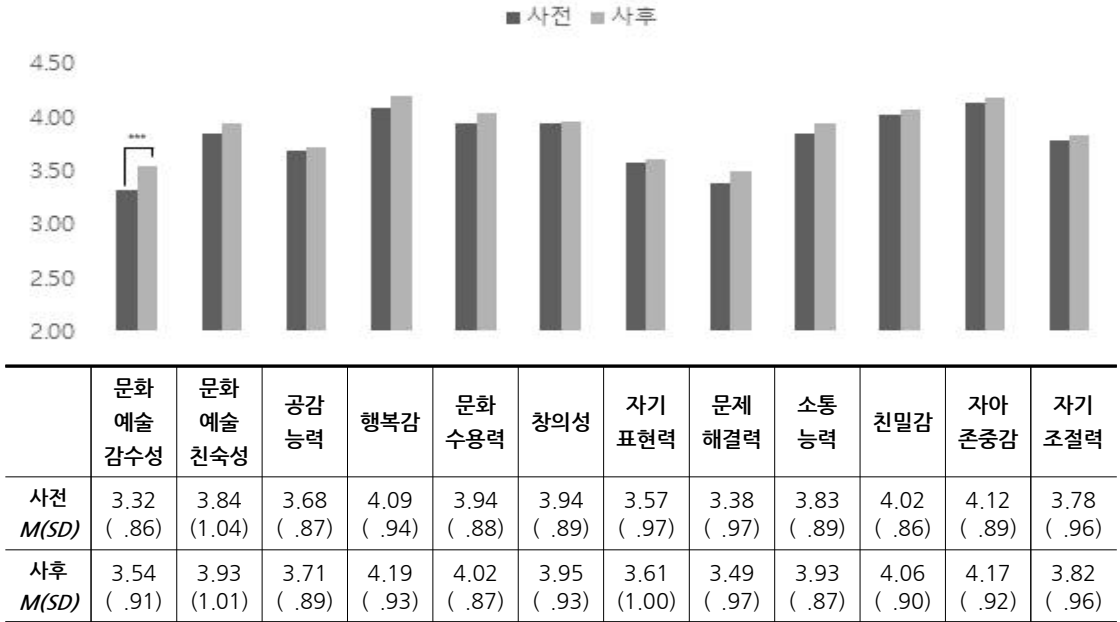
- 조사에 참여한 아동기 참여자 중 사전-사후 질문에 모두 응답한 참여자 287명을 대상으로 대응표본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핵심지표인 문화예술감수성( $t = 3.41, p < .01$ ), 문화예술 친숙성( $t = 2.09, p < .05$ ) 지표가 유의하게 높아짐.
-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지표에 대해 문항별 사전-사후 비교분석을 실시한 결과, 친밀감 지표의 ‘나는 가족(보호자)과 대화를 자주 나누는 편이다’ 문항(사전 평균 3.66 → 사후 평균 3.72,  $t = 2.22, p < .05$ ) 평균이 유의하게 높아졌으며, 창의성 지표의 ‘나는 무언가를 새롭게 시도하는 것을 좋아한다’ 문항(사전 평균 4.04 → 사후 평균 4.16,  $t = 1.81, p < .08$ ), 문제해결력 지표의 ‘나는 문제해결과정에서 예상했던 목표와 실제 결과를 비교해 본다’ 문항(사전 평균 3.34 → 사후 평균 3.48,  $t = 1.78, p < .08$ ) 평균이 주변 수준에서 유의하게 높아짐.
- 문화예술교육 기간에 따른 효과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아동기 대응표본 집단에 대한 사전-사후 반복측정을 실시한 결과, 문화예술감수성( $F(6, 278) = 3.47, p < .01$ ), 문화수용력( $F(6, 278) = 3.39, p < .01$ ), 친밀감( $F(6, 280) = 2.04, p < .08$ ), 자아존중감( $F(6, 280) = 2.00, p < .08$ ) 지표에서 기간별 효과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음.



〈그림 II-2〉 아동기 기간별 사전-사후 평균(대응표본 t 검증)

□ 독립표본 t 검증 결과

〈표 II-15〉 아동기 문화예술교육 독립표본 t 검증 효과(사전  $n = 431$ , 사후  $n = 37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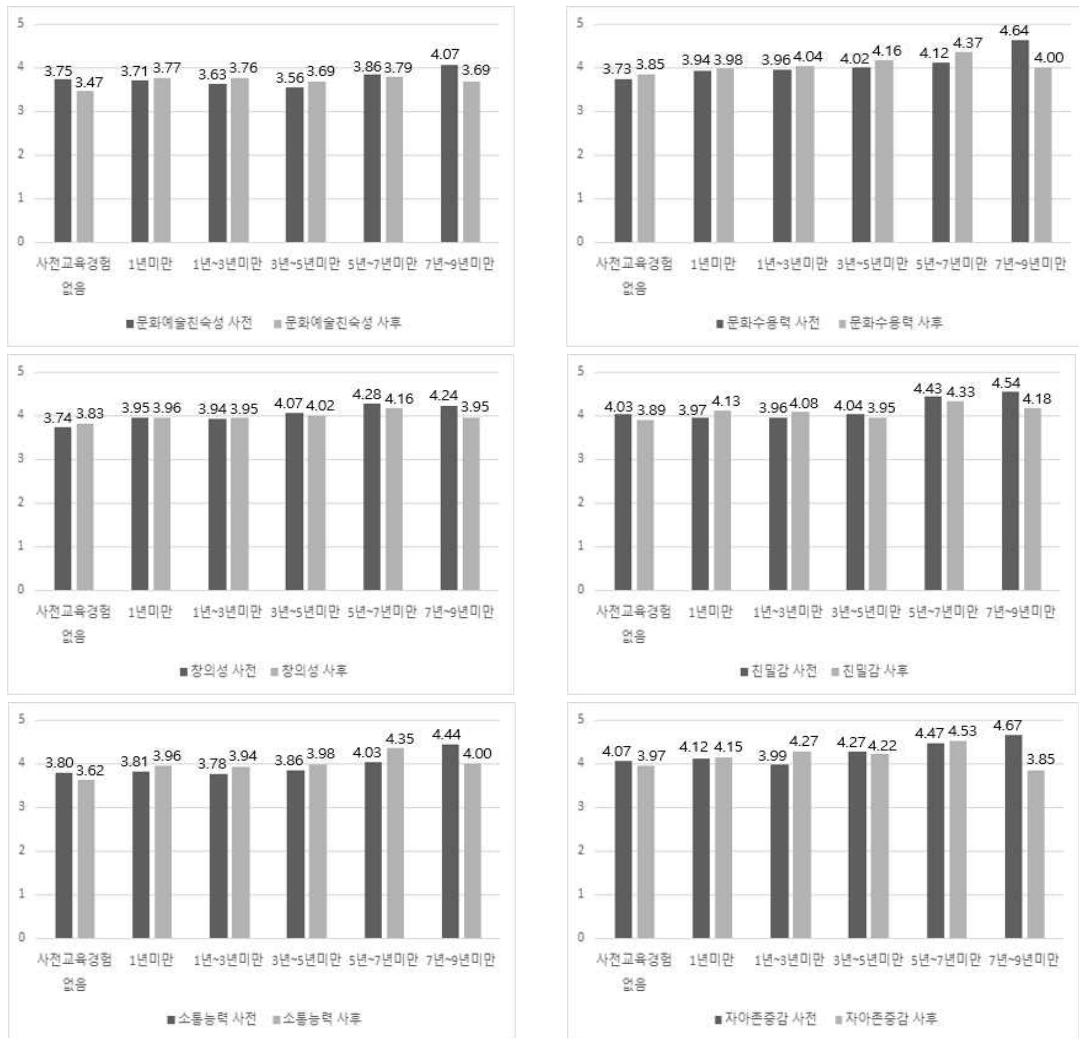


\*\*\*  $p < .001$

※ *M*: 평균, *SD*: 표준편차

- 조사에 참여한 아동기 참여자 중 사전조사 참여 집단 431명, 사후조사 참여 집단 373명을 대상으로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문화예술감수성( $t = 3.51, p < .001$ ) 평균이 유의하게 높아짐.
-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지표에 대한 문항별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행복감 지표의 ‘나는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나로 태어나고 싶다’ 문항(사전 평균 3.88 → 사후 평균 4.06,  $t = 1.98, p < .05$ ), 문화수용력 지표의 ‘나는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고 이해하려고 한다’ 문항(사전 평균 3.99 → 사후 평균 4.13,  $t = 1.99, p < .05$ ), 문제해결력 지표의 ‘나는 문제해결과정에서 예상했던 목표와 실제 결과를 비교해 본다’ 문항(사전 평균 3.34 → 사후 평균 3.54,  $t = 2.38, p < .05$ ), 소통능력 지표의 ‘나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느낌을 말할 때 귀 기울인다’ 문항(사전 평균 3.85 → 사후 평균 4.00,  $t = 2.09, p < .05$ )에서 유의한 효과가 나타남.
- 문화예술교육 기간에 따른 효과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아동기 독립표본 집단에 대한 2 way ANOVA 분석을 실시한 결과, 문화예술친숙성( $F(6, 790) = 2.14, p < .05$ ), 문화수용력( $F$

(6, 790) = 3.16,  $p < .01$ ), 창의성( $F(6, 791) = 2.61, p < .05$ ), 소통능력 ( $F(6, 790) = 2.50, p < .05$ ), 친밀감( $F(6, 790) = 2.40, p < .05$ ), 자아존중감( $F(6, 790) = 2.83, p < .01$ ) 지표에서 기간별 효과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음.



〈그림 II-3〉 아동기 기간별 사전-사후 평균(독립표본 t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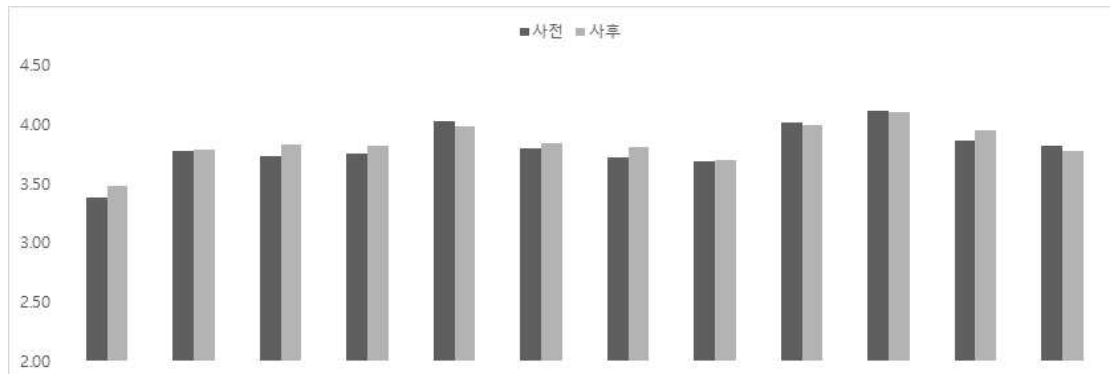
#### □ 아동기 문화예술교육 효과 요약

- 아동기 참여자에 대한 대응표본, 독립표본 t 검증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조사에 비해 사후조사 평균이 오르는 추세였으며, 두 검증 모두에서 문화예술감수성에서 유의한 효과가 나타났음. 또한 대응표본 t 검증에서 문화예술친숙성에 대한 유의한 효과가 나타났음.
- 아동기 참여자의 문화예술교육 기간별 효과 분석에서 대응표본 집단은 문화예술감수성, 문화수용력, 친밀감, 자아존중감에서 유의한 차이 나타났으며, 독립표본 집단에서 문화예술친숙성, 문화수용력, 창의성, 친밀감, 소통능력, 자아존중감에서 유의한 차이 나타났음. 기간에 따른 효과 차이는 기간의 길이와 지표 효과가 비례하지 않았음.

### 2.2.3. 청소년 대상 문화예술교육 효과

#### □ 대응표본 t 검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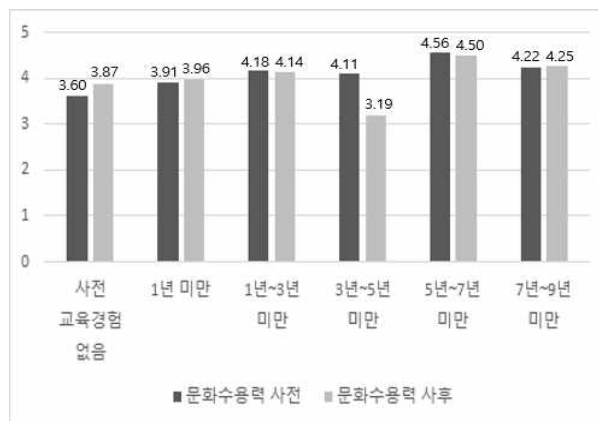
〈표 II-16〉 청소년기 문화예술교육 대응표본 t 검증 효과( $n = 93$ )



	문화 예술 감수성	문화 예술 친숙성	공감 능력	행복감	문화 수용력	창의성	자기 표현력	문제 해결력	소통 능력	친밀감	자아 존중감	자기 조절력
사전 <i>M(SD)</i>	3.38 (.94)	3.77 (.93)	3.73 (.78)	3.75 (.88)	4.03 (.76)	3.80 (.87)	3.72 (1.02)	3.69 (.88)	4.01 (.79)	4.11 (.83)	3.86 (.94)	3.82 (.87)
사후 <i>M(SD)</i>	3.48 (.97)	3.78 (.90)	3.82 (.84)	3.81 (1.01)	3.98 (.83)	3.84 (.87)	3.81 (.94)	3.70 (.90)	3.99 (.81)	4.10 (.91)	3.95 (.88)	3.78 (.88)

※ *M*: 평균, *SD*: 표준편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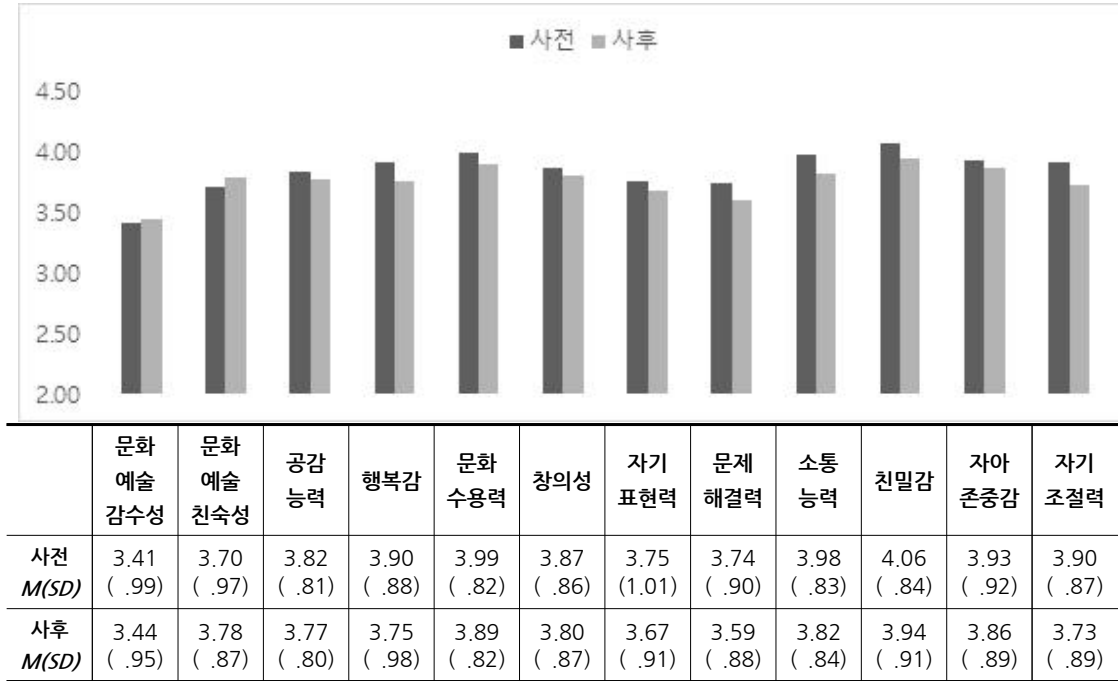
-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기 참여자 중 사전-사후 설문에 모두 응답한 참여자 93명을 대상으로 대응표본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음.
-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지표 중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는 문항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문항별 사전-사후 비교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음.
- 문화예술교육 기간에 따른 효과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청소년기 대응표본 집단에 대한 사전-사후 반복측정을 실시한 결과, 문화수용력( $F(5, 87) = 2.76, p < .05$ ) 지표에서 유의한 효과 차이가 나타남.



〈그림 II-4〉 청소년기 기간별 사전-사후 평균  
(대응표본 t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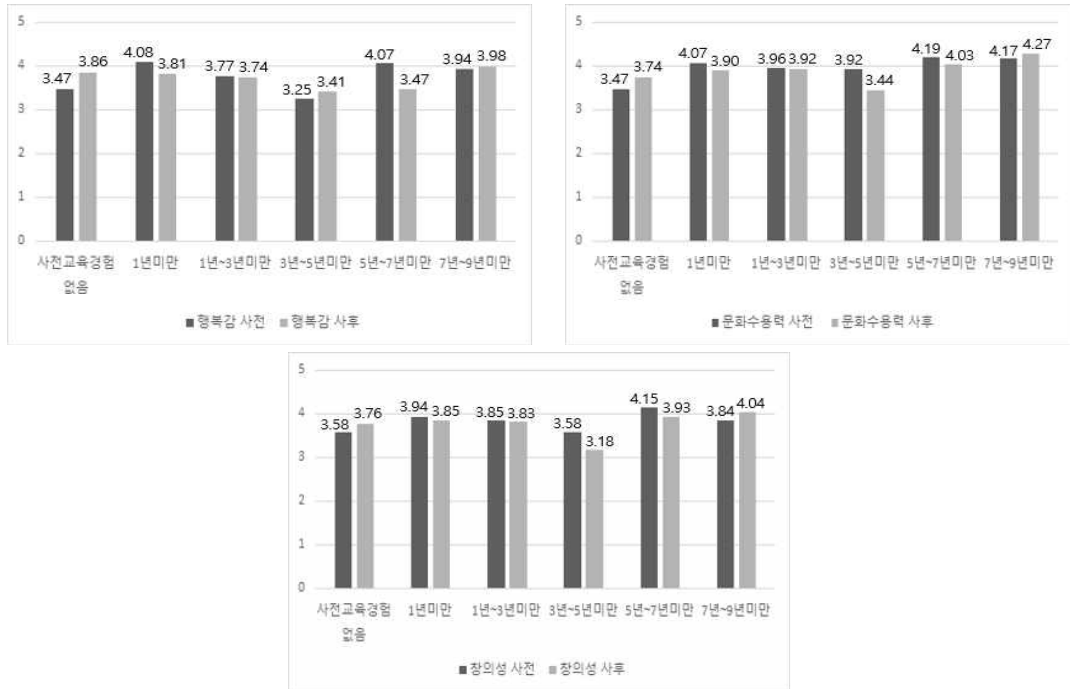
□ 독립표본 t 검증 결과

〈표 II-17〉 청소년기 문화예술교육 독립표본 t 검증 효과(사전  $n = 177$ , 사후  $n = 144$ )



※ M: 평균, SD: 표준편차

-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기 참여자(유아 보호자) 중 사전조사 참여 집단 177명, 사후조사 참여 집단 144명을 대상으로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음.
-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지표에 대한 문항별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음.
- 문화예술교육 기간에 따른 효과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청소년기 독립표본 집단에 대한 2 way ANOVA 분석을 실시한 결과, 행복감( $F(6, 308) = 2.10, p < .08$ ), 문화수용력( $F(6, 308) = 2.85, p < .05$ ), 창의성( $F(6, 308) = 1.93, p < .08$ ) 지표에서 유의한 효과 차이가 나타남.



〈그림 II-5〉 청소년기 기간별 사전·사후 평균(독립표본 t 검증)

#### □ 청소년기 문화예술교육 효과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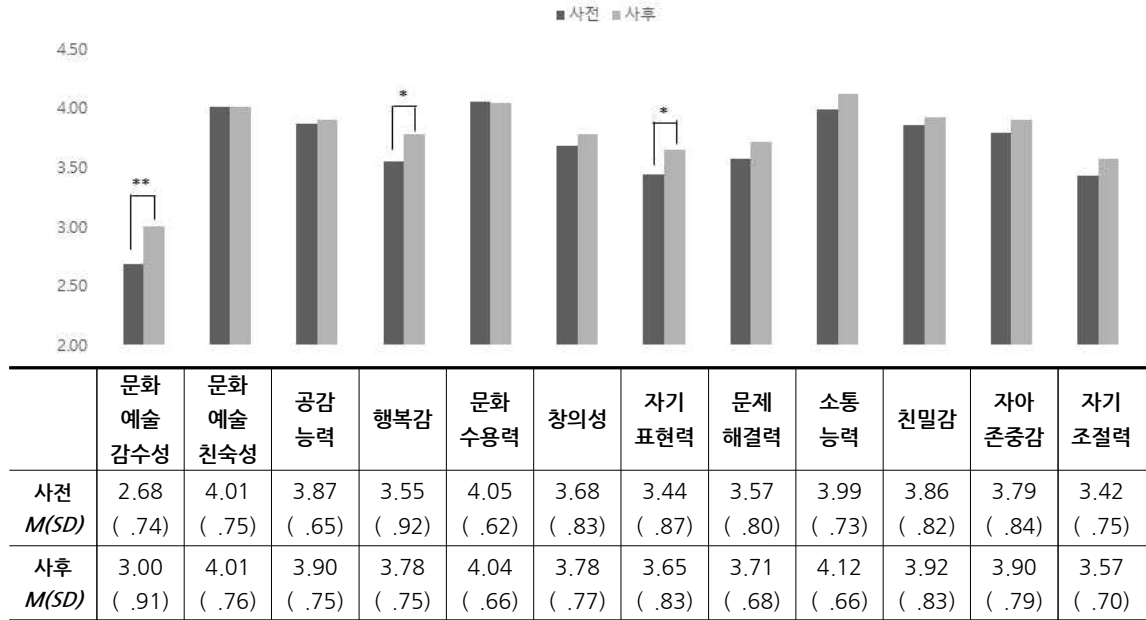
- 청소년기 참여자에 대한 대응표본 집단에서는 다수 지표에서 사전조사에 비해 사후조사 평균이 오르는 추세였으나, 독립표본 집단에서는 다수 지표에서 사전조사에 비해 사후조사 평균이 감소하는 추세 보였음. 두 검증 모두 사전조사와 사후조사에 유의한 효과 나타나지 않았음.
- 청소년기 참여자의 문화예술교육 기간별 효과 분석에서 대응표본은 문화수용력에서 유의한 차이 나타났으나 기간의 길이와 지표 효과가 비례하지 않았음. 독립표본 집단에서 행복감, 문화수용력, 창의성에서 유의한 차이 나타났으나 기간의 길이와 지표 효과가 비례하지 않았음.



## 2.2.4. 성인 전기 대상 문화예술교육 효과

### □ 대응표본 t 검증 결과

〈표 II-18〉 성인 전기 문화예술교육 대응표본 t 검증 효과( $n = 5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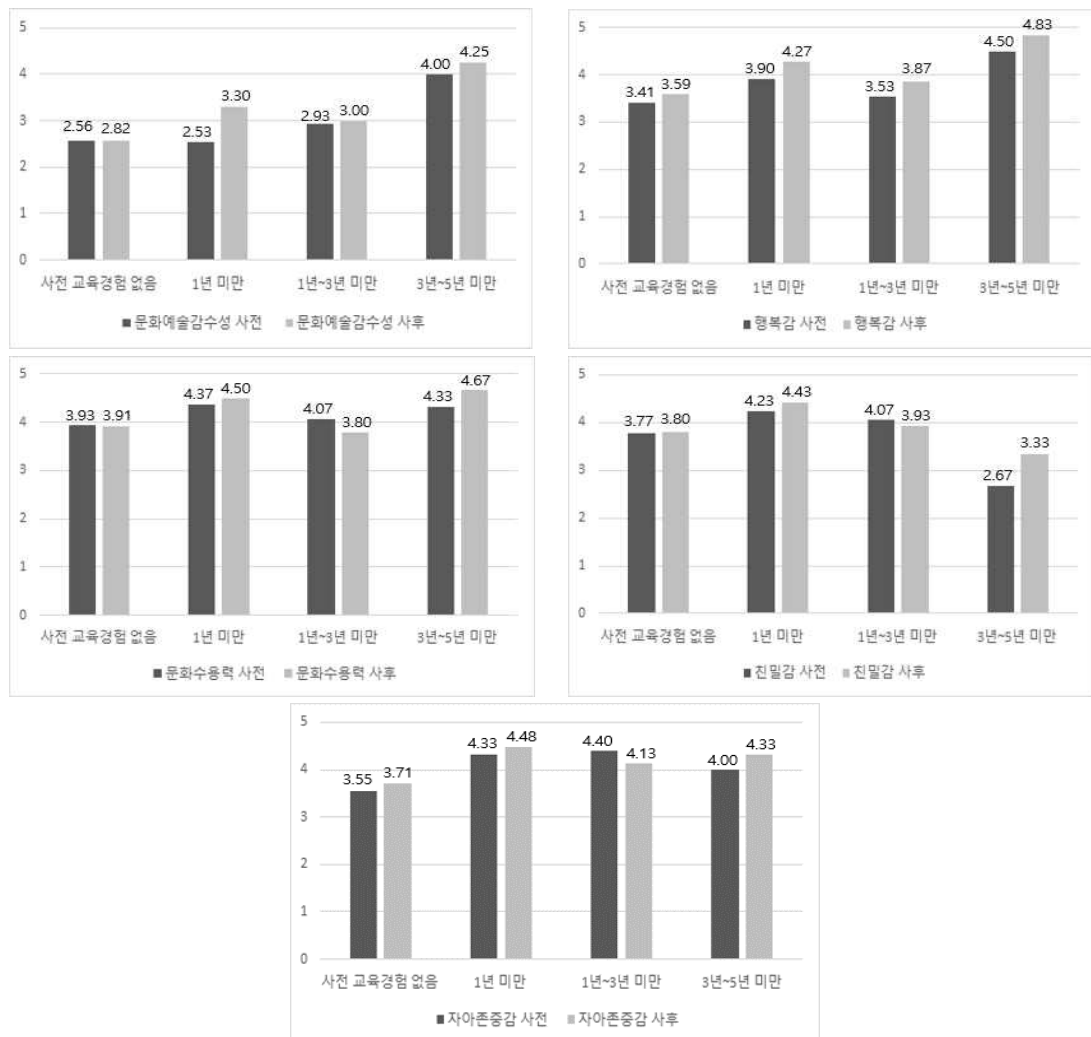
\* $p < .05$ , \*\* $p < .01$

※ M: 평균, SD: 표준편차

- 조사에 참여한 전체 성인 전기 참여자 중 사전사후 설문에 모두 응답한 수는 52명이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 전후에 전체 12개 지표에 대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사전-사후 대응표본 t 검증을 실시함.
- 그 결과 핵심지표인 문화예술감수성( $t = 3.04$ ,  $p < .01$ ), 특수지표인 행복감( $t = 2.47$ ,  $p < .05$ ), 자기표현력( $t = 2.33$ ,  $p < .05$ ) 지표가 유의하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지표에 대해 문항별 사전-사후 비교분석을 실시한 결과, 창의성 지표의 ‘나는 평소 다양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잘 떠오른다’ 문항(사전 평균 3.35 → 사후 평균 3.63,  $t = 2.45$ ,  $p < .05$ ), 문제해결력 지표의 ‘나는 문제가 해결된 후 문제해결책의 장/단점을 분석한다’(사전 평균 3.48 → 사후 평균 3.73,  $t = 2.10$ ,  $p < .05$ ), 자기조절력 지표의 ‘나는 분노, 포기, 조급함 등 부정적인 감정을 조절하는 힘이 있다’(사전 평균 3.27 → 사후 평균 3.58,  $t = 2.18$ ,  $p < .05$ ) 평균이 유의하게 높아졌음. 또한 자기표현력

지표의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 생각을 더 잘 이야기하는 편이다’(사전 평균 3.42 → 사후 평균 3.63,  $t = 1.97$ ,  $p < .08$ ), 소통능력 지표의 ‘나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느낌을 말할 때 귀 기울인다’(사전 평균 4.10 → 사후 평균 4.29,  $t = 1.94$ ,  $p < .08$ ) 평균이 주변적 수준에서 유의하게 높아졌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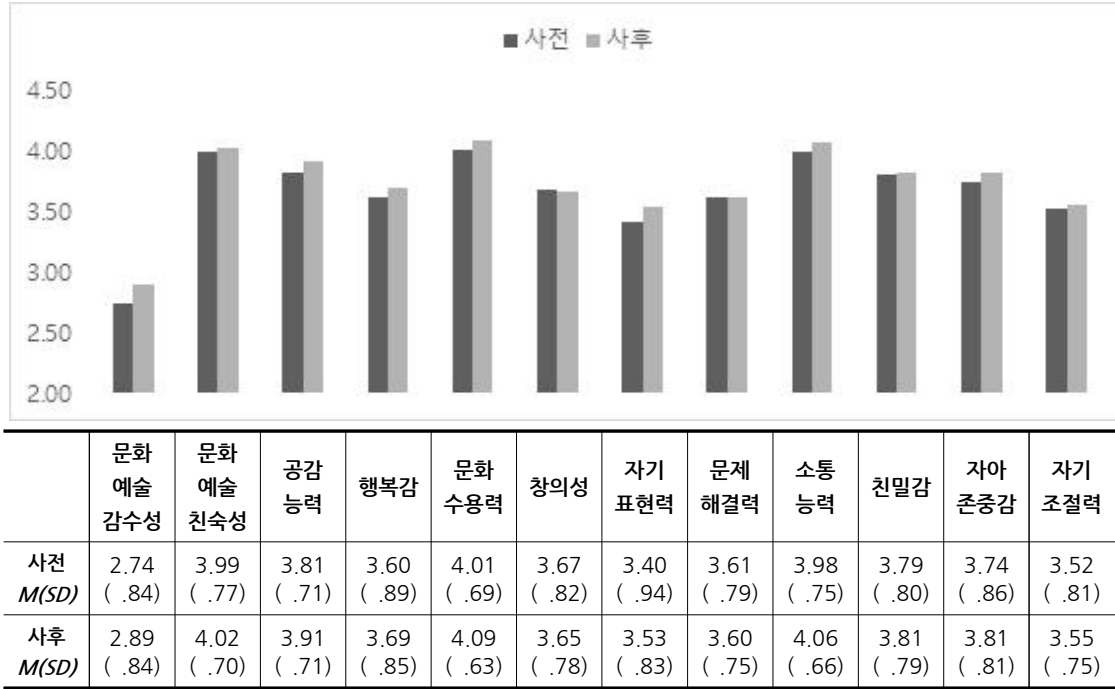
- 문화예술교육 기간에 따른 효과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사전-사후 설문에 모두 응답한 성인 전기 문화예술교육 참여자 집단에 대한 사전-사후 반복측정을 실시한 결과, 문화예술감수성( $F(3, 46) = 2.80$ ,  $p < .08$ ), 행복감( $F(3, 46) = 2.84$ ,  $p < .05$ ), 문화수용력( $F(3, 46) = 2.74$ ,  $p < .08$ ), 친밀감( $F(3, 46) = 2.49$ ,  $p < .08$ ), 자아존중감( $F(3, 46) = 4.16$ ,  $p < .05$ ) 지표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남.



〈그림 II-6〉 성인 전기 기간별 사전-사후 평균(대응표본 t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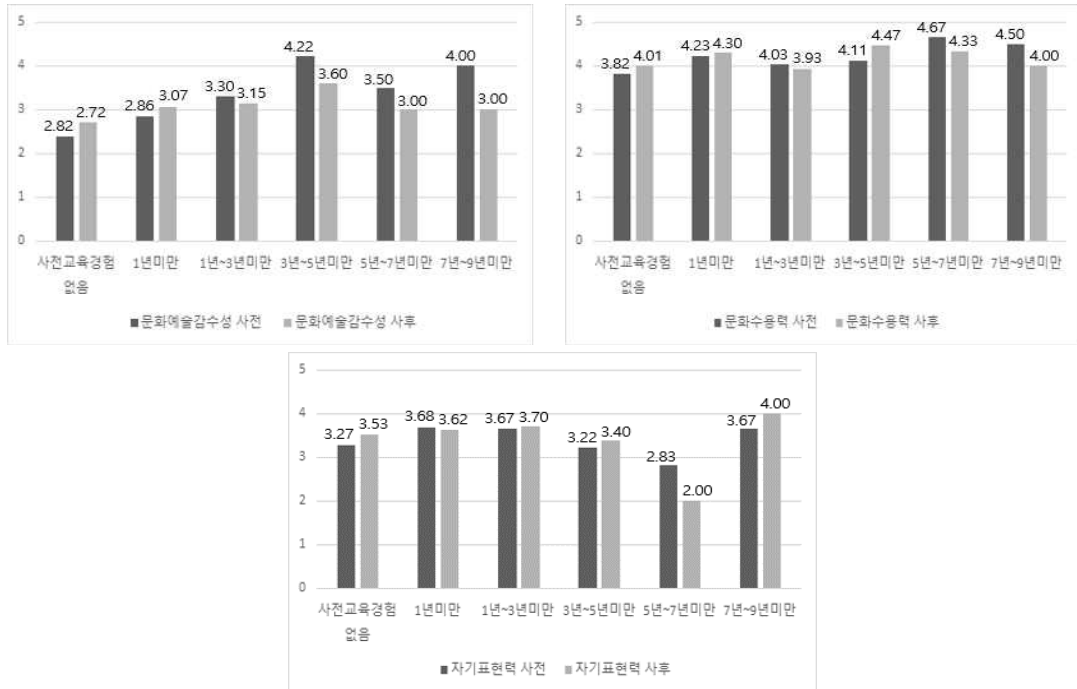
□ 독립표본 t 검증 결과

〈표 II-19〉 성인 전기 문화예술교육 독립표본 t 검증 효과(사전  $n = 104$ , 사후  $n = 101$ )



※ *M*: 평균, *SD*: 표준편차

- 조사에 참여한 성인 전기 대상자들을 독립적인 문화예술교육 참여 사전 집단과 사후 집단으로 구분한 후(사전 104명, 사후 101명), 두 집단이 문화예술교육 효과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문화예술교육 효과 지표에 대한 사전-사후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음.
- 그 결과, 핵심지표와 특수지표에서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음.
-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지표의 각 문항에 대한 사전-사후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음. 이 중 문화예술감수성 지표의 “나는 문화예술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문항(사전 평균 2.69 → 사후 평균 3.03,  $t = 2.73$ ,  $p < .01$ )에서 문화예술교육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남.
- 문화예술교육 기간에 따른 효과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성인 전기 문화예술교육 참여자 집단에 대한 사전-사후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문화예술감수성 ( $F(6, 189) = 7.12$ ,  $p < .001$ ), 문화수용력 ( $F(6, 189) = 2.50$ ,  $p < .05$ ), 자기표현력 ( $F(6, 189) = 2.37$ ,  $p < .05$ ) 지표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남.



〈그림 II-7〉 성인 전기 기간별 사전-사후 평균(독립표본 t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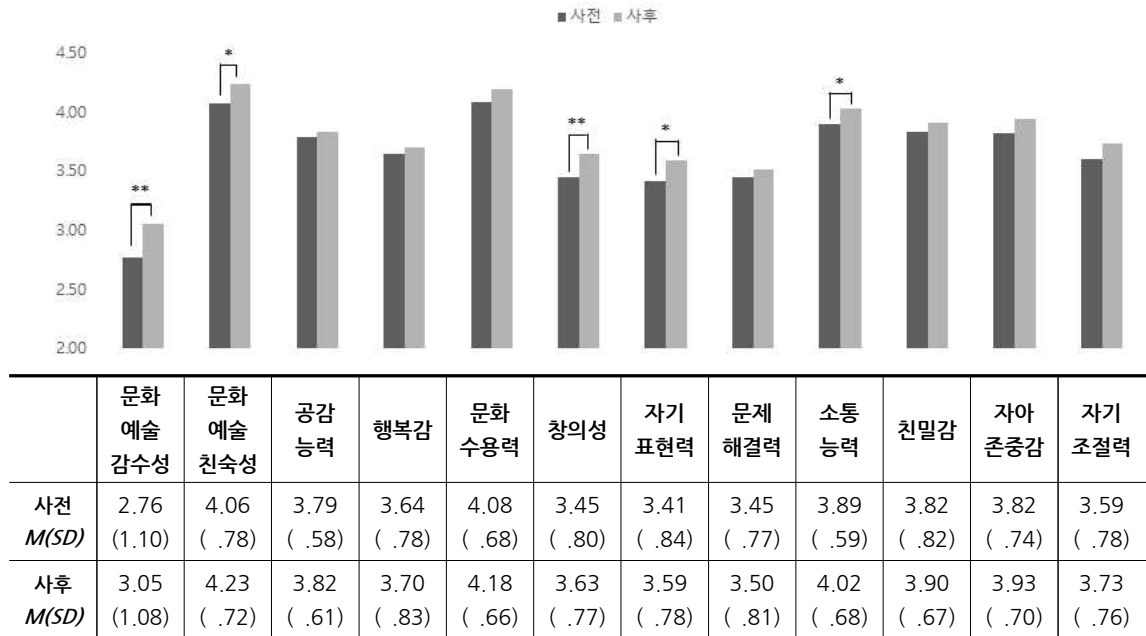
#### □ 성인 전기 문화예술교육 효과 요약

- 성인 전기 참여자를 대상으로 대응표본 t 검증과 독립표본 t 검증 분석 결과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대응표본 t 검증에서 핵심지표인 문화예술감수성, 특수지표인 행복감, 자기표현력에서 유의미한 효과차이 나타남. 반면 독립표본 t 검증에서는 핵심지표와 특수지표에 대한 유의미한 효과 차이 나타나지 않았음.
- 성인 전기 참여자의 문화예술교육 기간별 효과 분석에서 대응표본은 문화예술감수성, 행복감, 문화수용력, 친밀감, 자아존중감 지표에서 유의한 차이 나타났으나 기간의 길이와 지표 효과가 비례하지 않았음. 독립표본 집단에서 문화예술감수성, 문화수용력, 자기표현력에서 유의한 차이 나타났으나 기간의 길이와 지표 효과가 비례하지 않았음.

## 2.2.5. 성인 중기 대상 문화예술교육 효과

### □ 대응표본 t 검증 결과

〈표 II-20〉 성인 중기 문화예술교육 대응표본 t 검증 효과( $n = 9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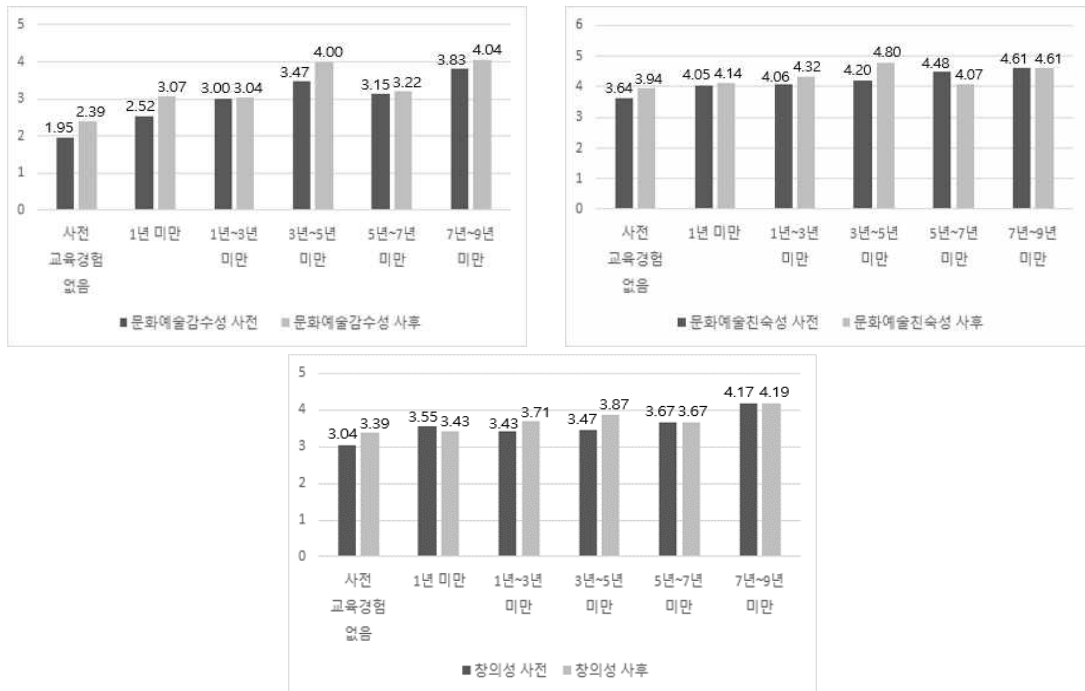


\* $p < .05$ , \*\* $p < .01$

※ *M*: 평균, *SD*: 표준편차

- 조사에 참여한 전체 성인 중기 참여자 중 사전사후 설문에 모두 응답한 수는 95명이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 전후에 전체 12개 지표에 대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사전-사후 대응표본 t 검증을 실시함.
- 그 결과 핵심지표인 문화예술감수성( $t = 2.86, p < .01$ ), 문화예술친숙성( $t = 2.56, p < .05$ ), 특수지표인 창의성( $t = 2.91, p < .01$ ), 자기표현력( $t = 2.39, p < .05$ ), 소통능력( $t = 2.43, p < .05$ )이 유의하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또한 특수지표인 자아존중감( $t = 1.81, p < .08$ ), 자기조절력( $t = 1.99, p < .08$ ) 지표가 주변적 수준에서 유의하였음.
-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지표에 대해 문항별 사전-사후 비교분석을 실시한 결과, 문화수용력 지표의 ‘나는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고 이해하려고 한다’ 문항이 주변적 수준에서 유의하게 높아졌음(사전 평균 3.95 → 사후 평균 4.09,  $t = 1.80, p < .0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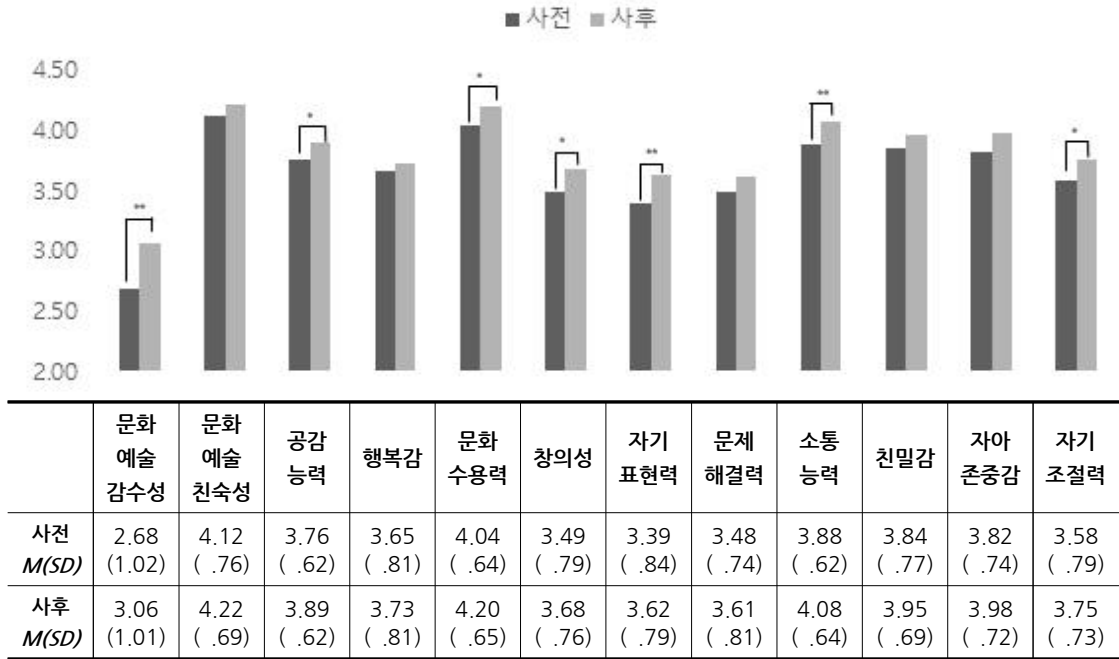
- 문화예술교육 기간에 따른 효과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사전-사후 설문에 모두 응답한 성인 중기 문화예술교육 참여자 집단에 대한 사전-사후 반복측정을 실시한 결과, 문화예술감수성( $F(6, 88) = 8.34, p < .001$ ), 문화예술친숙성( $F(6, 88) = 3.20, p < .01$ ), 창의성( $F(6, 87) = 2.98, p < .05$ ) 지표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림 II-8〉 성인 중기 기간별 사전-사후 평균(대응표본 t 검증)

□ 독립표본 t 검증 결과

〈표 II-21〉 성인 중기 문화예술교육 독립표본 t 검증 효과(사전  $n = 214$ , 사후  $n = 14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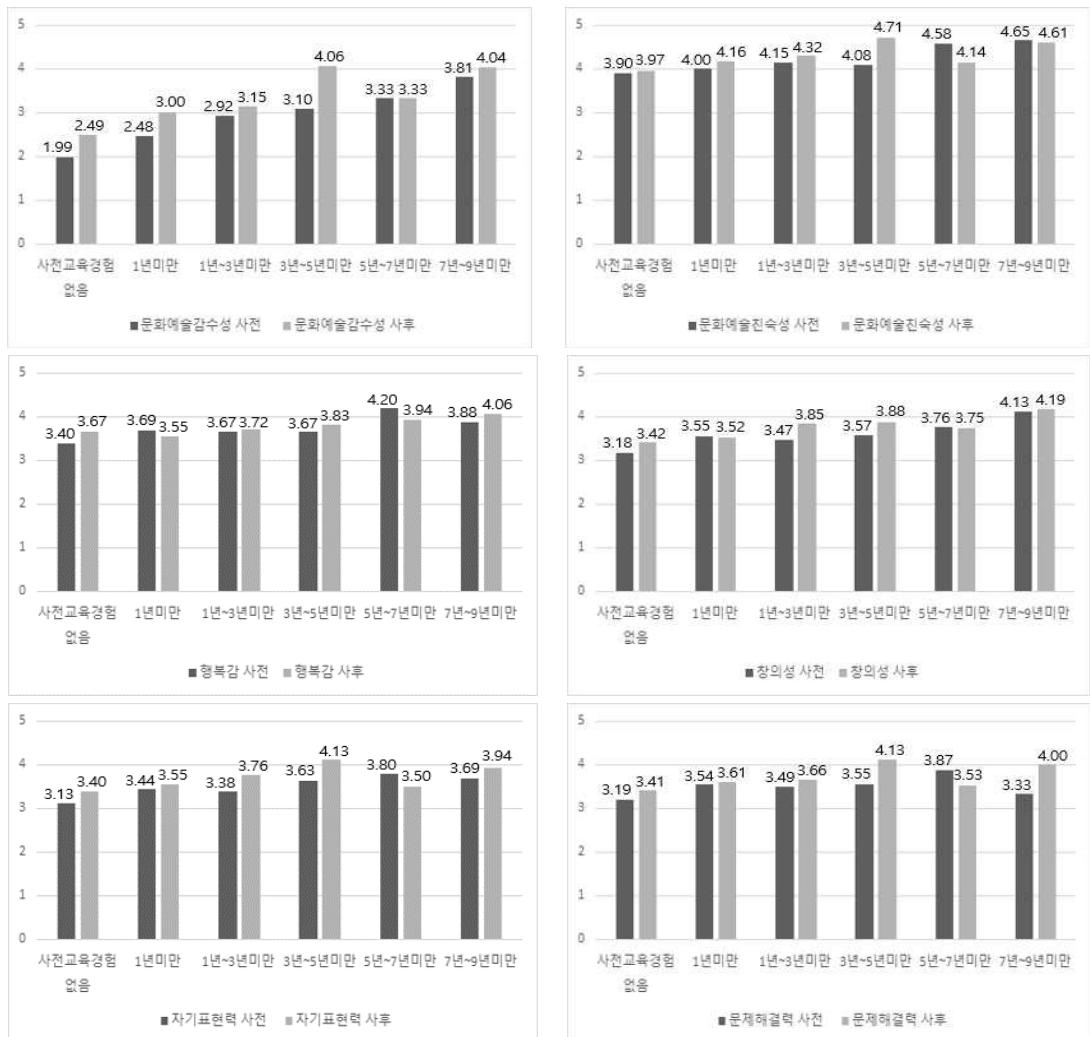


\* $p < .05$ , \*\* $p < .01$

※ *M*: 평균, *SD*: 표준편차

- 조사에 참여한 성인 중기 대상자들을 독립적인 문화예술교육 참여 사전 집단과 사후 집단으로 구분한 후(사전 214명, 사후 140명), 두 집단이 문화예술교육 효과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문화예술교육 효과 지표에 대한 사전-사후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음.
- 그 결과, 핵심지표인 문화예술감수성( $t = 3.45$ ,  $p < .01$ )에서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났음. 특수지표는 공감능력( $t = 2.01$ ,  $p < .05$ ), 문화수용력( $t = 2.30$ ,  $p < .05$ ), 창의성( $t = 2.21$ ,  $p < .05$ ), 자기표현력( $t = 2.59$ ,  $p < .01$ ), 소통능력( $t = 2.90$ ,  $p < .01$ ), 자기조절력( $t = 2.00$ ,  $p < .05$ )에서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남. 자아존중감은 주변 수준에서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남( $t = 1.91$ ,  $p < .08$ ).
-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지표의 각 문항에 대한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음. 이 중 친밀감 지표의 ‘나는 고민을 함께 나누는 친구가 있다’ 문항(사전 평균 3.90 → 사후 평균 4.12,  $t = 2.25$ ,  $p < .05$ )에서 문화예술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남.

- 문화예술교육 기간에 따른 효과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전체 문화예술교육 참여자 집단에 대한 사전-사후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문화예술감수성( $F(7, 338) = 17.83, p < .001$ ), 문화예술친숙성( $F(7, 339) = 4.67, p < .001$ ), 행복감( $F(7, 339) = 2.53, p < .05$ ), 창의성( $F(7, 338) = 4.92, p < .001$ ), 자기표현력( $F(7, 338) = 3.14, p < .01$ ), 문제해결력( $F(7, 338) = 3.90, p < .001$ ), 자아존중감( $F(7, 338) = 1.85, p < .08$ ) 지표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림 11-9〉 성인 중기 기간별 사전-사후 평균(독립표본 t 검증)

## □ 성인 중기 문화예술교육 효과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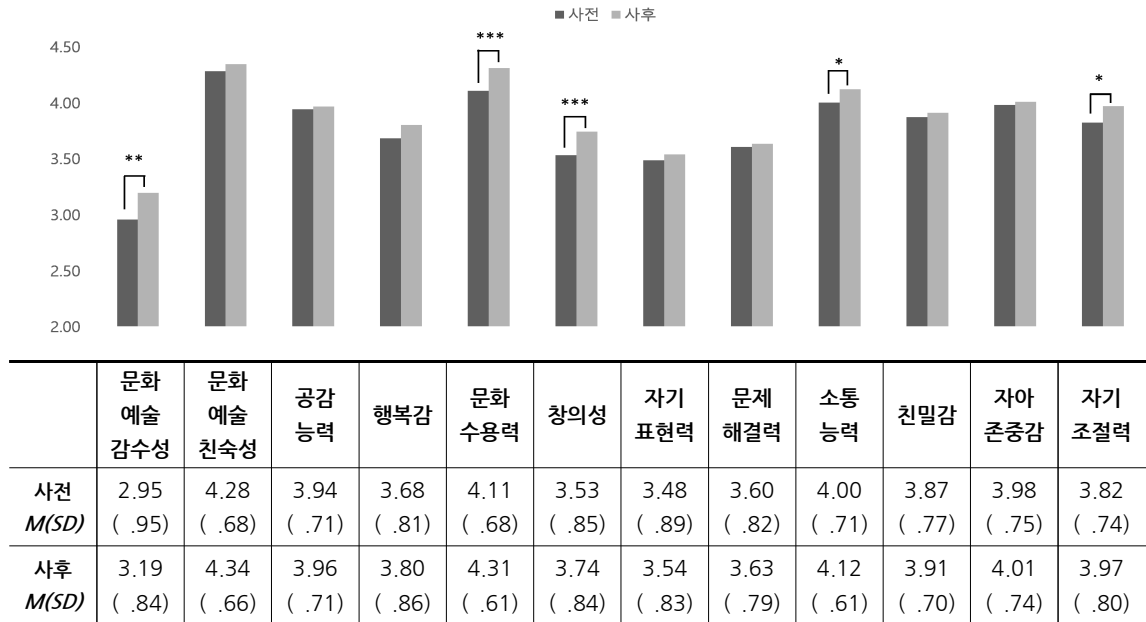


- 성인 중기 참여자를 대상으로 대응표본 t 검증과 독립표본 t 검증 분석 결과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대응표본 t 검증과 독립표본 t 검증에서 공통적으로 핵심지표 중 문화예술감수성이 유의미한 효과 나타났음. 특수지표에서는 창의성, 자기표현력, 소통능력, 지표가 공통적으로 유의미한 효과 나타났으며, 자기조절력 지표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주변적 수준에서 유의미한 효과 나타났음. 특수지표인 자기조절력 지표는 대응표본 t 검증에서는 주변적 수준에서 유의미한 효과 나타났으나, 독립표본 t 검정에서는 유의미한 효과 나타남. 핵심지표인 문화예술친숙성에 대해서 대응표본 t 검증에서는 유의미한 효과 나타났으나 독립표본 t 검증에서는 유의미한 효과 나타나지 않음. 반면 특수지표인 공감능력은 대응표본 t 검증에서는 유의미한 효과 나타나지 않았으나 독립표본 t 검증에서는 유의미한 효과 나타남.
- 성인 중기 참여자의 문화예술교육 기간별 효과 분석에서 대응표본에서 문화예술감수성, 문화예술친숙성, 창의성에서 유의한 차이 나타났음. 창의성은 기간이 긴 집단이 효과 역시 큰 추세를 보였으나 문화예술감수성과 문화예술친숙성은 기간의 길이와 지표 효과가 비례하지 않았음. 독립표본 집단에서 문화예술감수성, 문화예술친숙성, 행복감, 창의성, 자기표현력, 문제해결력에서 유의한 차이 나타났으나 모든 지표들은 기간의 길이와 지표 효과가 비례하지 않았음.

## 2.2.6. 성인 후기 대상 문화예술교육 효과

### □ 대응표본 t 검증 결과

〈표 II-22〉 성인 후기 문화예술교육 대응표본 t 검증 효과( $n = 10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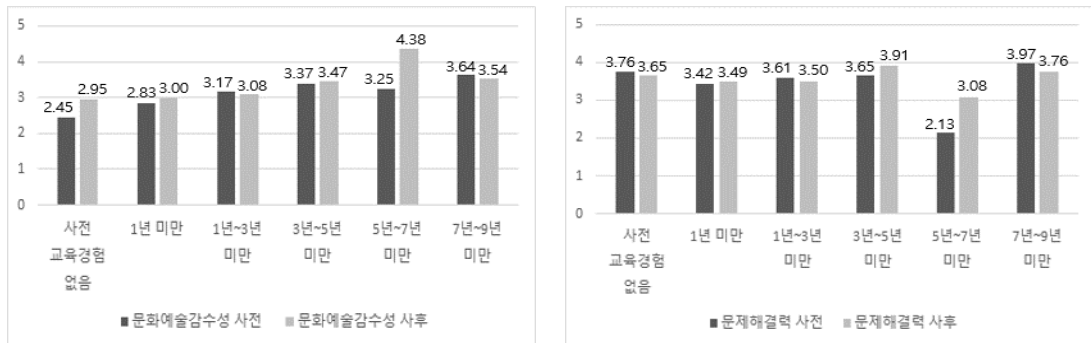


\* $p < .05$ , \*\* $p < .01$ , \*\*\* $p < .001$

※ *M*: 평균, *SD*: 표준편차

- 조사에 참여한 전체 성인 후기 참여자 중 사전사후 설문에 모두 응답한 수는 103명이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 전후에 전체 12개 지표에 대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사전-사후 대응표본 t 검증을 실시함.
- 그 결과 핵심지표인 문화예술감수성( $t = 2.92, p < .01$ ), 특수지표인 문화수용력( $t = 4.30, p < .001$ ), 창의성( $t = 3.64, p < .001$ ), 소통능력( $t = 2.23, p < .05$ ), 자기조절력( $t = 2.61, p < .05$ ) 지표가 유의하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지표에 대해 문항별 사전-사후 비교분석을 실시한 결과, 문화예술친숙성 지표의 ‘나는 남는 시간이 생기면 문화예술교육 활동에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문항의 평균이 유의하게 높아졌음(사전 평균 4.31 → 사후 평균 4.47,  $t = 2.14, p < .0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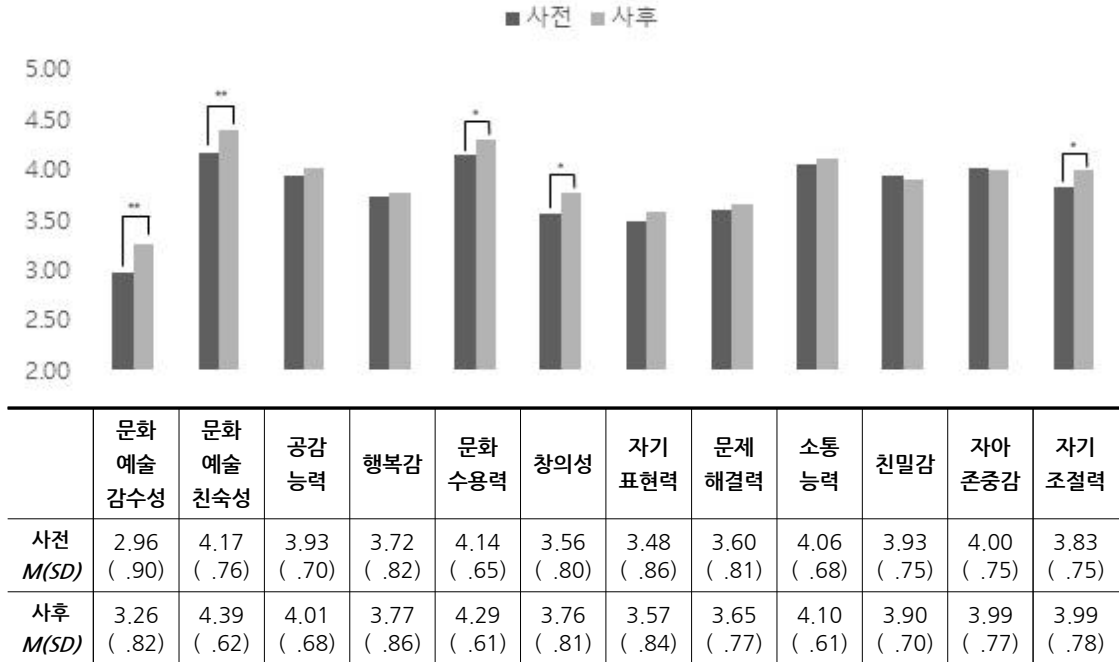
- 문화예술교육 기간에 따른 효과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사전-사후 설문에 모두 응답한 성인 후기 문화예술교육 참여자 집단에 대한 사전-사후 반복측정을 실시한 결과, 문화예술감수성( $F(5, 97) = 4.75, p < .001$ ), 문제해결력( $F(5, 97) = 2.56, p < .001$ ) 지표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남.



〈그림 II-10〉 성인 후기 기간별 사전-사후 평균(대응표본 t 검증)

□ 독립표본 t 검증 결과

〈표 II-23〉 성인 후기 문화예술교육 독립표본 t 검증 효과(사전  $n = 271$ , 사후  $n = 15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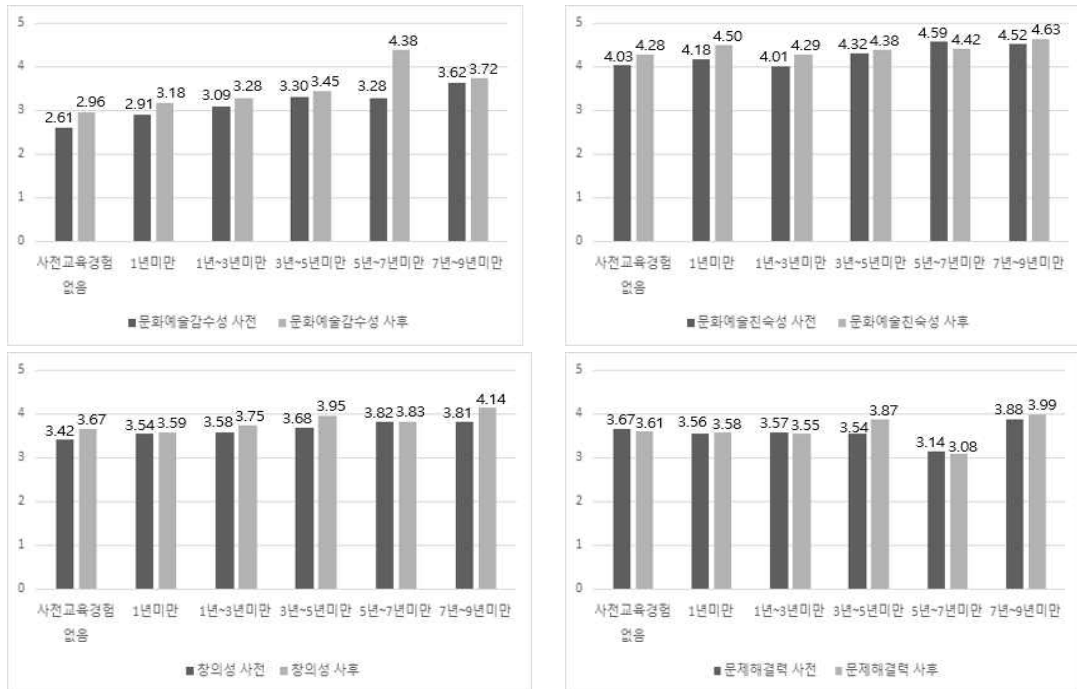


\* $p < .05$ , \*\* $p < .01$

※  $M$ : 평균,  $SD$ : 표준편차

- 조사에 참여한 성인 후기 대상자들을 독립적인 문화예술교육 참여 사전 집단과 사후 집단으로 구분한 후(사전 271명, 사후 150명), 두 집단이 문화예술교육 효과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문화예술교육 효과 지표에 대한 사전-사후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음.
- 그 결과, 핵심지표인 문화예술감수성( $t = 3.32$ ,  $p < .01$ )과 문화예술친숙성( $t = 3.04$ ,  $p < .01$ ) 모두에서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났음. 특수지표는 문화수용력( $t = 2.29$ ,  $p < .05$ ), 창의성( $t = 2.42$ ,  $p < .05$ ), 자기조절력( $t = 2.05$ ,  $p < .05$ )에서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남.
-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지표의 각 문항에 대한 사전-사후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문항은 없었음.
- 문화예술교육 기간에 따른 효과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전체 성인 후기 문화예술교육 참여

자 집단에 대한 사전-사후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문화예술감수성( $F(5, 405) = 10.60, p < .001$ ), 문화예술친숙성( $F(5, 405) = 3.09, p < .01$ ), 창의성( $F(5, 405) = 2.46, p < .05$ ), 자기표현력( $F(5, 405) = 2.03, p < .08$ ), 문제해결력( $F(4, 405) = 2.59, p < .05$ ) 지표에 대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남.



〈그림 11-11〉 성인 후기 기간별 사전-사후 평균(독립표본 t 검증)

#### □ 성인 후기 문화예술교육 효과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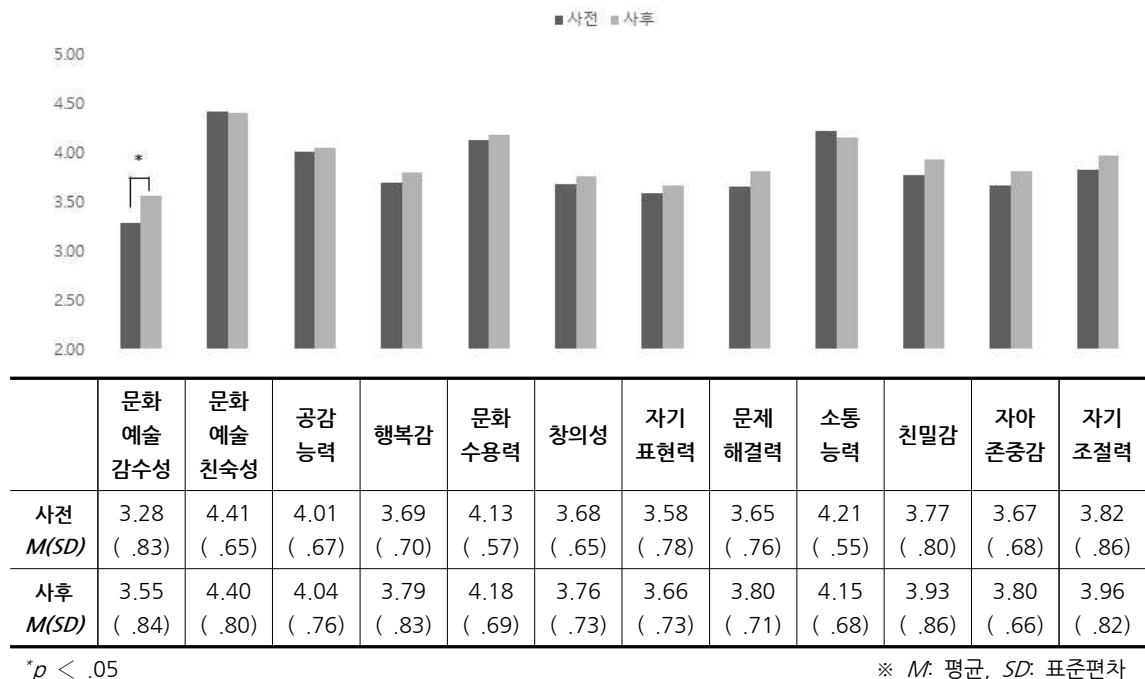
- 성인 후기 참여자를 대상으로 대응표본 t 검증과 독립표본 t 검증 분석 결과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대응표본 t 검증과 독립표본 t 검증에서 공통적으로 핵심지표 중 문화예술감수성이 유의미한 효과 나타났음. 특수지표에서는 문화수용력, 창의성, 자기조절력 지표가 공통적으로 유의미한 효과 나타났음. 특수지표인 소통능력에 대해서 대응표본 t 검증에서는 유의미한 효과 나타난 반면, 독립표본 t 검증에서는 유의미한 효과 나타나지 않음.
- 성인 후기 참여자의 문화예술교육 기간별 효과 분석에서 대응표본은 문화예술감수성과 문제해결력 지표에서 유의한 차이 나타났으나, 두 지표 모두 기간의 길이와 지표 효과가 비례하지 않았음. 독립표본 집단에서 문화예술감수성, 문화예술친숙성, 창의성, 문제해결력에서

유의한 차이 나타났음. 창의성은 기간이 긴 집단이 효과 역시 큰 추세를 보였으나, 문화예술감수성과 문화예술친숙성, 문제해결력은 기간의 길이와 지표 효과가 비례하지 않았음.

## 2.2.7. 노인기 대상 문화예술교육 효과

### □ 노인 전기 대응표본 t 검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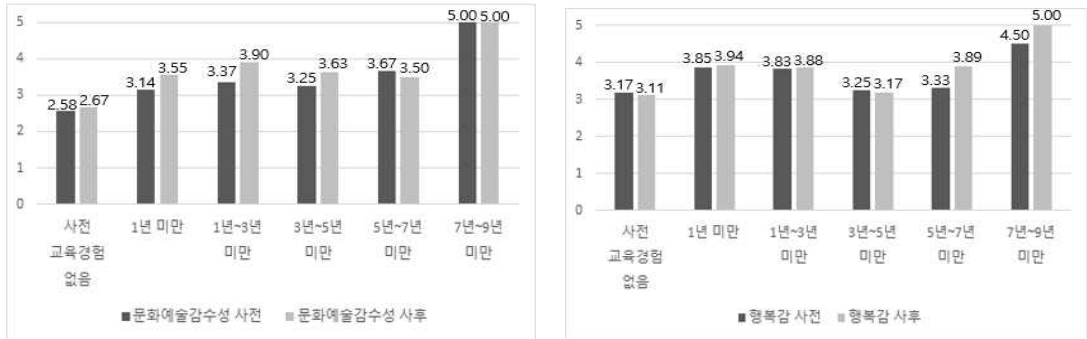
〈표 II-24〉 노인 전기 문화예술교육 대응표본 t 검증 효과( $n = 40$ )



- 조사에 참여한 유아기 참여자(유아 보호자) 중 사전-사후 질문에 모두 응답한 참여자 40명을 대상으로 대응표본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문화예술감수성 평균이 유의하게 높아짐( $t = 2.22, p < .05$ ).
-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지표 중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는 문항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문항별 사전-사후 비교분석을 실시한 결과, 행복감 지표의 ‘나는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나로 다시 태어나고 싶다’ 문항(사전 평균 3.33 → 사후 평균 3.73,  $t = 1.96, p < .08$ ), 친밀감 지표의 ‘나는 고민을 함께 나누는 친구가 있다’ 문항(사전 평균 3.67 → 사후 평균

4.00,  $t = 1.97$ ,  $p < .08$ )에서 주변 수준에서 유의한 효과가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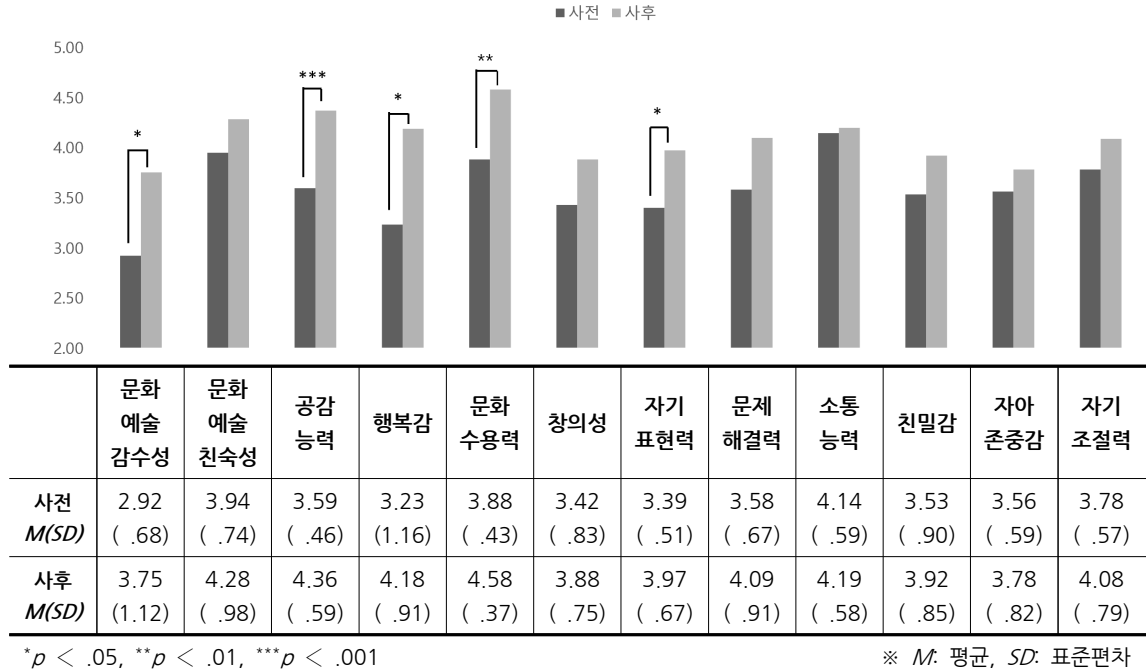
- 문화예술교육 기간에 따른 효과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유아기 대응표본 집단에 대한 사전-사후 반복측정을 실시한 결과, 문화예술감수성( $F(5, 30) = 5.32$ ,  $p < .01$ ), 행복감( $F(5, 32) = 3.73$ ,  $p < .01$ ) 지표에서 유의한 효과 차이가 나타남.



〈그림 II-12〉 노인 전기 기간별 사전-사후 평균(대응표본 t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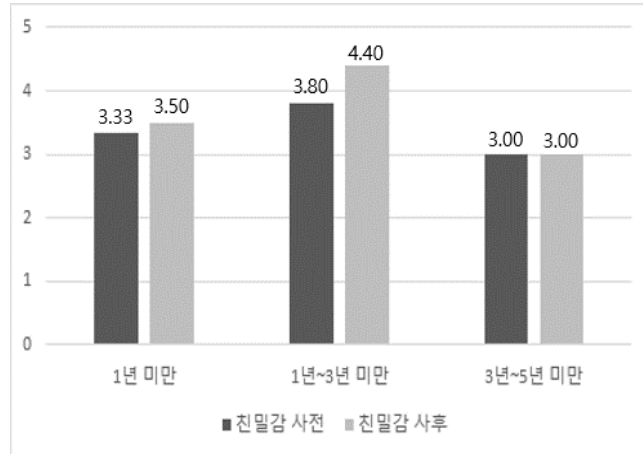
## □ 노인 후기 대응표본 t 검증 결과

〈표 II-25〉 노인 후기 문화예술교육 대응표본 t 검증 효과( $n = 12$ )



- 조사에 참여한 유아기 참여자(유아 보호자) 중 사전-사후 설문에 모두 응답한 참여자 12명을 대상으로 대응표본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문화예술감수성( $t = 2.68, p < .05$ ), 공감능력( $t = 5.71, p < .001$ ), 행복감( $t = 2.55, p < .05$ ), 문화수용력( $t = 4.08, p < .01$ ), 자기표현력( $t = 2.93, p < .05$ ) 지표가 유의하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지표 중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는 문항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문항별 사전-사후 비교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음.
- 문화예술교육 기간에 따른 효과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노인기 대응표본 집단에 대한 사전-사후 반복측정을 실시한 결과, 친밀감( $F(5, 6) = 4.11, p < .08$ ) 지표에서 유의한 효과 차이가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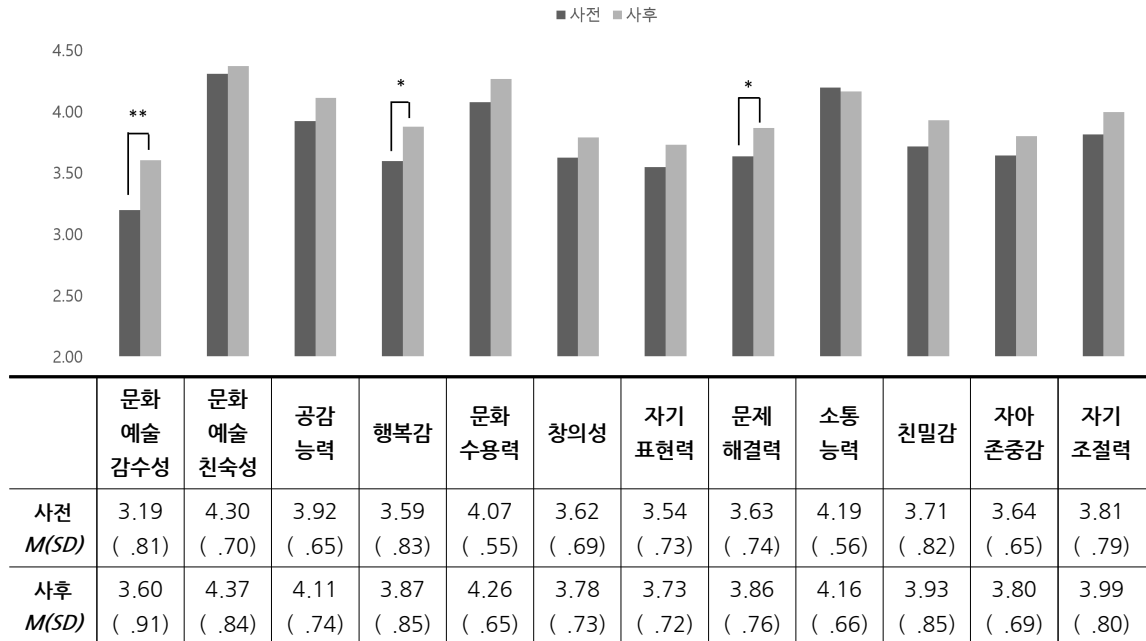




〈그림 II-13〉 노인 후기 기간별 사전-사후 평균  
(대응표본 t 검증)

#### □ 노인기 전체 대응표본 t 검증 결과

〈표 II-26〉 노인기 전체 문화예술교육 대응표본 t 검증 효과( $n = 5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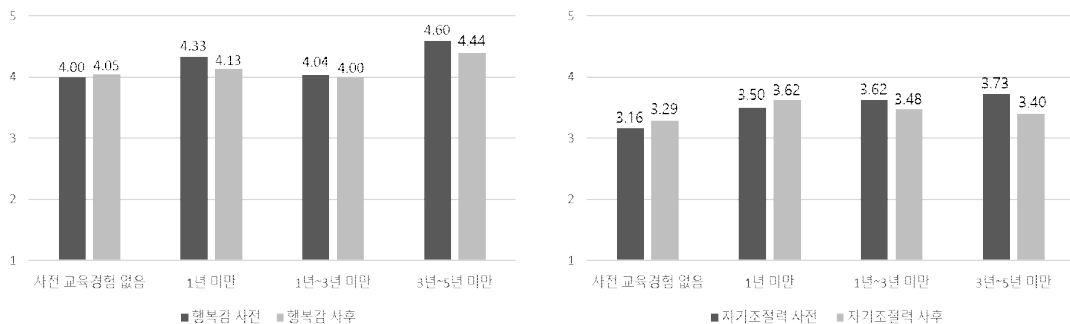
\* $p < .05$ , \*\* $p < .01$

※ *M*: 평균, *SD*: 표준편차

- 노인 후기 응답자 수가 12명으로 통계적 유의성을 파악하기에 인원이 부족해 노인기 전체

대응표본 집단에 대한 재분석을 실시함. 조사에 참여한 유아기 참여자(유아 보호자) 중 사전-사후 설문에 모두 응답한 참여자 52명을 대상으로 대응표본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문화예술감수성( $t = 3.32, p < .01$ ), 행복감( $t = 2.13, p < .05$ ), 문제해결력( $t = 2.09, p < .05$ ) 지표에서 유의한 효과가 나타남. 또한 공감능력( $t = 1.90, p < .08$ ), 문화수용력( $t = 1.96, p < .08$ ), 자기표현력( $t = 1.94, p < .08$ ), 친밀감( $t = 1.90, p < .08$ ) 지표에서 주변 수준에서 유의한 효과가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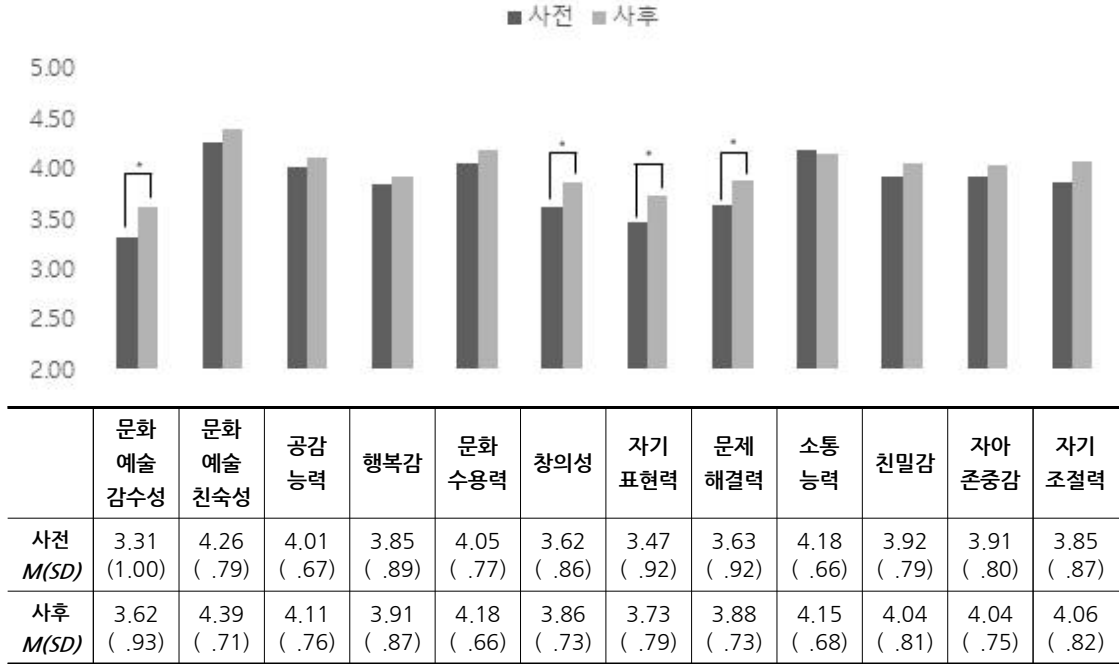
-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지표 중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는 문항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문항별 사전-사후 비교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기조절력 지표의 ‘나는 불안해져도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다’ 문항(사전 평균 3.78 → 사후 평균 4.02,  $t = 1.95, p < .08$ )에서 유의한 효과가 나타남.
- 문화예술교육 기간에 따른 효과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유아기 대응표본 집단에 대한 사전-사후 반복측정을 실시한 결과, 행복감( $F(6, 45) = 4.02, p < .01$ ), 자기조절력( $F(6, 45) = 2.06, p < .08$ ) 지표에서 주변 수준에서 유의한 효과가 나타남.



<그림 II-14> 노인기 전체 기간별 사전-사후 평균(대응표본 t 검증)

## □ 노인 전기 독립표본 t 검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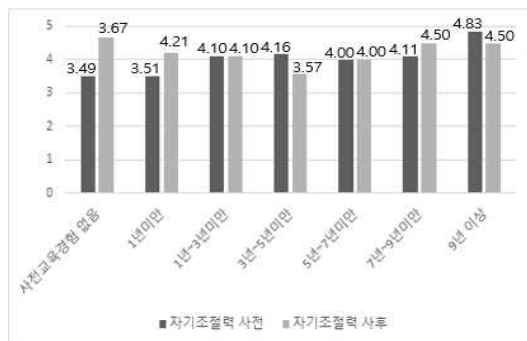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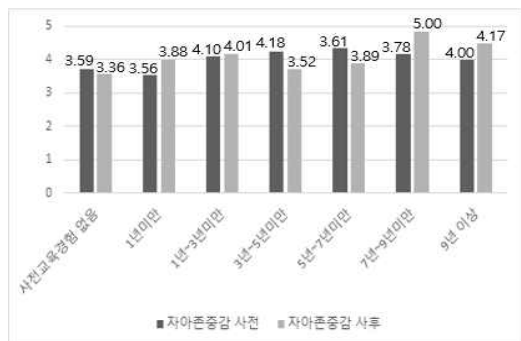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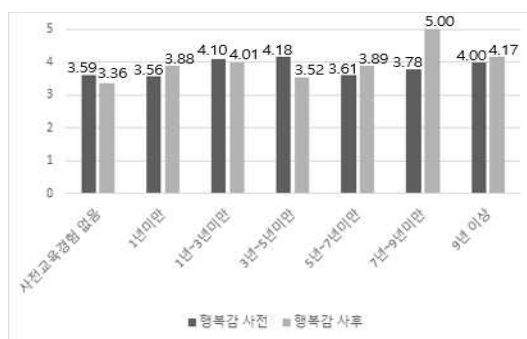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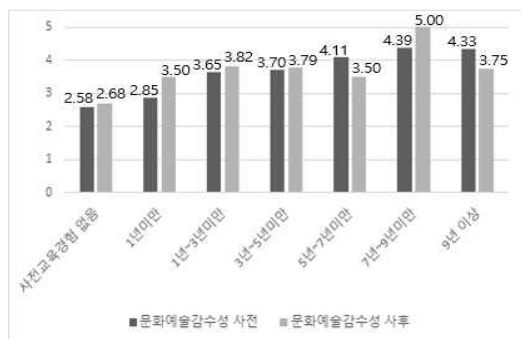
〈표 II-27〉 노인 전기 문화예술교육 독립표본 t 검증 효과(사전  $n = 133$ , 사후  $n = 83$ )



\* $p < .05$

※ *M*: 평균, *SD*: 표준편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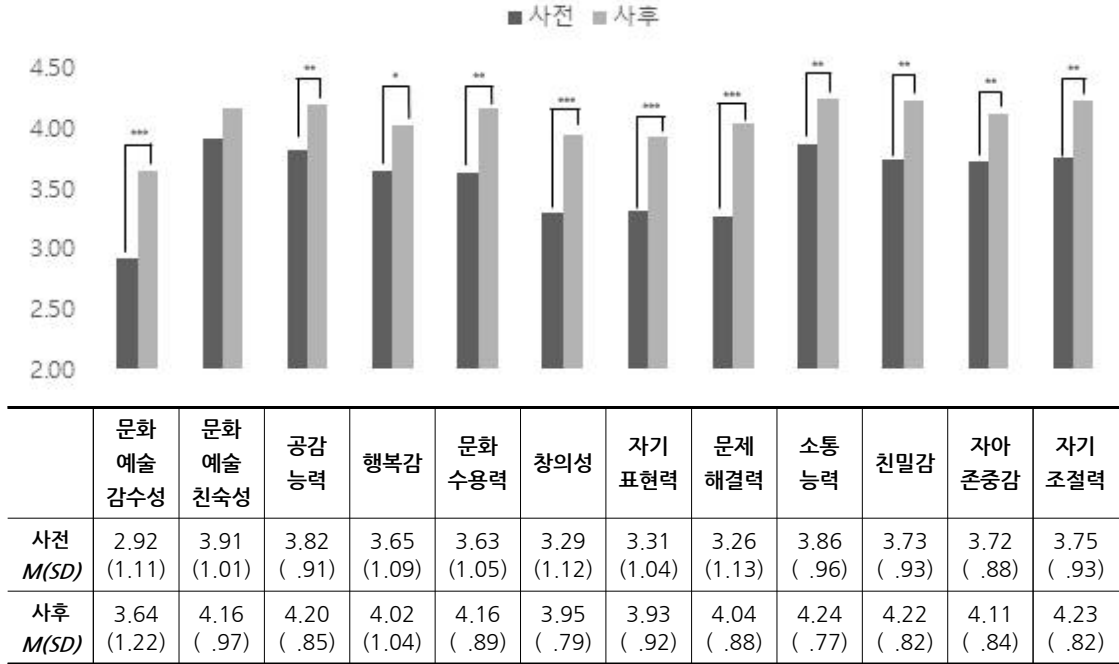
- 조사에 참여한 노인 전기 참여자 중 사전조사 참여 집단 133명, 사후조사 참여 집단 83명을 대상으로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문화예술감수성( $t = 2.25, p < .05$ ), 창의성( $t = 2.07, p < .05$ ), 자기표현력( $t = 2.15, p < .05$ ), 문제해결력( $t = 2.07, p < .05$ ) 지표에서 유의한 효과가 나타남.
-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지표에 대한 문항별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자기조절력 지표의 ‘나는 불안해져도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다’ 문항(사전 평균  $\rightarrow$  3.86, 사후 평균 4.14,  $t = 2.08, p < .05$ )에서 유의한 효과가 나타남.
- 문화예술교육 기간에 따른 효과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노인기 독립표본 집단에 대한 2 way ANOVA 분석을 실시한 결과, 문화예술감수성( $F(7, 198) = 8.52, p < .001$ ), 행복감( $F(7, 200) = 2.69, p < .05$ ), 자아존중감( $F(7, 197) = 2.24, p < .05$ ), 자기조절력( $F(7, 197) = 2.17, p < .05$ ) 지표에서 유의한 효과가 나타났음.



〈그림 II-15〉 노인 전기 기간별 사전-사후 평균(독립표본 t 검증)

## □ 노인 후기 독립표본 t 검증 결과

〈표 II-28〉 노인 후기 문화예술교육 독립표본 t 검증 효과(사전  $n = 103$ , 사후  $n = 5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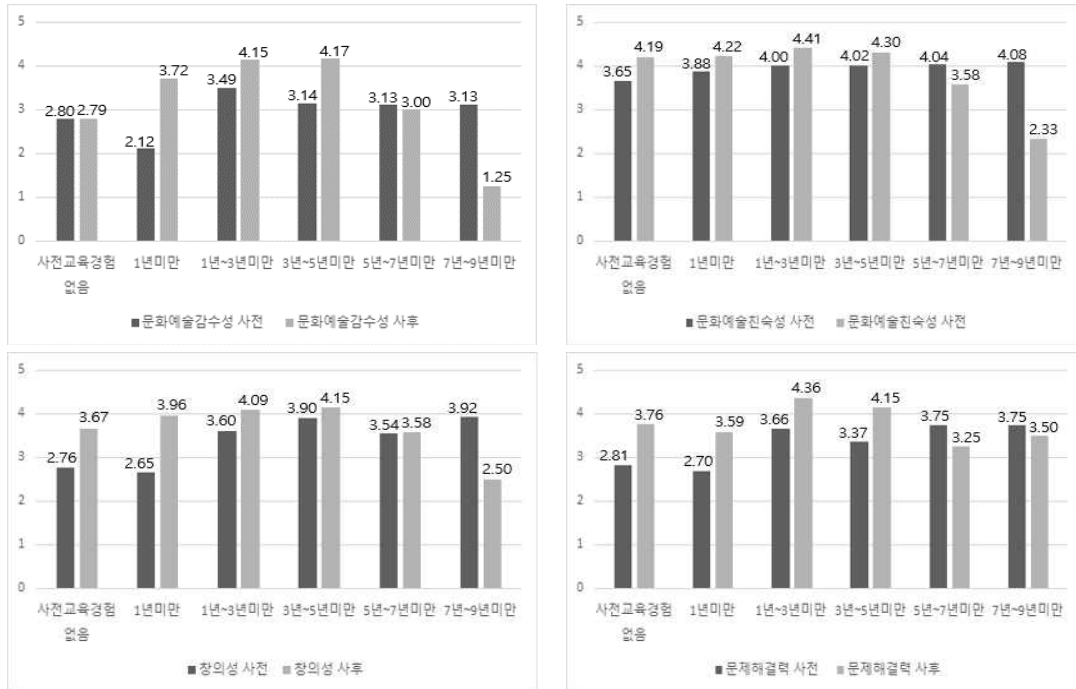


\* $p < .05$ , \*\* $p < .01$ , \*\*\* $p < .001$

※ *M*: 평균, *SD*: 표준편차

- 조사에 참여한 노인 후기 참여자 중 사전조사 참여 집단 103명, 사후조사 참여 집단 58명을 대상으로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문화예술감수성( $t = 3.78, p < .001$ ), 공감능력( $t = 2.60, p < .01$ ), 행복감( $t = 2.11, p < .05$ ), 문화수용력( $t = 3.19, p < .01$ ), 창의성( $t = 4.34, p < .001$ ), 자기표현력( $t = 3.77, p < .001$ ), 문제해결력( $t = 4.80, p < .001$ ), 소통능력( $t = 2.57, p < .01$ ), 친밀감( $t = 3.37, p < .01$ ), 자아존중감( $t = 2.75, p < .01$ ), 자기조절력( $t = 3.30, p < .01$ ) 지표에서 유의한 효과가 나타남.
-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지표에 대한 문항별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문화예술친숙성 지표의 ‘나는 남는 시간이 생기면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고 싶다고 생각이 든다’ 문항(사전 평균 3.91 → 사후 평균 4.25,  $t = 1.99, p < .05$ )에서 유의한 효과가 나타남.
- 문화예술교육 기간에 따른 효과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노인 후기 독립표본 집단에 대한 2 way ANOVA 분석을 실시한 결과, 문화예술감수성( $F(7, 144) = 5.69, p < .001$ ), 문화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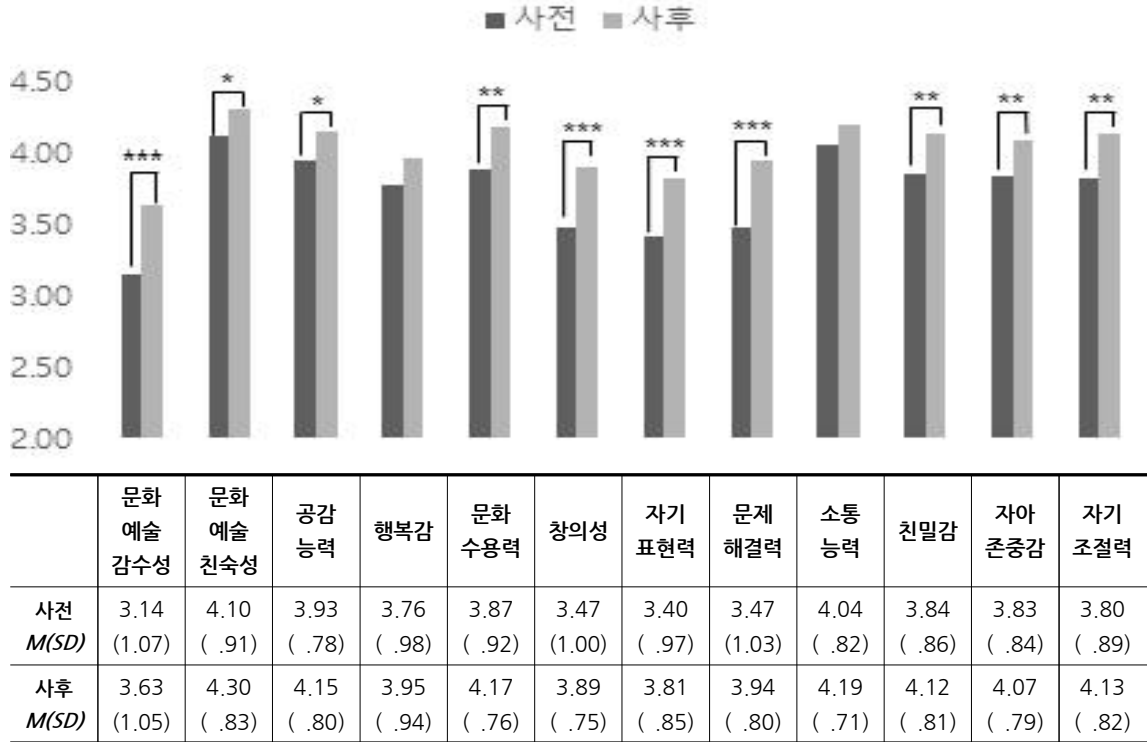
술친숙성( $F(7, 145) = 2.12, p < .05$ ), 창의성( $F(7, 145) = 2.12, p < .05$ ), 문제해결력( $F(7, 145) = 2.38, p < .05$ ) 지표에 대한 유의한 효과가 나타남.



<그림 II-16> 노인 후기 기간별 사전-사후 평균(독립표본 t 검증)

□ 노인기 전체 독립표본 t 검증 결과

〈표 II-29〉 노인기 전체 문화예술교육 독립표본 t 검증 효과(사전  $n = 235$ , 사후  $n = 141$ )



\* $p < .05$ , \*\* $p < .01$ , \*\*\* $p < .001$

※ M: 평균, SD: 표준편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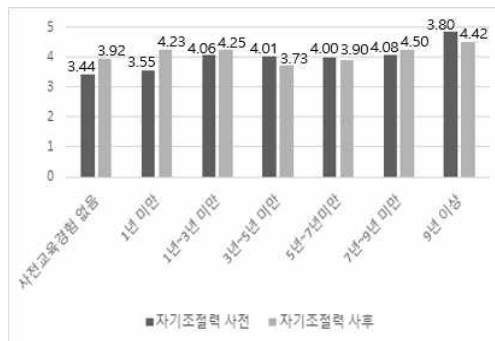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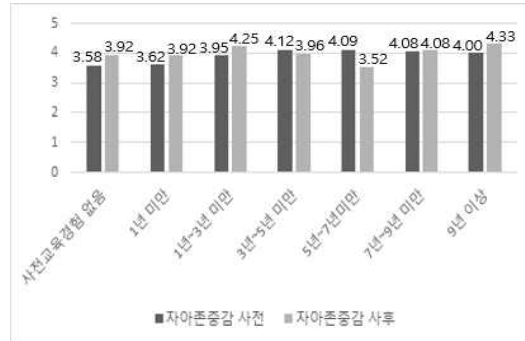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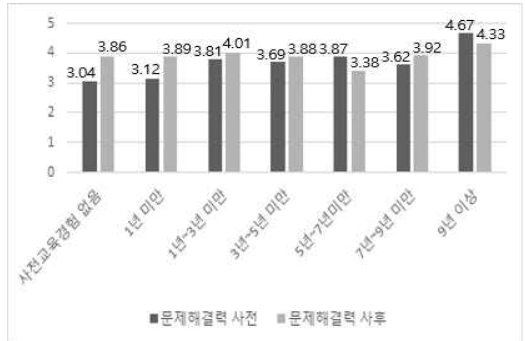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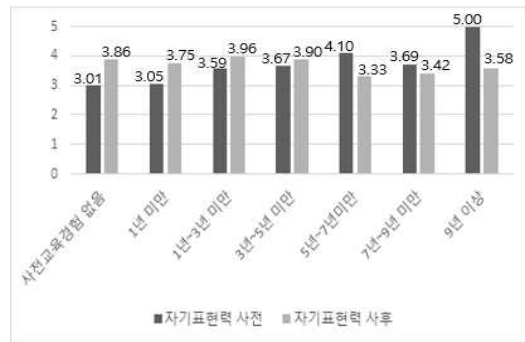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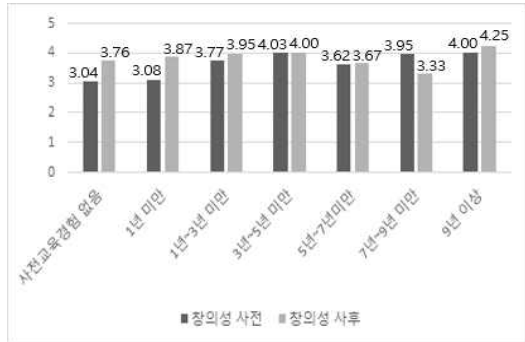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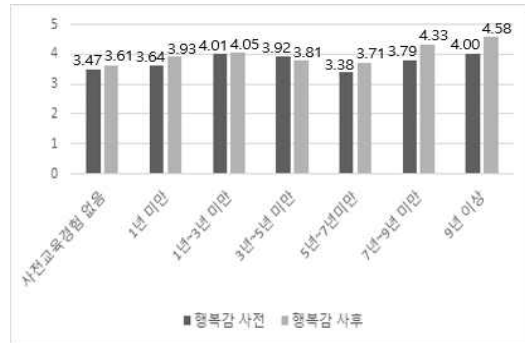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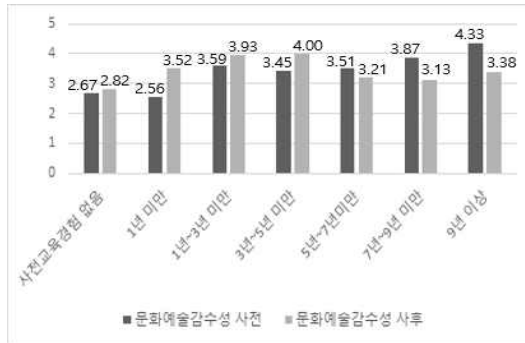
- 조사에 참여한 노인기 전체 참여자 중 사전조사 참여 집단 235명, 사후조사 참여 집단 141명을 대상으로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문화예술감수성( $t = 4.27, p < .001$ )과 문화예술친숙성( $t = 2.01, p < .05$ ), 공감능력( $t = 2.37, p < .01$ ), 문화수용력( $t = 3.30, p < .01$ ), 창의성( $t = 4.29, p < .001$ ), 자기표현력( $t = 4.17, p < .001$ ), 문제해결력( $t = 4.66, p < .001$ ), 친밀감( $t = 3.11, p < .01$ ), 자아존중감( $t = 2.74, p < .01$ ), 자기조절력( $t = 3.50, p < .01$ ) 지표에서 유의한 효과가 나타남. 또한 행복감( $t = 1.89, p < .08$ ), 소통능력( $t = 1.75, p < .08$ ) 지표에서 주변 수준에서 유의한 효과가 나타남.
- 문화예술교육 기간에 따른 효과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유아기 독립표본 집단에 대한 2 way ANOVA 분석을 실시한 결과, 문화예술감수성( $F(6, 356) = 9.48, p < .001$ ), 행복감( $F(6, 356) = 2.05, p < .05$ ), 창의성( $F(6, 356) = 3.71, p < .01$ ), 자기표현력( $F(6, 356) =$

2.48,  $p < .05$ ), 문제해결력( $F(6, 356) = 3.00, p < .01$ ), 자아존중감( $F(6, 356) = 2.15, p < .05$ ), 자기조절력( $F(6, 356) = 2.96, p < .01$ ) 지표에 대해 유의한 효과가 나타남. 또한 친밀감( $F(6, 356) = 2.00, p < .08$ ) 지표에 대해 주변 수준에서 유의한 효과가 나타남.

#### □ 노인기(전체) 문화예술교육 효과 요약

- 노인기 참여자에 대한 대응표본, 독립표본 t 검증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조사에 비해 사후조사 평균이 오르는 추세였으며, 대응표본 t 검증에서 문화예술감수성, 행복감, 문제해결력, 공감능력, 문화수용력, 자기표현력, 친밀감 지표에 대한 효과가, 독립표본 t 검증에서 모든 지표에 대한 문화예술교육 효과가 나타났음.
- 노인기 참여자의 문화예술교육 기간별 효과 분석에서 대응표본 집단에서 행복감, 자기조절력에서 기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독립표본 집단에서 문화예술감수성, 행복감, 창의성, 자기표현력, 문제해결력, 자아존중감, 자기조절력, 친밀감 지표에 대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남. 자기표현력 지표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기간이 긴 집단이 효과 역시 큰 추세를 보였음.





〈그림 II-17〉 노인기 전체 기간별 사전-사후 평균(독립표본 t 검증)

### 2.2.8.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효과 대응표본 검증 결과 종합

□ 대응표본 t 검증 결과 생애주기별로 유의하게 나타난 지표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음.

〈표 II -30〉 생애주기별 대응표본 t 검증 결과

지표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	성인 전기	성인 중기	성인 후기	노인 전기	노인 후기
핵심 지표	문화예술감수성	●	●		●	●	●	●	●
	문화예술친숙성		●			●			
특수 지표	공감능력								●
	행복감				●				●
	문화수용력						●		●
	창의성					●	●		
	자기표현력				●	●			●
	문제해결력								
	소통능력					●			
	친밀감								
	자아존중감					●			
	자기조절력					●	●		

※음영 있는 칸은 각 생애주기별 특수지표를 의미함

- 대응표본 t 검증 결과 문화예술교육 생애주기별 특수지표 중 효과가 있는 지표와 효과가 없는 지표가 있음. 유아기는 핵심지표인 문화예술감수성에서 모두 유의미한 효과 나타남. 반면 특수지표인 공감능력, 행복감, 문화수용력, 창의성, 자기표현력에서는 유의미한 효과 나타나지 않았음.
- 아동기는 핵심지표인 문화예술감수성과 문화예술친숙성에서 모두 유의미한 효과 나타남. 아동기 특수지표인 행복감, 창의성, 자기표현력, 친밀감, 자아존중감은 분석결과 유의미한 효과 나타나지 않았음.
- 청소년기는 핵심지표와 특수지표에 대해 유의미한 효과 나타나지 않았음.
- 성인 전기는 핵심지표인 문화예술감수성에서 유의미한 효과 나타남. 또한 특수지표인 행복감, 자기표현력에서도 유의미한 효과 나타남. 성인 전기 특수지표인 공감능력, 소통능력, 친밀감, 자아존중감에서는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음.

- 성인 중기는 핵심지표인 문화예술감수성, 문화예술친숙성에서 모두 유의미한 효과 나타남. 또한 특수지표인 자기표현력, 소통능력, 자아존중감에서도 유의미한 효과 나타남. 성인 중기 특수지표인 공감능력, 행복감, 친밀감에서는 유의미한 효과 나타나지 않음. 다만 특수지표가 아닌 창의성, 자기조절력 지표에서 유의미한 효과 나타남.
- 성인 후기는 핵심지표인 문화예술감수성에서 유의미한 효과 나타남. 성인 후기 특수지표인 공감능력, 행복감, 자기표현력, 소통능력, 자아존중감에서는 유의미한 효과 나타나지 않음. 다만 특수지표가 아닌 문화수용력, 창의성, 자기조절력 지표에서 유의미한 효과 나타남.
- 노년 전기에서는 핵심지표인 문화예술감수성에서 유의미한 효과 나타남. 특수지표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효과 나타나지 않음.
- 노년 후기에서는 핵심지표인 문화예술감수성, 특수지표인 공감능력, 행복감, 문화수용력, 자기표현력 지표에서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남.
- 노인기 전체에서는 핵심지표인 문화예술감수성에서 유의미한 효과 나타남. 또한 특수지표인 공감능력, 행복감, 친밀감에서 유의미한 효과 나타남. 노인기 특수지표인 소통능력, 자아존중감에서는 유의미한 효과 나타나지 않았음. 다만 특수지표가 아닌 문화수용력, 창의성, 자기표현력, 문제해결력 지표에서 유의미한 효과 나타남.
-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효과지표의 분석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음. 먼저 각 생애주기별 특수지표 외의 지표에서 유의미한 효과 나타나며, 특수지표에서 유의미한 효과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음. 따라서 문화예술교육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각 생애주기에 해당하는 특수지표만을 조사하는 것은 문화예술교육 효과 분석에 혼선을 빚을 수 있음.
- 또한 기간별 분석을 통해 사전-사후 효과분석에서 나타나지 않은 유의미한 문화예술교육의 장기적 효과 확인할 수 있었음. 교육연수가 길수록 문화예술교육의 효과가 증가하지만 기간에 정비례하는 것은 아님. 예를 들어 문화예술교육에 참여 경험이 없는 참여자 집단과 교육 경험이 있는 참여자 집단의 효과 차이는 유의미하게 큰 경향이 있음. 따라서 기간에 따른 효과 증대 역시 고려해야 할 유의미한 결과로 볼 수 있음.

## 2.2.9.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효과 독립표본 t 검증 결과 종합

□ 독립표본 t 검증 결과 생애주기별로 유의하게 나타난 지표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음.

〈표 II-31〉 생애주기별 독립표본 t 검증 결과

지표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	성인 전기	성인 중기	성인 후기	노인 전기	노인 후기
핵심 지표	문화예술감수성	●	●			●	●	●	●
	문화예술친숙성	●					●		
특수 지표	공감능력					●			●
	행복감								●
	문화수용력					●	●		●
	창의성					●	●	●	●
	자기표현력					●		●	●
	문제해결력							●	●
	소통능력					●			●
	친밀감								●
	자아존중감	●							●
	자기조절력					●	●		●

※ 음영 있는 칸은 각 생애주기별 특수지표를 의미함

- 독립표본 t 검증 결과 문화예술교육 생애주기별 특수지표 중 효과가 있는 지표와 효과가 없는 지표가 있음. 유아기 특수지표인 공감능력, 행복감, 문화수용력, 창의성, 자기표현력 중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난 지표가 없었음. 반면 유아기 특수지표가 아닌 자아존중감에서 유의미한 효과 나왔음.
- 아동기는 핵심지표 중 문화예술감수성만 유의미한 효과 나왔음. 아동기 특수지표인 행복감, 창의성, 자기표현력, 친밀감, 자아존중감은 분석결과 유의미한 효과 나타나지 않았음.
- 청소년기는 핵심지표와 특수지표에서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음.
- 성인 전기는 핵심지표와 특수지표에서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음.
- 성인 중기는 핵심지표인 문화예술감수성, 성인 중기 특수지표인 공감능력, 자기표현력, 소통능력에서 유의미한 효과 나타남. 반면 성인 중기 특수지표인 행복감, 친밀감, 자아존중감에서는 유의미한 효과 나타나지 않음. 다만 특수지표가 아닌 문화수용력, 창의성에서는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남.
- 성인 후기는 핵심지표인 문화예술감수성, 문화예술친숙성이 모두 유의미한 효과 나타났음. 반면 성인 후기 특수지표에서는 유의미한 효과 나타나지 않음. 다만 성인 후기 특수지표가

아닌 문화수용력, 창의력, 자기조절력에서 유의미한 효과 나타남.

- 노년 전기에는 핵심지표인 문화예술감수성이 유의미한 효과가 나왔음. 반면 노인 전기 특수 지표에서는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음. 다만, 노인 전기 특수지표가 아닌 창의성, 자기표현력, 문제해결력 지표에서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남.
- 노년 후기에는 핵심지표인 문화예술감수성이 유의미한 효과가 나왔음. 노인 전기 특수지표인 공감능력, 행복감, 소통능력, 친밀감, 자아존중감에서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남. 노인 후기 특수 지표가 아닌 문화수용력, 창의성, 자기표현력, 문제해결력에서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남.
- 독립표본 t 검증에서는 마찬가지로 성인기 특수지표가 아닌 문화수용력, 창의성, 자기표현력 등 다른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 나타났음. 또한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효과가 성인기 효과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음. 이는 성인에 비해 인지능력이 성숙하지 않은 유아, 아동, 청소년들에게 자기보고식 평가가 성인보다 어려워서 자기보고식 평가의 신뢰도가 다소 떨어질 수 있다는 한계가 있을 수 있음. 실제로 질적 연구 결과를 보면 이 시기의 참여자들 역시 문화예술교육에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 가능함. 또한 이 시기는 발달 특성상 신체적, 인지적, 심리사회적 변화가 성인보다 더 극심한 시기이기 때문에 문화예술교육의 효과를 단기간에 측정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음.
- 성인의 경우 대응표본 t 검증과 마찬가지로 유아, 아동, 청소년기에 비해 문화예술교육 효과를 크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유아, 아동, 청소년기 참여자들의 문화예술친숙성을 높이고, 문화수용력, 소통능력을 향상시키는 문화예술교육의 실제 효과와는 별개로 성인들이 문화예술교육에 대해 느끼는 만족감이 더 클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함.

## 2.2.10.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효과 대응표본 t 검증 - 독립표본 t 검증 결과 비교

□ 생애주기별로 유의하게 나타난 대응표본 t 검증과 독립표본 t 검증 결과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음.

〈표 II-32〉 생애주기별 대응표본 t 검증-독립표본 t 검증 결과 비교

지표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	성인 전기	성인 중기	성인 후기	노인 전기	노인 후기
핵심 지표	문화예술감수성	●	●		●	●	●	●	●
	문화예술친숙성	▲	■			●	▲		
특수 지표	공감능력								●
	행복감				■		■		●
	문화수용력					▲	●		●
	창의성					●	●	▲	▲
	자기표현력				■	●		▲	●
	문제해결력			▲				▲	▲
	소통능력					●			▲
	친밀감								▲
	자아존중감	▲				▲			▲
	자기조절력			▲		●	●		▲

●: 대응표본 t 검증, 독립표본 t 검증 공통 효과, ■: 대응표본 t 검증 효과 ▲: 독립표본 t 검증 효과

- 대응표본 t 검증과 독립표본 t 검증을 비교한 결과 두 검증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지표와 공통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지표가 있었음. 예를 들어 문화예술감수성의 경우 두 분석에서 모두 동일하게 효과가 나타났음.

- 그러나 다수의 지표에서 독립표본 t 검증과 대응표본 t 검증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음.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 수 있음. 먼저 독립표본 t 검증과 대응표본 t 검증의 참여자가 동일하지 않음. 대응표본 t 검증은 사전과 사후 설문조사에 모두 응한 대상만 분석 대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표본 수에서 독립표본에 비해 훨씬 적음. 이런 점에 있어서 본 연구 분석에서 대응표본 t 검증이 독립표본 t 검증에 비해 유의미한 통계치가 나오기 어려움. 독립표본 t 검증에서만 유의미하게 나온 효과지표는 독립표본 t 검증의 사례수가 하나의 원인일 수 있음.

- 한편 독립표본 t 검증은 설문조사에 참여한 사전 집단과 사후 집단을 별개의 집단으로 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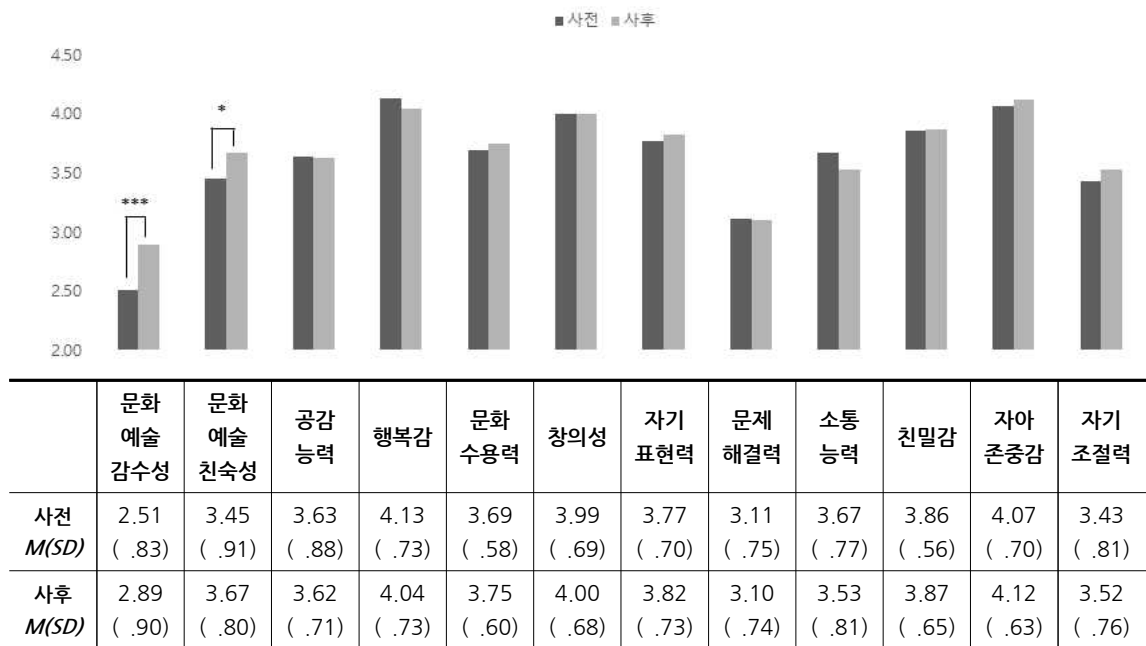
집단의 전체 평균을 비교하는 것임. 따라서 독립표본 t 검정은 대응표본 t 검정에 비해 문화예술교육의 참여자가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함으로써 얻는 사전과 사후의 변화를 엄밀하게 추정하기에 무리가 있음. 성인 전기 독립표본 t 검정에서 나오지 않은 효과들이 대응표본 t 검정에서 나온 것은 대응표본 t 검정이 사례수로 인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엄밀한 개인의 효과를 추론하기엔 대응표본 t 검정이 더 나은 분석 방법이자 연구 설계임을 암시함.

## 2.3. 사업별 문화예술교육 효과

### 2.3.1. 유아문화예술교육 사업 효과

□ 대응표본 t 검증 결과

〈표 II-33〉 유아문화예술교육 사업 문화예술교육 대응표본 t 검증 효과( $n = 50$ )



\* $p < .05$ , \*\*\* $p < .001$

※ *M*: 평균, *SD*: 표준편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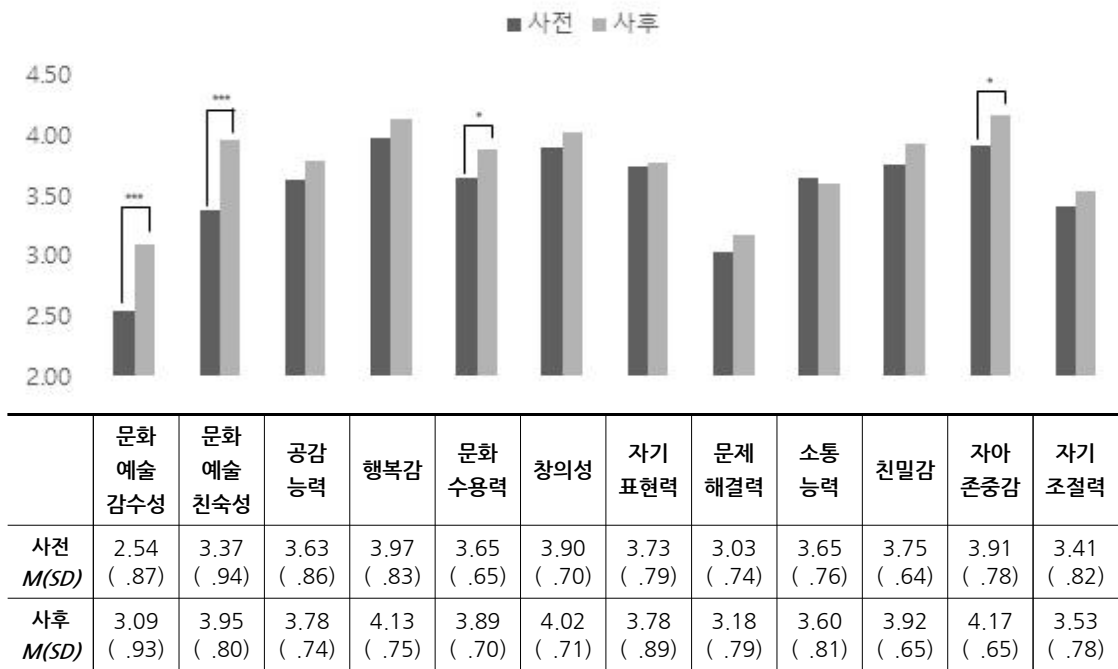
- 조사에 참여한 유아문화예술교육 참여자(유아 보호자) 중 사전-사후 설문에 모두 응답한 참여자 50명을 대상으로 대응표본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문화예술감수성( $t = 3.76$ ,  $p < .001$ ), 문화예술친숙성( $t = 2.15$ ,  $p < .05$ ) 지표에서 유의한 효과가 나타남.
-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지표 중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는 문항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문항별 사전-사후 비교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기조절력 지표의 ‘귀하 자녀는 불안해져도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편이다’ 문항(사전 평균 3.30 → 사후 평균 3.50,  $t = 2.03$ ,  $p < .05$ )에서 유의한 효과가 나타남.



- 문화예술교육 기간에 따른 효과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유아문화예술교육 대응표본 집단에 대한 사전-사후 반복측정을 실시한 결과, 기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 □ 독립표본 t 검증 결과

〈표 II-34〉 유아문화예술교육 사업 문화예술교육 독립표본 t 검증 효과(사전  $n = 65$ , 사후  $n = 80$ )



\*  $p < .05$ , \*\*\*  $p < .001$

※ *M*: 평균, *SD*: 표준편차

- 조사에 참여한 유아기 참여자(유아 보호자) 중 사전조사 참여 집단 65명, 사후조사 참여 집단 80명을 대상으로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문화예술감수성( $t = 3.66$ ,  $p < .001$ ), 문화예술친숙성( $t = 4.02$ ,  $p < .001$ ), 문화수용력( $t = 2.14$ ,  $p < .05$ ), 자아존중감( $t = 2.16$ ,  $p < .05$ )에서 유의한 효과가 나타남.
-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지표에 대한 문항별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공감능력 지표의 ‘나는 다른 사람의 입장을 잘 이해한다’ 문항(사전 평균 3.45 → 사후 평균 3.78,  $t = 2.05$ ,  $p < .05$ ), 친밀감 지표의 ‘나는 고민을 함께 나누는 친구가 있다’ 문항(사전 평균 2.95, 사후 평균 3.29,  $t = 2.00$ ,  $p < .05$ )에서 유의한 효과가 나타남.

- 문화예술교육 기간에 따른 효과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유아문화예술교육 독립표본 집단에 대한 2 way ANOVA 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한 효과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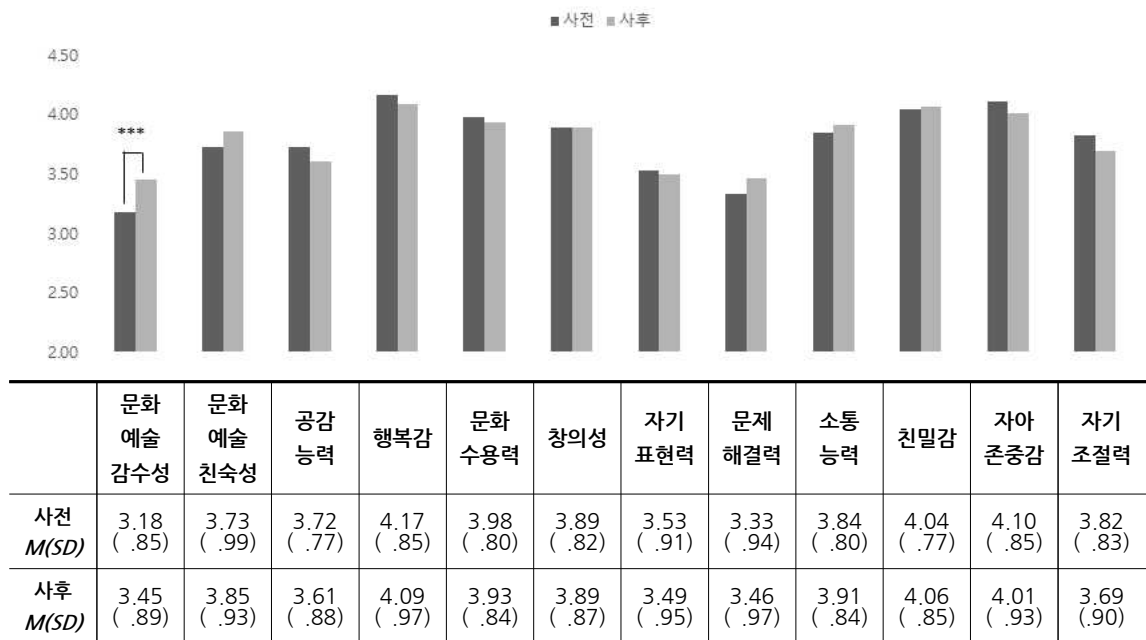
#### □ 유아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교육 효과 요약

- 유아문화예술교육 참여자에 대한 대응표본, 독립표본 t 검증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조사에 비해 사후조사 평균이 오르는 추세였으며, 양쪽 모두에서 문화예술감수성 및 친숙성에서 유의한 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독립표본 t 검증에서는 문화수용력, 자아존중감에 대한 유의한 효과가 나타났다.
- 유아기 참여자의 문화예술교육 기간별 효과 분석에서는 유의한 효과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

### 2.3.2. 예술꽃씨앗학교 사업 효과

#### □ 대응표본 t 검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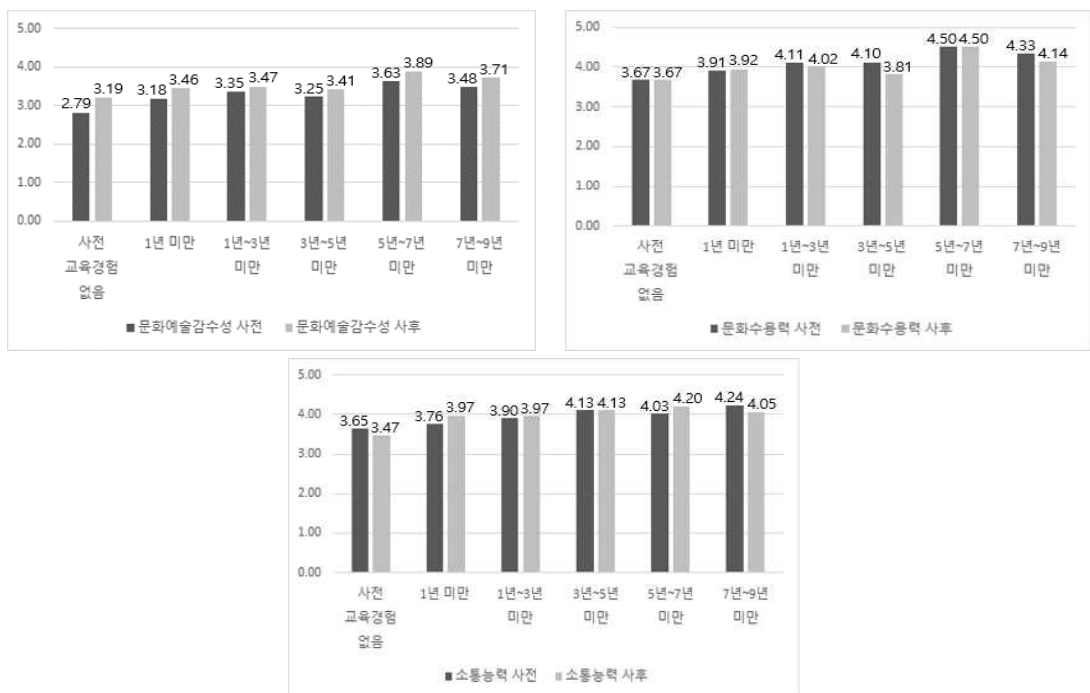
〈표 II -35〉 예술꽃씨앗학교 사업 문화예술교육 대응표본 t 검증 효과( $n = 196$ )



\*\*\* $p < .001$

※ M: 평균, SD: 표준편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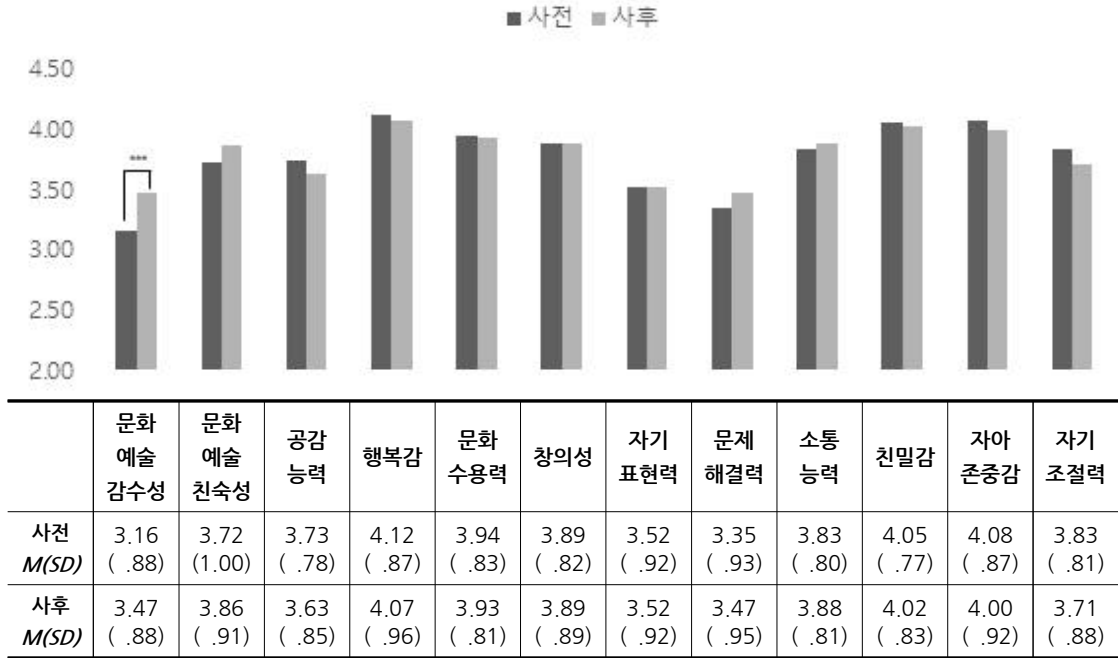
- 조사에 참여한 예술꽃씨앗학교 참여자 중 사전-사후 설문에 모두 응답한 참여자 196명을 대상으로 대응표본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문화예술감수성( $t = 3.96, p < .001$ ), 문제해결력( $t = 1.78, p < .08$ ) 지표에서 유의한 효과가 나타남.
-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지표 중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는 문항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문항별 사전-사후 비교분석을 실시한 결과, 문화예술친숙성 지표의 ‘나는 문화예술 관련 활동에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문항(사전 평균 3.80 → 사후 평균 3.99,  $t = 2.17, p < .05$ )에서 유의한 효과가 나타남.
- 문화예술교육 기간에 따른 효과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예술꽃씨앗학교 대응표본 집단에 대한 사전-사후 반복측정을 실시한 결과, 문화예술감수성( $F(6, 187) = 2.43, p < .05$ ), 문화수용력( $F(6, 189) = 3.47, p < .01$ ), 소통능력( $F(6, 189) = 2.70, p < .05$ )에서 유의한 효과 차이가 나타남.



〈그림 II-18〉 예술꽃씨앗학교 기간별 사전-사후 평균(대응표본 t 검증)

□ 독립표본 t 검증 결과

〈표 II-36〉 예술꽃씨앗학교 사업 문화예술교육 독립표본 t 검증 효과(사전  $n = 241$ , 사후  $n = 23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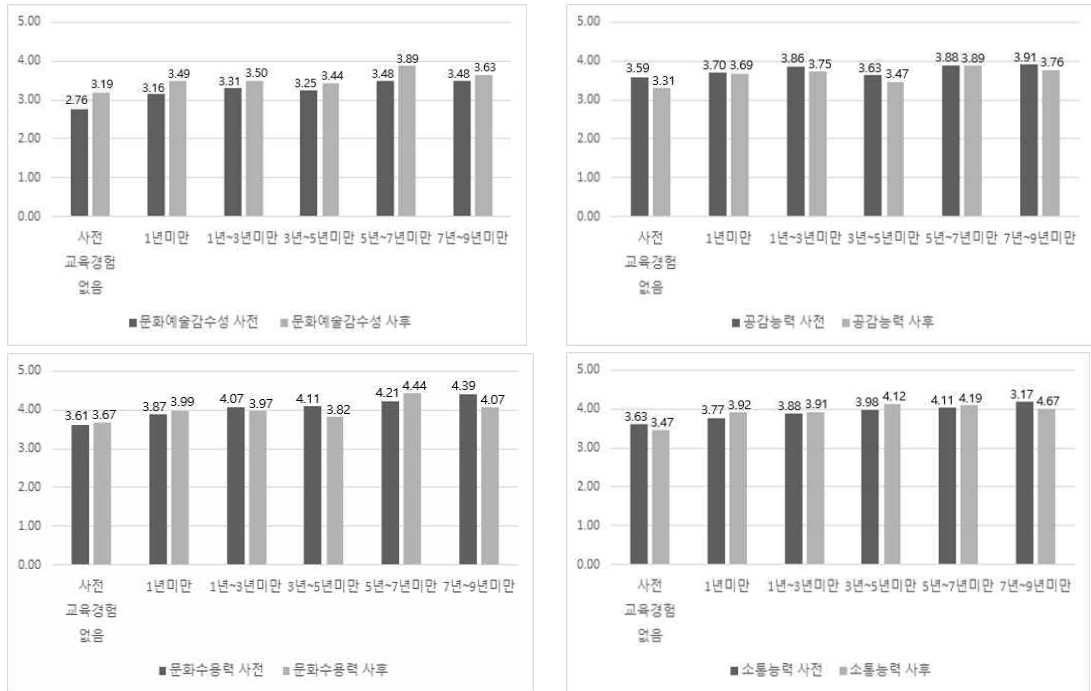


\*\*\*  $p < .001$

※ *M*: 평균, *SD*: 표준편차

- 조사에 참여한 예술꽃씨앗학교 참여자 중 사전조사 참여 집단 241명, 사후조사 참여 집단 232명을 대상으로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문화예술감수성( $t = 3.79, p < .001$ )에서 유의한 효과가 나타났다.
-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지표에 대한 문항별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문제해결력 지표의 ‘나는 문제해결과정에서 예상했던 목표와 실제 결과를 비교해 본다’ 문항(사전 평균 3.31 → 사후 평균 3.51,  $t = 1.98, p < .05$ )에서 유의한 효과가 나타남. 또한 문화예술친숙성 지표의 ‘나는 문화예술관련 활동에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문항(사전 평균 3.45 → 사후 평균 3.78,  $t = 1.78, p < .08$ )에서 주변 수준에서 유의한 효과가 나타남.
- 문화예술교육 기간에 따른 효과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예술꽃씨앗학교 독립표본 집단에 대한 2 way ANOVA 분석을 실시한 결과, 문화예술감수성( $F(6, 456) = 3.70, p < .01$ ), 공감능력( $F(6, 456) = 2.17, p < .05$ ), 문화수용력( $F(6, 456) = 3.70, p < .01$ ), 소통능력( $F(6,$

456) = 3.39,  $p < .01$ ) 지표에서 유의한 효과 차이가 나타남. 또한 문화예술친숙성( $F(6, 456) = 1.91, p < .08$ ), 자기조절력( $F(6, 456) = 2.01, p < .08$ ), 문제해결력( $F(6, 456) = 1.93, p < .08$ ) 지표에서 주변 수준에서 유의한 효과 차이가 나타남.



〈그림 11-19〉 예술꽃씨앗학교 기간별 사전-사후 평균(독립표본 t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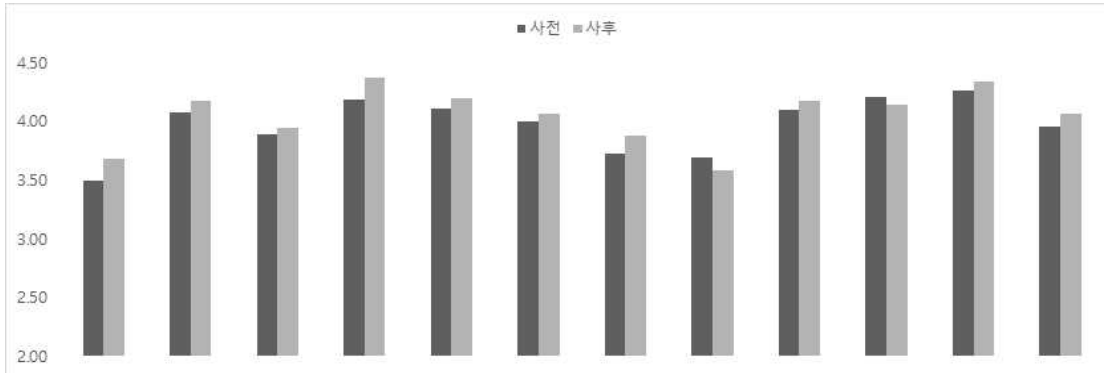
#### □ 예술꽃씨앗학교 문화예술교육 효과 요약

- 예술꽃씨앗학교 참여자에 대한 대응표본, 독립표본 t 검증 결과 양쪽 모두에서 문화예술감수성 지표에서 유의한 효과가 나타났음. 또한 대응표본 t 검증에서 문제해결력에 대한 유의한 효과가 나타났음.
- 예술꽃씨앗학교 참여자의 문화예술교육 기간별 효과 분석에서 대응표본 집단은 문화예술감수성, 문화수용력, 소통능력 지표, 독립표본 집단은 문화예술감수성, 문화예술친숙성, 공감능력, 문화수용력, 소통능력, 자기조절력, 문제해결력에서 유의한 효과 차이가 나타났음. 전반적으로 모든 지표에 대해 기간이 긴 집단이 효과 역시 큰 추세를 보임.

### 2.3.3.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 효과

#### □ 대응표본 t 검증 결과

〈표 II -37〉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 문화예술교육 대응표본 t 검증 효과( $n = 7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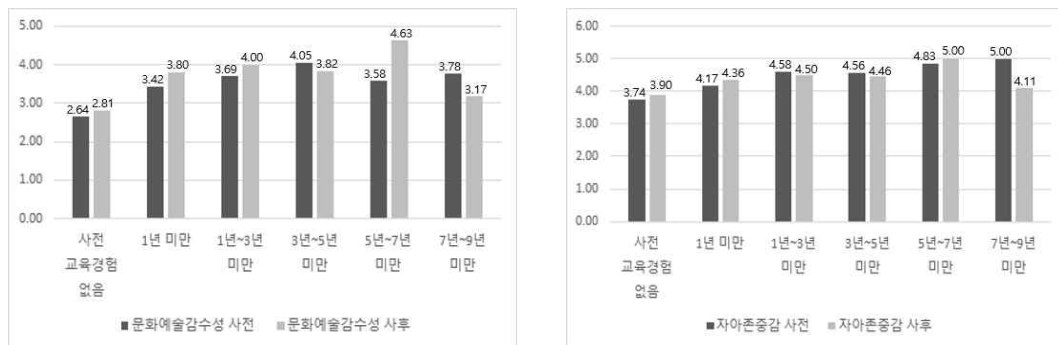


	문화 예술 감수성	문화 예술 친숙성	공감 능력	행복감	문화 수용력	창의성	자기 표현력	문제 해결력	소통 능력	친밀감	자아 존중감	자기 조절력
사전 <i>M(SD)</i>	3.49 (.99)	4.07 (1.05)	3.89 (.88)	4.18 (.95)	4.10 (.88)	3.99 (1.01)	3.72 (.98)	3.69 (1.02)	4.09 (.96)	4.20 (.97)	4.26 (.98)	3.95 (.98)
사후 <i>M(SD)</i>	3.67 (.95)	4.17 (1.00)	3.94 (.90)	4.37 (.84)	4.19 (.84)	4.06 (.96)	3.88 (1.01)	3.58 (.93)	4.17 (.84)	4.13 (.97)	4.33 (.85)	4.06 (.89)

※ *M*: 평균, *SD*: 표준편차

- 조사에 참여한 꿈의 오케스트라 참여자 중 사전-사후 설문에 모두 응답한 참여자 72명을 대상으로 대응표본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음.
-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지표 중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는 문항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문항별 사전-사후 비교분석을 실시한 결과, 행복감 지표의 ‘나는 내가 행복한 편이라고 생각한다’ 문항(사전 평균 4.33 → 사후 평균 4.60,  $t = 1.78$ ,  $p < .08$ ), 자기표현력 지표의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 생각을 더 잘 이야기하는 편이다’(사전 평균 3.63 → 사후 평균 3.90,  $t = 1.80$ ,  $p < .08$ ) 문항에서 유의한 효과가 나타남.
- 문화예술교육 기간에 따른 효과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유아기 대응표본 집단에 대한 사전-사후 반복측정을 실시한 결과, 문화예술감수성( $F(6, 65) = 4.26$ ,  $p < .01$ ), 자아존중감 지표( $F(6, 65) = 2.34$ ,  $p < .05$ )에서 유의한 효과 차이가 나타남. 또한 창의성( $F(6, 6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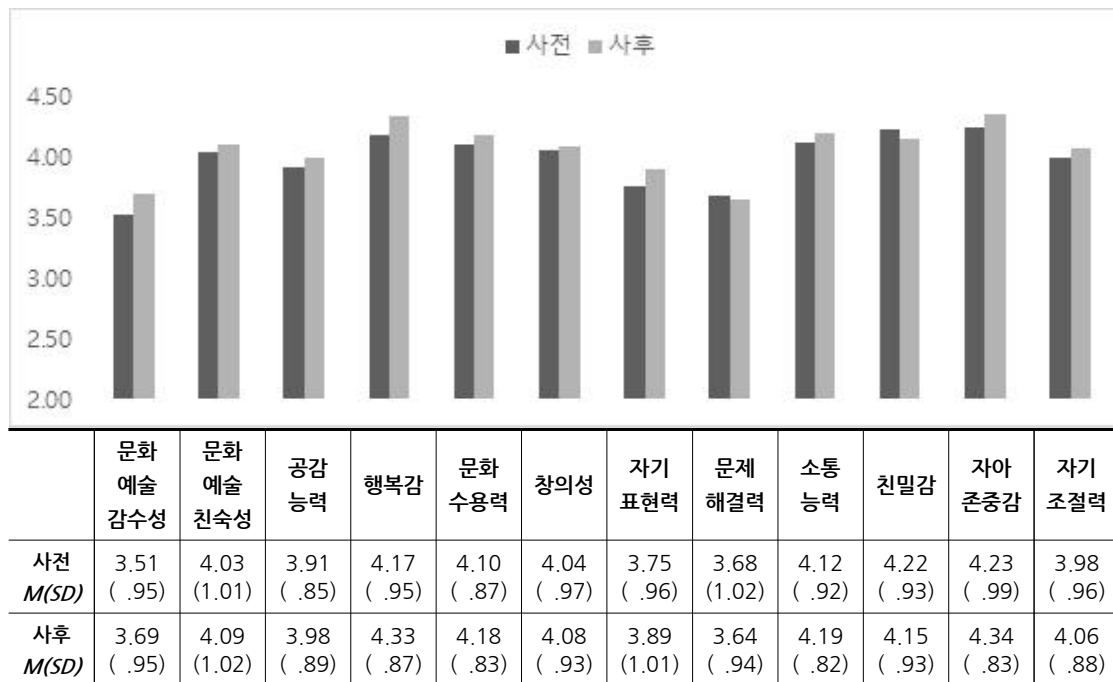
2.13,  $p < .08$ ), 소통능력( $F(6, 65) = 2.13, p < .08$ ) 지표에 대해서는 주변 수준에서 유의한 효과가 나타남.



〈그림 11-20〉 꿈의 오케스트라 기간별 사전-사후 평균(대응표본 t 검증)

## □ 독립표본 t 검증 결과

〈표 11-38〉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 문화예술교육 독립표본 t 검증 효과(사전  $n = 88$ , 사후  $n = 8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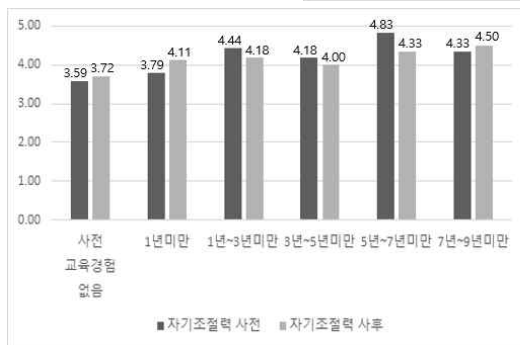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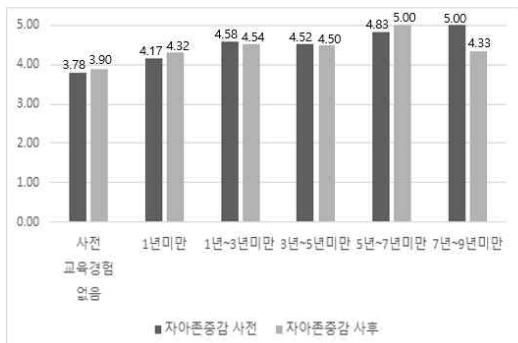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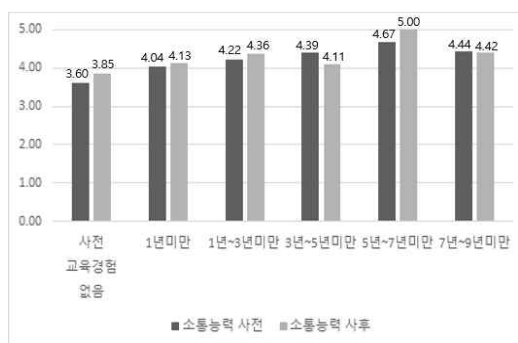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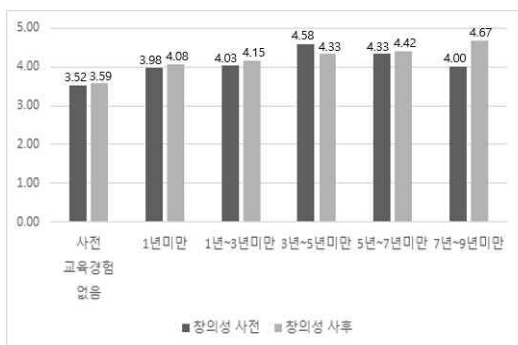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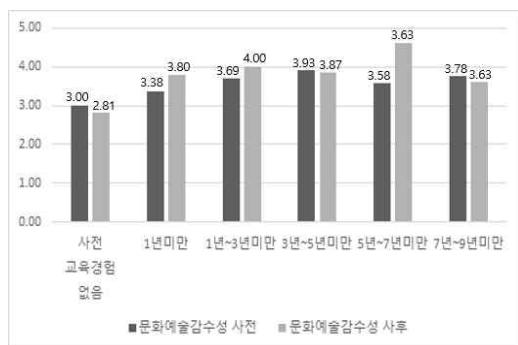
※ M: 평균, SD: 표준편차

- 조사에 참여한 꿈의 오케스트라 참여자(유아 보호자) 중 사전조사 참여 집단 88명, 사후조사 참여 집단 86명을 대상으로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음.
-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지표에 대한 문항별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음.
- 문화예술교육 기간에 따른 효과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꿈의 오케스트라 독립표본 집단에 대한 2 way ANOVA 분석을 실시한 결과, 문화예술감수성( $F(6, 173) = 4.26, p < .01$ ), 창의성( $F(6, 173) = 2.89, p < .05$ ), 소통능력( $F(6, 173) = 2.47, p < .05$ ), 자아존중감( $F(6, 173) = 4.16, p < .01$ ), 자기조절력( $F(6, 173) = 2.18, p < .05$ )에서 유의한 효과 차이가 나타남.

#### □ 꿈의 오케스트라 문화예술교육 효과

- 꿈의 오케스트라 참여자에 대한 대응표본, 독립표본 t 검증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조사에 비해 사후조사 평균이 오르는 추세를 보임.
- 꿈의 오케스트라 참여자의 문화예술교육 기간별 효과 분석에서 대응표본은 문화예술감수성, 자아존중감, 창의성, 소통능력, 독립표본 집단에서 문화예술감수성, 창의성, 소통능력, 자아존중감, 자기조절력 지표에서 유의한 효과 차이가 나타남. 전반적으로 모든 지표에 대해 기간이 긴 집단이 효과가 큰 추세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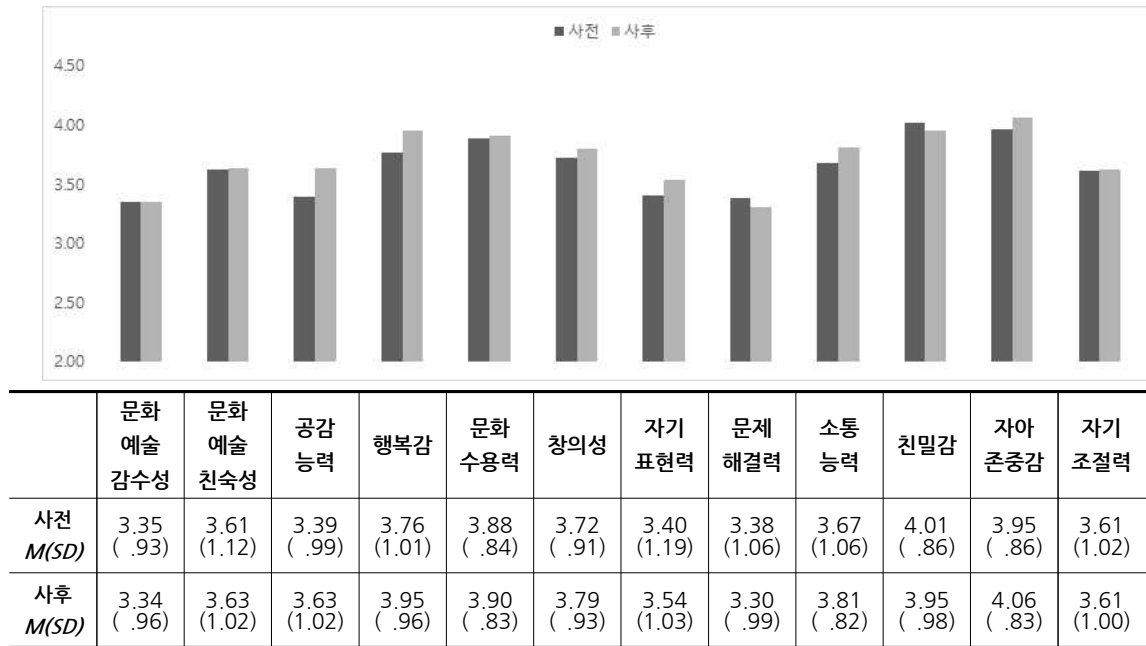


〈그림 II-21〉 꿈의 오케스트라 기간별 사전-사후 평균(독립표본 t 검증)

### 2.3.4. 아동복지시설 사업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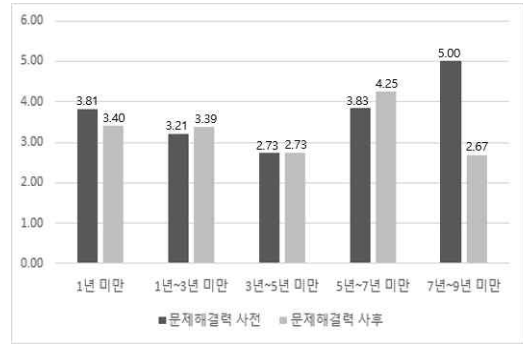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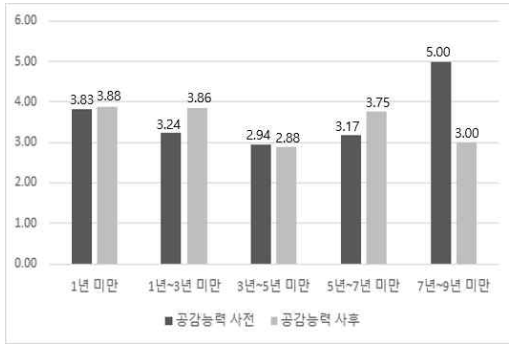
#### □ 대응표본 t 검증 결과

〈표 II-39〉 아동복지시설 사업 문화예술교육 대응표본 t 검증 효과( $n = 51$ )



※ *M*: 평균, *SD*: 표준편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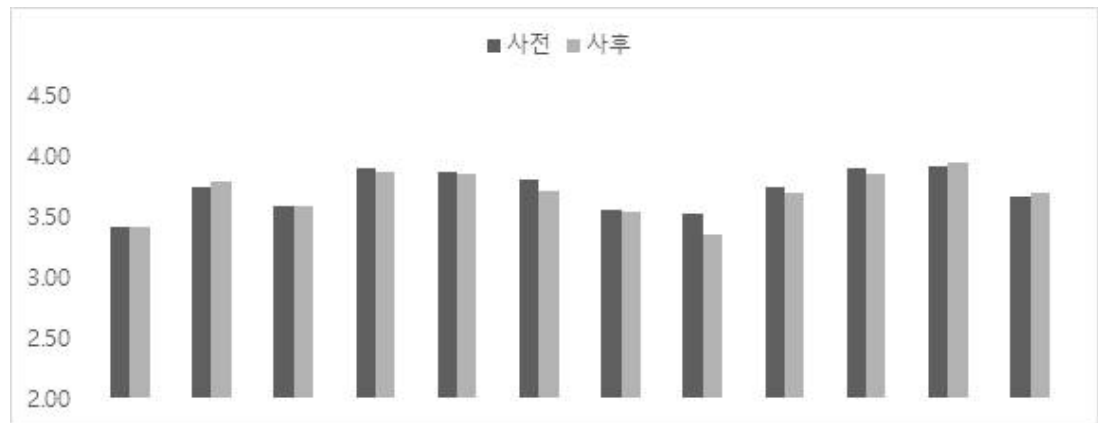
- 조사에 참여한 아동복지시설 참여자 중 사전-사후 설문에 모두 응답한 참여자 51명을 대상으로 대응표본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음.
-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지표 중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는 문항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문항별 사전-사후 비교분석을 실시한 결과, 공감능력 지표의 ‘나는 다른 사람의 감정에 대해 잘 이해한다’ 문항(사전 평균 3.10 → 사후 평균 3.61,  $t = 2.13$ ,  $p < .05$ )에서 유의한 효과가 나타남.
- 문화예술교육 기간에 따른 효과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유아기 대응표본 집단에 대한 사전-사후 반복측정을 실시한 결과, 공감능력( $F(4, 46) = 3.35$ ,  $p < .05$ ), 문제해결력( $F(4, 46) = 3.75$ ,  $p < .05$ )에서 유의한 효과가 나타남.



<그림 II-22> 아동복지시설 기간별 사전-사후 평균(대응표본 t 검증)

## □ 독립표본 t 검증 결과

<표 II-40> 아동복지시설 사업 문화예술교육 독립표본 t 검증 효과(사전  $n = 191$ , 사후  $n = 11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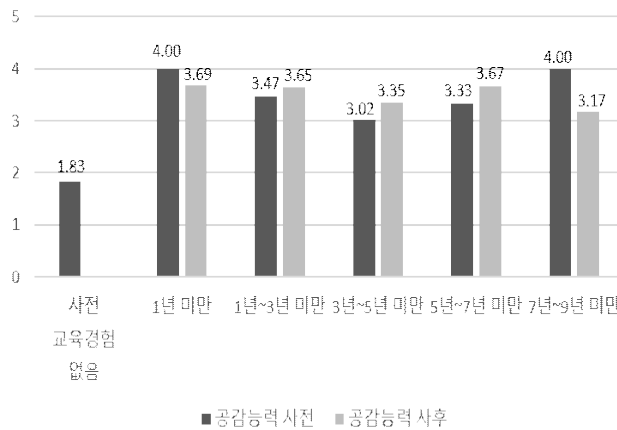


	문화 예술 감수성	문화 예술 친숙성	공감 능력	행복감	문화 수용력	창의성	자기 표현력	문제 해결력	소통 능력	친밀감	자아 존중감	자기 조절력
사전 <i>M(SD)</i>	3.40 (.99)	3.74 (1.10)	3.58 (.94)	3.90 (.93)	3.86 (.95)	3.79 (.96)	3.54 (1.09)	3.52 (.99)	3.73 (.98)	3.90 (.93)	3.90 (.88)	3.65 (1.06)
사후 <i>M(SD)</i>	3.42 (1.08)	3.79 (1.15)	3.59 (.97)	3.88 (1.08)	3.86 (.99)	3.71 (1.01)	3.53 (1.02)	3.35 (.99)	3.70 (.98)	3.87 (1.08)	3.95 (1.07)	3.69 (1.05)

※ *M*: 평균, *SD*: 표준편차

- 조사에 참여한 아동복지시설 참여자 중 사전조사 참여 집단 191명, 사후조사 참여 집단 111명을 대상으로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음.

-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지표에 대한 문항별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음.
- 문화예술교육 기간에 따른 효과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유아기 독립표본 집단에 대한 2 way ANOVA 분석을 실시한 결과, 공감능력( $F(5, 299) = 3.46, p < .01$ )지표에서 유의한 효과 차이가 나타났으며, 자기표현력( $F(5, 299) = 2.01, p < .08$ ). 친밀감( $F(5, 299) = 2.07, p < .08$ )에서 주변 수준에서 유의한 효과 차이가 나타남.



〈그림 II-23〉 아동복지시설 기간별 사전-사후 평균  
(독립표본 t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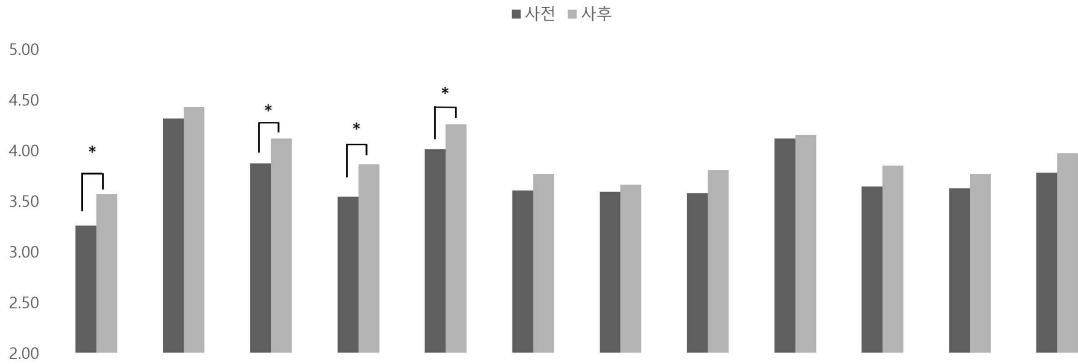
#### □ 아동복지시설 문화예술교육 효과 요약

- 아동복지시설 참여자에 대한 대응표본, 독립표본 t 검증 결과, 대응표본 집단에서 전반적으로 사전조사에 비해 사후조사 평균이 오르는 추세였음.
- 아동복지시설 참여자의 문화예술교육 기간별 효과 분석에서 기간의 길이와 지표 효과가 비례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남.

### 2.3.5. 노인복지시설 사업 효과

#### □ 대응표본 t 검증 결과

〈표 II-41〉 노인복지시설 사업 문화예술교육 대응표본 t 검증 효과( $n = 4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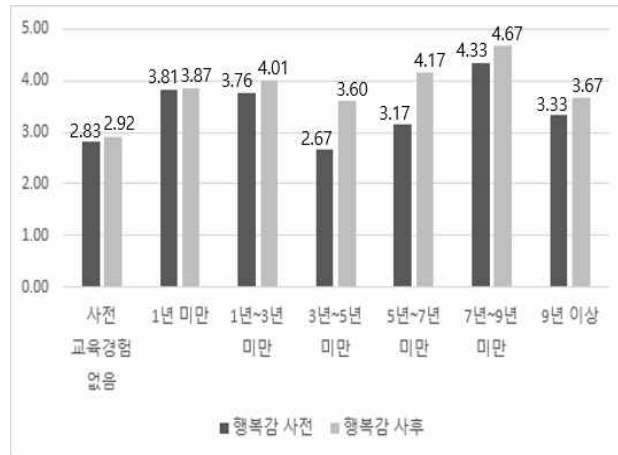
	문화 예술 감수성	문화 예술 친숙성	공감 능력	행복감	문화 수용력	창의성	자기 표현력	문제 해결력	소통 능력	친밀감	자아 존중감	자기 조절력
사전 <i>M(SD)</i>	3.26 (.74)	4.31 (.71)	3.87 (.62)	3.54 (.83)	4.01 (.54)	3.60 (.70)	3.59 (.65)	3.57 (.77)	4.11 (.57)	3.64 (.82)	3.62 (.66)	3.78 (.79)
사후 <i>M(SD)</i>	3.57 (.93)	4.43 (.84)	4.11 (.70)	3.86 (.86)	4.25 (.67)	3.76 (.79)	3.66 (.80)	3.80 (.86)	4.15 (.65)	3.84 (.85)	3.76 (.71)	3.97 (.76)

\* $p < .05$

※ *M*: 평균, *SD*: 표준편차

- 조사에 참여한 전체 노인복지시설 참여자 중 사전-사후 설문에 모두 응답한 참여자 47명을 대상으로 대응표본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문화예술감수성( $t = 2.05, p < .05$ ), 공감능력( $t = 2.36, p < .05$ ), 행복감( $t = 2.16, p < .05$ ), 문화수용력( $t = 2.42, p < .05$ ), 문제해결력( $t = 1.94, p < .08$ ) 평균이 최소 주변 수준에서 유의하게 높아짐.
-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지표에 대한 문항별 대응표본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친밀감 지표의 ‘나는 고민을 함께 나누는 친구가 있다’ 문항 (사전 평균 3.50 → 사후 평균 3.84,  $t = 2.19, p < .05$ ), 자아존중감 지표의 ‘나는 내 스스로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한다’ 문항(사전 평균 3.67 → 사후 평균 3.91,  $t = 1.81, p < .08$ ), 자기조절력 지표의 ‘나는 불안해져도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다’ 문항 (사전 평균 3.76 → 사후 평균 4.02,  $t = 1.96, p < .08$ )에서 최소 주변 수준에서 유의한 효과가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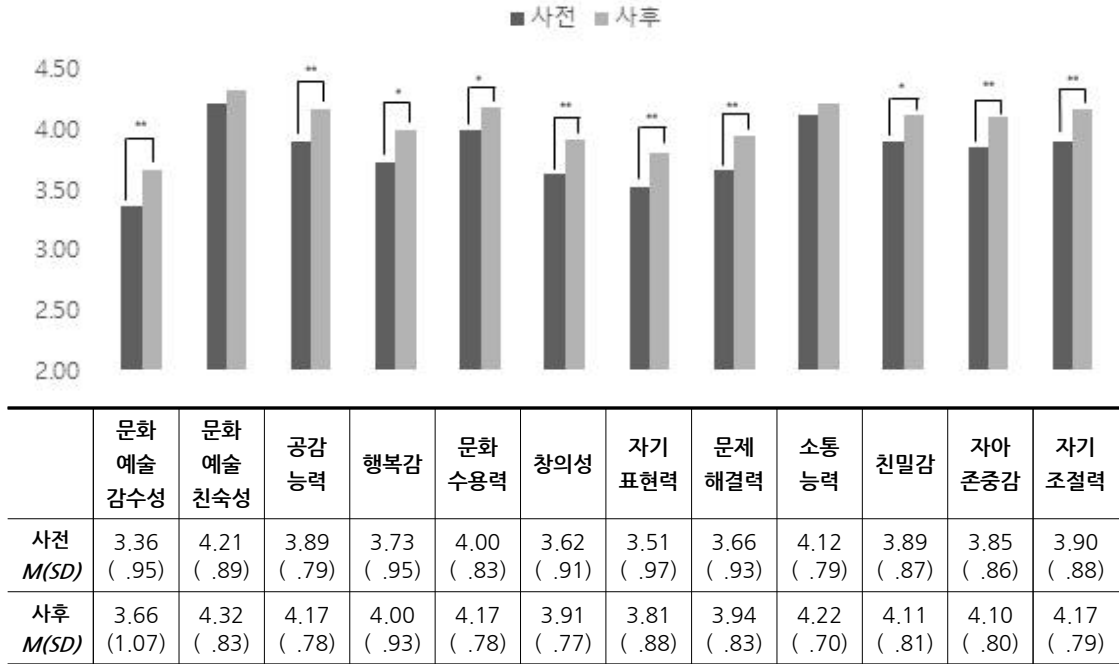
- 문화예술교육 기간에 따른 효과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노인복지시설 대응표본 집단에 대한 사전-사후 반복측정을 실시한 결과, 행복감( $F(6, 39) = 2.89, p < .05$ ), 친밀감( $F(6, 38) = 2.22, p < .08$ ) 지표가 최소 주변 수준에서 기간별 효과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남.



〈그림 II-24〉 노인복지시설 기간별 사전-사후 평균  
(대응표본 t 검증)

## □ 독립표본 t 검증 결과

〈표 II-42〉 노인복지시설 사업 문화예술교육 독립표본 t 검증 효과(사전  $n = 197$ , 사후  $n = 13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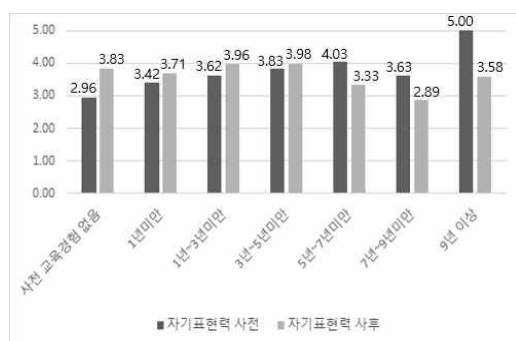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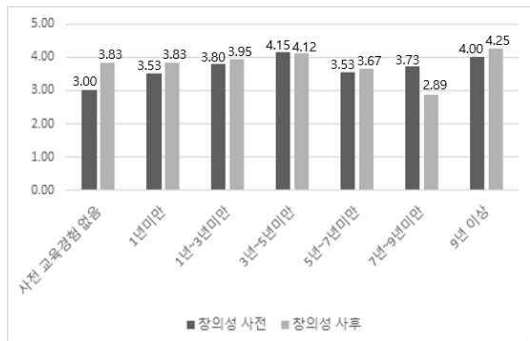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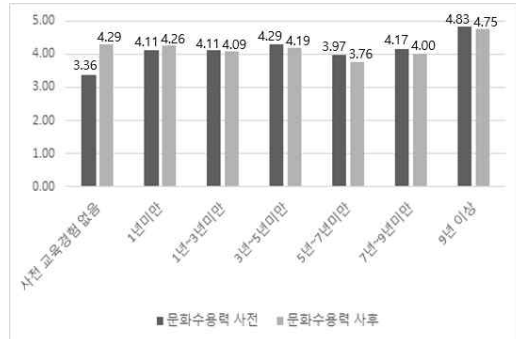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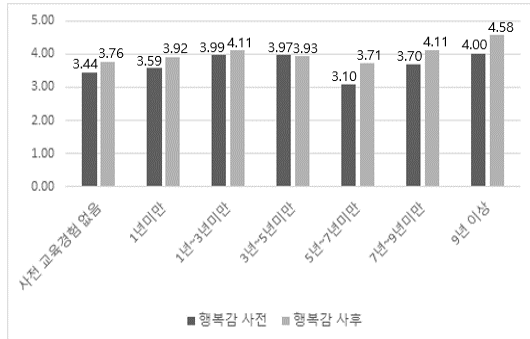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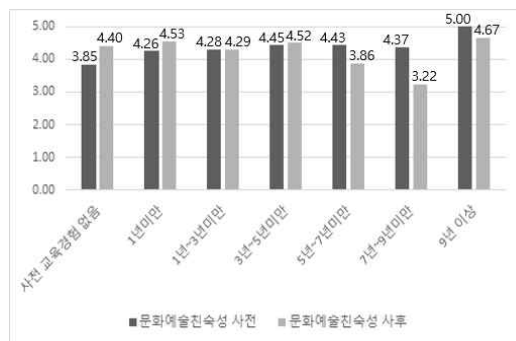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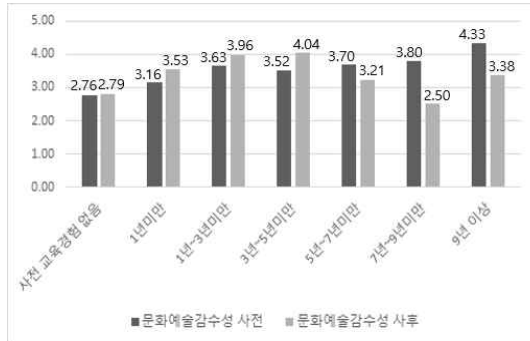


\* $p < .05$ , \*\* $p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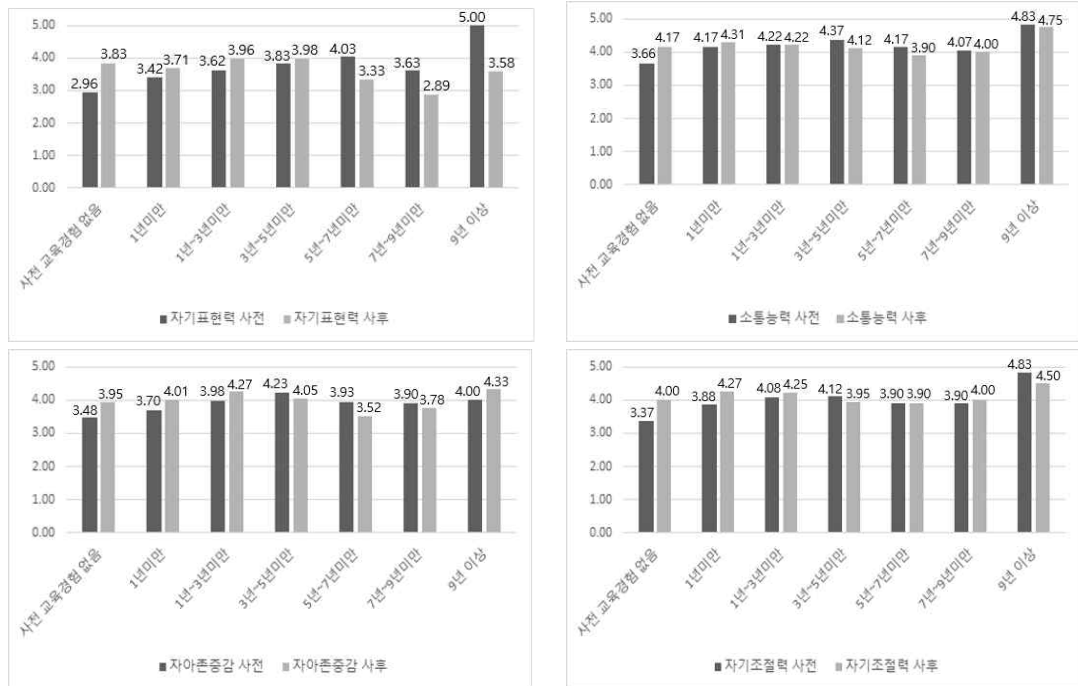
※ *M*: 평균, *SD*: 표준편차

- 조사에 참여한 노인복지시설 사업 참여자 중 사전 참여자 197명, 사후 참여자 134명을 대상으로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문화예술감수성( $t = 2.70, p < .01$ ), 공감능력( $t = 3.16, p < .01$ ), 행복감( $t = 2.64, p < .05$ ), 문화수용력( $t = 1.96, p < .05$ ), 창의성( $t = 2.96, p < .01$ ), 자기표현력( $t = 2.84, p < .01$ ), 문제해결력( $t = 2.83, p < .01$ ), 친밀감( $t = 2.31, p < .05$ ), 자아존중감( $t = 2.63, p < .01$ ), 자기조절력( $t = 2.87, p < .01$ )에서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남.
-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지표의 각 문항에 대한 사전-사후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문항은 없었음.
- 문화예술교육 기간에 따른 효과 차이를 알아보기 노인복지시설 참여자 독립표본 집단에 대한 2 way ANOVA 분석을 실시한 결과, 문화예술감수성( $F(6, 325) = 6.51, p < .001$ ), 문화예술친숙성( $F(6, 325) = 2.24, p < .05$ ), 행복감( $F(6, 325) = 2.38, p < .05$ ), 문화수용력

( $F(6, 325) = 2.38, p < .05$ ), 창의성( $F(6, 325) = 3.97, p < .001$ ), 자기표현력( $F(6, 325) = 2.14, p < .05$ ), 문제해결력( $F(6, 325) = 2.77, p < .01$ ), 소통능력( $F(6, 325) = 2.06, p < .05$ ), 자아존중감( $F(6, 325) = 2.61, p < .05$ ), 자기조절력( $F(6, 325) = 2.32, p < .05$ ) 지표에서 기간별 효과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림 II-25〉 노인복지시설 기간별 사전-사후 평균(대응표본 t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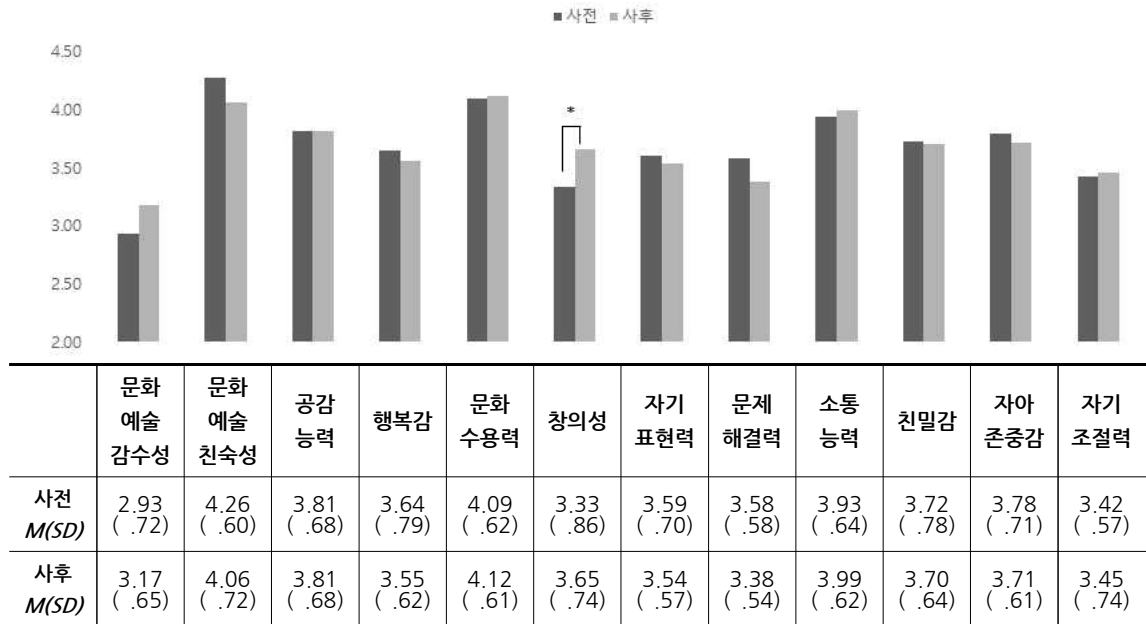
#### □ 노인복지시설 문화예술교육 효과 요약

- 노인복지시설 사업 참여자에 대한 대응표본, 독립표본 t 검증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조사에 비해 사후조사 평균이 오르는 추세였으며, 두 검증에서 모두에서 문화예술감수성, 공감능력, 행복감, 문화수용력, 문제해결력에서 유의한 효과가 나타남. 또한, 독립표본 t 검증에서는 창의성, 자기표현력, 문제해결력, 친밀감, 자아존중감, 자기조절력에서 유의한 효과가 나타남.
- 노인복지시설 사업 참여자의 문화예술교육 기간별 효과분석에서 대응표본 집단은 행복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기간의 길이와 지표 효과가 비례하지 않았음. 독립표본 집단에서 문화예술감수성, 문화예술친숙성, 행복감, 문화수용력, 창의성, 자기표현력, 문제해결력, 소통능력, 자아존중감, 자기조절력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남. 문화예술감수성, 문화수용력, 소통능력, 자아존중감, 자기조절력은 기간이 긴 집단이 효과 역시 큰 추세를 보였으나, 문화예술친숙성, 행복감, 창의성, 자기표현력, 문제해결력은 기간의 길이와 지표 효과가 비례하지 않음.

### 2.3.6. 부처 간 협력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근로자 문화예술교육) 사업 효과

#### □ 대응표본 t 검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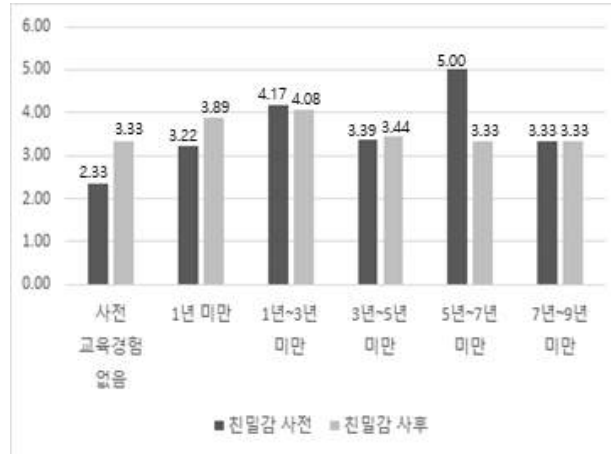
〈표 II-43〉 부처 간 협력 문화예술교육 사업 문화예술교육 대응표본 t 검증 효과( $n = 23$ )



\* $p < .05$

※ M: 평균, SD: 표준편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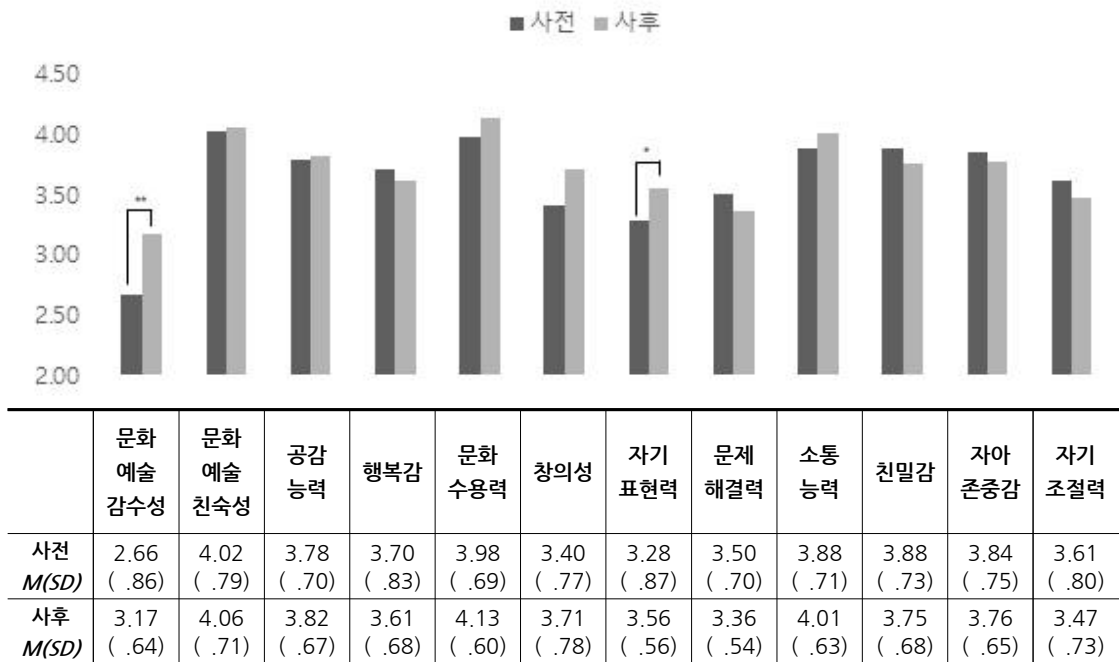
- 조사에 참여한 전체 부처 간 협력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근로자 문화예술교육) 참여자 중 사전-사후 설문에 모두 응답한 참여자 23을 대상으로 대응표본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창의성 지표 평균이 유의하게 높아짐( $t = 2.21, p < .05$ ).
-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지표 중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는 문항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문항별 사전-사후 비교분석을 실시한 결과, 문화예술감수성 지표의 ‘나는 문화예술 관련 능력을 가지고 있다’ 문항(사전 평균 2.83 → 사후 평균 3.22,  $t = 1.99, p < .08$ )에서 주변 수준에서 유의한 효과가 나타남.
- 문화예술교육 기간에 따른 효과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부처 간 협력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대응표본 집단에 대한 2 way ANOVA 분석을 실시한 결과, 친밀감 지표( $F(5, 17) = 3.28, p < .05$ )에서 기간별 효과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남.



〈그림 II-26〉 부처 간 협력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기간별 사전-사후 평균(대응표본 t 검증)

#### □ 독립표본 t 검증 결과

〈표 II-44〉 부처 간 협력 문화예술교육 사업 문화예술교육 독립표본 t 검증 효과  
(사전  $n = 160$ , 사후  $n = 24$ )



\* $p < .05$ , \*\* $p < .01$

※  $M$ : 평균,  $SD$ : 표준편차

- 조사에 참여한 부처 간 협력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근로자 문화예술교육) 중 사전조사

참여 집단 160명, 사후조사 참여 집단 24명을 대상으로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문화예술감수성( $t = 3.45, p < .01$ ), 자기표현력( $t = 2.07, p < .05$ ), 창의성( $t = 1.81, p < .08$ ) 평균이 최소 주변 수준에서 유의하게 높아짐.

-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지표에 대한 문항별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문항은 없었음.
- 문화예술교육 기간에 따른 효과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부처 간 협력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참여자 독립표본 집단에 대한 2 way ANOVA 분석을 실시한 결과, 기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단, 사전 교육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참여자가 1명이었기 때문에 제외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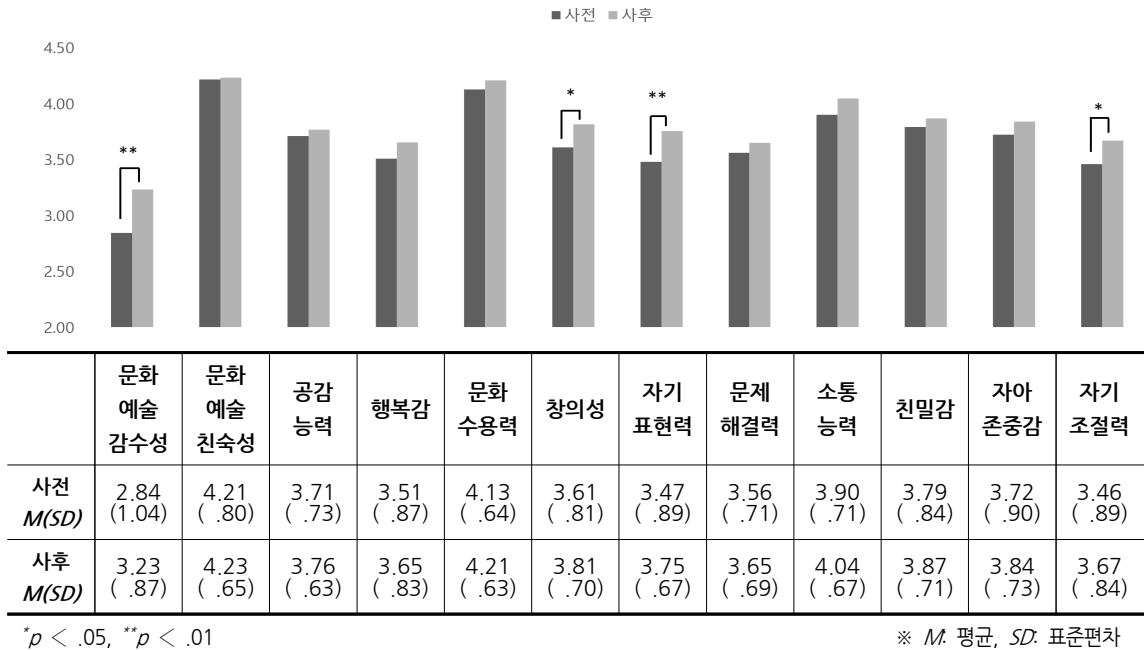
#### □ 부처 간 협력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근로자 문화예술교육) 효과 요약

- 부처 간 협력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근로자 문화예술교육) 참여자에 대한 대응표본, 독립표본 t 검증 결과 일부 문항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사전 조사에 비해 사후조사 평균이 오르는 추세였으며, 두 검증 모두에서 창의성에서 유의한 효과가 나타남. 독립표본 t 검증에서는 문화예술감수성, 자기표현력에 대한 유의한 효과가 나타남.
- 부처 간 협력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근로자 문화예술교육) 기간별 효과 분석에서 대응표본은 친밀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기간의 길이와 지표 효과가 비례하지 않음. 독립표본 집단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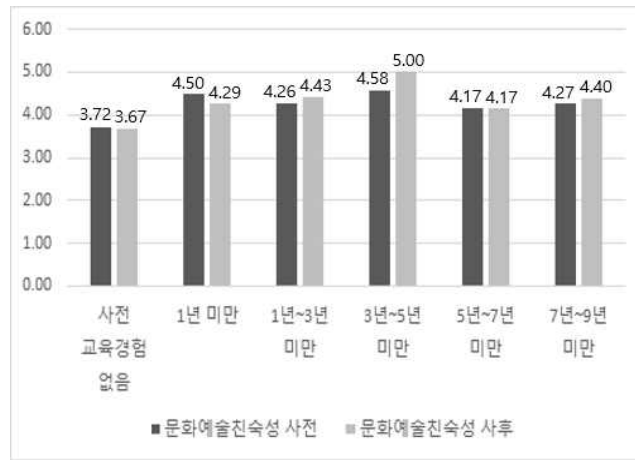
### 2.3.7. 지역특성화 사업 효과

#### □ 대응표본 t 검증 결과

〈표 II-45〉 지역특성화 사업 문화예술교육 대응표본 t 검증 효과( $n = 5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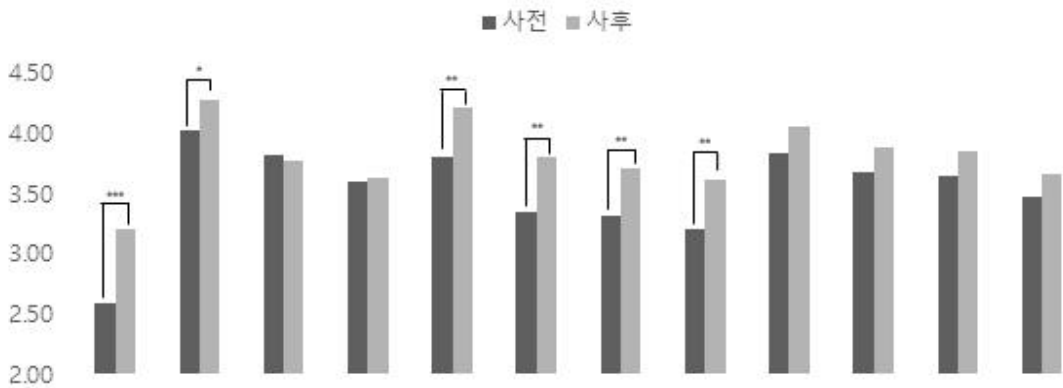
- 조사에 참여한 지역특성화 사업 참여자 중 사전-사후 설문에 모두 응답한 참여자 52명을 대상으로 대응표본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문화예술감수성( $t = 3.46, p < .01$ ), 창의성( $t = 2.26, p < .05$ ), 자기표현력( $t = 2.84, p < .01$ ), 자기조절력( $t = 2.22, p < .05$ ) 지표가 유의하게 상승함. 또한, 특수지표 중 소통능력 지표는 주변적 수준에서 유의하게 상승함( $t = 1.80, p < .08$ ).
-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지표 중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는 문항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문항별 사전-사후 비교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음.
- 문화예술교육 기간에 따른 효과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지역특성화 사업 참여자 대응표본 집단에 대한 사전-사후 반복측정을 실시한 결과, 문화예술친숙성 지표( $F(5, 46) = 3.26, p < .05$ )에서 교육기간에 따른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남. 공감능력 지표( $F(5, 46) = 2.18, p < .08$ )에 대해서는 교육기간에 따른 집단 간 차이가 주변적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II-27〉 지역특성화 기간별 사전-사후 평균  
(대응표본 t 검증)

#### □ 독립표본 t 검증 결과

〈표 II-46〉 지역특성화 사업 문화예술교육 독립표본 t 검증 효과(사전  $n = 130$ , 사후  $n = 61$ )



	문화 예술 감수성	문화 예술 친숙성	공감 능력	행복감	문화 수용력	창의성	자기 표현력	문제 해결력	소통 능력	친밀감	자아 존중감	자기 조절력
사전 <i>M(SD)</i>	2.58 (1.09)	4.01 (.87)	3.82 (.71)	3.59 (.97)	3.81 (.90)	3.35 (.97)	3.31 (.90)	3.21 (.97)	3.83 (.77)	3.68 (.86)	3.65 (.84)	3.47 (.84)
사후 <i>M(SD)</i>	3.20 (.89)	4.28 (.67)	3.78 (.65)	3.63 (.84)	4.21 (.64)	3.80 (.72)	3.71 (.67)	3.62 (.72)	4.05 (.65)	3.87 (.68)	3.85 (.72)	3.67 (.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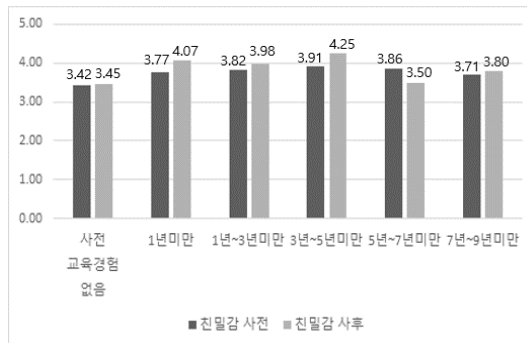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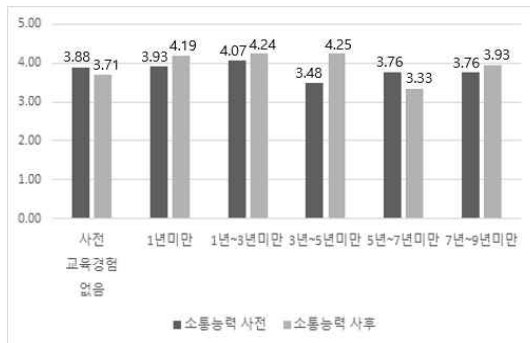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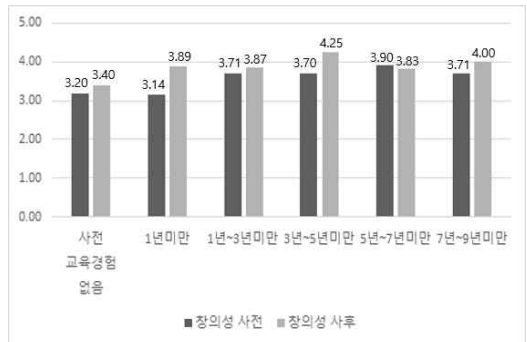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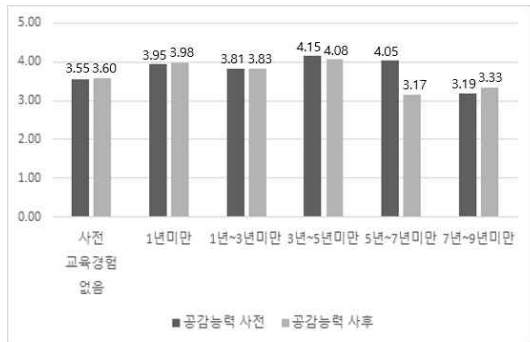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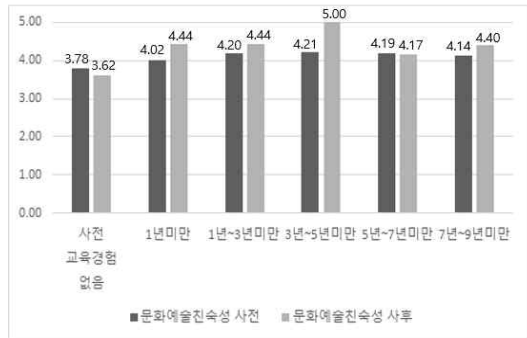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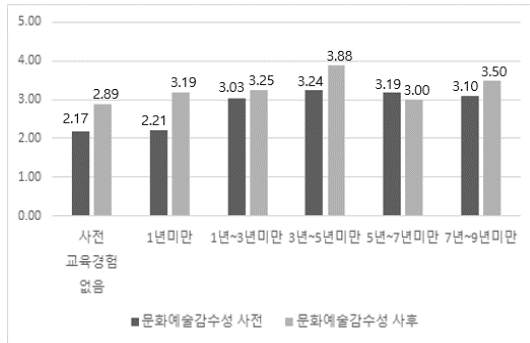
\* $p < .05$ , \*\* $p < .01$ , \*\*\* $p < .001$

※ *M*: 평균, *SD*: 표준편차

- 조사에 참여한 지역 특성화 사업 참여자 중 사전 조사 참여 집단 130명, 사후조사 참여 집단 61명을 대상으로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문화예술감수성( $t = 4.17, p < .001$ ), 문화예술친숙성( $t = 2.31, p < .05$ ), 문화수용력( $t = 3.55, p < .01$ ), 창의성( $t = 3.26, p < .01$ ), 자기표현력( $t = 3.45, p < .01$ ), 문제해결력( $t = 3.27, p < .01$ )에서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남. 소통능력은 주변 수준에서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남 ( $t = 1.88, p < .08$ ).
-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지표에 대한 문항별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자아존중감 지표의 ‘나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문항(사전 평균 3.49 → 사후 평균 3.80,  $t = 2.22, p < .05$ ), 자기조절력 지표의 ‘나는 분노, 포기, 조급함 등 부정적인 감정을 조절하는 힘이 있다’ 문항(사전 평균 3.43 → 사후 평균 3.74,  $t = 2.05, p < .05$ )에서 유의한 효과가 나타남.
- 문화예술교육 기간에 따른 효과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지역특성화 사업 참여자 독립표본 집단에 대한 2 way ANOVA 분석을 실시한 결과, 문화예술감수성( $F(6, 187) = 2.95, p < .01$ ), 문화예술친숙성( $F(6, 187) = 3.43, p < .01$ ), 공감능력( $F(6, 187) = 3.02, p < .01$ ), 행복감( $F(6, 187) = 1.94, p < .08$ ), 창의성( $F(6, 187) = 2.58, p < .05$ ), 소통능력( $F(6, 187) = 2.79, p < .05$ ), 친밀감( $F(6, 187) = 3.73, p < .01$ ) 지표에서 최소 주변 수준에서 기간별 효과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남. 단, 참여 기간이 ‘9년 이상’인 참여자가 1명이었기 때문에 이를 제외함.

#### □ 지역 특성화 사업 문화예술교육 효과 요약

- 지역 특성화 사업 참여자에 대한 대응표본, 독립표본 t 검증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조사에 비해 사후조사 평균이 오르는 추세를 보임. 두 검증 모두에서 문화예술감수성, 창의성, 자기표현력, 소통능력에서 유의한 효과가 나타남. 또한, 대응표본 t 검증에서는 자기조절력에 대한 유의한 효과가 나타났으며, 독립표본 검증에서는 문화예술친숙성, 문화수용력, 문제해결력에서 유의한 효과가 나타남.
- 지역 특성화 사업 참여자의 문화예술교육 기간별 효과분석에서 대응표본은 문화예술친숙성에서 기간이 긴 집단이 효과 역시 큰 추세를 보임. 독립표본 집단에서 문화예술감수성, 문화예술친숙성, 공감능력, 행복감, 창의성, 소통능력, 친밀감에서 유의한 차이 나타남. 문화예술감수성, 문화예술친숙성, 창의성은 기간이 긴 집단이 효과 역시 큰 추세를 보였으나, 공감능력, 행복감, 소통능력, 친밀감은 기간의 길이와 지표 효과가 비례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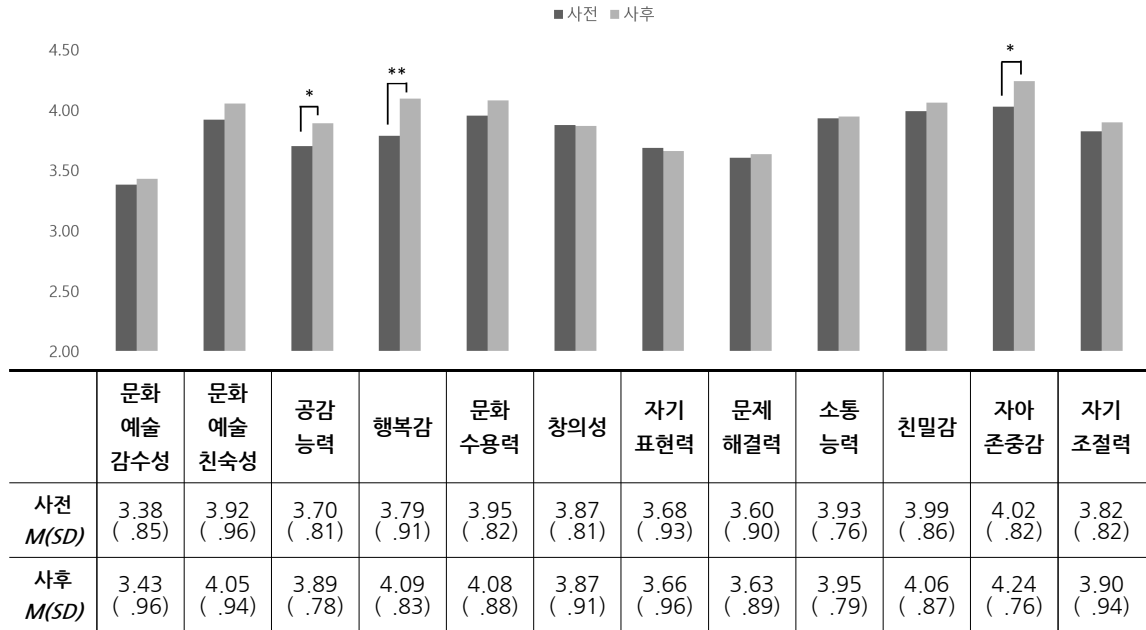
〈그림 II-28〉 지역특성화 기간별 사전-사후 평균(독립표본 t 검증)



### 2.3.8.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사업 효과

#### □ 대응표본 t 검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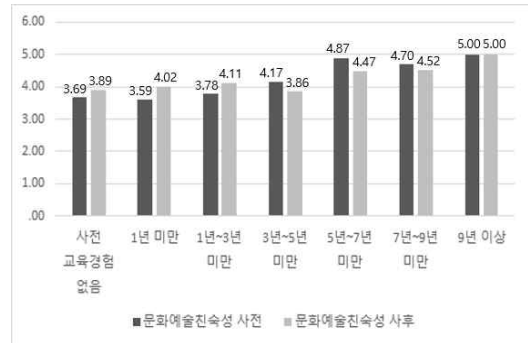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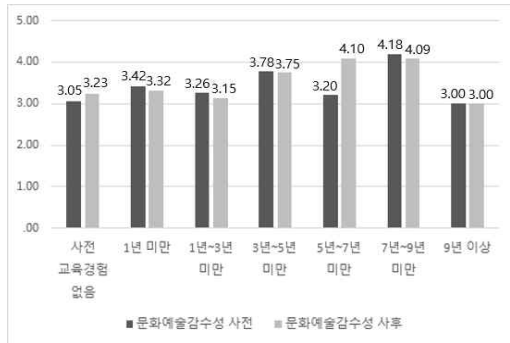
〈표 II-47〉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사업 문화예술교육 대응표본 t 검증 효과( $n = 101$ )



\* $p < .05$ , \*\* $p < .01$

※ M: 평균, SD: 표준편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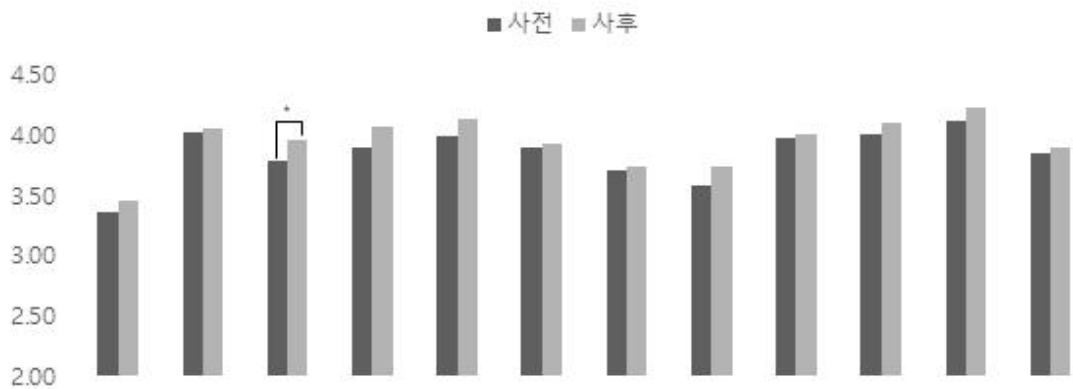
- 조사에 참여한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참여자 중 사전-사후 설문에 모두 응답한 참여자 101명을 대상으로 대응표본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공감능력( $t = 2.12$ ,  $p < .05$ ), 행복감( $t = 3.25$ ,  $p < .01$ ), 자아존중감( $t = 2.39$ ,  $p < .05$ ) 지표가 유의하게 상승함.
-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지표 중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는 문항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문항별 사전-사후 비교분석을 실시한 결과, 문화수용력 지표의 ‘나는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고 이해하려고 한다’ 문항 (사전 평균 3.96 → 사후 평균 4.15,  $t = 2.00$ ,  $p < .05$ ) 평균이 유의하게 높아졌음.
- 문화예술교육 기간에 따른 효과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대응표본 집단에 대한 사전-사후 반복 측정을 실시한 결과, 문화예술감수성( $F(7, 93) = 2.98$ ,  $p < .01$ ), 문화예술친숙성( $F(7, 93) = 3.08$ ,  $p < .01$ )에서 기간에 따른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남.



〈그림 II-29〉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기간별 사전-사후 평균(대응표본 t 검증)

#### □ 독립표본 t 검증 결과

〈표 II-48〉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사업 문화예술교육 독립표본 t 검증 효과  
(사전  $n = 159$ , 사후  $n = 152$ )



	문화 예술 감수성	문화 예술 진숙성	공감 능력	행복감	문화 수용력	창의성	자기 표현력	문제 해결력	소통 능력	친밀감	자아 존중감	자기 조절력
사전 <i>M(SD)</i>	3.36 (.81)	4.03 (.90)	3.78 (.79)	3.90 (.89)	3.99 (.77)	3.90 (.80)	3.70 (.89)	3.58 (.89)	3.97 (.74)	4.01 (.81)	4.12 (.79)	3.85 (.87)
사후 <i>M(SD)</i>	3.46 (.90)	4.05 (.90)	3.96* (.77)	4.07 (.83)	4.14 (.81)	3.92 (.83)	3.74 (.92)	3.73 (.89)	4.01 (.79)	4.10 (.83)	4.23 (.77)	3.89 (.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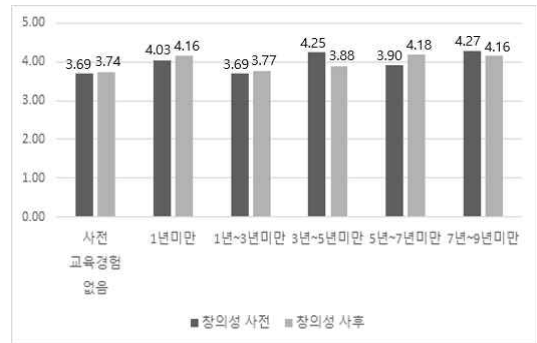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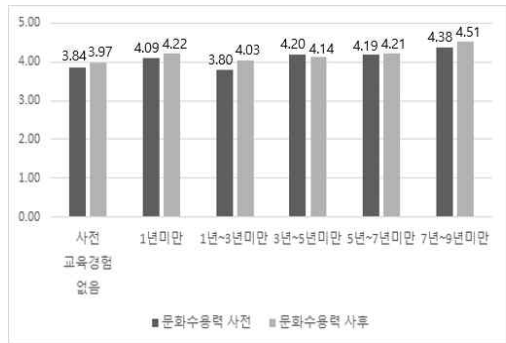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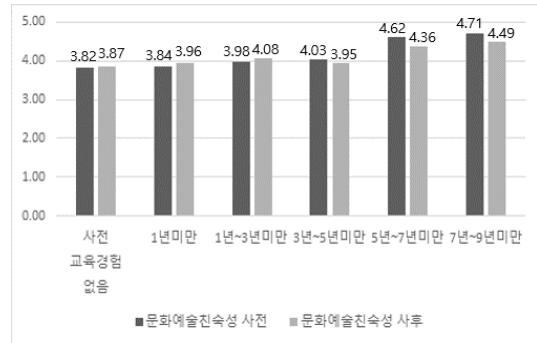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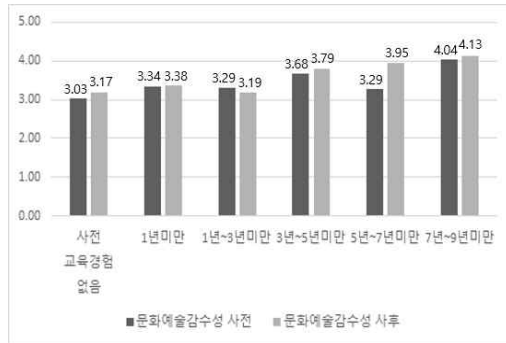
\*  $p < .05$

※ *M*: 평균, *SD*: 표준편차

- 조사에 참여한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사업 참여자 중 사전 조사 참여 집단 159명, 사후조사 참여집단 152명을 대상으로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공감능력( $t = 1.99, p < .05$ )에서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남.
-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지표에 대한 문항별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행복감 지표의 ‘나는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나로 다시 태어나고 싶다’(사전 평균 3.65 → 사후 평균 3.88,  $t = 1.81, p < .08$ ), ‘나는 내 자신이 자랑스럽다’(사전 평균 3.87 → 사후 평균 4.15,  $t = 2.61, p < .05$ ), 문화수용력 지표의 ‘나는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고 이해하려고 한다’(사전 평균 3.98 → 사후 평균 4.17,  $t = 1.85, p < .08$ ), 문제해결력 지표의 ‘나는 문제해결과정에서 예상했던 목표와 실제 결과를 비교해 본다’(사전 평균 3.52 → 사후 평균 3.73,  $t = 1.83, p < .08$ ), 친밀감 지표의 ‘나는 고민을 함께 나누는 친구가 있다’(사전 평균 3.72 → 사후 평균 3.97,  $t = 1.84, p < .08$ ) 문항에서 문화예술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남.
- 문화예술교육 기간에 따른 효과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참여자 독립표본 집단에 대한 2 way ANOVA 분석을 실시한 결과, 문화예술감수성( $F(6, 307) = 7.41, p < .001$ ), 문화예술친숙성( $F(6, 307) = 3.89, p < .01$ ), 문화수용력( $F(6, 307) = 2.65, p < .05$ ), 창의성( $F(6, 307) = 2.98, p < .01$ ), 문제해결력( $F(6, 307) = 2.03, p < .08$ )에서 최소 주변수준에서 기간별 효과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남. 단, 참여 기간에 대해 ‘9년 이상’이라고 응답한 참여자는 사전, 사후 집단 각 1명이었기 때문에 제외하였음.

#### □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사업 문화예술교육 효과 요약

-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사업 참여자에 대한 대응표본, 독립표본 t 검증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 조사에 비해 사후조사 평균이 오르는 추세였으며, 두 검증 모두에서 공감능력에서 유의한 효과가 나타남. 또한, 대응표본 검증에서 행복감, 자아존중감에서 유의한 효과가 나타남.
-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사업 참여자의 문화예술교육 기간별 효과분석에서 대응표본은 문화예술감수성, 문화예술친숙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남. 문화예술친숙성은 기간의 길이와 지표 효과가 비례하였으나, 문화예술감수성은 비례하지 않음. 독립표본 집단에서 문화예술감수성, 문화예술친숙성, 문화수용력, 창의성, 문제해결력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남. 문화예술감수성과 친숙성, 문화수용력은 기간이 긴 집단이 효과 역시 큰 추세를 보였으나 창의성, 문제해결력은 기간 길이와 지표 효과가 비례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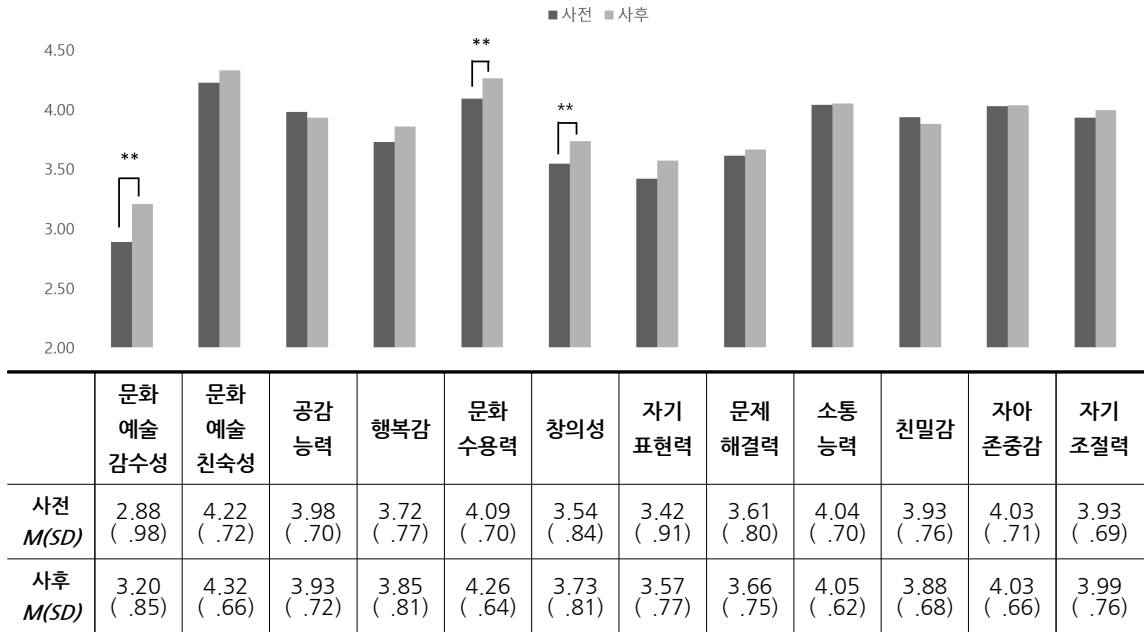


〈그림 II-30〉 곰다락 토요문화학교 기간별 사전-사후 평균(독립표본 t 검증)

### 2.3.9. 생애전환 문화예술교육 사업 효과

#### □ 대응표본 t 검증 결과

〈표 II-49〉 생애전환 문화예술교육 사업 문화예술교육 대응표본 t 검증 효과( $n = 7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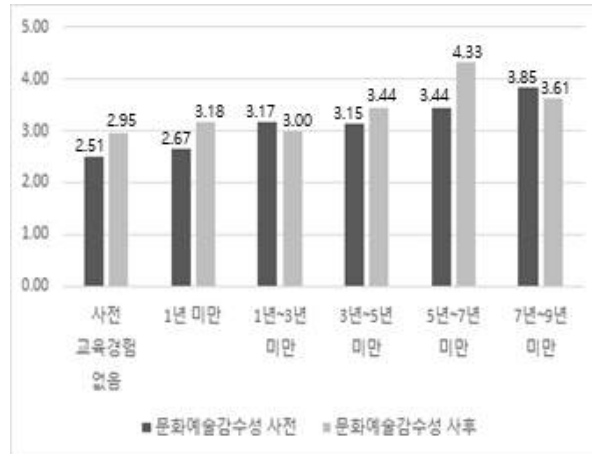


\*\* $p < .01$

※ M: 평균, SD: 표준편차

- 조사에 참여한 생애전환 문화예술사업 참여자 중 사전-사후 설문에 모두 응답한 참여자 71명을 대상으로 대응표본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문화예술감수성( $t = 3.46, p < .01$ ), 문화수용력( $t = 3.48, p < .01$ ), 창의성( $t = 2.96, p < .01$ ) 지표가 유의하게 상승하였음. 또한, 자기표현력 지표는 주변적인 수준에서 유의하게 상승함( $t = 1.84, p < .08$ ).
-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지표 중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는 문항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문항별 사전-사후 비교분석을 실시한 결과, 문화예술친숙성 지표의 ‘나는 남는 시간이 생기면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고 싶다고 생각이 든다’ (사전 평균 4.24 → 사후 평균 4.48,  $t = 2.64, p < .05$ ), 행복감 지표의 ‘나는 내가 행복한 편이라고 생각한다’ (사전 평균 3.97 → 사후 평균 4.13,  $t = 2.09, p < .05$ ) 문항이 유의하게 높아졌음.
- 문화예술교육 기간에 따른 효과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생애전환 사업 참여자 대응표본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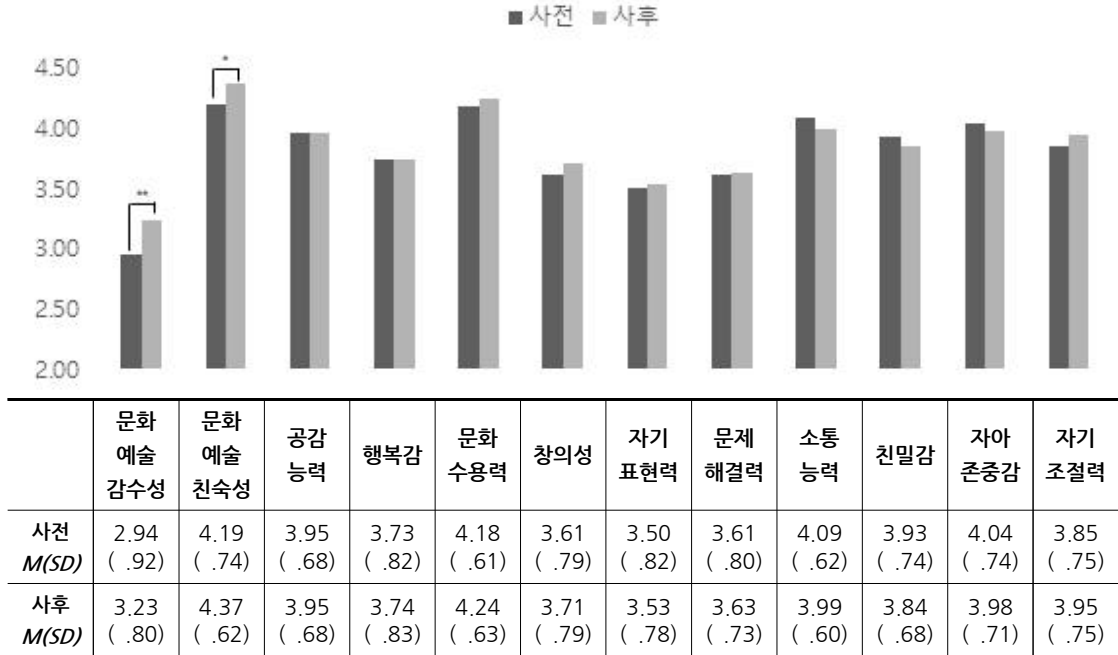
단에 대한 사전-사후 반복측정을 실시한 결과, 문화예술감수성( $F(6, 64) = 2.83, p < .05$ )에서 기간별 효과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남. 창의성( $F(6, 64) = 2.01, p < .08$ ) 지표는 주변 수준에서 기간별 효과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남.



〈그림 II-31〉 생애전환 문화예술교육 기간별 사전-사후 평균  
(독립표본 t 검증)

□ 독립표본 t 검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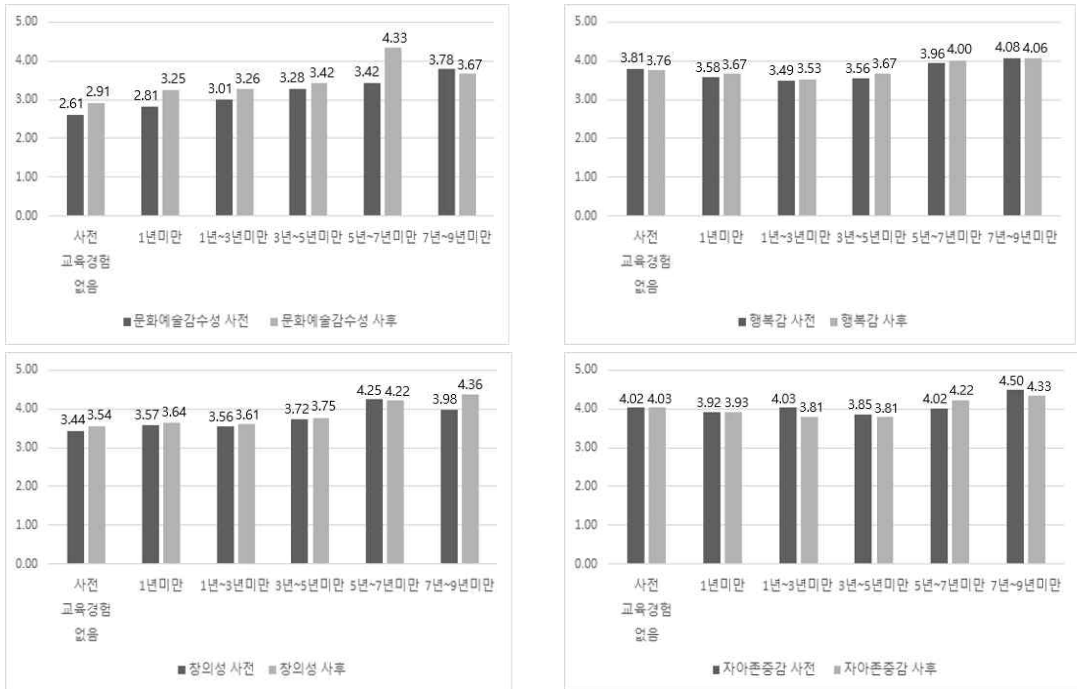
〈표 II -50〉 생애전환 문화예술교육 사업 문화예술교육 독립표본 t 검증 효과  
(사전  $n = 179$ , 사후  $n = 110$ )



\* $p < .05$ , \*\* $p < .01$

※ *M*: 평균, *SD*: 표준편차

- 조사에 참여한 생애전환 문화예술교육 참여자 중 사전 조사 참여 집단 179명, 사후조사 참여 집단 110명을 대상으로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문화예술감수성( $t = 2.67$ ,  $p < .01$ ), 문화예술친숙성( $t = 2.13$ ,  $p < .05$ )에서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남.
-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지표에 대한 문항별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문항은 없었음.
- 문화예술교육 기간에 따른 효과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생애전환 사업 참여자 독립표본 집단에 대한 2 way ANOVA 분석을 실시한 결과, 문화예술감수성( $F(6, 287) = 7.59$ ,  $p < .001$ ), 행복감( $F(6, 287) = 2.36$ ,  $p < .05$ ), 창의성( $F(6, 287) = 4.07$ ,  $p < .01$ ), 자아존중감( $F(6, 287) = 2.18$ ,  $p < .05$ )지표에서 기간별 효과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남. 단, 참여 기간에 대해 '9년 이상'이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1명이었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였음.



〈그림 II-32〉 생애전환 문화예술교육 기간별 사전-사후 평균(독립표본 t 검증)

#### □ 생애전환 문화예술교육 효과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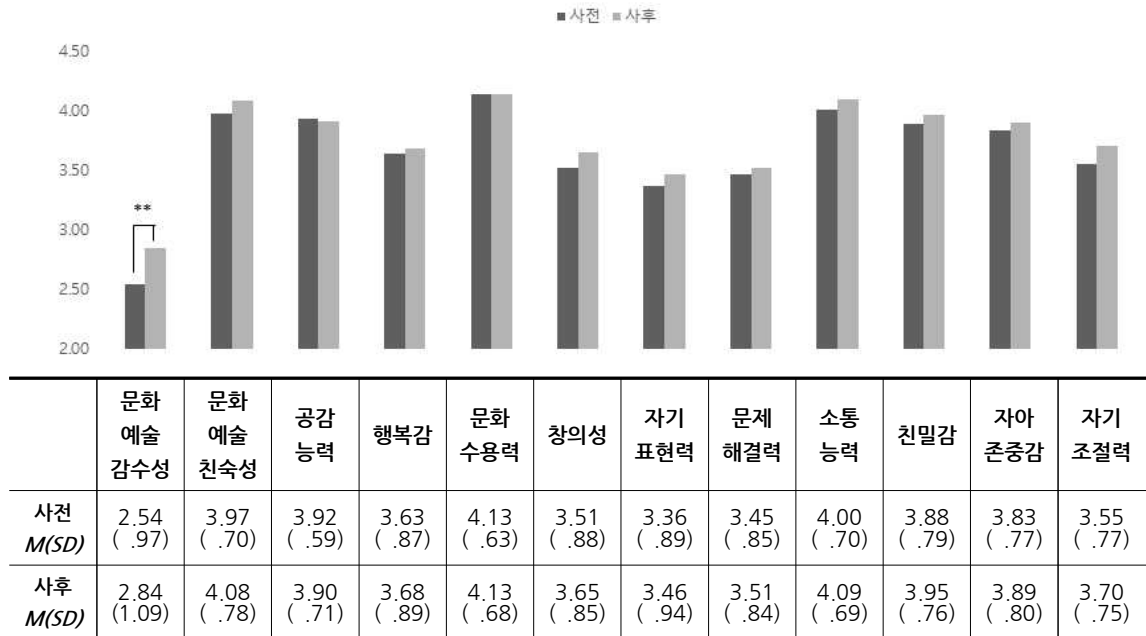
- 생애전환 문화예술교육 사업 참여자에 대한 대응표본, 독립표본 t 검증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조사에 비해 사후조사 평균이 오르는 추세였으며, 두 검증 모두에서 문화예술감수성에서 유의한 효과가 나타남. 또한, 대응표본 t 검증에서는 문화수용력, 창의성, 자기표현력에서 유의한 효과가 나타남. 독립표본 t 검증에서는 문화예술진숙성에서 유의한 효과가 나타남.
- 생애전환 문화예술교육 참여자의 문화예술교육 기간별 효과 분석에서 대응표본은 문화예술감수성, 창의성에서 유의한 차이 나타남. 문화예술감수성은 기간이 긴 집단이 효과 역시 큰 추세를 보였으나, 창의성은 기간의 길이와 지표 효과가 비례하지 않음. 독립표본 집단에서 문화예술감수성, 행복감, 창의성, 자아존중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남. 문화예술감수성, 창의성은 기간 증가에 따라 효과가 커지는 추세를 보였으나, 행복감과 자존감은 그렇지 않음.

### 2.3.10. 직장인 문화예술교육 사업 효과

#### □ 대응표본 t 검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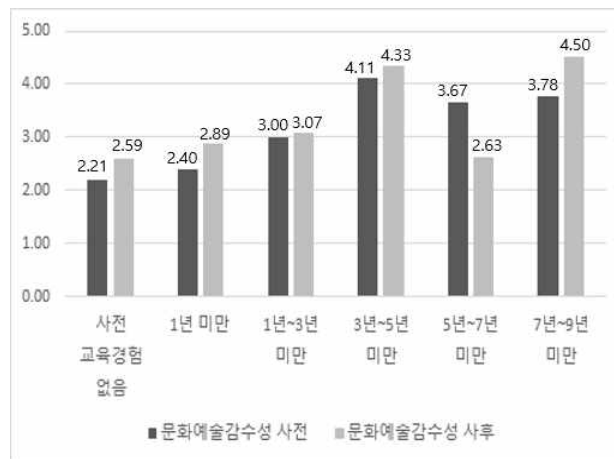
〈표 II-51〉 직장인 문화예술교육 사업 문화예술교육 대응표본 t 검증 효과( $n = 79$ )

 $^{**}p < .01$ 

※ *M*: 평균, *SD*: 표준편차

- 조사에 참여한 직장인 문화예술사업 참여자 중 사전-사후 설문에 모두 응답한 79명을 대상으로 대응표본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문화예술감수성( $t = 2.79, p < .01$ ) 평균이 유의하게 높아짐. 창의성( $t = 1.81, p < .08$ ), 자기조절력( $t = 1.83, p < .08$ ) 지표는 주변적인 수준에서 유의하게 상승함.
-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지표 중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는 문항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문항별 사전-사후 비교분석을 실시한 결과, 문화예술친숙성 지표의 ‘나는 문화예술 관련 능력을 가지고 있다’ (사전 평균 2.65 → 사후 평균 2.90,  $t = 2.11, p < .05$ ), ‘나는 문화예술관련 교육과정에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사전 평균 3.90 → 사후 평균 4.10,  $t = 2.19, p < .05$ ), 소통능력 지표의 ‘나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느낌을 말할 때 귀 기울인다’ (사전 평균 4.04 → 사후 평균 4.27,  $t = 3.07, p < .01$ ) 문항이 평균이 유의하게 높아짐. 행복감 지표의 ‘나는 나 자신이 자랑스럽다’ (사전 평균 3.57 → 사후 평균 3.71,  $t = 1.79, p < .08$ ) 문항은 주변 수준에서 유의한 효과가 나타남.
- 문화예술교육 기간에 따른 효과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직장인 문화예술교육 사업 참여자에 대한 사전-사후 반복측정을 실시한 결과, 문화예술감수성 지표( $F(6, 72) = 5.27, p < .001$ )에서 기간별 효과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남. 자기조절력 지표( $F(6, 71) = 2.02, p < .05$ )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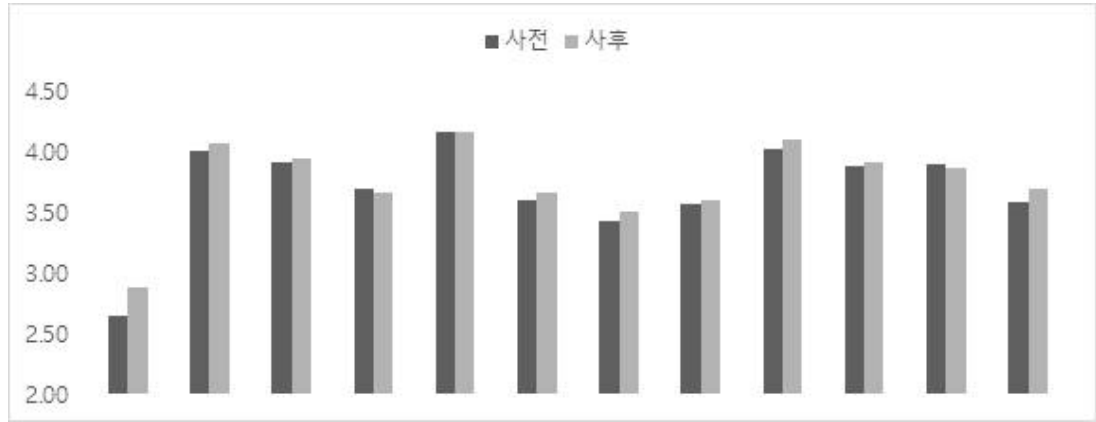
.08)에 대해서는 주변적 수준에서 기간별 효과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II-33〉 직장인 문화예술교육 기간별 사전-사후 평균  
(대응표본 t 검증)

□ 독립표본 t 검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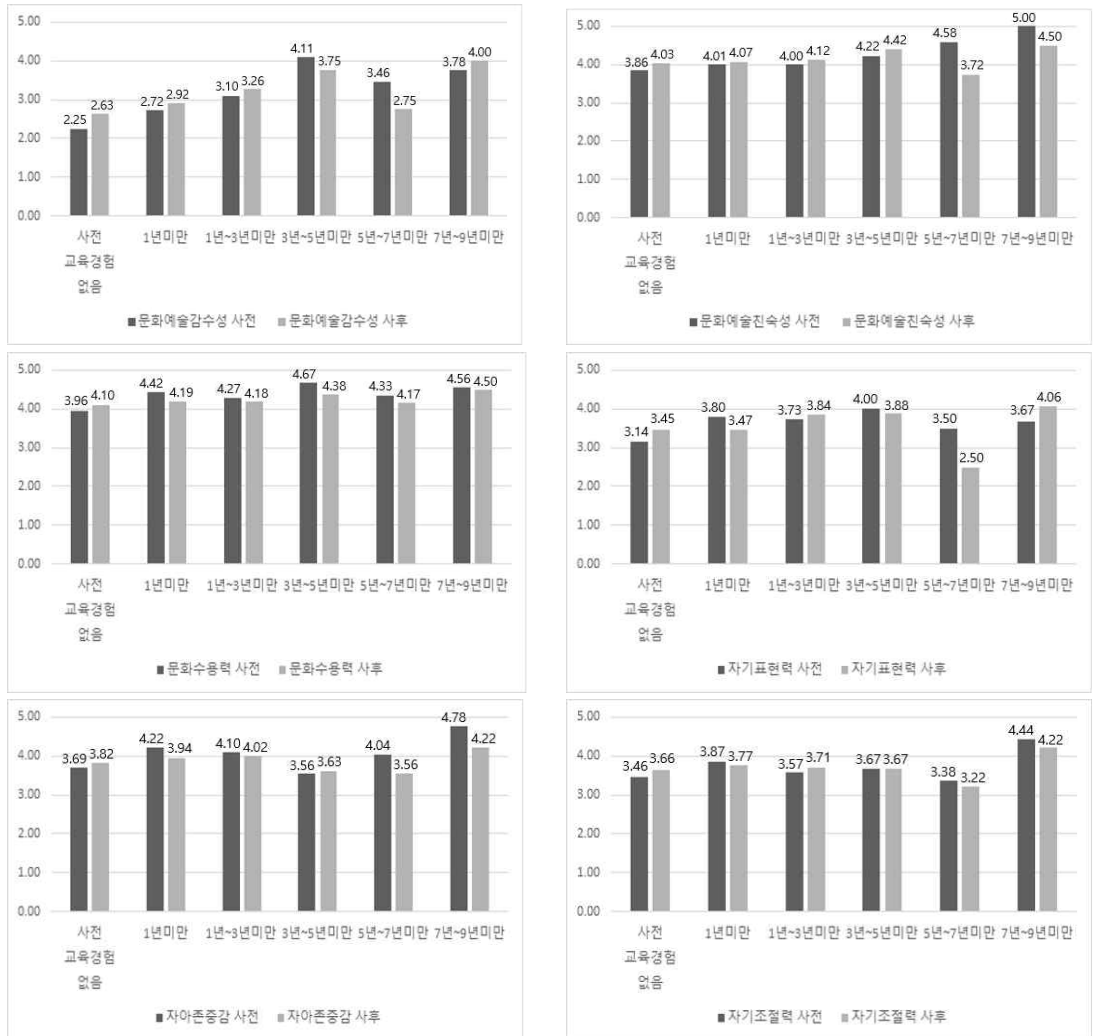
〈표 II-52〉 직장인 문화예술교육 사업 문화예술교육 독립표본 t 검증 효과  
(사전  $n = 106$ , 사후  $n = 155$ )



	문화 예술 감수성	문화 예술 친숙성	공감 능력	행복감	문화 수용력	창의성	자기 표현력	문제 해결력	소통 능력	친밀감	자아 존중감	자기 조절력
사전 <i>M(SD)</i>	2.64 (.97)	4.00 (.70)	3.91 (.63)	3.69 (.86)	4.16 (.61)	3.60 (.89)	3.42 (.91)	3.56 (.84)	4.01 (.69)	3.87 (.75)	3.89 (.79)	3.58 (.76)
사후 <i>M(SD)</i>	2.87 (.94)	4.07 (.70)	3.94 (.68)	3.66 (.88)	4.15 (.64)	3.65 (.81)	3.50 (.89)	3.59 (.81)	4.10 (.65)	3.91 (.74)	3.86 (.81)	3.69 (.77)

※ *M*: 평균, *SD*: 표준편차

- 조사에 참여한 직장인 문화예술교육 참여자 중 사전 조사 참여 집단 106명, 사후조사 참여 집단 155명을 대상으로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문화예술감수성이 주변 수준에서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남( $t = 1.94, p < .08$ ).
-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지표에 대한 문항별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문항은 없었음.
- 문화예술교육 기간에 따른 효과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직장인문화예술교육 참여자 독립표본 집단에 대한 2 way ANOVA 분석을 실시한 결과, 문화예술감수성( $F(6, 259) = 9.83, p < .001$ ), 문화예술친숙성( $F(6, 259) = 2.22, p < .05$ ), 문화수용력( $F(6, 259) = 2.51, p < .05$ ), 창의성( $F(6, 259) = 1.98, p < .08$ ), 자기표현력( $F(6, 259) = 3.34, p < .01$ ), 자아존중감( $F(6, 259) = 2.53, p < .05$ ), 자기조절력( $F(6, 259) = 2.32, p < .05$ )에서 최소 주변 수준에서 기간별 효과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남.



〈그림 II-34〉 직장인 문화예술교육 기간별 사전-사후 평균(대응표본 t 검증)

#### □ 직장인 문화예술교육 효과 요약

- 직장인 문화예술교육 사업 참여자에 대한 대응표본, 독립표본 t 검증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 조사에 비해 사후조사 평균이 오르는 추세였으며, 두 검증 모두에서 문화예술감수성의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남. 또한, 대응표본 t 검증에서는 창의성, 자기조절력에서 유의한 효과가 나타남.
- 직장인 문화예술교육 기간별 효과분석에서 대응표본은 문화예술감수성, 자기조절력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남. 문화예술감수성은 기간이 긴 집단이 효과가 큰 추세를 보였으나 자기

조절력은 기간의 길이와 지표효과가 비례하지 않음. 독립보본 집단에서 문화예술감수성, 문화예술친숙성, 문화수용력, 창의성, 자기표현력, 자아존중감, 자기조절력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남. 문화예술수성은 기간 증가에 따라 효과가 커지는 추세를 보였으나, 문화예술친숙성, 문화수용력, 창의성, 자기표현력, 자아존중감, 자기조절력은 그렇지 않음.

### 2.3.11. 사업별 문화예술교육 효과 대응표본 검증 결과 종합

□ 대응표본 t 검증 결과 사업별로 유의하게 나타난 지표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음.

〈표 II-53〉 사업별 대응표본 t 검증 결과

지표		유아 문화 예술	예술꽃 씨앗 학교	꿈의 오케스 트라	아동 복지 시설	노인 복지 시설	부처 간 협력 문화 예술	지역 특성화	꿈다락 토요 문화 학교	생애 전환	직장인 문화 예술
핵심 지표	문화예술감수성	●	●			●		●		●	●
	문화예술친숙성	●									
특수 지표	공감능력					●			●		
	행복감					●			●		
	문화수용력					●				●	
	창의성						●	●		●	●
	자기표현력							●		●	
	문제해결력		●			●					
	소통능력							●			
	친밀감										
	자아존중감								●		
	자기조절력							●			●

- 대응표본 t 검증 결과 문화예술교육 사업별로 효과가 있는 지표와 효과가 없는 지표가 다르게 나타남. 유아문화예술 사업은 핵심지표인 문화예술감수성과 문화예술친숙성에서 모두 유의미한 효과 나타남. 반면 특수지표에서는 유의미한 효과 나타나지 않았음.
- 예술꽃씨앗학교는 핵심지표인 문화예술감수성에서 유의미한 효과 나타났음. 특수지표에서는 문제해결력에서만 유의미한 효과 나타났음.
- 꿈의 오케스트라 참여자와 아동복지시설 참여자는 핵심지표와 특수지표에서 문화예술교육 참여 전과 참여 후에 유의미한 효과 나타나지 않음.

- 노인복지시설은 핵심지표인 문화예술감수성, 특수지표 중 공감능력, 행복감, 문화수용력, 문제해결력에서 유의미한 차이 나타남.
- 부처 간 협력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근로자 문화예술교육) 참여자는 특수지표인 창의성에서 유의미한 효과 차이 나타남.
- 지역 특성화 참여자는 핵심지표인 문화예술감수성, 특수지표인 창의성, 자기표현력, 소통능력, 자기조절력 지표에서 유의미한 효과 차이 나타남.
-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참여자는 특수지표인 공감능력, 행복감, 자아존중감에서 유의미한 효과 차이 나타남.
- 생애전환 문화예술교육 참여자는 핵심지표는 문화예술감수성에서, 특수지표는 문화수용력, 창의성, 자기표현력 지표에서 유의미한 효과 차이 나타남.
- 직장인 문화예술교육 참여자는 핵심지표는 문화예술감수성에서, 특수지표는 창의성, 자기조절력에서 유의미한 효과 차이 나타남.
- 사업별 문화예술교육 효과지표의 분석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음. 먼저 각 사업별 유의미한 효과 지표는 그 사업에 주로 참여하는 대상의 생애주기에 따라 달라짐. 예를 들어 유아문화예술이나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같은 사업의 경우 문화예술교육 대상자들이 비교적 동일한 생애주기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유아기, 아동기, 노년기 생애주기 효과와 유사하게 분석 결과가 나왔음. 그러나 지역 특성화나 부처 간 협력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토요문화학교 등 다양한 세대가 참여한 사업의 경우 각 참여자의 생애주기 특성상 문화예술교육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서 이 부분이 결과에서는 드러나지 않을 수 있음. 따라서 향후 사업별 문화예술교육 효과분석에서는 사업 내 생애주기별 분석이 가능하도록 특정 사업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사례수가 필요할 수 있음.

### 2.3.12. 사업별 문화예술교육 효과 독립표본 t 검증 결과 종합

〈표 II-54〉 사업별 독립표본 t 검증 결과

지표		유아 문화 예술	예술꽃 씨앗 학교	꿈의 오케스 트라	아동 복지 시설	노인 복지 시설	부처간 협력 문화 예술	지역 특성화	꿈다락 토요문 화학교	생애 전환	직장인 문화 예술
핵심 지표	문화예술감수성	●	●			●	●	●		●	
	문화예술친숙성	●						●		●	
특수 지표	공감능력					●			●		
	행복감					●					
	문화수용력	●				●		●			
	창의성					●		●			
	자기표현력					●	●	●			
	문제해결력					●		●			
	소통능력										
	친밀감					●					
	자아존중감	●				●					
	자기조절력					●					

- 독립표본 t 검증 결과 문화예술교육 사업별로 효과가 있는 지표와 효과가 없는 지표가 다르게 나타남. 유아문화예술 사업은 핵심지표인 문화예술감수성과 문화예술친숙성에서 모두 유의미한 효과 나타남. 또한 특수지표에서는 문화수용력과 자아존중감에서만 유의미한 효과 나타남.
- 예술꽃 씨앗학교는 핵심지표인 문화예술감수성에서 유의미한 효과 나타났음. 특수지표에서는 유의미한 효과 나타나지 않음.
- 꿈의 오케스트라 참여자와 아동복지시설 참여자는 핵심지표와 특수지표에서 문화예술교육 참여 전과 참여 후에 유의미한 효과 나타나지 않음.
- 노인복지시설은 핵심지표는 문화예술감수성에서, 특수지표는 공감능력, 행복감, 문화수용력, 창의성, 자기표현력, 문제해결력, 친밀감, 자아존중감, 자기조절력에서 유의미한 차이 나타남.

- 부처 간 협력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근로자 문화예술교육) 참여자는 핵심지표는 문화예술 감수성에서, 특수지표는 자기표현력에서 유의미한 효과 차이 나타남.
- 지역 특성화 참여자는 핵심지표인 문화예술감수성과 문화예술친숙성에서 유의미한 효과 나타났음. 특수지표는 문화수용력, 창의성, 자기표현력, 문제해결력 지표에서 유의미한 효과 차이 나타남.
-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참여자는 핵심지표에서는 유의미한 차이 나타나지 않았음. 특수지표는 공감능력에서 유의미한 효과 차이 나타남.
- 생애전환 문화예술교육 참여자는 핵심지표인 문화예술감수성과 문화예술친숙성에서 유의미한 효과 나타났음. 특수지표에서는 유의미한 효과 나타나지 않음.

### 2.3.13. 사업별 문화예술교육 효과 대응표본 t 검증-독립표본 t 검증 결과 비교

〈표 II -55〉 사업별 대응표본 t 검증-독립표본 t 검증 결과 비교

지표		유아 문화 예술	예술꽃 씨앗 학교	꿈의 오케스 트라	아동 복지 시설	노인 복지 시설	부처 간 협력 문화 예술	지역 특성화	꿈다락 토요문 화학교	생애 전환	직장인 문화 예술
핵심 지표	문화예술감수성	●	●			●	▲	●		●	■
	문화예술친숙성	●						▲		▲	
특수 지표	공감능력					●			●		
	행복감					●			▲	■	
	문화수용력	▲				●		▲		■	
	창의성					▲	●	●		■	■
	자기표현력					▲		●			
	문제해결력		■			●		▲			
	소통능력						▲	■			
	친밀감					▲					
	자아존중감	▲				▲					
	자기조절력					▲		■			■

●: 대응표본 t 검증, 독립표본 t 검증 공통 효과, ■: 대응표본 t 검증 효과 ▲: 독립표본 t 검증 효과

- 대응표본 t 검증과 독립표본 t 검증을 비교한 결과 두 검증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지표와 공통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지표가 있었음. 그러나 생애주기와 달리 사업별 분석에서는 상당



수의 지표가 대응표본 t 검증과 독립표본 t 검증에서 다르게 나타났음.

- 다수의 지표에서 독립표본 t 검증과 대응표본 t 검증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이유는 먼저 생애주기 분석과 마찬가지로 독립표본 t 검증과 대응표본 t 검증의 통계적 분석 차이로 인한 것일 수 있음. 또한 본 연구 설계의 특성 상 사전 조사와 사후 조사에 모두 응한 참여자의 숫자가 전체 설문조사에 응한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또 다른 이유일 수 있음.
- 그러나 사업별 분석은 생애주기별 분석과 다르게 대응표본 t 검증과 독립표본 t 검증에서 유의한 효과가 비슷하게 나온 사업이 많으며 생애전환이나 직장인 문화예술 사업의 경우 대응표본 t 검증에서 더욱 유의한 효과가 나타났음. 사업별 분석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참여자의 생애주기 특성을 고려하는 것은 물론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전체 회기, 조사에 참여하는 시기 등 다양한 사업별 특성을 고려해야 함.

## 2.4. 2018-2019 양적 연구 결과 비교

### 2.4.1. 2018-2019 전체 집단 평균차 비교

- 2018년, 2019년 문화예술교육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각 해 설문조사에 참여한 전체 집단(사전 설문조사만 참여한 집단, 사후 설문조사만 참여한 집단, 사전-사후 설문조사에 모두 참여한 집단의 합)에 대해 사전, 사후 평균값의 차(사후 평균 - 사전 평균)를 구하였으며, 결과는 <표 II-56>과 같음.

<표 II-56> 2018-2019 전체 문화예술교육 효과 비교

		문화 예술 감수성	문화 예술 친숙성	공감 능력	행복감	문화 수용력	창의성	자기 표현력	문제 해결력	소통 능력	친밀감	자아 존중감	자기 조절력
2018 전체	사후 M	3.77	4.22	3.92	4.20	4.22	3.98	4.10	3.84	3.96	4.00	4.11	3.76
	사전 M	3.04	3.89	3.78	3.82	-	3.96	3.61	-	3.85	3.86	3.83	3.82
	효과	0.73	0.33	0.14	0.38	-	0.02	0.49	-	0.11	0.14	0.28	-0.06
2019 전체	사후 M	3.34	4.05	3.83	3.96	4.07	3.84	3.63	3.56	3.97	3.98	4.04	3.80
	사전 M	3.07	3.94	3.78	3.86	3.98	3.72	3.52	3.48	3.92	3.94	3.97	3.74
	효과	0.27	0.11	0.05	0.1	0.09	0.12	0.11	0.08	0.05	0.04	0.07	0.06
2018 유아기	사후 M	3.70	4.22	3.89	4.24	4.27	3.92	4.14	3.80	3.86	3.98	4.09	3.63
	사전 M	2.42	4.36	-	4.33	-	3.84	4.13	-	-	4.04	4.42	-
	효과	1.28	-0.14	-	-0.09	-	0.08	0.01	-	-	-0.06	-0.33	-
2019 유아기	사후 M	2.99	3.78	3.64	4.14	3.77	3.95	3.71	3.11	3.56	3.88	4.16	3.47
	사전 M	2.50	3.45	3.58	4.07	3.64	3.88	3.64	3.12	3.59	3.81	3.99	3.42
	효과	0.49	0.33	0.06	0.07	0.13	0.07	0.07	-0.01	-0.03	0.07	0.17	0.05
2018 아동기	사후 M	3.80	3.80	3.96	4.28	4.24	4.07	4.06	3.81	4.07	4.10	4.15	3.87
	사전 M	3.04	3.72	-	4.17	-	3.97	3.59	-	-	3.98	4.02	-
	효과	0.76	0.08	-	0.11		0.1	0.47	-	-	0.12	0.13	-
2019 아동기	사후 M	3.52	3.93	3.70	4.20	4.01	3.95	3.58	3.46	3.93	4.05	4.16	3.81
	사전 M	3.31	3.82	3.68	4.10	3.96	3.94	3.56	3.38	3.84	4.03	4.14	3.80
	효과	0.21	0.11	0.02	0.1	0.05	0.01	0.02	0.08	0.09	0.02	0.02	0.01
2018 청소년기	사후 M	3.79	4.16	3.91	4.12	4.15	3.97	4.05	3.85	3.91	3.97	4.04	3.75
	사전 M	3.24	3.73	-	3.91	-	-	3.92	-	3.92	-	3.88	3.82
	효과	0.55	0.43	-	0.21	-	-	0.13	-	-0.01	-	0.16	-0.07
2019 청소년기	사후 M	3.45	3.78	3.80	3.78	3.92	3.81	3.72	3.63	3.89	4.00	3.90	3.74
	사전 M	3.40	3.72	3.79	3.85	4.00	3.84	3.74	3.72	3.99	4.08	3.91	3.87
	효과	0.05	0.06	0.01	-0.07	-0.08	-0.03	-0.02	-0.09	-0.1	-0.08	-0.01	-0.13
2018 성인 전기	사후 M	3.87	4.42	4.06	4.18	4.35	4.08	4.12	3.96	4.13	4.18	4.22	3.65
	사전 M	2.75	4.12	4.03	3.84	-	-	3.38	-	3.91	-	3.86	-
	효과	1.12	0.3	0.03	0.34	-	-	0.74	-	0.22	-	0.36	-

2019 성인 전기	사후 <i>M</i>	2.94	4.03	3.91	3.73	4.08	3.71	3.58	3.65	4.09	3.86	3.86	3.56
	사전 <i>M</i>	2.72	4.00	3.84	3.60	4.02	3.67	3.42	3.60	3.99	3.82	3.76	3.48
	효과	0.22	0.03	0.07	0.13	0.06	0.04	0.16	0.05	0.1	0.04	0.1	0.08
2018 성인 중기	사후 <i>M</i>	3.61	4.17	3.85	4.08	4.13	3.88	4.02	3.79	3.90	3.92	4.02	3.65
	사전 <i>M</i>	2.91	4.10	3.67	3.55	-	-	3.41	-	3.82	-	3.73	-
	효과	0.7	0.07	0.18	0.53	-	-	0.61	-	0.08	-	0.29	-
2019 성인 중기	사후 <i>M</i>	3.06	4.22	3.86	3.72	4.19	3.66	3.60	3.57	4.05	3.93	3.96	3.74
	사전 <i>M</i>	2.71	4.10	3.77	3.65	4.06	3.48	3.40	3.48	3.88	3.84	3.82	3.58
	효과	0.35	0.12	0.09	0.07	0.13	0.18	0.2	0.09	0.17	0.09	0.14	0.16
2018 성인 후기	사후 <i>M</i>	3.75	4.24	3.90	4.16	4.20	3.92	4.08	3.90	3.96	3.99	4.12	3.84
	사전 <i>M</i>	2.81	4.11	3.72	3.67	-	-	3.41	-	3.80	3.98	3.88	-
	효과	0.94	0.13	0.18	0.49			0.67		0.16	0.01	0.24	
2019 성인 후기	사후 <i>M</i>	3.23	4.37	3.99	3.78	4.30	3.75	3.55	3.64	4.11	3.91	4.00	3.98
	사전 <i>M</i>	2.96	4.20	3.93	3.71	4.13	3.55	3.48	3.60	4.04	3.91	4.00	3.83
	효과	0.27	0.17	0.06	0.07	0.17	0.2	0.07	0.04	0.07	0	0	0.15
2018 노인 전기	사후 <i>M</i>	3.82	4.24	3.94	4.22	4.24	3.98	4.15	3.86	3.89	3.93	4.11	3.74
	사전 <i>M</i>	3.14	3.85	3.86	3.60	-	-	-	-	3.78	3.71	3.66	-
	효과	0.68	0.39	0.08	0.62	-	-	-	-	0.11	0.22	0.45	-
2019 노인 전기	사후 <i>M</i>	3.60	4.39	4.09	3.87	4.18	3.82	3.71	3.85	4.15	4.01	3.96	4.03
	사전 <i>M</i>	3.32	4.29	4.01	3.81	4.07	3.63	3.50	3.63	4.18	3.89	3.87	3.84
	효과	0.28	0.1	0.08	0.06	0.11	0.19	0.21	0.22	-0.03	0.12	0.09	0.19
2018 노인 후기	사후 <i>M</i>	3.94	4.30	3.99	4.28	4.27	4.09	4.32	3.98	4.00	4.01	4.23	3.89
	사전 <i>M</i>	3.14	3.92	3.86	3.53	-	-	-	-	3.88	3.72	3.53	-
	효과	0.8	0.38	0.13	0.75	-	-	-	-	0.12	0.29	0.7	-
2019 노인 후기	사후 <i>M</i>	3.66	4.18	4.23	4.05	4.23	3.94	3.94	4.04	4.23	4.17	4.06	4.20
	사전 <i>M</i>	2.92	3.91	3.79	3.61	3.65	3.30	3.33	3.29	3.89	3.71	3.71	3.75
	효과	0.74	0.27	0.44	0.44	0.58	0.64	0.61	0.75	0.34	0.46	0.35	0.45

※ 효과: 사후 *M*(평균) - 사전 *M*

#### 2.4.2. 2018-2019 사전-사후 설문조사 참여 집단 효과 비교

- 2.4.1의 평균차 비교로는 사전-사후 설문조사에 모두 참여한 집단에서 나타난 문화예술교육 효과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전-사후 설문 참여 집단을 대상으로 대응표본 t 검증을 실시함.

□ 전체 생애주기

〈표 II-57〉 2018-2019 사전-사후 문화예술교육 효과 비교(전체 생애주기)

		문화 예술 감수성	문화 예술 친숙성	공감 능력	행복감	문화 수용력	창의성	자기 표현력	문제 해결력	소통 능력	친밀감	자아 존중감	자기 조절력
2018 전체	<i>n</i>	1292	1295	1289	1286	1285	1285	1286	1285	1286	1288	1286	1287
	효과	.81***	.61***	.43***	.35***	.51	.42***	.43***	.45***	.38***	.35***	.35***	.39***
	<i>SD</i>	.69	.73	.58	.56	.70	.62	.62	.63	.57	.56	.56	.60
2019 전체	<i>n</i>	738	741	740	741	741	740	740	736	737	734	734	734
	효과	.24***	.10***	.03***	.09***	.06	.08***	.06***	.05***	.05***	.02***	.05***	.04***
	<i>SD</i>	.94	.97	.87	.91	.83	.81	.94	.89	.84	.85	.85	.91

\*\*\* $p < .001$

※ *n*: 참여자 수, 효과: 사전 평균 - 사후 평균, *SD*: 표준편차

- 생애주기 전체 집단에 대한 대응표본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문화예술감수성( $t = 15.76, p < .001$ ), 문화예술친숙성( $t = 13.42, p < .001$ ), 공감능력( $t = 12.56, p < .001$ ), 행복감( $t = 7.80, p < .001$ ), 창의성( $t = 10.84, p < .001$ ), 자기표현력( $t = 10.55, p < .001$ ), 문제해결력( $t = 11.91, p < .001$ ), 소통능력( $t = 10.22, p < .001$ ), 친밀감( $t = 10.49, p < .001$ ), 자아존중감( $t = 9.57, p < .001$ ), 자기조절력( $t = 10.23, p < .001$ ) 효과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남.

□ 유아기

〈표 II-58〉 2018-2019 사전-사후 문화예술교육 효과 비교(유아기)

		문화 예술 감수성	문화 예술 친숙성	공감 능력	행복감	문화 수용력	창의성	자기 표현력	문제 해결력	소통 능력	친밀감	자아 존중감	자기 조절력
2018 유아기	<i>n</i>	191	191	189	187	189	191	191	190	191	191	191	190
	효과	.77**	.55	.40	.28**	.48	.39	.37	.43	.33	.31	.31	.36
	<i>SD</i>	.58	.65	.53	.43	.64	.56	.55	.58	.48	.46	.46	.51
2019 유아기	<i>n</i>	58	58	58	58	58	58	58	54	54	54	54	54
	효과	.39**	.16	-.07	-.06**	.00	-.02	.02	-.10	-.09	-.06	.02	.01
	<i>SD</i>	.85	.86	.70	.75	.71	.71	.63	.64	.74	.49	.56	.77

\*\* $p < .01$

※ *n*: 참여자 수, 효과: 사전 평균 - 사후 평균, *SD*: 표준편차

- 유아기 집단에 대한 대응표본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문화예술감수성( $t = 3.80, p < .01$ ), 행복감( $t = 4.38, p < .01$ ) 효과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남.

## □ 아동기

〈표 II-59〉 2018-2019 사전-사후 문화예술교육 효과 비교(아동기)

		문화 예술 감수성	문화 예술 친숙성	공감 능력	행복감	문화 수용력	창의성	자기 표현력	문제 해결력	소통 능력	친밀감	자아 존중감	자기 조절력
2018 아동기	<i>n</i>	313	313	312	311	310	307	309	310	309	310	309	310
	효과	.83**	.61***	.43***	.30***	.51**	.38***	.43***	.48***	.42***	.35***	.32***	.37***
	<i>SD</i>	.79	.79	.56	.48	.69	.58	.61	.62	.56	.56	.55	.56
2019 아동기	<i>n</i>	285	286	286	287	287	287	287	287	287	287	287	287
	효과	.20**	.14***	.00***	.07***	.02**	.00***	-.02***	.04***	.07***	-.01***	-.01***	-.04***
	<i>SD</i>	.98	1.17	1.03	1.03	1.01	.90	1.07	1.03	1.03	1.00	.98	1.07

\*\* $p < .01$ , \*\*\* $p < .001$

※ *n*: 참여자 수, 효과: 사전 평균 - 사후 평균, *SD*: 표준편차

- 아동기 집단에 대해 대응표본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문화예술감수성( $t = 8.27, p < .01$ ), 문화예술친숙성 지표( $t = 5.79, p < .001$ ), 공감능력( $t = 6.42, p < .001$ ), 행복감( $t = 3.55, p < .001$ ), 문화수용력( $t = 6.87, p < .01$ ), 창의성( $t = 6.13, p < .001$ ), 자기표현력( $t = 6.42, p < .001$ ), 문제해결력( $t = 6.22, p < .001$ ), 소통능력( $t = 5.21, p < .001$ ), 친밀감( $t = 5.51, p < .001$ ), 자아존중감( $t = 5.18, p < .001$ ), 자기조절력( $t = 5.95, p < .001$ ) 효과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남.

## □ 청소년기

〈표 II-60〉 2018-2019 사전-사후 문화예술교육 효과 비교(청소년기)

		문화 예술 감수성	문화 예술 친숙성	공감 능력	행복감	문화 수용력	창의성	자기 표현력	문제 해결력	소통 능력	친밀감	자아 존중감	자기 조절력
2018 청소년기	<i>n</i>	216	216	215	215	215	215	215	215	215	215	215	215
	효과	.71***	.61*	.47***	.41**	.56	.47*	.47***	.51**	.42	.40**	.41***	.46**
	<i>SD</i>	.74	.81	.73	.76	.86	.78	.75	.78	.72	.70	.73	.74
2019 청소년기	<i>n</i>	93	93	93	93	93	93	93	93	93	93	93	93
	효과	.09***	.01*	.09***	.06**	-.05	.04*	.09***	.01**	-.02	-.01**	.09***	-.04**
	<i>SD</i>	1.06	1.10	1.07	1.12	1.00	1.03	1.26	1.08	.92	1.02	1.11	1.05

\* $p < .05$ , \*\* $p < .01$ , \*\*\* $p < .001$

※ *n*: 참여자 수, 효과: 사전 평균 - 사후 평균, *SD*: 표준편차

- 청소년기 집단에 대한 대응표본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문화예술감수성( $t = 5.29, p < .001$ ), 문화예술친숙성( $t = 5.37, p < .05$ ), 공감능력( $t = 3.54, p < .001$ ), 행복감( $t = 3.20, p < .01$ ), 창의성( $t = 3.95, p < .05$ ), 자기표현력( $t = 3.29, p < .001$ ), 문제해결력( $t = 4.61, p$

< .01), 친밀감( $t = 4.10, p < .01$ ), 자아존중감( $t = 3.01, p < .001$ ), 자기조절력( $t = 4.71, p < .01$ ) 효과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남.

#### □ 성인 전기

〈표 II-61〉 2018-2019 사전-사후 문화예술교육 효과 비교(성인 전기)

		문화 예술 감수성	문화 예술 친숙성	공감 능력	행복감	문화 수용력	창의성	자기 표현력	문제 해결력	소통 능력	친밀감	자아 존중감	자기 조절력
2018 성인 전기	<i>n</i>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효과	.61	.41	.24	.17**	.37	.20	.19	.19**	.19	.13	.17**	.12**
	<i>SD</i>	.50	.56	.43	.34	.54	.45	.41	.30	.39*	.33*	.34	.39
2019 성인 전기	<i>n</i>	52	52	52	52	52	52	52	52	52	52	52	52
	효과	.32	.01	.03	.22**	-.01	.11	.21	.14**	.13*	.06*	.11**	.15**
	<i>SD</i>	.76	.66	.61	.66	.59	.56	.63	.62	.66	.58	.70	.84

\* $p < .05$ , \*\* $p < .01$

※ *n*: 참여자 수, 효과: 사전 평균 - 사후 평균, *SD*: 표준편차

- 성인 전기 집단에 대한 대응표본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행복감( $t = -.42, p < .01$ ), 문제해결력( $t = 0.39, p < .01$ ), 소통능력( $t = 0.41, p < .05$ ), 친밀감( $t = 0.58, p < .05$ ), 자아존중감( $t = 0.37, p < .01$ ), 자기조절력( $t = -0.18, p < .01$ ) 효과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남. 또한 자기표현력( $t = -.10, p < .08$ ) 효과에서 주변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남.

#### □ 성인 중기

〈표 II-62〉 2018-2019 사전-사후 문화예술교육 효과 비교(성인 중기)

		문화 예술 감수성	문화 예술 친숙성	공감 능력	행복감	문화 수용력	창의성	자기 표현력	문제 해결력	소통 능력	친밀감	자아 존중감	자기 조절력
2018 성인 중기	<i>n</i>	177	178	176	176	176	176	176	176	176	176	176	176
	효과	.73***	.59*	.35	.30*	.48	.41	.37	.42	.33	.32	.34	.37
	<i>SD</i>	.59	.71	.51	.47	.66	.58	.58	.59	.50	.50	.50	.54
2019 성인 중기	<i>n</i>	95	95	95	95	95	94	94	94	94	94	94	94
	효과	.28***	.16*	.04	.06*	.10	.19	.18	.06	.13	.08	.11	.13
	<i>SD</i>	.96	.63	.61	.65	.58	.63	.72	.66	.54	.59	.61	.66

\* $p < .05$ , \*\*\* $p < .001$

※ *n*: 참여자 수, 효과: 사전 평균 - 사후 평균, *SD*: 표준편차

- 성인 중기 집단에 대한 대응표본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문화예술감수성( $t = 4.70, p < .01$ ) 효과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남.

.001), 문화예술친숙성( $t = 4.90, p < .05$ ), 행복감( $t = 3.57, p < .05$ ) 효과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남. 또한 자기표현력( $t = 2.93, p < .08$ ) 효과에 대해서 주변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남.

## □ 성인 후기

〈표 II-63〉 2018-2019 사전-사후 문화예술교육 효과 비교(성인 후기)

		문화 예술 감수성	문화 예술 친숙성	공감 능력	행복감	문화 수용력	창의성	자기 표현력	문제 해결력	소통 능력	친밀감	자아 존중감	자기 조절력
2018 성인 후기	<i>n</i>	130	130	130	130	129	130	130	129	130	130	129	130
	효과	.84**	.60	.45	.37*	.49**	.47	.47	.50	.38	.40	.39	.43
	<i>SD</i>	.59	.65	.52	.50	.61	.54	.58	.65	.53	.53	.51	.55
2019 성인 후기	<i>n</i>	103	103	103	103	103	103	103	103	103	103	103	103
	효과	.24**	.06	.03	.12*	.20**	.21	.06	.03	.12	.04	.03	.15
	<i>SD</i>	.83	.62	.62	.70	.48	.59	.75	.70	.54	.72	.61	.58

\*\* $p < .01$ , \*\*\* $p < .001$

※ *n*: 참여자 수, 효과: 사전 평균 - 사후 평균, *SD*: 표준편차

- 성인 후기 집단에 대한 대응표본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문화예술감수성( $t = 6.41, p < .01$ ), 행복감( $t = 3.14, p < .05$ ), 문화수용력( $t = 3.86, p < .01$ )효과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남. 또한 문화예술친숙성( $t = 6.43, p < .08$ ) 효과에 대해서 주변 수준에서 유의한 효과가 나타남.

## □ 노인 전기

〈표 II-64〉 2018-2019 사전-사후 문화예술교육 효과 비교(노인 전기)

		문화 예술 감수성	문화 예술 친숙성	공감 능력	행복감	문화 수용력	창의성	자기 표현력	문제 해결력	소통 능력	친밀감	자아 존중감	자기 조절력
2018 노인 전기	<i>n</i>	141	142	142	142	141	142	141	141	140	141	141	141
	효과	.94	.71	.51	.40	.55	.47	.47	.41	.36	.35*	.34	.35
	<i>SD</i>	.68	.75	.58	.60	.70	.62	.63	.58	.58	.55	.54	.63
2019 노인 전기	<i>n</i>	38	40	40	40	40	40	40	40	40	37	37	37
	효과	.27	-.02	.03	.10	.05	.08	.08	.15	-.06	.16*	.14	.14
	<i>SD</i>	.76	.75	.67	.76	.66	.69	.65	.71	.67	.80	.65	.78

\*\* $p < .01$ , \*\*\* $p < .001$

※ *n*: 참여자 수, 효과: 사전 평균 - 사후 평균, *SD*: 표준편차

- 노인 전기 집단에 대한 대응표본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친밀감( $t = 1.74, p < .05$ ) 효과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남.

□ 노인 후기

〈표 II-65〉 2018-2019 사전-사후 문화예술교육 효과 비교(노인 후기)

		문화 예술 감수성	문화 예술 친숙성	공감 능력	행복감	문화 수용력	창의성	자기 표현력	문제 해결력	소통 능력	친밀감	자아 존중감	자기 조절력
2018 노인 전기	<i>n</i>	98	99	99	99	99	98	98	98	99	99	99	99
	효과	1.04*	0.70**	0.52	0.46**	0.56	0.48*	0.48	0.43**	0.39	0.40	0.35	0.41*
	<i>SD</i>	0.66	0.71	0.60	0.61	0.67	0.65	0.64	0.61	0.58	0.55	0.59	0.63
2019 노인 전기	<i>n</i>	12	12	11	11	11	11	11	11	c	12	12	12
	효과	0.83*	0.33**	0.77	0.95**	0.70	0.45*	0.58	0.52**	0.06	0.39	0.22	0.31*
	<i>SD</i>	1.08	1.46	0.45	1.24	0.57	0.96	0.65	1.04	0.58	0.78	0.69	0.92

\* $p < .05$ , \*\* $p < .01$

※ *n*: 참여자 수, 효과: 사전 평균 - 사후 평균, *SD*: 표준편차

- 노인 후기 집단에 대한 대응표본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문화예술감수성( $t = 0.95$ ,  $p < .05$ ), 문화예술친숙성( $t = 1.49$ ,  $p < .01$ ), 행복감( $t = 2.24$ ,  $p < .01$ ), 창의성( $t = 0.11$ ,  $p < .05$ ), 문제해결력( $t = 0.40$ ,  $p < .01$ ), 자기조절력( $t = 0.52$ ,  $p < .05$ ) 효과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남.

□ 노인기 전체

〈표 II-66〉 2018-2019 사전-사후 문화예술교육 효과 비교(노인기 전체)

		문화 예술 감수성	문화 예술 친숙성	공감 능력	행복감	문화 수용력	창의성	자기 표현력	문제 해결력	소통 능력	친밀감	자아 존중감	자기 조절력
2018 노인기 전체	<i>n</i>	239	241	241	241	240	240	239	239	239	240	240	240
	효과	.98**	.71	.51	.42*	.55	.47	.48	.42*	.38	.37*	.35	.38
	<i>SD</i>	.67	.73	.59	.60	.68	.63	.63	.59	.58	.55	.56	.63
2019 노인기 전체	<i>n</i>	50	52	51	51*	51	51	51	51	52	49	49	49
	효과	.41**	.06	.19	.28	.19	.16	.18	.23*	-.03	.21*	.16	.18
	<i>SD</i>	.87	.96	.69	.94	.69	.76	.67	.79	.65	.79	.65	.81

\* $p < .05$ , \*\* $p < .01$

※ *n*: 참여자 수, 효과: 사전 평균 - 사후 평균, *SD*: 표준편차

- 노인기 전체 집단에 대한 대응표본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문화예술감수성( $t = 5.20$ ,  $p < .01$ ), 행복감( $t = 1.38$ ,  $p < .05$ ), 문제해결력( $t = 1.92$ ,  $p < .05$ ), 친밀감( $t = 1.67$ ,  $p < .05$ ) 효과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남.



.05) 효과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남. 또한 자기조절력( $t = 1.85, p < .08$ ) 효과에 대해서 주변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남.

## □ 결과 종합

- 2018-2019 효과 비교에서 유의한 효과 차이가 나타난 지표는 다음과 같음.

〈표 II -67〉 2018-2019 유의 효과차 비교

지표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	성인 전기	성인 중기	성인 후기	노인 전기	노인 후기	노인 전체
핵심 지표	문화예술감수성	●	●	●		●	●		●	●
	문화예술친숙성		●	●		●			●	
특수 지표	공감능력		●	●						
	행복감	●	●	●	●	●	●		●	●
	문화수용력		●				●			
	창의성		●	●					●	
	자기표현력		●	●						
	문제해결력		●	●	●				●	●
	소통능력		●		●					
	친밀감		●	●	●			●		●
	자아존중감		●	●	●					
	자기조절력		●	●	●				●	

음영 있는 칸은 각 생애주기별 특수지표를 의미함

- 많은 지표에서 2018년과 2019년 효과 차이가 나타났음. 본 결과의 경우 2018년 사전 설문조사가 사후 회상 형식으로 이루어져 문화예술교육 효과를 더 크게 지각했을 수 있음. 문화예술교육 효과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회상 형식보다는 교육 시작, 종료 시기에 맞는 사전, 사후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지속적인 데이터 축적을 통해 효과 변화 추이 관찰 및 원인 분석이 필요함.
- 추가적으로,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으나 2018년, 2019년 설문조사 참여 전체 집단에 대해 사전, 사후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했을 때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기 전 사전조사에서부터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 지표가 생애주기별 특수지표를 포함하여 여러 개 있고,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를 파악하거나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문화예술교육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사전-사후 설문조사 결과를 종단적으로(연도별로) 비교할 때는 직접 비교하는 것보다 점수 변화폭을 비교하여 효과 크기를 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임.
- 1년 이상 사전-사후 설문조사를 통해 대응표본을 구성한 경우, 지표에 대한 각 참여자의 사전 사후 평균 차를 구하는 방식으로 효과 크기의 분석이 가능함.

### 3. 질적 연구

#### 3.1. 인터뷰 참여자 및 참여 집단 특성

##### 3.1.1. 유아 대상 인터뷰 참여자 및 참여 집단 특성

□ 1개 기관에서 2명의 참여자와 인터뷰 진행.

〈표 II-68〉 유아 대상 문화예술교육 인터뷰 참여자 기본 정보

기관	지역	프로그램	참여자 구분	나이	성별	비고	인터뷰 일정
1	경인	미술+연극	1	28	여	예술 강사(연극)	2019년 11월
			2	39	여	예술 강사(미술)	

- 기관 1: 경인 지역의 한 유치원에서 함께 예술교육을 하는 강사 2명과 인터뷰함. 강사들은 사이가 좋으며 서로 협력하여 미술과 연극 연계 프로그램을 진행. 미술 강사는 유아·아동 미술교육에 대한 이해가 깊으며 여러 기관에서 교육 진행 경험이 많음. 연극 담당 강사는 경력은 짧지만, 보람을 느끼며 교육을 진행 중. 참여자들이 현재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유치원은 이 전에 문화예술교육을 한 경험이 있고, 협조적임. 유아에게 허용적인 분위기이며 아이들은 자유롭게 문화예술교육을 즐기고 다음 수업을 기다림.

##### 3.1.2. 아동 대상 인터뷰 참여자 및 참여 집단 특성

□ 6개 기관에서 23명의 참여자와 인터뷰 진행. (성인 전기 기관1 참여자 포함)

- 기관 1: 서울의 한 문화원에서 음악 프로그램 마지막 날 공연 종료 후 아동 참여자 부모 1명과 인터뷰함. 참여자는 자녀들이 스마트폰만 보며 토요일을 보내는 것을 걱정하다가 해당

프로그램을 직접 찾아 두 자녀를 참여시킴. 두 자녀 모두 수업에 성실히 참여하였으나 사정상 공연은 첫째 딸만 참여함. 전체적으로 공연 후 고양되고 밝은 분위기였으며, 아동, 예술강사, 담당자가 자유롭게 간식을 먹으며 서로 친밀하게 이야기 나눔. 참여 아동의 학부모들도 공연을 계기로 만나 인사를 나누는 사이임.

- 기관 2: 경남의 한 아동복지시설 담당자 3명과 인터뷰함. 이 중 1명은 서면 인터뷰를 진행. 시설에는 부모로부터 학대, 방임 경험이 있는 유아와 아동이 머물고 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미술 및 무용교육 진행 중. 참여자들은 기관에서 아이들과 24시간을 함께 보냄. 유아 담당자는 아이들에게 ‘엄마’라고 불리고, 문화예술교육에 함께 참여하며 수업을 보조함. 문화예술 교육을 통해 아동이 억눌린 정서를 표현하고, 담당자들과 긍정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생겨 좋음. 작년과 달리 올해 예술 강사는 시설 아동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유연하고 피드백이 빨라 교육 만족도가 높음. 참여자들은 아이들이 함께 생활하고, 변화가 큰 시기라 문화예술을 통해 큰 변화가 생기기보다는 차곡차곡 경험을 쌓고 있다고 생각함.

〈표 II-69〉 아동 대상 문화예술교육 인터뷰 참여자 기본 정보

기관	지역	프로그램	참여자 구분	나이	성별	비고	인터뷰 일정
1	서울	음악	1	47	여	참여자 부모	2019년 7월
			2	39	남	기관 담당자	
2	경상	미술, 무용	3	39	여	기관 담당자 (서면 인터뷰)	2019년 11월
			4	32	여	기관 담당자	
			5	28	여	기관 담당자	
			6	32	남	예술 강사	
			7	27	여	예술 강사	
			8	12	여	참여자	
3	서울	음악	9	12	여	참여자	2019년 11월
			10	11	여	참여자	
			11	10	여	참여자	
			12	10	여	참여자	
			13	31	여	기관 담당자	
			14	24	여	예술 강사	
4	충북	미술	15	10	여	참여자	2019년 11월
			16	11	여	참여자	
			17	12	여	참여자	
5	충북	연극	18	9	여	참여자	2019년 11월

- 기관 3: 서울 지역 오케스트라 프로그램에 토요일마다 참여하고 있는 초등학교생 참여자 5명, 예술 강사 2명, 기관 담당자 1명과 인터뷰함. 참여자들은 음악이 좋아서 교육에 참여함. 이들은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서로 알게 되어 학교에서도 인사를 나눔. 친구들과 함께 처음 접하는 악기를 연주하고 연주회 준비하는 데 재미와 성취감을 느낌. 강사는 트롬본, 바이올린을 지도를 각각 맡고 있음. 문화예술교육 참여는 처음임. 기관 담당자는 교육 지원, 행정업무를 담당. 교육 참여 인원이 많음에도 강사와 참여자, 담당자가 서로 친밀하며 관계가 좋음. 교육은 음악 이론 수업과 연주회 준비로 이루어졌으며, 인터뷰는 연주회를 일주일 앞두고 진행.
- 기관 4: 충북의 한 초등학교에서 문화예술 교육에 참여 중인 초등학교생 참여자 3명, 예술 강사 1명, 담당자 1명과 인터뷰함. 초등학교는 자연이 아름답고 예술가가 많은 동네에 위치. 참여자들은 1주일에 한 번 만들기를 하며, 학교 미술 시간과 달리 새롭고 창의적 활동을 할 수 있어 매우 좋음. 친절하고 경청해주는 선생님이 좋아 내년에도 참여하고 싶음. 친구들과 협동이 즐겁고, 교육 중 동네를 탐방한 후 동네에 애정이 생김. 강사는 문화예술교육이 처음이지만, 다행히 협조적인 기관을 만남. 아이들과 상호작용이 즐거우며 아이들이 수업을 통해 즐거움을 느끼기 바람. 담당자는 진행 지원, 콘텐츠 등을 담당하고 있음. 최근 지역 기관에서 아이들의 작품을 전시함.
- 기관 5: 충북의 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연극 교육에 참여하는 아동 1명, 청소년 2명과 인터뷰. 아이들은 부모와 떨어져 기관에서 지내며, 이 기관에 머무는 것을 친구들이 몰랐으면 함. 아동 참여자는 다문화 학생이라는 이유로 저학년 때 왕따를 당한 경험이 있음. 현재는 학교에 적응하고 있으며, 인터뷰 도중 내집단을 ‘고아’라 표현. 연극에서 주인공을 맡았으며, 칭찬과 선물을 받아 아주 좋았음. 청소년 참여자들은 작년 문화예술교육에서 밴드 활동을 하였고, 올해 연극을 함. 이들 중 한 명은 밴드 활동을 통해 적성을 찾았지만, 연극은 재미가 없음. 기관 담당자는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자신감을 찾고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다고 여김.
- 기관 6: 성인 중기 참여 기관 1과 동일.

### 3.1.3. 청소년 대상 인터뷰 참여자 및 참여 집단 특성

- 2개 기관에서 7명의 참여자와 인터뷰를 진행함. 청소년 기관 2는 아동 기관5와 동일.

〈표 II-70〉 청소년 대상 문화예술교육 인터뷰 참여자 기본 정보

기관	지역	프로그램	참여자 구분	나이	성별	비고	인터뷰 일정
1	서울	코딩	1	28	여	기관 담당자	2019년 11월
			2	32	남	보조강사	
			3	15	남	참여자	
			4	15	남	참여자	
			5	14	남	참여자	
2	충북	연극	6	15	남	참여자	2019년 11월
			7	12	남	참여자	

- 기관 1: 서울의 한 미술관에서 미디어아트 교육에 참여하는 중학생 참여자 3명, 보조강사 1명, 기관 담당자 1명과 인터뷰함. 학생들의 미술작품을 코딩을 통해 미디어아트 작품으로 만들고 전시 기획과 작품 전시를 함. 근처 아파트 단지에 사는 참여자들이 많음. 중학생 참여자는 출석률이 높고 적극적으로 참여함. 보조강사는 프로그램 관련 전공의 대학원생으로, 참여자의 실습을 도와주는 3명의 보조강사 중 한 명임. 담당자는 교육을 지원하고 보조함. 강사와 담당자가 세심하게 참여자들에게 관심을 기울임. 프로그램이 끝날 때쯤이면 자녀를 학원으로 데려가기 위해 학부모들이 찾아오는 등 교육열이 높음.
- 기관 2: 아동기 참여 기관 5와 동일

### 3.1.4. 성인 전기 대상 인터뷰 참여자 및 참여 집단 특성

□ 3개 기관에서 11명의 참여자와 인터뷰 진행.

- 기관 1: 경남 지역 기관의 미술 공예 프로그램 참여자 1명, 예술 강사 1명과 인터뷰함. 캘리그래피 수업으로 개인 활동 위주임. 20대 참여자는 기관 홍보를 통해 교육을 접하고 참여함. 본인의 출석률이 아쉽지만, 관심 있던 캘리를 처음 접하고 할 수 있게 되어 즐거웠음. 50대 참여자는 수업을 통해 일상 활력을 찾음. 이들은 자신의 작품을 가족과 직장동료에게 자랑함. 강사는 문화예술교육 진행 경험이 다수 있으며, 이 수업에서 다양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어 좋았음. 프로그램 마지막 시간에 화기에애한 분위기 속에서 인터뷰 진행.

〈표 II-71〉 성인 전기 대상 문화예술교육 인터뷰 참여자 기본 정보

기관	지역	프로그램	참여자 구분	나이	성별	비고	인터뷰 일정
1	경남	미술+공예	1	40	여	예술 강사	2019년 10월
			2	26	여	참여자	
			3	25	여	기관 담당자	
2	경북	미술	4	60	여	예술 강사	2019년 11월
			5	27	여	참여자	
			6	42	여	기획자	
3	강원	공예	7	33	여	예술 강사	2019년 11월
			8	31	남	예술 강사	
			9	29	여	참여자	
			10	29	남	참여자	
			11	27	남	참여자	

- 기관 2: 경북 지역 미술 프로그램 참여자 1명, 예술 강사 1명, 지역 기관의 담당자 1명과 인터뷰함. 지역 내 직장인들이 참여하며, 참여자들은 서로 가볍게 인사하고, 근황을 묻은 후 각자 개인 작업에 몰입함. 20대 참여자는 지역 기관의 홍보를 접하고 교육에 참여. 원래 미술에 관심 많았으며, 교육 참여를 계기로 미술 활동을 취미로 이어가고 싶음. 현재 직장 내 관계에 지친 상태임. 담당자는 20대로 교육 참여자이기도 함. 자발적 참여는 아니지만 활동은 재미있고, 담당자로서 출석률 관리는 어려움. 강사는 다양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오랜 기간 미술교육을 진행함. 예술 활동이 사람들의 심리안정에 도움 된다고 생각하며 새롭고 다양한 도구 활용하여 열정적으로 수업 진행.

- 기관 3: 강원도의 공예 프로그램 참여자 3명과 예술 강사 2명, 기획자 1명과 인터뷰함. 교육 참여자는 모두 20대 직장인으로 지역 기관의 홍보를 보고 버려진 물건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업사이클링 교육에 참여. 약 3개월간의 교육은 삶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계기였으며, 자신만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을 완성해 전시함. 지방 도시 특성상 교통편이 불편하여 문화예술교육이나 활동 참여가 어려워 아쉬움. 주강사는 참여자들의 동료나 친구 같은 역할을 하며 교육을 진행하였고, 보조강사는 출석 관리, 교육 진행을 보조함. 기획자는 지역 문화예술 기관의 장으로 다양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교육 사업 진행 경험이 있음.

### 3.1.5. 성인 중기 대상 인터뷰 참여자 및 참여 집단 특성

□ 2개 기관에서 10명의 참여자와 인터뷰 진행.

〈표 II-72〉 성인 중기 대상 문화예술교육 인터뷰 참여자 기본 정보

기관	지역	프로그램	참여자 구분	나이	성별	비고	인터뷰 일정
1	경인	음악	1	40	여	가족 프로그램 참여자 (자녀 동반)	2019년 7월
			2	47	여	가족 프로그램 참여자 (자녀 동반)	
			3	42	여	가족 프로그램 참여자 (자녀 동반)	
			4	36	여	예술 강사	
			5	36	여	예술 강사	
			6	28	여	기관 담당자	
2	전북	연극	7	41	여	예술 강사	2019년 11월
			8	38	여	예술 강사	
			9	32	여	참여자	
			10	49	여	담당자	

- 기관 1: 경인 지역 가족 오케스트라 교육 참여자 3명, 예술 강사 2명, 담당자 1명과 인터뷰.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진행됨. 참여자들은 교육을 계기로 알게 되어 게임, 1박 2일 캠프 활동 등을 통해 절친한 사이가 됨. 육아 고민을 나누고 각자의 가족들과도 왕래함. 전문적이고 피드백이 빠른 강사 덕분에 기대 이상으로 즐거웠고, 다른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싶음. 음악 전공자인 강사 4명이 팀을 이루어 4년째 교육 진행 중이며, 서로 신뢰가 두터움. 매회 새로운 교육을 위해 유튜브, 다른 예술교육과 연계 등 다양한 방법 활용. 참여자들이 교육을 통해 즐거움, 자기 표현력, 결과물을 내는 과정의 고통 및 즐거움을 얻기 바람. 담당자는 매회 수업 참관하고 때로 같이 참여함. 출석 체크, 간식을 담당.
- 기관 2: 전북 지역 연극 프로그램 담당자, 주강사, 보조강사, 참여자 1명과 인터뷰함. 이들은 다년간 함께 연극 교육을 진행하여 연극과 연출에 노련하였으며, 담당자, 강사, 참여자 간 소통이 원활하고 관계가 매우 돈독함. 참여자들의 자전적 이야기를 바탕으로 극본을 쓰고 연말에 공연함. 참여자는 2명의 자녀가 있으며, 지역 토박이로 잠시 도시에서 살다 돌아옴.

다년간 활동으로 담당자, 강사와 친하며, 소품과 의상 준비 등 교육을 보조함. 현재 강사가 되어 연극 교육을 진행. 담당자는 교육 진행을 보조하며 필요한 경우 배우로도 참여함.

### 3.1.6. 성인 후기 대상 인터뷰 참여자 및 참여 집단 특성

□ 3개 기관 18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함

〈표 II-73〉 성인 후기 대상 문화예술교육 인터뷰 참여자 기본 정보

기관	지역	프로그램	참여자 구분	나이	성별	비고	인터뷰 일정
1	경남	미술+공예	1	51	남	참여자	2019년 10월
			2	52	여	참여자	
			3	52	여	참여자	
			4	50	남	참여자	
			5	51	남	참여자	
			6	58	여	참여자	
2	경남	글쓰기+공예	7	55	여	참여자	2019년 11월
			8	56	여	참여자	
			9	57	여	참여자	
			10	50	여	예술 강사	
			11	52	여	예술 강사	
			12	50	여	기관 담당자	
3	전북	글쓰기	13	58	여	참여자	2019년 11월
			14	58	여	참여자	
			15	57	여	참여자	
			16	56	여	참여자	
			17	53	여	참여자	
			18	50	여	참여자	

- 기관 1: 성인 전기 참여 기관 1과 동일

- 기관 2: 경남의 그림책 만들기 프로그램 참여자 7명, 예술 강사 2명, 기관 담당자 1명과 인터뷰함. 자신의 삶을 책으로 엮는 활동을 하며, 참여자와 기관 담당자, 예술 강사 모두 적극적임. 참여자들은 따뜻하고 지지적인 분위기 속에서 각자의 삶을 나누고, 때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면서 일체감을 느낌. 교육을 통해 다른 참여자뿐 아니라 자신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으며,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맞음. 모두가 참여자를 잘 만났다고 여기며, 교육이 일종의 심



리치료였음, 이 프로그램을 통해 행복을 찾고 삶이 달라졌다고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싶어 함.

- 기관 3: 전북의 글쓰기 프로그램 참여자 6명과 인터뷰함. 참여자들은 모두 중년 여성으로 지역 기관의 홍보물을 보고 참여하여 약 8개월 동안 워크샵, 숲 체험, 작품집 만들기 등의 활동에 주도적, 적극적으로 참여. 인터뷰 당시 참여자들은 모두 주부였으나, 과거 식당 경영, 공공기관 근무 경험이 있는 참여자도 있었음. 이들은 교육 활동 중 각자의 삶을 나누고, 서로 수용하고 지지하는 경험을 통해 서로에 대한 신뢰가 강해짐.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언어를 통해 잘 표현하였으며, 인터뷰 진행자와 어느 정도 라포가 형성되자 인터뷰에 자발적, 적극적으로 참여함.

### 3.1.7. 노인 대상 인터뷰 참여자 및 참여 집단 특성

□ 2개 기관 7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함.

〈표 II-74〉노인기 대상 문화예술교육 인터뷰 참여자 기본 정보

기관	지역	프로그램	참여자 구분	나이	성별	비고	인터뷰 일정
1	전북	음악	1	72	여	참여자	2019년 11월
			2	70	여	참여자	
			3	69	여	참여자	
			4	45	여	예술 강사	
2	서울	음악	5	43	여	기관 담당자	2019년 12월
			6	35	여	예술 강사	
			7	28	여	담당자	

- 기관 1: 전북의 음악 프로그램 참여자 3명과 인터뷰함. 8개월간 1주일에 한 번 강사와 담당자가 마을 경로당에 찾아와 시 읽기, 노래, 미술, 소풍 등 즐거운 활동을 함. 한마을에 살며 농사짓는 여성 약 25명이 참여. 참여자들은 6.25 무렵 학령기를 보내 학교에 못 다녔고 문해가 어려움. 이들은 강사, 담당자와 친하며, 교육 마무리를 기념하여 음식을 준비하는 등 열의를 보임. 강사는 다년간 지역특성화 사업을 하였고, 유연하게 교육을 진행. 담당자는 지역 기관 직원으로 진행 지원 담당. 강사와 담당자는 근처 지역 출신으로 참여자들과 교육에 대한 애정과 열정이 큼. 시화 등 작품을 모아 전시회를 열었으며 작품집도 만들 계획임.
- 기관 2: 노인복지관에서 합창 프로그램을 지도하는 강사와 프로그램 담당자를 인터뷰하였

음. 강사는 음악을 전공했으며 이전에도 다른 노인복지기관에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지도했던 경험이 있음. 담당자는 노인복지관 직원으로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음. 강사와 담당자는 사업의 목표는 참여자들의 복지라는 생각을 공유 하였으며,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서 통해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잘 형성된 것으로 보였음.

### 3.2.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효과

#### 3.2.1. 유아 대상 문화예술교육 효과

〈표 II-75〉 유아기 문화예술교육의 차원별 효과

대범주	하위 요인	주제
개인	문화예술 능력 향상	문화예술 감수성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음
		문화예술 친숙성
		문화예술 활동을 즐김
	긍정적 자기인식 향상	자기효능감
		자신감, 유능감, 성취감
		자아존중감
		자신에 대한 긍정적 느낌
	지적 능력 향상	집중력
		강사 및 수업에 집중
		창의력
		새로운 표현
		상상력
		새로운 표현, 상상 놀이
		호기심
		강사, 활동, 주변 환경 등에 대한 궁금증
	정서 경험 다양화	외부세계 탐색
		도구 탐색
		긍정 정서 경험
		즐거움, 자유로움, 기대감
관계		부정 정서 경험
		수업이 끝나 아쉬움
		정서 안정
	정서적 성숙	정서 발산 및 해소
		인정욕구 표현, 정서표현, 자유로운 자기표현, 신체표현
		적극적 참여
		행동 조절 증가
	관계의 질 향상	자기조절
		자기통제
	사회기술 향상	강사와의 관계
		또래 관계
		협동 능력
사회·환경		협동심, 순서 기다리기
		의사소통 능력
		강사와 의사소통
		없음

□ 초점집단 인터뷰 결과, 개인 차원 및 관계 차원에서 유아 대상 문화예술교육 효과가 나타남. 개인 차원의 효과는 문화예술 능력 향상, 긍정적 자기인식 향상, 지적 능력 향상, 정서 경험 다양화, 정서적 성숙, 행동조절 증가였으며, 관계 차원의 효과는 관계의 질 향상, 사회기술 향상이 나타남. 사회·환경 차원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음.

## □ 개인 차원

### - 문화예술 능력 향상

- 인터뷰 결과, 유아 대상 문화예술 교육의 문화예술감수성 및 친숙성 효과가 발견됨. 문화예술감수성이란 문화예술을 다양한 감각과 인지를 통해 민감하게 지각하고, 그 체험을 통해 각자의 삶에서 영감이나 자극, 감동을 받는 정도임. 문화예술친숙성은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높고 거부감이 적어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 정도임(진홍원, 2018).
- 유아는 물감, 종이와 같은 미술 도구뿐 아니라 자신의 신체, 나뭇잎 등 주변 물건을 탐색하고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함. 특히, 연극 시간에 다양한 도형을 신체로 표현해 보고, 미술 시간에 신체로 표현했던 도형을 활용하여 미술작품을 만드는 등의 연계 활동을 통하여 각 예술 분야에 대한 선입견 없이 자유롭게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놀이로써 즐기. 이는 유아의 문화예술 감수성과 문화예술 친숙성 향상을 의미하며, 유아기 때 경험한 문화예술의 즐거움은 일생에 걸쳐 문화예술 능력을 함양하고 즐길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음.

### - 긍정적 자기인식 향상

- 인터뷰 결과, 유아 문화예술교육의 자기효능감 효과와 자아존중감 효과가 발견됨. 자기효능감이란 과제를 마치고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신명희 외, 2017)임. 자아존중감은 자기 이해를 토대로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태도를 말함(진홍원, 2018)
- 유아는 문화예술교육 시간에 친구들과 함께 자유롭게 즐겁게 미술작품과 연극 작품을 완성하고, 여러 사람 앞에서 이를 발표함. 유아는 친구들과 선생님 앞에서 자신의 작품을 발표하면서 칭찬과 인정을 받는 경험을 통해 자신감과 유능감을 느낌. 하나의 작품을 집중하여 완성함으로써 자신을 ‘괜찮은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사람’으로 여기게 됨. 이는 유아의 자아효능감 향상을 의미함. 즐거운 작품 활동과 친구들과 선생님께 인정받는 전반적인 경험을 통해 자신을 ‘괜찮은 사람’으로 여기게 되고, 이는 자아존중감의 향상이라 할 수 있음.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된 유아는 이후 자유롭게 과감하게 자신을 표현하는 신체활동이나 발표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함.

(1차시에) 즐거움도 느꼈고, 자유로움도 느꼈고, 그게 이제 두 차시 가니까, 어 두 번째도 꽤 괜찮아. 선생님이랑 같이 하자는 대로 잘 따라가다 보니까 나 좀 재밌게 근사하게 작품을 만들 수 있는 내가 됐어, 라는 걸 아이들이 느끼니까 [유아 참여자1/예술강사]

#### - 지적 능력 향상

- 인터뷰 결과, 유아 문화예술 교육의 집중력, 창의력, 상상력, 호기심, 외부세계 탐색 효과가 발견됨. 집중력이란 특정한 활동에 일정 시간 동안 연속적으로 주의를 쏟는 능력이며, 창의성은 새롭고, 독창적이고, 유용한 것을 상상하거나 만들어내는 능력임(진홍원, 2018). 호기심은 주변의 사물에 대한 의문을 갖고 질문을 제기하는 태도이며, 외부세계 탐색은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주변을 살피고 관찰하는 것임.
- 유아 문화예술교육은 유치원뿐 아니라 지역 문화기관, 근처 공원 등 다양한 공간에서 이뤄지고 있었음. 이를 통해 유아는 물감이나 종이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공간을 체험하고 탐색함. 또 자신의 신체나 주변의 물체를 활용하여 미술 활동을 하거나 동물, 도형 등을 표현함. 이러한 활동을 통해 유아는 신체나 물체의 익숙한 활용에서 벗어나 새로운 표현 방법을 고민하고 상상함. 창의력과 상상력의 향상을 의미함. 또 새로운 표현과 활동에 재미를 느끼게 되면서 다른 대상에 호기심을 갖게 되고, 수업 시간에 강사의 말과 행동에 더욱 집중하게 됨.

#### - 정서 경험 다양화

- 인터뷰 결과, 유아는 문화예술 교육을 통해 다양한 정서를 경험하였음. 특히, 인터뷰 참여자는 유아의 긍정 정서 경험과 정서 발산 및 해소 효과를 자주 언급함. 유아는 놀이 형식으로 문화예술을 경험하므로 그 과정에서 자유로움과 즐거움을 가장 크게 느꼈음. 다음 수업을 기대하고 기다리기도 함. 또, 미술 활동의 경우 수업이 끝날 때 그날의 작품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탐색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이 과정에서 유아는 활동 중에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작품의 형태나 의미를 찾게 되고, 이는 유아의 정서를 발산하고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됨.

첫 차시를 끝내면 아이들이 와서 하는 소리가 왜케 짧아요, 더 하고 싶어요 (중략) 2차시 때 오면은 오늘은 뭐해요, 오늘도 재밌겠다. 이라고 오거든요. [유아 참여자2/예술강사]

#### - 정서적 성숙

- 인터뷰 결과, 유아 문화예술 교육의 자기표현 성숙 효과가 발견됨. 자기표현력이란 자신의 의견, 생각, 감정 등을 자신 있게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며, 개인은 자기를 표현할 때 자기가 넓어지고 자기를 실현하려는 기본 욕구가 충족됨. 또, 자기표현이 성숙한 개인은 문제 상황에서 타인의 입장과 감정을 고려하면서 자신의 감정과 생각 등을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음(신명희 외, 2017). 유아 대상 문화예술 교

육의 자기표현과 자기표현 성숙은 인터뷰 참여자가 중요하게 언급한 효과임.

- 유아는 문화예술 활동 과정에서 친구들과의 놀이를 통해 색깔과 형태, 신체 움직임과 목소리, 표정 등을 사용하여 자신을 표현하였음. 또, 미술 시간의 경우 그림으로 표현된 작품을 다시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는 과정을 거쳤음.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친구와 강사에게 자신을 표현하고 피드백을 받으면서, 유아는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타인이 수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적절하게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는 법을 익히게 됨. 이때, 즐거움과 친구와 강사의 긍정적인 피드백은 유아의 적극적인 자기표현을 끌어냄. 정서적 성숙은 유아의 사회성 향상과 또래 친구들과의 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함.

#### - 행동조절 증가

- 인터뷰 결과, 유아 문화예술교육의 자기조절력 향상 효과가 발견됨. 자기 조절은 목표 지향적 행동을 함에 있어 자신의 행동과 감정을 스스로 통제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가리키며, 자기통제라고도 함(Bronson, 2000). 본 질적 연구에서 나타난 자기 조절은 행동적 측면이 두드러진다는 점에서 양적 지표와 차이가 있음.
- 유아는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자유가 주어진 상황에서 스스로 행동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능력을 익히는 것으로 보임. 자유로운 놀이 활동이 이뤄지는 문화예술교육 과정에서 유아는 가정이나 유치원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자유를 경험하게 됨. 교육 초반에는 유아들이 갑작스럽게 주어지는 자유를 다루지 못하고, 수업 중 큰 소리를 내는 등 산만한 행동을 하거나 위험 행동을 하기도 함. 그러나 놀이 활동을 통해 즐겁게 자신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작업을 거치면서 아이들은 점진적으로 수업에 집중하고, 교사를 따르며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는 등 스스로 행동을 조절함.

### □ 관계 차원

#### - 관계의 질 향상

- 인터뷰 결과,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친구 및 예술 강사에 대한 유아의 친밀감이 향상되었음. 친밀감이란 가족, 친구, 이웃 등 타인과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고 이들에 대해 애정과 관심을 갖는 상태임(진홍원, 2018). 본 연구에서는 친구 및 예술 강사와의 관계에서 친밀감 효과가 발견됨.
- 유아는 문화예술교육 활동 내내 또래 및 강사와 상호작용함. 때로는 또래와 팀을 이

루어 손에 묻은 물감을 찍어내며 공동 작품을 완성하기도 하고, 때로는 동물을 표현하는 자신만의 신체 움직임을 찾는 경쟁을 하는 등 여러 상황에서 다양하게 또래와 사회적 교류를 함. 이 과정에서 싸우기도 하고 새로운 놀이를 찾아내 함께 놀기도 하면서 친밀감을 느끼고 소통함. 또, 안전하게 놀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는 강사들에게도 친밀감을 느끼고 이를 적극적으로 표현함.

어린 친구들이 서로 소통하고, 또 저희한테도 와서 소통을 하려하고. 궁금한 것도 많아지고, 사람 대 사람으로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이 친구와 나 사이의 유대감이 생기면서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더라고요. [유아 참여자 1/예술강사]

#### - 사회기술 향상

- 인터뷰 결과, 유아 문화예술 교육을 통해 유아의 협동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되었음. 협동 능력이란 공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타인과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이며(신명희 외, 2017), 의사소통 능력은 다른 사람과 의견이나 생각을 주고받으며 조율하는 능력임(진홍원, 2018).
- 유아는 적극적으로 다른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하나의 공동 작품을 완성하기도 하고, 서로 조율하여 공동으로 사용하는 재료의 사용 순서에 대한 규칙을 만드는 등 사회적 기술을 익힘. 사회적 기술의 향상은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는 아동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음, 6세의 경우, 문화예술교육을 과정에서 이러한 사회적 기술이 관찰되기 시작하고 훈련하는 단계라면, 7세의 경우 조금 더 능숙하게 사회적 기술을 사용함.

아이들끼리 주고받는 내용이 그런 거예요, 내가 이거 이렇게 할 테니까 너가 여기에 눈 그려 줄래? 둘이서 이렇게 하나 도형을 가지고 모형을 만드는 작업이었는데, 그렇게 앉아서 둘이 이렇게 주고 받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략) 마지막 차시에는 그런 부분에서도 협업이라는 걸 아이들이 좀 알게 돼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규율, 규칙도 생기구요 [유아 참여자 1/예술강사]

- 종합하면, 본 질적 연구에서 유아 대상 문화예술 교육은 개인 차원에서 문화예술 능력 향상, 긍정적 자기인식 향상, 지적 능력 향상, 정서 경험 다양화, 정서적 성숙, 행동조절 증가에 도움이 되었음. 관계 차원에서 관계의 질 향상, 사회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음. 사회·문화 차원의 효과는 발견되지 않았음.
- 본 질적 연구를 통해 새롭게 발견된 효과는 자기효능감(긍정적 자기인식 향상), 집중력, 외부세계 탐색(지적 능력 향상), 정서 경험 다양화 효과임. 질적 연구 참여자들이 가장 자주 언급한 효과는 긍정 정서 경험이며, 중요하게 언급한 효과는 정서적 성숙임.

### 3.2.2. 아동 대상 문화예술교육 효과

〈표 II-76〉 아동기 문화예술교육의 차원별 효과

대범주		하위 요인	주제
개인	문화예술 능력 향상	문화예술 친숙성	문화예술 활동을 즐기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음, 악보, 악기의 특성, 여러 소리의 조화, 지휘자 등에 대한 이해도 상승 문화예술 성취 욕구
		문화예술 감수성	문화예술 감상 태도의 성숙 진지한 태도, 열린 태도
		문화예술 자기인식 향상	자기효능감 자신감, 성취감, 유능감
	지적 능력 향상	자기 발견	새로운 자신의 모습을 발견
		집중력	교사 및 수업에 집중
		창의력	창의적 활동
	정서 경험 다양화	호기심	문화예술 작품을 찾아봄
		외부세계 탐색	미술 도구, 악기 탐색, 동네 탐색
		긍정 정서	즐거움, 자유로움, 기대감, 행복
	정서적 성숙	부정 정서	지루함, 소외감
		정서 안정	정서 발산 및 해소, 치유
		자기표현의 성숙	정서표현, 인정욕구 표현, 자유로운 자기표현, 발표력
관계	행동 조절 증가 사회적 관계의 확대	자기조절	인내, 노력
		도래 관계	새로운 친구를 만남
	관계의 질 향상	친밀감	강사와의 친밀감 도래와의 친밀감
		유대감	도래와 유대감
		긍정적 상호작용의 계기	강사, 도래, 부모와의 관계
	사회기술 향상	협동 능력	협동심, 협동의 즐거움, 단체 생활에 적응, 책임감 도래 관계
		의사소통 능력	강사와 의사소통 친구와 긍정적 상호작용
	사회·환경 공동체 의식 함양	동네에 대한 애정	동네 관찰
		지역 사회 내 문화예술 활동	발표회

□ 초점집단 인터뷰 결과, 개인 차원, 관계 차원, 사회·환경 차원에서 아동 대상 문화예술교육 효과가 나타남. 개인 차원의 효과는 문화예술 능력 향상, 긍정적 자기인식 향상, 지적 능력 향상, 정서 경험 다양화, 정서적 성숙, 행동조절 증가였으며, 관계 차원의 효과는 사회적 관계의 확대, 관계의 질 향상, 사회기술 향상이 나타남. 사회·환경 차원의 효과로는



공동체 의식 함양이 나타남.

## □ 개인 차원

### - 문화예술 능력 향상

- 인터뷰 결과, 아동 대상 문화예술교육의 문화예술 감수성, 문화예술 친숙성, 문화예술 감상 태도의 성숙 효과가 발견됨. 문화예술 감수성과 친숙성 효과는 전술하였음. 문화예술 감상이란 단순히 수용적인 지각이나 인식이 아니라 능동적인 자각임(이봉식, 2011). 문화예술 감상 태도가 성숙한 개인은 능동적이고 진지한 태도로 작품을 감상하고 관찰하며, 작가의 삶이나 작품에 얽힌 이야기를 궁금해함. 또, 생활을 예술 작품으로 표현하고자 함(정미경, 2006).
- 아동은 악기 연주, 만들기, 연극 등 신체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이를 즐김. 이들은 문화예술 교육 활동을 통해 악기 연주 실력, 음악과 합주에 대한 이해력, 미술 도구 사용, 미술 사조 등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음. 평소에도 음악과 미술을 즐기게 되었으며, 이 전에는 즐기지 않던 장르의 음악을 시도하고, 서로 다른 악기 소리의 하모니를 감상하게 되는 등 문화예술에 대해 더 열리고 성숙한 태도를 보임.

저는 계속 길 가다가 합주 때 했던 곡이 생각나서 계속 흥얼흥얼거리게 되고, 그래서 뭔가 재밌어요[아동 참여자 11/교육 참여자(아동)]

원래 잔잔한 음악 싫어했는데 이제 들어도 괜찮아요. [아동 참여자 10/교육 참여자(아동)]

### - 긍정적 자기인식 향상

- 인터뷰 결과, 아동 문화예술교육의 자기효능감 효과와 자기발견 효과가 발견됨. 자기효능감은 전술하였음. 자기발견이란 자기도 모르고 있던 자신의 능력이나 성향을 등을 찾아내는 일임(신명희 외, 2017).
- 아동은 문화예술교육 시간에 협동과 개인 작업을 통해 미술, 음악, 연극 작품을 완성하고, 이를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발표함. 가정으로 돌아가 부모님에게 작품을 자랑하고, 무대에서 공연을 펼침. 아동은 이 과정에서 자신의 새로운 능력을 발견하고, 친구, 교사, 부모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는 경험으로 자신감, 유능감, 성취감을 느낌. 집중하여 자신만의 작품을 완성하는 경험과 자신감, 성취감을 바탕으로 아동의 자기효능감이 향상됨. 특히, 아동복지시설의 아동이 칭찬과 성취감에 대한 언급을 빈번하게 하였음.

제가 금관악기를 잘 다뤘나 싶었어요. [아동 참여자 8/ 교육 참여자(아동)]

뭔가 하고 나서 항상 담당자한테 와가지고 ‘이거 했어요.’ 자랑한다든지 자기들도 성취감을 느끼거든요. 그런 데서 오는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성취감. 애들이 뭔가 자신의 것을 하나 만들었다는. [아동 참여자 4/ 기관 담당자]

#### - 지적 능력 향상

- 인터뷰 결과, 아동 문화예술교육의 집중력, 창의력, 호기심, 외부세계 탐색 효과가 발견됨. 아동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아동은 미술 도구, 악기 등을 탐색하고 실험하며, 주변 물체의 특징을 탐색하여 문화예술 작품 활동에 활용함. 아동은 예술 강사의 지도에 따라 새로운 율동과 미술작품에 자신만의 표현을 담아냄. 이는 창의력 향상을 의미함. 문화예술 활동에 재미를 느끼게 되면서 호기심을 갖게 되고, 양말목 인형 만들기 등 새로운 활동을 스스로 검색하여 찾아보기도 함. 문화예술 활동에 흥미와 관심이 생기고, 호기심과 재미를 느끼면서 점차 수업시간에 강사의 말과 행동에 더욱 집중함.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율동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강사 선생님의 아동들의 생각을 이끌어내주고 거기에 맞춰 아동들의 창의성이나 표현력 등을 볼 수 있는 수업인 것 같습니다[아동 참여자 3/ 기관 담당자]

#### - 정서 경험 다양화

- 인터뷰 결과, 아동은 문화예술 교육을 통해 다양한 정서를 경험하였음. 특히, 즐거움, 신남, 행복함의 긍정 정서를 가장 많이 언급하였음. 스트레스 해소, 왕따 경험의 치유와 같은 정서 해소 효과도 발견되었음. 일부 학생은 부정 정서 경험을 언급하였는데, 학부모나 교사의 의지로 교육에 참여한 경우 지루함을 느낌. 오케스트라 프로그램과 같이 참여자가 많은 교육의 경우, 본인이 관심을 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예술 강사에게 소외감을 표현하는 경우가 있었음.

좀 더 많은 것들도 알아 가고 칫칫했던 마음도 많이 풀리는 것 같아요. 수업 때문에, 물론 다른 활동도 했지만 수업 때문에 좀 힘들었던 마음에 단비가 찾아라. (웃음) [아동 참여자 17/ 교육 참여자(아동)]

#### - 정서적 성숙

- 인터뷰 결과, 아동 문화예술 교육의 자기표현 성숙 효과, 적극적 참여 효과가 발견됨. 아동은 문화예술교육 과정에서 작품을 통해 색깔과 형태, 신체 움직임, 표정, 박자, 소

리 등을 사용하여 자신을 표현하였음. 특히, 작품이나 활동 과정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고 자기표현을 하게 되면서 아동은 왕따 경험 등 감추고 있던 마음의 상처를 드러내고, 이를 통해 정서를 해소함.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친구와 강사에게 자신을 표현하고 피드백을 받으면서, 아동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타인이 수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적절하게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는 법을 익히게 됨. 이때, 즐거움과 성취감, 친구, 강사, 기관 담당자, 부모의 긍정적인 피드백은 아동의 적극적인 자기표현을 끌어냄. 정서적 성숙은 아동의 사회성 향상과 또래 친구들과의 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함.

#### - 행동조절 증가

- 인터뷰 결과, 아동 문화예술교육의 자기조절력 향상 효과가 발견됨. 자기조절에 대하여는 전술하였음.
- 아동은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에 달성하기 위해 스스로 행동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능력을 익힘. 이들은 더 좋은 소리를 내기 위해서, 더 나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힘들더라도 인내하고 노력함. 특히, 악기 연주와 같이 향상된 실력을 금방 확인할 수 있는 교육 활동에서 이러한 효과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남.

우선은 제가 숙제를 내주거든요. 연주도 집에서 입술 계속 연습해보고 하는데. 정~말 잘해요. 네. 친구들이 되게 좋아하는 거 같아요. 그거를. [아동 참여자 7/ 예술강사]

### □ 관계 차원

#### - 사회적 관계의 확대

- 인터뷰 결과, 아동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관계 확대 효과가 발견됨. 아동은 문화예술교육에서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 사귀며, 이들과 학교에서도 친밀한 관계가 됨.

#### - 관계의 질 향상

- 인터뷰 결과, 아동 문화예술교육의 친밀감, 유대감, 긍정적 상호작용의 계기 효과가 발견됨. 친밀감 효과에 대하여 전술하였음. 유대감이란 개인이 자신에게 의미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타인, 활동, 사회 집단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관심을 쏟음으로써 소속감과 심리적 안녕감을 얻는 상태임(Hagerty, Lynch-Suer, Patusky, & Bouwsema, 1993). 본 연구에서는 강사 및 또래 참여자와의 친밀감, 참여자와의 유대감, 강사, 참여자, 부모와의 긍정적 상호작용의 계기 효과가 발견됨.

- 아동은 문화예술교육 활동 내내 또래 및 강사와 상호작용함. 또래 참여자와 팀을 이루어 오케스트라, 연극 활동을 하면서 친밀감이 높아질 뿐 아니라 공동 목표를 달성한다는 유대감이 향상됨. 아동은 교육 시간에 만든 작품을 통해 예술 강사, 친구, 부모에게 칭찬과 관심을 받는 계기가 만들어지고, 교육 시간에 있었던 일을 자연스럽게 나누게 됨.

(아이들이 단체생활을 하면서) 그 안에서 또 이루어지는 단원들에 그런 뭔가 끈끈함이 생기는데. [아동 참여자 5/ 기관 담당자]

활동을 한 거를 통해가지고 선생님들도 행동들을 지켜보고 칭찬해주거나 지지해주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또 이렇게, 또 소통하고 하는 것들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죠. 아무래도 저희 애들은 그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요.[아동 참여자 2/ 기관 담당자]

#### - 사회기술 향상

- 인터뷰 결과, 아동 문화예술 교육을 통해 아동의 협동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됨. 협동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에 대해 전술하였음.
- 아동은 또래 참여자와 함께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협동심이 생기고 협동의 즐거움을 느낌. 단체 생활에서 자신의 역할에 책임을 갖고 행동하며 자기주장만 하지 않고 양보를 하는 등 단체 생활에 적응함. 협동을 통해 또래 참여자 및 강사와 자주 의사소통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갈등 상황에서 참고 넘어가는 등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됨.

애들이랑 협동하는 활동을 좀 더 자신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략) 양보할 때도 있고, 만약에 제가 양보했으면 그 다음 주에는 "내가 양보할게" 하면서 다른 애들이 빠지고, 양보를 해요. [아동 참여자 17/ 교육 참여자(아동)]

#### □ 사회·환경 차원

##### - 공동체 의식 함양

- 인터뷰 결과, 아동 문화예술교육의 지역사회 내 문화 활동 효과와 동네에 대한 애정 효과가 발견됨. 동네에 대한 애정 효과는 교육과정 중 동네를 탐방하며 관찰하는 활동을 한 경우에만 발견되었음.
- 아동은 자신의 미술작품을 지역 기관에 전시하거나 오케스트라, 연극 작품 등을 지역

사회에서 공연함. 이 활동은 아동의 자신감과 자기효능감에 큰 영향을 주었음. 인터뷰 참여자 집단 중 한 집단은 문화예술 교육과정 중 동네를 탐방하며 관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자로 동네의 한 집을 만드는 활동을 함. 이 활동 이후, 아동은 동네와 학교에 애정이 생겼음.

학교에서 가까운 동네를 걸어서 돌아다니면서 사진도 찍고, 그러다 보니까 (중략) 마을부터, 학교도 다 뭐라 해야 하지? 되게 추억에 남을 것 같은. 너무 예뻐요. [아동 참여자 17/ 교육 참여자(아동)]

- 아동의 문화예술교육 효과는 교육 참여자, 예술 강사, 학부모, 기관 담당자 등 여러 구성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복합적이고 연쇄적으로 발생함. 사례 중, 어머니의 강압적인 태도로 문화예술 교육에 거부감을 가진 아동 참여자가 예술 강사의 경청, 허용적인 태도로 음악에 관심을 갖게 된 경우가 있었음. 이후 기관 담당자와 예술 강사의 지속적인 회의와 관심을 통해 아동의 참여도가 높아졌고, 이는 아동이 본인의 작품을 완성하고, 작품을 통해 자기를 표현하며 지역 기관 대표로 공연을 하는 바탕이 됨.
- 아동의 문화예술 교육 효과는 상술한 단기적 효과뿐 아니라 장기적 효과도 나타남. 시간이 흐른 뒤 기대보다 큰 변화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움. 인터뷰에서, 참여도가 낮고 산만했던 아동이 스스로 연계 프로그램을 신청한 경우가 있었음. 이 아동은 이전 프로그램을 담당했던 예술 강사도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음악 활동에 대한 태도가 진지해져 있었고, 재미를 느끼고 있었음. 따라서 문화예술 교육이 장기적으로 아동에게 문화예술에 대한 긍정적인 씨앗을 심어주었다고 할 수 있음.
- 종합하면, 본 질적 연구에서 아동 대상 문화예술 교육은 개인 차원에서 문화예술 능력 향상, 긍정적 자기인식 향상, 지적 능력 향상, 정서 경험 다양화, 정서적 성숙, 행동조절 증가에 도움이 되었음. 관계 차원에서 사회적 관계의 확대, 관계의 질 향상, 사회기술 향상에 도움이 되었음. 사회·문화 차원에서 공동체 의식 함양에 도움이 되었음.
- 본 질적 연구를 통해 새롭게 발견된 효과는 문화예술 감상 태도의 성숙(문화예술 능력 향상), 자기효능감, 자기발견(긍정적 자기인식 향상), 집중력, 외부세계 탐색(지적 능력 향상), 정서 경험 다양화, 사회적 관계의 확대, 긍정적 상호작용의 계기(관계의 질 향상), 협동 능력(사회기술 향상), 공동체 의식 함양 효과임. 질적 연구 참여자들은 자기 조절과 협동 능력을 가장 자주 언급하였음. 동네에 대한 애정 효과는 교육과정 중 동네를 탐방하고 관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한 집단에서만 나타남.

### 3.2.3. 청소년 대상 문화예술교육 효과

〈표 II-77〉 청소년기 문화예술교육의 차원별 효과

차원		범주	하위 요인
개인	문화예술 능력 향상	문화예술 친숙성	문화예술 활동을 좋아함
		문화예술 감수성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 욕구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음
	긍정적 자기인식 향상	자기효능감	자신감, 성취감
		자기 발견	자신의 새로운 모습 발견, 적성을 찾음
	지적 능력 향상	집중력	작품 활동에 집중
		독서력	어휘력 증대, 책을 빨리 읽게 됨
		외부세계 탐색	악기, 코딩 프로그램 탐색
	정서 경험 다양화	긍정 정서	즐거움, 자유로움
부정 정서		지루함	
정서 안정		정서 발산 및 스트레스 해소	
정서적 성숙		자기표현의 성숙	자유로운 자기표현 증가, 발표력
		적극적 참여	
관계	관계의 질 향상	긍정적 상호작용의 계기	강사와 관계
사회·환경	공동체 의식 함양	지역 사회 내 문화예술 활동	발표회 참여

□ 초점집단 인터뷰 결과, 개인 차원, 관계 차원, 사회·환경 차원에서 청소년 대상 문화예술 교육 효과가 나타남. 개인 차원의 효과는 문화예술 능력 향상, 긍정적 자기인식 향상, 지적 능력 향상, 정서 경험 다양화, 정서적 성숙이었으며, 관계 차원의 효과는 관계의 질 향상이 나타남. 사회·환경 차원의 효과로는 공동체 의식 함양이 나타남.

#### □ 개인 차원

##### - 문화예술 능력 향상

- 인터뷰 결과, 청소년 대상 문화예술 교육의 문화예술 감수성, 문화예술 친숙성 효과가 발견됨. 청소년은 문화예술 교육을 통해 코딩과 악보 보기 등 음악을 할 수 있고, 즐기게 됨. 이들은 심화 프로그램, 연계 프로그램 등을 통해 코딩과 음악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싶어 하였음.

좀 더 어려운 심화내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청소년 참여자 3/ 교육 참여자]

- 긍정적 자기인식 향상

- 인터뷰 결과, 청소년 문화예술교육의 자기효능감과 자기발견 효과가 발견됨. 연극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 참여자는 발표와 연극 공연 경험으로 자신감과 유능감을 느낌. 문화예술교육에서 생긴 자신감은 학교에서 발표할 때도 이어짐. 또,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자신의 능력과 적성을 발견하였음. 문화예술교육에서의 활동이 대학입학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었음.

그냥, 제 적성을 찾게 됐어요.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를 알게 되었어요[청소년 참여자 7/ 교육 참여자]

- 지적 능력 향상

- 인터뷰 결과, 청소년 문화예술 교육의 집중력, 독서력, 외부세계 탐색 효과가 발견됨. 코딩, 연극 등 문화예술 활동에 관심이 있는 참여자의 경우 수업내용과 강사의 말에 집중도가 높아짐. 대학생, 군인 등 자신이 맡은 역할을 표현하거나 주변의 사물과 인물을 자신의 작품에 담기 위해 호기심을 갖고 새로운 인물과 사물을 탐색함. 한편, 연극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은 연극 활동을 위해 대본을 읽고 표현하는 연습을 하며 어휘력과 이해력이 늘었다고 하였음. 이 청소년은 이전에 자신의 어휘력과 독서력이 또래 친구와 비교해 낮다고 여기고 있었음.

연극하고 나서, 어휘력이 높아진 것 같아요. 모르는 단어 많이 알게 됐어요. 연극 때 책을 좀 읽었는데, 책 읽는 속도가 빨라졌어요. [청소년 참여자 7/ 교육 참여자]

- 정서 경험 다양화

- 인터뷰 결과, 청소년은 문화예술 교육을 통해 다양한 정서를 경험하였음. 청소년의 경우 스트레스 해소를 자주 언급함. 학교에서 하지 않는 활동을 통해 재미를 느끼고, 문화예술 교육이 있는 날을 기다림. 반면, 본인의 의사가 아닌 부모의 의지에 따라 참여한 참여자의 경우 지루함과 귀찮음을 느낌.

이거를 하러 오는 토요일이 자기가 되게 스트레스가 풀리는 날이라고. [청소년 참여자1/ 기관 담당자]

- 정서적 성숙

- 인터뷰 결과, 청소년 문화예술 교육의 자기표현 성숙 효과가 발견됨. 청소년 참여자는 문화예술 교육 초반 자기표현에 익숙하지 않다는 특징이 있음. 예술 강사가 자유롭게

자기표현을 하도록 유도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만든 결과물이 평가받지 않는다는 사실에 익숙하지 않아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함. 그러나 점차 자신의 의견을 반영해주는 강사를 통해 자신에게 허용되는 자유와 평가받지 않음에 익숙해지면서 솔직하게 자신을 표현하기 시작함. 이후, 자기 얘기를 발표하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물어보는 등 적극적으로 교육 활동에 참여함.

받아들이는 방식이 변해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초반엔 정말 못 받아들이거든요.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게 정말 저희도 느껴졌고, 왜냐면 이 아이들은 모든 걸 정해놓고 그걸 시키는 거에 익숙해져 있다는 게 너무 느껴져서 저희한테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어떻게 해야 돼요? 학생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라고 말을 해도,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초반엔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그냥 하는데, 이것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재밌고 아무래도 조금 더.. 틀이 없는 수업이다 보니, 친구들이 가지고 오는 소재가 되게 솔직해져서 좋았어요. [청소년 참여자 2/ 보조강사]

#### □ 관계 차원

##### - 관계의 질 향상

- 인터뷰 결과, 청소년 문화예술교육의 긍정적 상호작용의 계기 효과가 발견됨. 특히 예술 강사의 칭찬과 인정 등 강사와의 긍정적 상호작용의 계기 효과가 나타났음.
- 본 인터뷰에 참여한 청소년은 아동복지시설 기관 참여자 집단과 개인 작품을 만드는 집단이었음. 아동복지시설 참여자의 경우 모든 참여자와 이미 상당한 시간을 함께하며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고, 개인 작품을 만드는 집단의 경우 협동 기회가 적어 친밀감이나 유대감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음.

#### □ 사회·환경 차원

##### - 공동체 의식 함양

- 인터뷰 결과, 아동 문화예술교육의 지역사회 내 문화예술 활동 효과가 발견됨. 청소년은 자신의 작품을 지역 미술관에 전시하거나 지역 기관에서 연극 공연을 함.

□ 종합하면, 청소년 대상 문화예술교육은 개인 차원에서 문화예술 능력 향상, 긍정적 자기인식 향상, 지적 능력 향상, 정서 경험 다양화, 정서적 성숙에 도움이 됨. 관계적 차원에서 관계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었음. 사회·문화 차원에서 공동체 의식 함양에 도움이 됨.

□ 본 질적 연구를 통해 새롭게 발견된 효과는 자기효능감, 자기 발견(긍정적 자기인식 향



상), 집중력, 독서력, 외부세계 탐색(지적 능력 향상), 정서 경험 다양화, 긍정적 상호작용의 계기(관계의 질 향상), 지역사회 내 문화예술 활동(공동체 의식 함양) 효과임. 참여자들이 가장 자주 언급한 효과는 스트레스 해소이며, 중요하게 언급한 효과는 정서적 성숙임.

### 3.2.4. 성인 전기 대상 문화예술교육 효과

〈표 II-78〉 성인 전기 문화예술교육의 차원별 효과

대범주	하위요인	주제
개인	문화예술 능력 향상	문화예술 활동을 즐김,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욕구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음, 일상의 재발견
		문화예술 성취 욕구
	문화예술 감상 태도의 성숙	진지한 감상 태도, 작가의 의도 파악 시도
	긍정적 자기인식 향상	성취감, 유능감, 뿌듯함
		예술 활동을 통해 자신과 대화, 타인과 상호작용을 통한 자기 이해
		자신에 대한 긍정적 이해
	자기 정체성 형성	예술가 정체성 형성
	지적 능력 향상	창의력
		새로운 발상 시도
	정서 경험 다양화	외부세계 탐색
		새로운 경험
		긍정 정서
		자유로움, 즐거움
관계		정서 안정
		힐링
	정서적 성숙	자유로운 자기표현, 소통을 위한 자기표현 방법을 고민
	행동 조절 증가	자기조절
		자기조절, 노력, 인내
		주체성
		적극적 참여
	워크-라이프 밸런스 향상	워라밸 충족
	사회적 관계 확대	참여자 및 지역 주민과의 관계
		참여자 및 지역 주민과의 사회적 교류
	관계의 질 향상	가족관계
		참여자들 간 관계
	사회기술 향상	직장 내 관계
		협업의 중요성, 협업의 즐거움
		참여자들 간 관계
사회·환경		강사와 의사소통
		참여자들과 긍정적 상호작용
	자기 초월	의사소통 능력
		참여자와 긍정적 상호작용
		수용적 태도
		타인수용
사회·환경	공동체 의식 함양	생성감
		타인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
	문화예술을 통한 소통	지역 사회 내 문화예술 활동
		지역 내 기관과 연계하여 문화예술 활동 진행
사회·환경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타인과 소통 및 소통의 욕구 증대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타인과 소통 및 소통의 욕구 증대

□ 성인 전기 대상 문화예술교육은 개인 차원, 관계 차원 및 사회·환경 차원에서 효과가 나타남. 개인 차원의 효과는 문화예술 능력 향상, 긍정적 자기인식 향상, 지적 능력 향상, 정서 경험 다양화, 정서적 성숙, 행동조절 증가, 워크-라이프 밸런스 향상이었으며, 관계 차원의 효과는 사회적 관계 확대, 관계의 질 향상, 사회기술 향상, 자기 초월이 나타남. 사회·환경 차원의 효과로는 공동체 의식 함양, 문화예술을 통한 소통이 나타남.

## □ 개인 차원

### - 문화예술 능력 향상

- 인터뷰 결과, 성인 전기는 문화예술교육으로 인해 문화예술친숙성과 문화예술감수성, 문화예술 감상 태도의 성숙이 발견됨. 참여자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문화예술교육이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고, 주말에 취미 활동으로 문화예술을 즐김. 또한 일상에서 미술, 공예 활동에 대해 생각함. 이는 참여자의 문화예술 친숙성과 문화예술 감수성의 향상을 의미함. 문화예술교육은 참여자로 하여금 예술작품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작가 의도를 이해하고자 하는 태도를 갖게 함. 이는 참여자의 문화예술 감상 태도가 성숙하였음을 의미함.

예전에는 작품을 보고 1초만에 지나갔다면, 지금은 작가가 저기다가 어떤 의도를 숨겨뒀을까? 궁금해하게 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작품을 만든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분명 이해하지 않고 넘어갈 건데, 내가 애써 만들어 놓은 거를 그렇게 지나가면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면은 재료를 그냥 갖다 붙이기만 한 게 아니라 갈고 닦아야 했었던 거니까. 나도 저 사람의 마음을 알아줘야 이 사람이 나중에 내 걸 보고 마음을 알아주겠구나. 인생 기브 앤 테이크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성인 전기 참여자 10/ 교육 참여자]

### - 긍정적 자기인식 향상

- 인터뷰 결과, 성인 전기 참여자들은 문화예술교육으로 인해 자기효능감, 자기 이해, 자아존중감이 향상되었음. 참여자들은 자신이 만든 작품을 보며 놀라움이나 뿌듯함을 표현함. 이는 참여자의 자기효능감과 자존감의 상승으로 이해할 수 있음. 또한, 자신을 작품에 더욱 잘 표현하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 및 다른 참여자들과 대화를 시작함. 이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자기 이해가 깊어지는 경험을 하고, 자신을 예술가로 여기게 되기도 함.

청년들이 (자기 작품에) 대해서 뭔가 스스로에 대한 어떤 자부심? 이런 것들을. 그리고 아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본인들도 의아해하는 상황들이 있

었어요. 이걸 내가 한 거예요? 막 이런 사람도 있었거든요. [성인 전기 참여자 7/ 예술강사]

#### - 지적 능력 향상

- 인터뷰 결과, 성인 전기 참여자들은 문화예술교육으로 인해 창의력이 향상되고 외부 세계를 더욱 탐색하게 되었음. 학창 시절 수준에서 머물러 있던 예술교육 수준이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도구의 사용으로 이어졌으며, 작품 활동으로 인해 생활의 재발견이나 전에는 깨닫지 못한 가치를 발견하는 창의력의 향상을 보였음. 창의적 발상은 자기표현과 자기 이해의 바탕이 됨.

계속해서 창의적인 생각들을 끄집어 낼 수 있다, 라는. 이 프로그램 안에 만드는 과정들, 작품 활동들도 재밌었지만 그런 생활의 재발견이나 그런 가치들을 뽑아낼 수 있다, 라는 거? 그 안에서 또 저의 개인의 가치를 좀 만들어 낼 수 있었던 경험으로 다가온 것 같아서. 그게 되게 좀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성인 전기 참여자 11/ 교육 참여자]

#### - 정서 경험 다양화

- 인터뷰 결과, 성인 전기 참여자들은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면서 긍정 정서와 정서 안정화를 경험하였음. 프로그램 참여는 일반 예술 활동과 다르게 성인 전기 참여자에게 일상에서의 일탈 같은 자유로운 느낌을 제공함. 또한, 회사 생활에서의 문제로 인해 지쳤던 참여자들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는 정서 안정을 경험함. 특히, 힐링의 경험은 참여자들 간 교류 없이 개인 작업을 하는 문화예술교육 활동에서 자주 언급됨.

저는 그렇게 외향적인 성격 아니어서 그림만 그리고 가는 것만 해도 스트레스가 풀리니까 취미생활이죠. 좋았던 거 같아요. (중략) 진짜 그림만 그리고, 막 대화가 굳이 필요 없으니까. 인사만 하고 자기 그림만 그리고 이래서. 회사에서 관계에 지치니까 여기 와서 내 그림만 그리고 그냥 보고 사진 찍고 가니까 뭐. 관계에 크게 지친 사람이라면 그냥 그대로 힐링하고 가는 거여서 괜찮은 것 같아요. [성인 전기 참여자 5/ 교육 참여자]

#### - 정서적 성숙

- 인터뷰 결과, 성인 전기 대상 문화예술교육의 자기표현 성숙 효과가 발견됨. 성인 전기 참여자들은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통해 자기표현을 경험함.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자기표현이 아닌 작품으로 타인과 소통이 가능한 자기표현을 경험하면서 일방적인 자기표현과 타인과 소통 가능한 자기표현 사이에서 고민하는 등 정서적 성숙을 보였음.

제 생애 최초로 저를 표현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드는 시간이었어서, 그 시간 자체로 의미가 되게 있었어요. 글로 나를 표현할 수도 있고 코노(코인 노래방)가서 감정을 노래 부르면서 표현할 수도 있었는데, 작품으로 나의 신념이나, 생각들을 알릴 수 있어서 좋았고, 다만 고민을 많이 했던 게 내가 이거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정도로 작품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나만 이해해도 상관없으니까, 왜냐면 내가 제가 표출하는 것만 중점을 두면, 남들이 이해하든 안하든 상관없으니까. 그렇게 작품을 낼 것인가. 그런 고민들 하나하나가, 태어나서 해보지 않았던 것들이기 때문에, 고민하는 거 자체, 또 만드는 거 자체가 되게 재밌었고 저 자체론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성인 전기 참여자 10/ 교육 참여자]

#### - 행동조절 증가

- 인터뷰 결과, 성인 전기 문화예술교육의 자기조절, 주체성 효과가 발견됨. 성인 전기 참여자들은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배우고, 인내하며 더 나은 표현을 위해 고민하고 노력함. 이는 자기조절의 향상을 의미함.

#### - 워크-라이프 밸런스 향상

- 성인 전기 참여자들은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통해 자기 조절과 워크-라이프 밸런스 향상을 경험하였음. 참여자들은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취미 생활을 갖게 됨. 평소에 참여하지 못했던 예술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일상에서 누리지 못했던 취미 활동이 참여자로 하여금 워크-라이프 밸런스를 충족하는 느낌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이렇게 딱히 할 시간이 없는데 이런 거 통해서 가까운 데서 미술 배우는 느낌이라서, 취미생활 하는 기분이어서 저는 좀. 워라벨을 충족시키는 느낌. [성인 전기 참여자 5/ 교육 참여자]

### □ 관계 차원

#### - 사회적 관계 확대

- 성인 전기 참여자들은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면서 개인적 효과 외에도 사회적 관계가 확대되는 경험을 하게 됨. 프로그램 활동은 참여자들이 평소 교류할 기회가 없었던 다른 지역 구성원들과 교류의 기회를 증가시키고, 같은 활동을 통해 친근감을 경험하며 관계가 확장되는 경험을 함.

뭐 여기 OO(지역 이름)에 있지만 다른 기관 사람들을 잘 못 보잖아요. 그런 기관 분들이랑 좀 계속 얼굴 트고 하니까 막 딱히 뭘 안 해도 같이 이렇게 같은 거 하고 있으면 서로 막 칭

찬해주고 이렇게 하다가 좀 그래도 친해지고 하더라고요. 엄청 친한 건 아니라도, 그냥 그런  
뒀. [성인 전기 참여자 3/ 기관 담당자 및 교육 참여자]

#### - 관계의 질 향상

- 성인 전기 참여자들은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면서 프로그램 내 인간관계뿐 아니라 가족관계나 회사 생활에서의 대인관계에서 작품을 매개로 긍정적 상호작용을 하게 됨. 문화예술교육은 참여자로 하여금 가족이나 회사 동료들에게 작품을 소재로 이야기를 나누는 계기를 제공하고 이는 긍정적 상호작용의 증가로 이어짐.

회사에서는 저도 제가 찍은 걸 저희 회사 사람들에게 막 보여드렸거든요, 사진 찍은 걸 이렇게 보였다가, 실제로 지금 원래는 저 혼자 했는데 이제는 인원을 더 보충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다른 직원분도 같이 오셔서 같이 하고 있어요. 가족들하고는 제가 찍은 사진 보여주고 자랑하고, 관계까지 는 딱히 뒀. [성인 전기 참여자 5/ 교육 참여자]

#### - 사회기술 향상

- 성인 전기 참여자들은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통해 협동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을 보였음. 이러한 효과는 협동을 통해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집단에서만 나타났음. 참여자들은 프로그램 내 참여자들과 소통 및 협동하며, 작품을 완성함. 이들은 혼자만의 힘으로 작품이 완성되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과 서로의 도움을 통해 작품이 완성된다고 여김. 이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협동의 즐거움과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고, 더 나은 작품을 위한 감사 및 참여자들과의 의사소통 능력을 익힘.

이게 (참여자들과) 교감하면서, 소통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가르쳐주고, 또 서로에게 배우고, 이게 진짜 교육 활동의 진짜로 의미구나, [성인 전기 참여자 6/ 프로그램 기획자]

#### - 자기 초월

- 인터뷰 결과, 성인 전기 문화예술교육의 수용적 태도와 생성감 효과가 발견됨. 수용적 태도란 타인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조망수용능력(방은영, 2019)으로 타인의 견해와 감정, 사고를 이해하며 받아들이는 능력임. 생성감은 Erikson이 제시한 중년기 발달 과업으로 다른 사람과 다른 일들을 돌볼 가치가 있고 생각하는 신념임(이옥희, 이지연, 2012). 타인의 행복하고 충만한 삶을 바라며, 이를 위해 자신이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도움을 주고 싶어 하는 이타적 태도임(Erikson, 1969).
- 성인 전기 참여자들은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통해 수용적 태도와 생성감을 경험하게

됨. 자기초월 효과는 협동과 참여자 및 강사와의 빈번한 의사소통을 거쳐 문화예술 작품을 완성한 집단에서만 발견됨. 이들은 자신의 배움이 일회적, 개인적 수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음을 인식함. 문화예술교육은 참여자들로 하여금 관계에서 자신의 범위를 더욱 확장하고, 타인에게 더욱 열린 태도를 갖게 하며, 타인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자기초월 경험을 하도록 함.

아, 뭔가 나도 그러면 누군가에게는 전문적인 그런 기술이나 지식이 아니더라도, 가르침을 줄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 배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성인 전기 참여자 9/ 교육 참여자]

## □ 사회·환경 차원

### - 공동체 의식 함양

- 성인 전기 참여자들은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지역 내 노인들과 교류하며 문화예술 활동이 기관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로 확장되는 경험을 함. 지역 주민들과 작품을 매개로 한 소통과 교류를 경험하게 됨.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과 교류한 경험이 있는 집단은 향후 지속적으로 지역 내 기관과 연계하여 문화예술 활동을 이어가고자 하였음.

작지만, 작은 집의 담벼락을 활용해서 지역 가서 어르신들이랑 가서 이야기도 나누고, 하면서 벽화만 그린 건 아니거든요. 가서 이야기도 나누고 커피도 얻어 마시고 마지막 날은 동네 어르신들 모셔다가 부침개랑, 먹을 거 뭐 사다 놓고 파티도 하고 이랬거든요. [성인 전기 참여자 8/예술강사]

### - 문화예술을 통한 소통 확장 욕구

- 성인 전기 참여자들은 문화예술을 매개로 타인과 소통하고자 하는 소통 확장의 욕구를 또한 경험함. 예술 활동에 본인의 이야기를 표현하면서, 다른 참여자와 작품을 통해 그 참여자의 내적 이야기를 듣고 교감하는 경험을 하게 됨. 또한, 작품 활동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소통하고자 하는 욕구를 경험하게 됨. 문화예술을 통한 소통 확장 욕구는 협동 작업, 문화예술을 통한 지역 주민과의 교류 경험이 있는 집단에서만 발견됨. 이들은 협동과 지역 주민과 교류 과정에서 문화예술이 소통을 위한 훌륭한 매개체가 될 수 있음을 자연스럽게 경험한 것으로 보임.

작품에 내 이야기가 들어가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른 작품 활동하는 참여자분들의 이야

기도 듣게 되고, 이거 왜 만들었어요 물어보면 그 사람의 정신세계도 와 닿고 하니까 아 되게 교감이 많이 돼서. 아 그러면은 나도 뭔가 이 작품 안에 담고 싶다. 뭔가 표현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만든 작품도, 뭔가 노래. 노래를 되게 좋아하지만 그 안에 뭐라고 해야 되지? 나를 좀, 얹매이고 감싸고 있었던 어렸을 때의 외로움 이라든가, 아니면 좀 애정에 대한 결핍이라든가 이런 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 나를 표현하고 싶다[성인 전기 참여자 11/ 교육 참여자]

- 종합하면, 성인 전기 대상 문화예술 교육은 개인 차원에서 문화예술 능력 향상, 긍정적 자기인식 향상, 지적 능력 향상, 정서 경험 다양화, 정서적 성숙, 행동조절 증가, 워크-라이프 밸런스 향상에 도움이 됨. 관계적 차원에서 사회적 관계 확대, 관계의 질 향상, 사회기술 향상, 자기 초월에 도움이 됨. 사회·문화 차원에서 공동체 의식 함양, 문화예술을 통한 소통에 도움이 됨.
- 본 질적 연구를 통해 새롭게 발견된 효과는 문화예술 감상 태도의 성숙(문화예술 능력 향상), 자기효능감, 자기 이해, 자기 정체성 형성(긍정적 자기 인식 향상), 외부세계 탐색(지적 능력 향상), 정서 경험 다양화, 워크-라이프 밸런스 향상, 사회적 관계 확대, 긍정적 상호작용의 계기(관계의 질 향상), 수용적 태도와 생성감(자기 초월), 공동체 의식 함양, 문화예술을 통한 소통 효과임.
- 성인 전기의 경우, 인터뷰 참여 집단에 따라 문화예술교육 효과가 상이하였음. 문화예술 활동을 매개로 참여자들과 사회적 상호작용이 자주 일어나고, 협동이 필요한 활동을 하는 집단에서는 자기 이해, 협동 능력, 수용적 태도와 생성감, 공동체 의식 함양, 문화예술을 통한 소통과 같은 효과가 발견됨. 반면, 참여자들 간 사회적 상호작용이 그다지 일어나지 않고, 개인 작품 활동을 하는 집단에서는 힐링, 워크-라이프 밸런스 향상과 같은 효과가 발견됨.



### 3.2.5. 성인 중기 대상 문화예술교육 효과

〈표 II-79〉 성인 중기 문화예술교육의 차원별 효과

대범주	하위요인	주제
개인	문화예술 능력 향상	문화예술 활동을 좋아함,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욕구
		문화예술교육의 후속적 참여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음
		문화예술 성취 욕구
	문화예술 감상 태도의 성숙	진지한 태도
	긍정적 자기인식 향상	자기효능감
		성취감, 자신감
	지적 능력 향상	자아실현
		육아와 사회활동으로 잊었던 자신을 찾고 실현
	정서 경험 다양화	호기심
		악기에 대한 호기심
관계	정서적 성숙	외부세계 탐색 및 이해
		새로운 경험
	정서적 성숙	자유로움, 즐거움, 활기, 행복
		힐링
	정서적 성숙	자유로운 자기표현
		적극적 참여
	사회적 관계 확대	참여자와 친구가 됨, 참여자의 가족 구성원과 사회적 교류
		자녀와 관계
		가족관계
		참여자들 간 관계
	관계의 질 향상	학생의 입장 이해, 자녀의 사회성 관찰
		자녀 이해 증진
	관계의 질 향상	자녀와 친밀감
		참여자와 친밀감
사회·환경	공동체 의식 함양	지역 사회에 대한 긍정적 인식
		지역구 및 관계기관에 대한 긍정적 인식
		자부심
		지역 주민임에 자부심
	공동체 의식 함양	지역 주민과 소통
		이웃과 친밀한 관계 유지
사회·환경	문화예술을 통한 소통	지역 사회 적응
		낯선 지역 사회에 적응
사회·환경	문화예술을 통한 소통	지속적인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문화예술을 매개로 지역 주민 등 타인과 소통하려는 욕구가 생김
		타인과 소통

□ 성인 중기 대상 문화예술교육은 개인 차원, 관계 차원 및 사회·환경 차원에서 효과가 나타남. 개인 차원의 효과는 문화예술 능력 향상, 긍정적 자기인식 향상, 지적 능력 향상, 정서 경험 다양화, 정서적 성숙이었으며, 관계 차원의 효과는 사회적 관계 확대, 관계의 질 향상이 나타남. 사회·환경 차원의 효과로는 공동체 의식 함양, 문화예술을 통한 소통이 나타남.

#### □ 개인 차원

##### - 문화예술 능력 향상

- 성인 중기 참여자들은 인터뷰 결과, 문화예술 친숙성과 문화예술감수성, 문화예술 감상 태도의 성숙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남.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이 하는 활동이 아닌 다른 프로그램에도 관심을 갖게 되고, 타인의 공연을 보면서도 공연 당사자의 마음을 공감하며 감상하는 등 문화예술 능력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음. 또한, 예술 작품 자체에 대한 완성도를 추구하면서 본인의 능력이 부족한 것은 아닌가 스트레스를 표현하기도 함. 이는 문화예술에 대한 성취 욕구의 표현으로 참여자의 문화예술 감수성이 증가하였음을 의미함.

'내가 능력이 없어서 이만큼밖에 안 되나?' 이런 거. '내가 능력이 없어서 이런 부분이 좀 안 나오나?' 이런 부분이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중략) 내가 경험한 것이 너무 부족하지는 않나.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스트레스예요.[성인 중기 참여자 7/ 교육 참여자]

##### - 긍정적 자기인식 향상

- 인터뷰 결과, 성인 중기 문화예술 교육의 자기효능감, 자아실현 효과가 발견됨. 자기효능감에 대하여는 전술하였음. 자아실현이란 자신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을 유지시키거나 상승시키려는 경향성이며 자기의 가능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경향성을 의미함(Maslow, 1974).
- 성인 중기 참여자들은 작품에 점차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집중하는 자신을 발견하고, 성취감을 느낌. 사회생활과 육아로 잊고 있던 자신의 모습을 찾고, 어릴 적 하고 싶었던 것을 하며 자아 실현하는 자신을 발견함. 이 과정에서 자존감이 향상되고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됨.

마음의 변화, 그 다음에 성취감, 그 다음에 자존감의 향상. 그런 것에 저는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이 분들이 정말 저를 만나면, 길거리에서 만나잖아요. "선생님 만나고 제가 정말 이 나

이에 무대 경험도 해 보고 그런 수업도 해 보고, OO지역 사람들과 친밀하게 지내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지금도 하거든요.[성인 중기 참여자 10/ 기관 담당자]

#### - 지적 능력 향상

- 성인 중기 참여자들은 문화예술활동 중 예술과 관련한 호기심을 표현함. 평소에 다루지 않았던 악기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경험하는 문화예술에 대한 호기심이 증가함. 또한 프로그램 활동을 같이 하는 참여자들에 대한 이해가 프로그램을 넘어 일상생활까지 확장되는 외부세계에 대한 탐색 및 이해가 증가하였음.

올해는 다른 문화, 타 지역에서 와서 결혼생활 하고 있는 엄마들이랑 같이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그 사람들만의 느낌을 많이 알 수 있어서 조금, 길 위에서보든 어디 다른 데에서 보더라도 그 사람들을 많이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의 고민 이런 것들을.[성인 중기 참여자 8/ 교육 참여자]

#### - 정서 경험 다양화

- 성인 중기 참여자들은 문화예술활동을 통해 무대에 올라가는 기쁨, 타인과 경험을 공유하는 기쁨 등 긍정 정서를 경험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오롯이 집중함으로써 자신을 표출하는 경험이 정서적 안정으로 이어지는 것을 경험함.

'나도 (무대에) 올라가고 싶다,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더 불러 일으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너무 부끄러운데. (웃음) 부끄러운데, 올라가는 기쁨이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과 나누는 기쁨도 있고, 나도 이렇게 이전에 내가 무대에 올라갔을 때, 요즘에 생각해 볼 때 점점 더 욕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성인 중기 참여자 7/ 교육 참여자]

어머니가 표현하기에 자기는 숲에 온 것 같은 느낌이다. 자기가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오롯이 이것만 들으면서 즐길 수 있는 수업이었다고 [성인 중기 참여자 6/ 기관 담당자]

#### - 정서적 성숙

- 성인 중기 참여자들은 인터뷰 결과,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자기표현이 증가하고 문화예술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됨. 문화예술교육은 참여자들이 다른 곳에서 할 수 없었던 이야기, 하기 어려웠던 개인적 이야기들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변화를 경험하는 계기가 되었음. 또한 처음에는 다소 서먹하고, 소극적이었던 참여자가 활동 참여가 증가할수록 활동 참여와 배움에 점차 적극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줌.

예전에는 하지 못했던, 어디서 할 수 없었던 이야기 나 아니면 그냥 얘기 안 해도 괜찮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얘기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이 많이 변화되지 않았을까. [성인 중기 참여자 7/ 교육 참여자]

제일 두드러지는 게 아빠랑 애랑 같이 와서, 처음에는 아빠랑 떨어져 앉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버님이 원래는 되게 수줍어하시고, 보통의 아버님들은 그런 데에 다 어머님들밖에 없으니까 수줍어하시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춤까지 추고 가시고. [성인 중기 참여자 6/ 기관 담당자]

## □ 관계 차원

### - 사회적 관계 확대

- 성인 중기 참여자들은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함으로써 다른 참여자와 사회적 관계가 더욱 확장되었음. 이들은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지역 주민인 다른 참여자는 물론 그들의 가족까지 친밀한 교류가 증가하는 것을 경험함.

### - 관계의 질 향상

- 인터뷰 결과, 성인 중기 문화예술교육의 긍정적 상호작용의 계기, 자녀 이해 증진, 친밀감 효과가 발견됨.
- 성인 중기 참여자들은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함으로써 자녀와 가족관계, 참여자들 관계에서 긍정적 상호작용이 증가하는 경험을 함. 자녀와 함께 하는 수업은 참여자 가족이 공통된 주제로 소통하는 기회를 증가시키고, 자녀에게 부모인 참여자의 다른 모습을 인지하며 자랑스러움을 경험하게 함. 또한, 일상에서의 자녀 관계에서 좀 더 여유로운 대처가 가능해짐으로써 가족 관계의 질이 향상되었음을 보여줌.

애들이 계속 물어보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 때 물어보면 좀 짜증이 났는데, 요즘에는 영혼 없는 대답이라도. (웃음)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것들(여유)이 나오더라고요.[성인 중기 참여자 8/ 교육 참여자]

연극발표회를 앞두고 준비를 가족들과 함께 하더라고요. 소품도 아이들이 "엄마 이거 했으면 좋겠어" 하고 들려 보내 주고, 또 뭐 만들 거 있으면 집에서 바느질로 가족들과 함께 대화하면서 하고, 그 다음에 연극 대본 연습을 집에서 한대요. 그런데 그 상대역을 남편이 해 줬다는 거예요. "내가 상대역 해 줄 테니까 연습해" 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이 사업이 가족을 하나로 만들어 주는구나. 각 가정들이 남편이 상대역 해 주고, 아이들은 그 대본을 다 외웠대요. 집에서 엄마들이 연습을 많이 하니까(웃음). "엄마 여기 틀렸어!" 지적도 해 주면서 그렇게 연습을 한다는 얘기를 들을 때에, 가족이 이 연극으로 하나로 뭉치고[성인 중기 참여자 10/ 기

## 관 담당자]

- 또한, 성인 중기 참여자들은 문화예술교육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자녀에 대한 이해와 관계가 더욱 향상됨. 자녀와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자녀와 상호작용이 많아지면서 자녀를 더욱 이해하게 됨. 교육 참여 과정에서 자녀가 친구 또는 가족 외 다른 성인과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기면서 자녀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기도 함. 또, 자녀와 같이 학생으로서 교육에 참여함으로써 학생의 입장에서 자녀를 한 번 더 이해하고 공감하는 기회가 됨. 가족 프로그램 참여자가 아니더라도, 문화예술 교육 활동을 통해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서 자녀와의 관계가 좋아짐.

제가 아이들을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이게 어렵구나, 맞아. 사실 나가서 얘기하는 것도, 아이들만 하는 게 아니라 엄마도 나와서 하거든요. 제가 떨더라고요. 아, 그래 이게 쉽지 않은 건데. 말로는 또박 얘기 해, 했는데 같이 나가서 달달 떠나까, 어떻게 했는지 모르고, 같이 하나까 그랬던 것 같아요. 애네만 했던 거면 너무 쉽게 말로 할 수 있는데, 직접 하다 보니까 게임하는 게 힘들구나, 나와서 하는 게 힘든 거구나. 같이 하다 보니까 이해의 폭이 많이 넓어지고 저도 아이들에게 생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성인 중기 참여자 1/ 교육 참여자]

- 성인 중기 참여자들은 프로그램 활동을 통해 가족뿐 아니라 참여자들 간 친밀감이 증가하면서 사회적 관계가 확장되었음. 일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교류의 기회가 생기면서 프로그램 내 활동은 참여자들 간 친밀감을 증가시키고 이들의 관계를 질적으로 가깝게 개선함.

이 프로그램에서 놀이나 게임을 통해서 많이 친해졌죠. 사실 OO 엄마도 옆 동네, 옆 아파트 사는데 잘 몰랐던 사람이지만 지금은 절친이 될 정도로 프로그램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성인 중기 참여자 2/ 교육 참여자]

## □ 사회·환경 차원

### - 공동체 의식 함양

- 성인 중기 참여자들은 문화예술에 참여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지역주민과의 소통이 증가하는 경험을 보고하였음.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함으로써 경험하는 만족감은 문화예술 자체에 대한 만족감에서 확장되어 이러한 활동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지역에 대한 자부심으로 확장됨. 또한, 예술교육 활동을 통해 참여자들은 교류 없는 지역 주민에서 친밀한 이웃 관계로 관계의 확장을 경험하였음. 문화예술을 매개로 한 공통의 활동은 개인이 지역에 적응하는 계기로 작용하기도 함. 예를

들어 귀농귀촌인들과의 프로그램은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면서 프로그램 내 참여자들과 친밀감이 높아지고 이것이 귀농귀촌인들의 낯선 지역에서의 정착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다른 엄마들도 모두, 만약 이런 정도의 퀄리티라고 하면 돈 주고도 배우고 싶은 과정이라고 이야기해요. 언제 그랬어요. “OO구에서 사는 게 감사하다”고. [성인 중기 참여자 1/ 교육 참여자]

작년까지 3년 간 했어요, 귀농귀촌인들과. 그런데 정말 상상 이상으로 이 분들이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특히나 연극을 하면서, 서로 연극대본 만들면서 내 이야기를 가지고 연극대본을 3년 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희노애락이 다 공유가 되고 해서. 정말 친밀감이 아주 높아지고 이 분들이 정착해서 잘 살고 OO지역 주민들과도 화합하면서 잘 지내고 있어요. [성인 중기 참여자 10/ 기관 담당자]

#### - 문화예술을 통한 지속적인 소통 욕구

- 성인 중기 참여자들은 문화예술교육이 커뮤니티의 완성을 통해 활동을 지속하고자 함. 이들은 커뮤니티 내에서 지속적으로 문화예술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작품을 매개로 타인과 교류하고자 함. 이는 문화예술을 넘어선 문화를 매개로 하는 지역 공동체의 지속에 대한 욕구로 볼 수 있음. 이 효과는 가족 프로그램 참여자에게는 발견되지 않음. 이러한 차이는 가족 프로그램 참여자와 달리 중년 대상 프로그램 참여자는 문화예술교육 활동 중 자신과 문화예술 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환경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보임.

□ 종합하면, 성인 중기 대상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예술 개인 차원에서 문화예술 능력 향상, 긍정적 자기인식 향상, 지적 능력 향상, 정서 경험 다양화, 정서적 성숙에 도움이 됨. 관계적 차원에서 사회적 관계의 확대, 관계의 질 향상, 사회기술 향상, 자기 초월에 도움이 됨. 사회·문화 차원에서 공동체 의식 함양, 문화예술을 통한 소통에 도움이 됨.

□ 본 질적 연구를 통해 새롭게 발견된 효과는 문화예술 감상 태도의 성숙(문화예술 능력 향상), 자기효능감, 자아실현(긍정적 자기인식 향상), 외부세계 탐색 및 이해(지적 능력 향상), 정서 경험 다양화, 사회적 관계 확대, 긍정적 상호작용의 계기 및 자녀 이해 증진(관계의 질 향상), 공동체 의식 함양, 문화예술을 통한 소통 효과임. 모든 참여자들이 가장 자주 언급한 효과는 자녀와의 관계 향상임.

### 3.2.6. 성인 후기 대상 문화예술교육 효과

〈표 II-80〉 성인 후기 문화예술교육의 차원별 효과

대범주	하위 요인	주제
개인	문화예술 능력 향상	문화예술 활동을 즐김,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욕구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음, 일상의 의미 재발견
		문화예술 성취 욕구
		문화예술 감상 태도의 성숙
	긍정적 자기인식 향상	진지한 감상 태도
		자기효능감
		자신감, 성취감
		예술 활동을 통해 자신과 대화, 참여자와 상호작용을 통한 자기 이해
		자기 발견
		자신의 새로운 모습 발견
	지적 능력 향상	자신에 대한 질문을 계속 던짐
		자아존중감
		자신에 대한 긍정적 이해
	정서 경험 다양화	집중력
		작품 활동에 집중
	정서적 성숙	외부세계 탐색 및 이해
		새로운 경험
관계	관계의 범위 확대	즐거움, 자유로움, 열정, 활기(갱년기 극복), 행복
		정서 안정
	관계의 질 향상	정서 발산 및 해소, 치유, 평안
		자유로운 자기표현
	자기 초월	적극적 참여
		행동 조절 증가
	삶에 대한 긍정적 인식 향상	자기조절
		작품 완성도를 위한 노력, 인내
		초월적 감사
		모든 존재에 대한 감사
	관계의 범위 확대	삶의 긍정
		자신의 인생을 긍정
		삶의 의미
		꿰어졌던 인생을 연결함
	관계의 질 향상	자기수용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함
		참여자와 관계
		참여자와 사회적 교류
	자기 초월	가족관계
		참여자들 간 관계
		직장 내 관계
		사회적 지지
사회·환경	공동체 의식 함양	참여자들 간 관계
		공감
	문화예술을 통한 소통	참여자들 간 관계
		열린 우리
사회·환경	문화예술을 통한 소통	참여자들 간 일체감
		수용적 태도
	문화예술을 통한 소통	타인 수용
		타인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
사회·환경	문화예술을 통한 소통	생성감
		타인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
	문화예술을 통한 소통	교육 제공 및 참여 기회에 감사
		기관에 대한 감사
사회·환경	문화예술을 통한 소통	지속적인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문화예술을 매개로 지역 주민 등 타인과 소통하려는 욕구가 생김
		타인과 소통
	문화예술을 통한 소통	지속적인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문화예술을 매개로 지역 주민 등 타인과 소통하려는 욕구가 생김
		타인과 소통

□ 초점집단 인터뷰 결과, 성인 후기 대상 문화예술교육의 효과가 개인 차원, 관계 차원 및 사회·환경 차원에서 나타남. 개인 차원의 효과는 문화예술 능력 향상, 긍정적 자기인식 향상, 지적 능력 향상, 정서 경험 다양화, 정서적 성숙, 행동조절 증가, 삶에 대한 긍정적 인식 향상이었으며, 관계 차원의 효과는 관계의 범위 확대, 관계의 질 향상, 자기 초월이 나타남. 사회·환경 차원의 효과로는 공동체 의식 함양, 문화예술을 통한 소통이 나타남.

#### □ 개인 차원

##### - 문화예술 능력 향상

- 인터뷰 결과, 성인 후기 대상 문화예술 교육의 문화예술 감수성, 문화예술 친숙성, 문화예술 감상 태도의 성숙 효과가 나타남. 성인 후기 캘리그래피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캘리그래피는 단순히 글씨를 예쁘게 쓰는 것이 아니라 글자와 여백의 배치를 멋스럽게 하는 것임을 배웠으며, 일상생활에서 시, 명언을 볼 때 작품을 구상하게 된다고 언급하였음. 또한, 여가시간에 수업에서 받은 화선지에 글씨, 그림 작업을 하고 싶어 하거나, 다른 문화예술 작품을 볼 때, 본인의 작업 과정을 떠올리며 그 작품을 진지하게 감상함.

##### - 긍정적 자기인식 향상

- 인터뷰 결과, 성인 후기 대상 문화예술교육의 자기효능감, 자기 이해, 자기발견, 자기 탐구, 자아존중감 효과가 나타남. 자기효능감, 자기 이해, 자기발견, 자아존중감 효과에 대하여는 전술하였음. 자기 탐구란 있는 그대로의 자기 됨됨이를 세밀하게 조사하여 확인하는 작업으로 자기 이해와 자기 수용의 선행요인임(이민정, 최선남, 2014). 참여자들은 ‘자기’와 관련된 이러한 효과들을 가장 자주 언급하였으며, 자기 탐구와 이해 과정에서 타인과의 교류를 중요하게 언급함.
- 성인 후기 참여자들은 문화예술 작품에 자기를 표현하기 위해 자기 탐구의 과정을 거침. 참여자들은 그간 생활을 위해 잊고 있던 자신에게 관심을 갖고 깊이 탐구하면서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고 이해하게 됨. 특히, 이 과정에서 자신과의 내면적 대화뿐 아니라 다른 참여자와의 대화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였음. 타인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임. 참여자들은 작품 활동과 타인과의 교류를 통해 ‘독서를 좋아하는 나’, ‘만들기를 좋아하는 나’ 등 잊고 있던, 혹은 몰랐던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함.
- 또한, 성인 후기 참여자들은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몰랐던 자신의 능력을 발견하게



되고, 성취감과 뿌듯함을 느낌. 이는 자기효능감의 향상을 의미하며, 작품 활동의 몰입으로 이어지기도 함. 참여자들은 깊어진 자기 이해와 자기효능감을 바탕으로 자신의 긍정적인 면을 새롭게, 혹은 다시 발견함. 이러한 자아존중감의 향상은 중년기 참여자들이 자신을 스스로 삶을 꾸려 가고 타인을 도울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주제가 던져졌을 때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평소에는 애들 키우고 엄마로 살아가는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중략) 내가 책을 보고 있는 모습을 그렸는데, 아 내가 진짜 이걸 많이 좋아하는구나. 책을 많이 좋아하고, 이런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좀.. 깊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성인 후기 참여자 9/ 교육 참여자]

돈이라는 이거에 쫓겨가지고, 나를 찾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중략) 나를 찾는 게 아니고 나를 버려야 어찌됐던 간에 수입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하다가 이거는 온전히 나를 찾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할 줄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막한 거죠. 근데 다른 선생님들은 나를 표현하라, 이러니까 캐릭터로도 표현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 보니까. 뭐지.. 정말 매 순간 막막했어요. 근데 옆에 분들 조금씩 도움을 받으니까 그게 이제 나도, 조금씩 해지는 거예요. 정말 감동이었어요 이번에. [성인 후기 참여자 6/ 교육 참여자]

#### - 지적 능력 향상

- 성인 후기 참여자들은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함으로써 집중력이 향상되고, 외부 세계를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이해하는 경험을 함. 참여자들은 다른 사람과의 교류를 통해 자신과 타인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면서 새로운 것에 관심이 커지고 시도해보게 됨. 새로운 재료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거나, 다른 장르의 문화예술 활동에 도전해 보려는 모습이 나타남. 또, 밤새 작품 활동에 몰입하고, 예술 활동을 통해 갱년기를 잇는 등 집중력이 향상됨.

나 글씨 써서 갱년기 잊어버린 것 같애. (웃음) 그만큼 집중이 되니까[성인 후기 참여자 1/ 교육 참여자]

#### - 정서 경험 다양화

- 성인 후기 참여자들은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함으로써 긍정 정서를 경험하고, 치유와 평안함 등 정서 안정을 경험함. 성인 후기 경우, 다른 생애주기 참여자와 마찬가지로 ‘소풍 오는 듯한’ 즐거움, 자유로움, 열정, 활기 등의 정서를 경험. 한편, 다른 생애주기 참여자와 달리 ‘물이 스며들 듯이’ 조용히 내면적 행복감이 충만해지는 경험을 함.

뭔가 열정을 하나 품은 것 같은 느낌. 자꾸만 사그라지는 게, 마음속에서 뭔가 삭 사그라지는 게, 그냥 진부해지고 고대로 갈려고 하는 그런 거에서 뭔가 새로운 거 하나 뽕족 튀어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 [성인 후기 참여자 2/ 교육 참여자]

정말 숨 쉴 수 있는, 진정으로 숨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이 안에서 들어오면서 너무 이 세월이, 막 우리가 기쁨 있게 즐겁고 행복하고 하하호호 하지 않는데도, 이 슬픔이 이제 살살 살 스며들듯 물이 스며들듯이 내 내면에 그 어떤 행복감이 살살 스며들어요. 그래가지고 내 마음이 사악 풀어지는 것 같애 조금씩 조금씩. [성인 후기 참여자 13/ 교육 참여자]

- 또한, 성인 후기 참여자들은 직접 쓸 좋은 글을 찾는 과정에서 ‘세상 근심 걱정을 잊어 버리’거나,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자신의 상처를 드러내고 치유받은 경험을 이야기하는 등 문화예술 교육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치유감을 느낌.

사람들이 보통은 서먹하게 만난 만남은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지 않거든요. 근데 선생님들이 이 수업을 통해서 아주 짧은 시간에 서로 마음을 열어놓고 그 사진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아픈 거, 나의 아픔도 드러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중략) (내가 쓴 시를)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게 치유의 효과도 있는 거예요. 내가 숨겨 놓고 내가 강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이 수업을 통해서 내가 치유되는 그런 감동도 있었어요.[성인 후기 참여자 7/ 교육 참여자]

#### - 정서적 성숙

- 성인 후기 참여자들은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함으로써 타인을 의식하지 않는 자기표현하고 적극적으로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는 경험을 함. 참여자들은 사회적 역할에서 벗어나 자기를 표현하는 것에 즐거움을 느꼈으며, 경쟁, 평가 없이 자신을 표현하는 경험을 통해 표현이 점차 적극적이고 과감해짐. 예술 강사는 처음에는 작업을 안 해 봐서 못한다던 참여자들이 나중에는 주제를 주면 푹푹딱딱 만들어내는 모습에 기쁨을 느낀다고 하였음.

#### - 행동 조절 증가

- 인터뷰 결과, 성인 전기 문화예술교육의 자기조절 효과가 발견됨. 성인 후기 참여자들은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배우고, 인내하며 더 나은 표현을 위해 때로는 밤새 고민하고 노력함. 이는 자기조절의 향상을 의미함. 또한, 생활에 활기가 생기면서 직장, 가족 돌보기 등 바쁜 생활 속에서 자기를 돌보게 되는 자기 조절의 효과가 나타남.

저는 자기관리 같은 게 조금 생긴 것 같아요. 평소에는 직장 마치고 들어가면 맨날 피곤하고,

사실은 작년까지만 해도 애가 고3이라 애 뒤통다꺼리한다고. 애 데리러 가고, (중략) 생활에 뭐 별 그제 없었는데. 사실은 하면서 자기 관리 같은 거 있잖아요, 뭔가 좀 해야 되겠다는 거? 계획도 가지게 되고. [성인 후기 참여자 4/ 교육 참여자]

#### - 삶에 대한 긍정적 인식 향상

- 인터뷰 결과, 성인 후기 문화예술 교육의 초월적 감사, 삶의 긍정, 삶의 의미, 자기 수용 효과가 나타남. 초월적 감사(transpersonal gratitude)란 자신의 존재 자체에 감사하는 내적 상태(Emmons & McCullough, 2004)로 특정한 대상, 사건에 대한 조건적 감사와 구분됨. 삶의 긍정은 삶의 부정적 요소보다 주관적 웰빙, 가치 있는 삶에 도움이 되는 긍정적 요소(예: 긍정 정서, 자신의 성격적 강점)에 집중하는 것임(Seligman & Csikszentmihalyi, 2000), 삶의 의미는 자신 삶의 이야기를 자서전과 같이 주체적으로 구성하는 것임. 자기수용이란 자신의 약점, 삶에 대한 후회까지 자신의 모든 측면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임(Ellis, 1996). 이는 모두 성인 후기 참여자들에게서 독특하게 발견되었으며, 자기 탐구와 자기발견을 통한 깊은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나타났음.
- 성인 후기 참여자들은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자기 삶에서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일들의 의미를 찾고 긍정하며, 끊어졌던 자신의 인생을 연결함. 참여자들은 자신의 삶에서 의미를 찾게 되면서, 자신의 인생을 긍정하게 됨. 이는 다시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하는 자기 수용의 바탕이 됨. 또, 현재의 자신을 있게 해 준 모든 존재와 삶에 대해 초월적 감사를 느낌.

사회적 지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남들에게 내세울 수 없는 그런 입장들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어떤 때는 위축이 되기도 하고.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나는 대체 뭐했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제가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삶의 한 정점, 정점마다 그 나름대로 참 열심히 살았다. 그래서 괜찮다. 이만큼 이렇게 살아온 것조차 그 나름대로 거기에서 최선을 어찌면 했던 것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걸 하면서 아리랑 고개라는 말이 자꾸 나오죠. 그게 그만큼 인상 깊었기 때문인데 그걸 하면서 저희들이 자기에 대한 시를 적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했던 게, 저희를 붙이면서 괜찮지 않냐, 이만하면 괜찮지 않냐,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됐어요. [성인 후기 참여자 3/ 교육 참여자]

두 토막 났던 그 사고 전의 인생과, 그 사고도 내 거고, 이게 이어 붙이는 작업을 했다고 할까요? (중략). 뭐라 그럴까, 그 땐 내꺼야, 내 인생이었어, 사고 때 힘들었는데, 이어 붙이는 그

런 느낌? 내 것을 다시. 내 인생을 내 것을 내 스토리를 다시 쓰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좋았어요. [성인 후기 참여자 17/ 교육 참여자]

## □ 관계 차원

### - 관계의 범위 확대

- 인터뷰 결과, 성인 후기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관계 확대 효과가 발견됨. 성인 후기 참여자는 문화예술 교육에서 다른 참여자들과 친구가 되며, 매우 긴밀한 관계가 됨.

### - 관계의 질 향상

- 성인 후기 참여자들은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참여자뿐 아니라 가족, 직장동료와 긍정적인 상호작용의 계기를 만듦. 이들은 문화예술 작품 활동 과정과 그 즐거움을 가족과 나누기도 하고, 직장동료와 가족에게 작품을 보여주면서 긍정적 상호작용을 시작함. 또한, 문화예술교육 과정 중 참여자들에게 사회적 지지와 공감을 얻고, 참여자들과 일체감을 느끼는 열린 우리의 경험을 함. 열린 우리 경험이란 자신과 타인을 구별 짓기보다 어울림에 중점을 두고, 마음을 열고 모두를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집단을 체험하는 것임(최봉영, 2012).

이번에 제가 만든 캐릭터라든지 제가 인형도 만들었거든요. 캐릭터가 두 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보면서 엄마답다. 엄마가 엄마 길을 찾아 가는 걸 친구들한테 자랑을 했다. 글로도 써서 제가 조금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게 너무 중요하다는 걸 이제 조금 알았던 것 같은? 내가 아이를 위해서 사는 삶보다는 나를 위해서 삶을 사는 게, 더 중요했는데 조금 너무 그쪽에 치중이 되지 않았을까... 오히려 아이가 내가 내 삶을 사는 거를 더 좋아하는구나. 조금 뒤늦게. 50이 돼서. [성인 후기 참여자 7/ 교육 참여자]

이 작품이 테이블 위에 놓으면 결재 받으러 오면 어, 이거 뭐니까. 어제 수업 들은거야. 이러면 직장에서도 상급자와 하급자를 보면 그런 벽 있잖아요. (중략)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포인트가 생기니까. 그런 면에서도 좋은 것 같아요. [성인 후기 참여자 1/ 교육 참여자]

그냥 웃고 표정은 밝아도 그 내면에 아무것도 내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그런 게 저한테는 있었어요. 이게 뭐 다 잘하는 것 같고 그래도 나는 철저하게 내 안에 그 어떤 것도 이제 흡수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나한테는 있었거든요? 지금 그때 이렇게 처음 하고, 이렇게 지금하고 이렇게 보면 이 언니들의 목소리들이 저를 편안하게 해준 것 같아요. 이제 이 목소리들이 없으면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성인 후기 참여자 15/ 교육 참여자]

## - 자기 초월

- 성인 후기 참여자들은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통해 수용적 태도와 생성감을 경험함. 참여자들은 다른 참여자 및 강사와 깊은 사회적 교류를 통해 자신을 이해하고 문화예술 작품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범위를 확장하고, 타인과 연결감을 느낌. 이는 타인에게 더욱 열린 태도를 갖게 하며, 타인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성감으로 이어짐.

옛날에는 어린 선생님들이 저를 따라오는 게 맞다고 생각했죠. 왜냐, 나이가 많으니까. 그랬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점점 이제 아, 맞아. 저 분 말이 맞아. 이 선생님 말이 맞아. 이러다 보니까 내가 말이 이제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서 욕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저는 욕심이 제법 있었어요. 배우는 거라든지, 남보다도 좀 더 배웠어야 되고. 왜냐면 옛날에 못했으니까 지금 다 해야 돼. (중략) 내가 뭔가 자격증을 따고 싶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냥 자기 삶을 조금은 이제 이번에 느낀 거 같아요. [성인 후기 참여자 6/ 교육 참여자]

## □ 사회·환경 차원

### - 공동체 의식 함양

- 성인 후기 참여자들은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통해 기관에 대한 감사와 문화예술을 통한 소통을 경험함. 참여자들은 자신에게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기관에 대한 감사를 표현함. 또, 문화예술 활동을 매개로 참여자들과 깊은 사회적 교류를 직접 경험하면서 다른 사람들과도 문화예술을 통해 사회적으로 보다 폭넓게 소통하고 싶은 욕구가 나타남.

이 안(프로그램)에가 아니어도 똑같은 글인데 이 안에서 같이 공감되는 글이고, 이 안에 있는 글을 밖으로 끌어내서 밖으로 내보냈는데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걸 써야 되겠구나. [성인 후기 참여자 18/ 교육 참여자]

□ 종합하면, 본 질적 연구에서 성인기 후기 대상 문화예술 교육은 개인 차원에서 문화예술 능력 향상, 긍정적 자기인식 향상, 지적 능력 향상, 정서 경험 다양화, 정서적 성숙, 행동 조절 증가, 삶에 대한 긍정적 인식 향상에 도움이 되었음. 관계 차원에서 관계의 범위 확대, 관계의 질 향상, 자기 초월에 도움이 되었음. 사회·문화 차원에서 공동체 의식 함양, 문화예술을 통한 소통에 도움이 되었음.

□ 본 질적 연구를 통해 새롭게 발견된 효과는 문화예술 감상 태도의 성숙(문화예술 능력 향상), 자기효능감, 자기 이해, 자기 발견, 자기 탐구(긍정적 자기인식 향상), 집중력, 외

부세계 탐색 및 이해(지적 능력 향상), 정서 경험 다양화, 자기 조절(행동조절 증가), 초월적 감사와 삶의 긍정 등 삶에 대한 긍정적 인식 향상, 긍정적 상호작용의 계기, 사회적 지지, 열린 우리(관계의 질 향상), 수용적 태도, 생성감(자기 초월), 공동체 의식 함양, 문화예술을 통한 소통이었음.

- 성인 후기 참여자들은 자기 탐구, 자기발견, 자기 이해 등 ‘자기’와 관련된 변화를 가장 많이 언급함. 깊은 자기 이해는 사회적 지지와 공감을 바탕으로 한 다른 참여자와의 사회적 교류가 있을 때 가능하였음. 한편, 다른 참여자와의 사회적 교류는 자기를 확장하고, 타인과 연결감을 느끼게 하여 관계 차원의 열린 우리와 자기 초월 효과, 사회·환경 차원의 문화예술을 통한 소통 효과로 이어짐. 즉, 성인 후기 문화예술교육은 은퇴, 자녀의 출가 등 사회적 역할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중년의 위기’를 맞은 참여자들이 자기표현, 타인과의 소통을 통해 생각을 정리하고 삶의 의미를 재정립하는 데 도움이 됨.

### 3.2.7. 노인 대상 문화예술교육 효과

〈표 II-81〉 노인기 문화예술교육의 차원별 효과

차원	범주	하위 요인
개인	문화예술 능력 향상	문화예술 활동을 즐김,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욕구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음
	긍정적 자기인식 향상	자기효능감
	지적 능력 향상	집중력
		문화예술 활동에 집중
		호기심
		새로운 물건이나 활동에 호기심
		외부세계 탐색 및 이해
		새로운 경험을 함
	정서 경험 다양화	즐거움, 열정, 활기, 소속감, 정신건강 유지
		배움의 즐거움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갈증 충족
관계	정서적 성숙	활동을 지속하지 못해 서운함
		자유로운 자기표현, 정서표현
	사회적 관계 확대	적극적 참여
		참여자와 관계
	관계의 질 향상	가족관계
		참여자들 간 관계
		강사와 관계
	사회기술 향상	공감
		참여자들 간 관계
		협동 능력
사회·환경	공동체 의식 함양	책임감, 단체활동, 화합의 경험
		의사소통 능력
		지역 사회 내 문화예술 활동
사회·환경	공동체 의식 함양	지역 내 행사 등에 참여
		지역 내 행사 등에 참여

□ 초점집단 인터뷰 결과, 노인 대상 문화예술교육의 효과는 개인 차원, 관계 차원 및 사회·환경 차원에서 나타남. 개인 차원의 효과는 문화예술 능력 향상, 긍정적 자기인식 향상, 지적 능력 향상, 정서 경험 다양화, 정서적 성숙, 관계 차원의 효과는 사회적 관계 확대, 관계의 질 향상, 사회기술 함양, 사회·환경 차원의 효과로는 공동체 의식 함양이 있었음.

## □ 개인 차원

### - 문화예술 능력 향상

- 인터뷰 결과, 노인기 참여자들에게서 문화예술 친숙성과 문화예술 감수성 향상 효과가 나타남. 참여자들은 문화예술 교육을 발전에 대한 압박이나 부담 없이 즐기고 향유함. 단, 노인기 문화예술 능력의 발전 속도는 다른 생애주기에 비해 느린 편으로 나타났다는데, 이는 노인기에 주의집중, 단기 기억 능력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생물학적 변화로 인한 것일 수 있음(신명희 외, 2017).

### - 긍정적 자기인식 향상

-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노인기 참여자들의 자기효능감이 향상됨. 참여자들은 문화예술 작품을 완성하는데 만족감과 자신감, 성취감을 느낌. 또 다른 생애주기 참여자와 비교하여 숙제와 같은 과업을 완수하는 데 특히 만족감, 성취감을 느꼈음.

숙제라는 개념을, 옛날 분들이라, 숙제를 안 내 주면 아무것도 안한 것처럼 (느끼셔서). 꼭 숙제를 내드렸어요. 꼭 해오시고, 동글뱅이 쳐드리고, 너무 잘했다고 칭찬해드리고, 별 거 안 해도 어른들이 그런 데서 만족감이나 성취감을 느끼시거든요. [노인기 참여자 4/예술강사]

### - 인지능력 향상

- 노인기 참여자들은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집중력과 호기심이 증가하고, 외부세계를 탐색하며 이해하는 경험을 함. 참여자들은 집중하여 과제를 완성하고, 예쁘게 색칠하거나 만들기 위해 애씀. 또, 연필, 크레파스와 같은 도구 사용을 흥미롭고 재미있어하며, 스마트폰과 같은 새로운 물건에 호기심을 보임. 이러한 호기심은 자연스럽게 적극적인 외부세계 탐색과 이해로 이어짐. 노인기 문화예술교육의 이러한 효과는 치매 예방 등 노인의 정신건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핸드폰이라는 걸 우리 어머니들이 그걸로 젊은 사람들처럼 뭘 해보지를 않으시잖아요? 핸드폰 짝어서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그러면 신기하다고, 너무 신기해라 하시고, 신문물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노인기 참여자 4/예술강사]

### - 정서 경험의 다양화

- 노인기 참여자들은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다양한 정서 경험을 함. 긍정 정서 경험으로는 배움에 대한 기쁨, 젊어진 기분, 활력, 사회적 활동의 즐거움과 반장 등 새로운 역



할이 주어지는 데 따른 책임감 등을 경험함. 특히, 배움에 대한 즐거움을 매우 자주 언급하였으며, 이는 참여자들의 일상에 활력이 됨. 한편, 지속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고 예술 강사와 보지 못하는 것에 서운함과 아쉬움을 여러 번 언급함.

8개월 동안 배운 것이, 옛날에 보다 낫게, 안 배운 놈 안 같애. 나는 진짜로 좋대, 날마다 거의 한 번씩 나오면은. 가령, 거시기를 써도 더 잘 써지고, 향가 같은 건 노래도 잘 써지고 배운 것이 잘 했다, 참으로 잘 했다. 아주 좋지 날마다 기분 좋고, 젊어진 것 같고. 말을 하고 싶은 것은, 늙어서 아무것도 할 줄 하는 게 없는데, 공부라도 오게 되니까 오히려 더 좋았지. 젊어진 것 같고. [노인기 참여자 1/교육 참여자]

#### - 정서적 성숙

- 인터뷰 결과, 노인기 문화예술 교육의 자기표현 성숙 효과가 나타남. 교육 초반 노인 참여자들은 그동안 교육이나 자기표현을 할 수 있는 기회의 부재로 자기표현에 자신감이 없었음. 문화예술 교육을 통해 강사와 참여자들의 지지와 격려를 경험하면서 점차 자기 생각과 정서를 적극적으로 표현함. 이는 다시 자신감 향상으로 이어져 자기 효능감 향상으로 이어짐.

처음에는 자신감 없고, 그런 게 있었는데 자신감이 생기고 내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그게 또 중요한 거 같아요. 이 사업의 장점이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어머님들이 자신감이 생긴다는 거. 성취. 내 목소리를. 내 목소리를 안내고 그냥 누가 옆에서 말해주는 것만, 그거 있잖아, 이렇게 하는데. [노인기 참여자 4/예술강사]

### □ 관계 차원

#### - 사회적 관계 확대

- 노인기 참여자들은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평소 교류가 없었던 이웃 주민인 참여자들과 사회적 교류를 하게 됨.

#### - 관계의 질 향상

- 노인 대상 문화예술교육의 긍정적 상호작용 계기 효과와 공감 효과가 발견됨. 노인기 참여자들은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예술 강사, 참여자뿐 아니라 성인 자녀, 이웃과 긍정적 상호작용의 계기가 생김. 참여자들은 교육 중 활동을 통해 강사 및 참여자들과 노래를 부르거나 함께 웃는 등의 사회적 소통을 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공감함. 또, 문화예술 활동을 계기로 성인 자녀와 긍정적 상호작용을 시작하는 계기가 됨.

자녀들이 근처에 살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프로그램에 대해서 할머니들과 대화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활동 때 간식을 가지고 찾아와서 인사하고 가기도 하세요[노인기 참여자 4/예술강사].

그 코드가 서로 이제 어르신들이 딱 맞으면서 그 음악을 했을 때 서로가 공유하는 감정이 있으신 거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표현이 그 때 확 되는 느낌을 제가 받은 적이 있어요. [노인기 참여자 6/예술강사]

#### - 사회기술 향상

- 인터뷰 결과, 노인 대상 문화예술교육의 협동 능력, 의사소통 능력 향상 효과가 발견됨. 교육 초기에는 서로 자기주장을 내세우던 참여자들이 예술 강사의 조율 및 조력을 통해 협동하여 함께 작품을 만드는 모습이 나타남. 이때, 협동과 화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예술강사와 담당자의 역량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임.

(참여자들의 자기주장이) 너무 강하시기 때문에 화합이 이렇게, 뭉치기가 조금 처음에는 정말 힘들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처리를 해나가고, 어, 같이 하나로 뭉칠 수 있게 유도해 나가는 게 우리 예술 강사 선생님의 역할이신 거 같기도 하고. 제가 그만큼 뒤에서도 많이 서포트해 줘야 되는 거는 사실인 거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던 어르신들의 관계를 작년에 이어서 많이 뭉쳐주신 게 우리 선생님 역할이시거든요. [노인기 참여자 7/기관 담당자]

#### □ 사회·환경 차원

##### - 공동체 의식 함양

- 노인기 참여자들은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지역 사회 내 문화예술 활동을 경험함. 노인기 참여자들이 지역구, 관련 협회 전시 및 행사에 함께 참여하고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교류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예를 들어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만든 시화 작품 전시회를 열고 관람하러 온 지역 중학생들과 만나거나, 합창 발표회를 열기도 함.

□ 종합하면, 본 질적 연구에서 노인기 대상 문화예술 교육은 개인 차원에서 문화예술 능력 향상, 긍정적 자기인식 향상, 지적 능력 향상, 정서 경험 다양화, 정서적 성숙에 도움이 되었음. 관계 차원에서 관계의 범위 확대, 관계의 질 향상, 사회기술 향상에 도움이 되었음. 사회·문화 차원에서 공동체 의식 함양에 도움이 되었음.

□ 본 질적 연구를 통해 새롭게 발견된 효과는 자기효능감(긍정적 자기인식 향상), 집중력, 외부세계 탐색 및 이해(지적 능력 향상), 정서 경험 다양화, 사회적 관계 확대, 긍정적 상호작용의 계기(관계의 질 향상), 협동 능력(사회기술 향상), 공동체 의식 함양이었음.

□ 노인기 참여자들은 문화예술 활동의 즐거움, 배움의 즐거움 등 긍정정서 효과를 가장 자주 언급하였음. 신체적 노화, 은퇴, 배우자 및 지인들과의 사별 등 여러 스트레스 사건에 대처하고 삶의 의미를 정리해야 하는 노인기 참여자들에게 문화예술교육이 긍정 정서, 자신감 등 정서적 자원 제공, 인지적 기능 보존, 사회적 관계 유지 및 확대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이러한 효과가 나타는 데에 참여자 간 이견을 조율하여 공동 작업이 가능하게 하도록 하는 강사의 경험과 역량이 중요하였음.

〈표 II-82〉 생애주기별·차원별 문화예술교육의 효과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 전기	성인 중기	성인 후기	노인기
개 인	문화예술 능력 향상	문화예술 친숙성 문화예술 감수성	문화예술 친숙성 문화예술 감수성 문화예술 감상 태도 성숙	문화예술 친숙성 문화예술 감수성	문화예술 친숙성 문화예술 감수성 문화예술 감상 태도 성숙	문화예술 친숙성 문화예술 감수성 문화예술 감상 태도 성숙	문화예술 친숙성 문화예술 감수성 문화예술 감상 태도 성숙	문화예술 친숙성 문화예술 감수성
	긍정적 자기인식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자기 발견	자기 발견	자기 이해	자아실현	자기 이해	
					자아존중감		자기 발견	
					정체성 형성		자기 탐구	
	지적 능력 향상	집중력	집중력	집중력	창의력	호기심	집중력	집중력
		창의력	창의력	독서력	외부세계 탐색 및 이해	외부세계 탐색 및 이해	외부세계 탐색 및 이해	호기심
		상상력	호기심	외부세계 탐색				외부세계 탐색 및 이해
		호기심	외부세계 탐색					
		외부세계 탐색						
	정서 경험 다양화	긍정 정서	긍정 정서	긍정 정서	긍정 정서	긍정 정서	긍정 정서	긍정 정서
		부정 정서	부정 정서	부정 정서	정서 안정	정서 안정	정서 안정	부정 정서
	정서적 성숙	자기표현의 성숙	자기표현의 성숙	자기표현의 성숙	자기표현의 성숙	자기표현의 성숙	자기표현의 성숙	자기표현의 성숙
	행동조절 증가	자기 조절	자기 조절	-	자기 조절	-	자기 조절	-
	워크-라이 프 밸런스	-	-	-	워크-라이프 밸런스	-	-	-

	삶에 대한 긍정	-	-	-	-	-	초월적 감사 삶의 긍정 삶의 의미 자기 수용	-
관계	사회적 관계 확대	-	도래 관계	-	참여자 및 지역 주민과 관계	친구 관계	참여자와 관계	참여자와 관계
	관계의 질 향상	친밀감	긍정적 상호작용 계기	긍정적 상호작용 계기	긍정적 상호작용 계기	긍정적 상호작용 계기	긍정적 상호작용 계기	긍정적 상호작용 계기
			유대감			자녀 이해 증진	사회적 지지	공감
			친밀감			친밀감	공감	
							열린 우리	
	사회 능력 향상	협동 능력 의사소통 능력	협동 능력 의사소통 능력	-	협동 능력 의사소통 능력	-	-	협동 능력 의사소통 능력
	자기 초월	-	-	-	수용적 태도 생성감	-	수용적 태도 생성감	-
사회환경	공동체 의식 함양	-	동네에 대한 애정 지역 내 문화예술 활동	지역 내 문화예술 활동	지역 내 문화예술 활동	지역 사회에 대한 긍정적 인식 자부심 주민과 소통 지역 사회 적응	기관에 대한 감사	지역 내 문화예술 활동
	문화예술을 통한 소통	-	-	-	타인과 소통	타인과 소통	타인과 소통	-

※음영 표시는 본 질적 연구에서 새롭게 발견된 효과임

□ 질적 연구를 통해 새로운 문화예술교육 효과가 발견됨. 개인 차원에서는 문화예술 감상 태도의 성숙, 자기효능감, 자기 발견, 집중력, 독서력, 자기 조절과 같은 효과가 발견됨. 특히, 본 질적 연구를 통해 발견된 자기 조절은 정서적 자기 조절을 다루는 양적 연구의 지표와 달리,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노력, 인내와 같은 행동적 자기 조절이었음. 관계적 차원에서는 사회적 관계의 확대, 긍정적 상호작용의 계기 등이 발견됨. 사회·환경 차원에서는 공동체 의식의 함양, 문화예술을 통한 타인과의 소통 효과가 발견됨.

□ 문화예술교육의 효과는 참여자 개인과 기관 특성, 문화예술교육 사업의 특성뿐 아니라 참여자의 생애주기 및 생애주기에 따른 발달 과업에 따라 차이가 있었음.

- 성인과 달리 유아, 아동, 청소년의 경우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는 사례가 있어 지루함과 같은 부정 정서가 보고됨. 또, 아동 참여자에게 나타난 사회·환경 차

원의 효과는 교육 프로그램 내용이 지역 사회를 다루고 있는지와 같은 기관 특성을 반영함.

- 성인 전기 참여 집단에서만 워크-라이프 밸런스 향상 효과가 발견됨. 이는 워크-라이프 밸런스에 대한 이들의 욕구로 인한 것으로 보임. 또, 관계적 차원의 자기 초월 효과와 사회·환경 차원의 문화예술을 통한 타인과의 소통 욕구가 나타났는데, 이는 협업 작업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예술교육 특성과 관련이 있었음.
- 성인 중기 집단에서는 자녀를 포함한 가족 및 지역 주민과의 관계적 효과가 크게 나타남. 이들은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통해 긍정 정서를 경험하고 학생의 입장에서 자녀를 이해하게 되며, 자녀(가족)와 긍정적인 상호작용의 계기가 증가함. 또 지역 주민인 참여자 및 그 가족 구성원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됨, 이러한 효과는 기관 또는 사업의 특성과는 관계없이 성인 중기 참여자에게 공통적으로 보고됨.
- 성인 후기 참여자들은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가장 큰 변화를 경험함. 이들은 자기 발견, 자기 이해, 자기 탐구와 같은 ‘자기’를 키워드로 한 변화를 가장 많이 보고하였으며 이러한 변화는 ‘좋은 참여자들’이 있기에 가능했다고 하였음. 지지적이고 수용적인 다른 참여자들과의 교류를 통해 자기 이해의 폭이 깊어지고 관계적 차원의 열린 우리, 자기 초월과 같은 효과가 나타났으며, 이는 초월적 감사, 삶의 의미, 삶의 긍정, 자기 수용과 같은 삶에 대한 긍정 효과로 이어짐. 이들은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문화예술을 통해 사회적 차원에서 타인과 소통하고자 하는 욕구를 보였음.
- 노인기 참여자들은 즐거움, 활기, 열정과 같은 긍정 정서 경험 효과를 가장 많이 보였음. 특히 배움에 대한 즐거움, 해보고 싶었지만 기회가 없어 할 수 없었던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즐거움을 경험하였다는 점에서 다른 생애주기와 차이가 있었음.

### 3.3. 문화예술교육 효과성 증대요인

- 전 생애주기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문화예술교육 효과성 증대요인은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하고 그 과정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것임. 이와 함께 모든 인터뷰 집단에서 효과성 증대를 위해 후속 프로그램, 연계 프로그램, 심화 프로그램 등 지속적인 문화예술 교육 및 활동에 대한 지원을 요구함.

□ 생애주기별로 문화예술교육의 효과성을 증대를 위해 필요한 환경에 차이가 나타남.

- 유아기: 자유롭고 안전한 놀이 환경

- 유아 대상 문화예술교육 효과 증대를 위해 ‘자유롭고 안전한 놀이 환경’이 필수적임. 이러한 환경 조성을 위해 예술 강사뿐 아니라, 기관과 기관 교사의 허용적이고 지지적인 태도가 중요함. 부모의 허용적이고 지지적인 태도가 유아에 대한 기관 및 기관 교사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음. 또, 유아의 안전한 놀이 환경 제공을 위해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는 성인(예술 강사, 기관 강사, 기관 담당자)을 충분히 확보해야 함.

- 아동기: 자유롭고 즐겁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환경, 문화예술 능력의 발전이 이루어지는 환경

- 아동 대상 문화예술교육 효과 증대를 위해 ‘자유롭고 즐겁게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환경’, ‘문화예술 능력의 발전이 이루어지는 환경’ 제공이 필요함. 특히 아동 발달에 미치는 교사의 영향이 큼. 예술 강사의 수용적이고 지지적인 태도, 예술 강사들 간 원활한 의사소통, 강사와 기관의 적극적인 지지는 아동이 자유로운 표현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는 것으로 나타남. 단체 활동에서 소외되는 아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수업에 참여하는 강사의 수를 충분히 확보하여 소외되는 아동을 돌보아줄 필요가 있음.
- 아동은 유아와 달리 ‘소리를 더 예쁘게 내고 싶다’ 등의 문화예술 성취에 대한 욕구를 보임. 따라서 문화예술교육 및 성취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문화예술 능력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강사의 역량과 양질의 프로그램 콘텐츠가 필요함. 이 외에, 아동의 문화예술 활동에 지지적인 부모와 자유로운 표현을 지지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자유롭고 즐겁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페스티벌할 때 전시를 하러 갔어요. (중략) (상자 속에) 생태계 만들 때 벌레도 집어넣고 호랑이도 집어넣고 나무도 집어넣고 하면서. 애들이 굉장히 재미있어하고 그랬는데, 상자의 너저분한 부분이 있었어요. 저는 그런 것도 차라리 괜찮다. 너희가 너무 이렇게 세련되게 하면 그것도 멋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서로 합의를 하고 작품을 끝냈는데, 학교 분들은 또 딱딱 떨어져야 하는 게 있잖아요. 깔끔해야 되고, 딱딱 떨어져야 되고. 내가 잘 해도 어차피 컨펌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면 어쩔 수 없죠 뭐. 서로 안 맞으니까. DP하는 것도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해도, 약간 너저분해 보이니까 옆으로 빼라 하면 애들도 또 상처받잖아요. 자기 건 중앙에 없고.... [아동 참여자 14/ 예술강사]

- 청소년기: 평가하지 않는 자유로운 환경

- 청소년 대상 문화예술교육 효과 증대를 위해 ‘평가하지 않는 자유로운 환경’ 조성이 필요함. 청소년은 예술 강사의 수용적이고 지지적인 태도를 통해 자유로운 자기표현을 할 수 있게 됨. 그러나 이러한 자유로운 자기표현에 대한 ‘평가 없음’에 적응하고 익숙해지는 시간을 필요로 하였음. 따라서 타인(성인)의 평가를 의식하지 않고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하고 즐길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이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기관과 강사의 원활한 소통과 기관의 지지가 이러한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었음.

- 성인 전기: 평가하지 않는 자유로운 환경, 지역 내 또는 지역 간 문화 활동 기회 제공, 관계 부담에서 벗어나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환경

- 성인 전기 대상 문화예술교육 효과 증대를 위해 ‘평가하지 않는 자유로운 환경’과 ‘지역 내 문화 활동 기회 제공’, ‘관계 부담에서 벗어나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함.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일부 청년은 타인의 평가를 의식하지 않고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하고 즐기는 데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였음. 적극적이고 수용적인 예술 강사의 도움을 받아 문화예술 활동을 매개로 자기 자신 또는 예술 강사, 다른 참여자와 소통하면서 점차 자유로운 자기표현을 할 수 있게 되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싶은 욕구를 갖게 됨. 따라서 이러한 소통 욕구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역 사회 내 또는 지역 사회 간 문화를 매개로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줌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의 효과를 증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한편, 일부 청년은 타인과의 소통 욕구보다는 관계의 부담에서 벗어나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힐링 시간을 가지며, 워크-라이프 밸런스를 충족하는 것으로 보임.

- 성인 중기: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환경, 지역 내 또는 지역 간 문화 활동 기회

- 성인 중기 대상 문화예술교육 효과 증대를 위해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지역 내 문화 활동 기회 제공’ 이 필요함. 강사와 참여자들의 수용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뿐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 구성원의 지지가 문화예술 교육 참여자들이 교육에 집중하고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움. 이들은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만들어진 커뮤니티를 지속하고, 그 커뮤니티 속에서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이어나가며 다른 문화예술 관련 커뮤니티와 소통하고자 하는 욕구를 보임. 따라

서 문화예술교육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 커뮤니티를 이어갈 수 있도록 후속 프로그램 지원, 동아리 등 단체 활동 지원이 문화예술교육 효과를 증대하고 이어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또, 이러한 커뮤니티들이 지역 내 또는 지역 간 문화를 매개로 소통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해준다면 효과성이 더욱 증대·확장 될 것임.

- 효과성 저해요인으로서는 유연하지 못한 예산 활용 시스템이 있었음. 이로 인해 사비를 사용하여 활동을 하거나 활동에 제약을 받음.

- 성인 후기: 자유롭고 지지적이며 따뜻한 환경

- 성인 후기 대상 문화예술교육의 효과성 증대를 위해 ‘자유롭고 지지적이며 따뜻한 환경’ 조성이 필요함. 이들은 문화예술 활동을 매개로 자기 자신 또는 동년배인 참여자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 자신과 자신의 삶을 긍정하고, 타인을 수용하는 아주 큰 변화를 보임. 이러한 변화는 문화예술 활동을 매개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낼 수 있도록 돕는 예술 강사와 서로의 삶을 나눌 수 있는 지지적인 참여자가 있을 때 가능함.
- 효과성 저해요인으로서는 유연하지 못한 예산 활용 시스템이 있음. 이로 인해 사비를 사용하여 활동을 하거나 활동에 제약을 받음.

- 노인기: 문화예술 활동을 오롯이 즐길 수 있는 환경

- 노인기 대상 문화예술교육의 효과성 증대를 위해 ‘문화예술 활동을 오롯이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함. 노인기 참여자의 경우 자기 고집 등으로 참여자들 간 의견 조율이 필요한 경우가 종종 생김. 따라서 참여자들 간 의견 갈등을 조율할 수 있는 강사, 강사 및 기관의 원활한 의사소통, 기관의 적극적 지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지역 특성화 사업의 경우, 농번기에는 어르신들이 수업에 참여하기 어려움. 따라서 어르신들이 수업에 마음 놓고 참여할 수 있도록 농한기 때 교육을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 Ⅲ. 논의 및 제언

---

1. 논의
2. 제언



---

## Ⅲ. 논의 및 제언

---

### 1. 논의

-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 문화재를 교육내용을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교육”으로 문화예술교육 진흥원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18~2022)」에 따라 생애주기별·사업별 교육 효과를 분석(2018)하고 효과지표를 체계화함.
- 모든 국민은 문화예술교육 대상자이며 문화예술교육의 효과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대상자의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문화예술교육을 제공해야 함. 개인은 생애주기에 따라 신체 발달은 물론 인지·심리·사회·관계 발달이 변화하며 이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의 효과 역시 다르게 나타남(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8).
- 즉 생애주기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의 효과의 구분과 지속적 검증을 통해 향후 문화예술교육 효과를 구분하고 생애주기별로 문화예술교육의 효과를 증대시키는 요인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각 생애주기 집단에 맞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완할 필요 있음.
-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18~2022)」에 맞춰 2019년 문화예술교육의 생애주기·사업별 효과를 양적 조사방법과 질적 조사방법을 통해 분석하였음. 먼저 문화예술교육 대상자들에게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지 얼마 안 된 시기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종료될 시기에 각각 문화예술교육 효과지표를 평정하도록 하였음.
- 이후 생애주기별·사업별로 문화예술교육 효과를 비교 분석하였음. 사업별 문화예술교육 효과는 사업 대상자의 생애주기 특성 및 환경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예를 들어 아동복지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 사업의 경우 참여자의 생애주기가 아동기 혹은 노인기로 동일함. 따라서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효과가 사업별 문화예술교육 효과와 일정 부분 동일할 수 있음. 따라서 논의에서는 먼저 각 생애단계를 중심으로 문화예술교육의 양적, 질적 효과에 대해 논의하고자 함.

#### □ 유아기·아동기·청소년기 문화예술교육 효과

- 문헌연구에서 유아, 아동, 청소년들은 문화예술교육으로 인해 문화예술 능력이 향상되고, 창의성, 자기표현력 등 인지능력 향상과 행복감, 정서 순화 등 정서적 효과를 경험함. 그러나 2018년 문화예술교육 효과분석 연구에서 유아, 아동, 청소년 참여자들의 교육 효과가 핵심지표와 특수지표에서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난 것과 다르게(진홍원, 2018), 2019년 양적 연구에서는 특수지표에서 유의미한 결과 나타나지 않았음. 특히 청소년기는 핵심지표에서도 유의미한 효과 나타나지 않음.
- 유아기·아동기·청소년기는 발달적으로 신체적, 심리적, 사회·환경적 변화가 두드러지는 시기임. 이로 인해 단기간의 문화예술교육 참여로 인한 효과성 향상이 두드러지지 않을 수도 있음. 그러나 질적 분석에서는 양적 조사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문화예술능력의 상승과 집중력, 창의력 등 인지적 효과, 자기표현 및 자기 조절 등 정서적 효과를 모두 발견할 수 있었음.
- 질적 연구에서, 아동과 청소년 참여자들은 문화예술교육의 개인적 차원 효과(인지·정서)는 물론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과 또래 관계 형성 등 관계 차원에서 긍정적 효과 보고하였음. 또한 지역 내 문화예술 활동으로 인한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효과까지 보고하였음. 이는 개인 차원 위주의 양적 지표와 달리 문화예술교육 효과가 참여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관계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으로 확장되어야 함을 암시함.
- 한편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다른 결과는 양적 연구에서 사용하는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라는 조사형식에 원인이 있을 수 있음. 유아, 아동,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인지능력이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변화를 인지하고 표현하는 능력이 다소 떨어지거나 객관화가 부족할 수 있음. 실제 인터뷰 역시 이 시기의 참여자 본인보다 부모와 강사 등 관계자들이 관찰자 입장에서 참여자의 문화예술교육으로 인한 긍정적 변화를 보고하였음.

#### □ 성인기 문화예술교육 효과

- 성인기 문화예술교육 효과 역시 양적 분석 결과 2018년도와 2019년도 분석 결과가 다르게 나타남. 문헌연구에서 성인기는 전기·중기·후기 모두 문화예술 능력이 상승하고 인지적, 정서적 효과를 경험하며 문화예술교육으로 인한 관계 차원의 효과 역시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음. 특히 성인 전기·중기·후기의 생애주기별 특징에 따라 성인 전기는 대인 관계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 습득, 중기는 자녀 양육을 위한 심리적 성숙, 후기는 부부 관계와 지역 공동체성 회복 등 각 생애주기에 맞는 문화예술교육 효과를 보고함.

- 18년 문화예술교육 효과 지표는 성인기 특수 지표를 동일하게 측정하였으며 응답자 기반 시점에서 모두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남. 그러나 2019년 양적 연구 결과에서 성인 전기·중기·후기의 유의미한 효과 지표는 다르게 나타났음. 특히 성인 중기와 후기는 창의성, 문화수용력 등 기존 성인기 특수지표가 아닌 지표에서 유의미한 문화예술교육 효과 나타났음.
- 질적 분석 결과에서 양적 지표에서 발견되지 않은 자기표현, 친밀감 등의 특수지표에서 유의미한 효과 나타났음. 또한, 자기에 대한 폭넓은 이해, 자아실현 등 기존 문헌과 양적 연구에서 발견되지 않은 새로운 효과가 개인적 차원에서 발견됨. 성인기의 관계적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워크-라이프 밸런스(성인 전기), 자녀에 대한 이해 증진(성인 중기) 효과가 나타나 양적 연구로는 발견할 수 없는 각 단계만의 고유한 문화예술교육 효과가 있음을 암시함. 이러한 효과는 문헌연구의 성인기 발달과업과 일치하여 문화예술교육이 성인기 발달에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음을 확인함.

#### □ 노인기 문화예술교육 효과

- 노인기는 생애주기 발달단계의 특성상 신체, 인지 능력 감소와 사회적 관계 축소로 인해 전반적으로 활동이 제한되는 시기임. 기존 문헌연구에서 노인의 문화예술교육 참여는 문화예술 능력의 향상은 물론 전반적 긍정 정서 경험과 소통, 공감 등 관계적 차원, 사회 참여 등 사회적 차원에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옴. 본 연구의 양적 분석 결과 역시 문화예술능력의 향상과 행복감, 친밀감, 자존감 향상 등 문화예술교육의 유의미한 효과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음.
- 또한, 자기표현, 창의성, 문제해결력의 향상은 문화예술교육이 노인기의 인지 능력을 포함한 개인적 차원에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옴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관계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까지 긍정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암시함. 이는 기존 생애주기의 특수 지표 외에 노인기에 의미 있는 특수 지표에 대한 추가 제안의 근거가 될 수 있음.
- 질적 인터뷰에서 노인 참여자들은 문화예술활동과 배움에 대한 욕구가 다른 생애단계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남. 이들은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함으로써 활동과 배움에 욕구를 충족하고 이러한 점에서 만족감이 크게 나타났음. 이 점은 유아, 아동, 청소년 참여자들이 문화예술교육에 자기주도적으로 참여하기보다 다른 가족의 권유로 인해 참여하는 것과 대비되는 특성으로 노인 참여자들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참여 자체가 참여자들의 긍정 정서와 웰빙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함.
- 또한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함으로써 소통능력과 협동 능력 등 노인기 참여자의 사회적 관계

능력 확장이 나타나고, 더불어 공동체 의식 함양 등을 보임으로써 노인기 참여자들이 이 생애단계에서 경험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 축소 등의 위기에 문화예술교육이 어느 정도 해결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추측할 수 있음.

#### □ 문화예술교육 참여 기간에 따른 효과 차이

- 한편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는 성인 및 노인 참여자들은 유아, 아동, 청소년에 비해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장기적이었음. 이들은 참여 기간에 따라 지표마다 문화예술교육 효과의 변화 추세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였음. 예를 들어 성인 전기의 문화예술감수성은 1년 미만 집단에 비해 1년~3년 미만 경험 집단이 더 낮고, 3년~5년 미만 집단은 1년 미만 집단보다 더 높아짐. 모든 지표가 기간에 비례하여 효과가 상승하기보다 어느 정도의 경험이 있는 집단이 상대적으로 기간이 짧은 집단이나 높은 집단에 비해 효과 지표가 낮게 나타남.
- 양적 분석으로는 이러한 기간별 효과 차이를 해석하기 어려움. 따라서 질적 인터뷰 결과를 통해 참여 기간 효과 차이에 대한 추론을 할 수 있음. 인터뷰 분석결과 성인 참여자 중 비교적 장기간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했던 참여자들은 문화예술 숙련에 대한 욕구가 크다는 공통점을 보였음. 이것을 기간별 차이로 해석하는 것은 본 연구에서는 무리이며 다만 욕구의 질적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염두에 두어야 함.
- 예를 들어, 문화예술교육 기간이 길어지면 문화예술 숙달에 대한 욕구가 새롭게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음. 그러나 이후 문화예술교육에 계속 참여하여 숙달 욕구가 충족되면 이전보다 만족도가 더 높아질 수 있음. 마찬가지로 참여 기간이 긴 집단일수록 참여자들이 문화예술교육 경험으로 인해 축적된 변화와 그에 대한 기대치가 초기와 달라질 수 있음.

#### □ 사업별 문화예술교육 효과

- 전술하였듯이 사업별 문화예술교육효과에 대한 분석 결과를 해석하기 위해서 그 사업의 참여자 특성을 고려해야 함. 유아문화예술이나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같은 사업의 경우 참여자들이 비교적 동일한 생애주기이기 때문에 참여자의 생애주기 효과가 일정하게 나타날 수 있음. 양적 분석 결과 위 사업에서 유의미한 효과지표들은 가 유아기·아동기·청소년기의 효과지표와 마찬가지로 핵심지표를 위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을 뿐, 그 외의 특수 지표에서는 유의미한 결과 나타나지 않았음.
- 그러나 지역 특성화나 부처 간 협력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토요문화학교 등 다양한 세대

가 참여한 사업의 경우 각 참여자가 사업에 참여하기 때문에 참여자들의 생애주기 특성 상 문화예술교육 효과가 상쇄되어 이 부분이 결과에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을 수 있음. 따라서 향후 사업별 문화예술교육 효과분석에서는 사업 내 생애주기별 분석이 가능하도록 특정 사업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사례수가 필요할 수 있음.

- 한편으로 동일한 생애주기 참여자라 해도 각 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자의 환경이 다른 것을 고려해야 함. 예를 들어 성인 중기 참여자라 해도 참여자가 생애전환 사업에 참여한 경우와 토요문화학교에서 가족끼리 참여한 경우의 참여자들 특성은 서로 다를 수 있음. 이러한 부분은 양적 조사를 통해서 밝혀지기 어려우며 질적 연구를 통해서 각 사업에 참여 대상의 환경적 특성과 이로 인한 문화예술교육의 효과 방향에 대해 연구되어야 할 필요 있음.

#### □ 한계점 및 후속 효과 분석 연구 제안

- 지금까지 논의된 문화예술교육의 생애주기별·사업별 효과를 종합했을 때 문화예술교육의 효과 분석을 위해서 기존의 프로그램의 사전-사후의 차이로 보는 단기적 효과보다 지속적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함으로써 얻는 종단적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 더 적합할 수 있음. 유아, 아동, 청소년 참여자들은 발달 단계 특성 상 문화예술교육 참여로 인한 단기적 효과보다 장기적 효과를 추적하는 것이 더 적합할 수 있음.
- 또한 참여 기간별 양적 지표에서의 차이는 문화예술교육의 효과에 대하여 향후 연구에서 처음 문화예술교육을 참여하는 집단과 참여 기간이 다른 집단으로 구성된 패널을 선정한 후 지속적 효과 변화 추세에 대한 연구 필요성을 제안하도록 함. 특히 사업별 참여자 특성을 고려하여 동일한 생애주기 단계의 참여자로 구성된 사업이라도 참여자의 환경 특성을 고려하기 위해 보다 안정적인 패널 사례수가 필요할 수 있음.
- 특히 본 연구를 포함한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의 경우 사전 조사와 사후 조사를 모두 충족하는 안정적인 대응표본을 구축하지 못한 것을 제한점으로 지적할 수 있음. 본 연구는 양적 분석을 위해 대응표본 t 검정과 독립표본 t 검증을 분석 방법으로 활용하였으며, 두 분석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야 함. 두 검증 결과를 비교하였을 때 공통적으로 나타난 지표와 공통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지표가 있었음.
- 다수 지표에서 독립표본 t 검정과 대응표본 t 검증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음. 이에 대해 독립표본 t 검정과 대응표본 t 검증의 사례 수의 차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 대응표본 t 검증은 사전과 사후 설문조사에 모두 응한 대상만 분석 대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표본 수에서 독립표본에 비해 훨씬 적음. 따라서 본 연구 분석에서 대응표본 t 검증이 독립표본 t

검증에 비해 유의미한 통계 결과가 나오기 어려움.

- 반면 독립표본 t 검증은 설문조사에 참여한 사전 집단과 사후 집단을 개별 집단으로 가정 후 각 집단의 평균을 비교함. 따라서 독립표본 t 검증은 대응표본 t 검증에 비해 문화예술교육의 참여자가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함으로써 얻는 사전과 사후의 변화를 엄밀하게 추정하기에 무리가 있음. 독립표본 t 검증과 달리 대응표본 t 검증은 참여자의 문화예술교육 참여로 인한 사전-사후의 실질적 변화를 암시하며 향후 연구에서 안정적 패널 조사 구축은 대응 표본 검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엄밀한 문화예술교육 효과 분석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양적 연구는 물론 구체적 문화예술교육 효과 파악과 효과 증대를 위해 지속적인 질적 연구를 제안함. 질적 연구는 구체적인 프로그램 진행 과정 및 개인, 기관, 생애주기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효과 양상의 차이를 구체적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음. 실제 본 연구에서 양적 지표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기존 특수지표 뿐 아니라 새로운 효과 지표가 질적 연구를 통해 발견되었음. 특히 워크-라이프 밸런스나 자녀 양육 관련 등 생애주기별 효과에 대해 구체적 정보를 제공함.
- 질적 연구는 문화예술교육의 효과가 개인적 차원 뿐 아니라 관계 및 사회 차원으로 확장되는 과정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따라서 양적 자료에 대한 지속적 추적과 변화 추이의 해석은 물론, 보다 종합적인 문화예술교육 효과의 이해를 위해서 질적 연구가 필요하며 양적 연구와 마찬가지로 종단적 패널을 구축하여 질적 연구를 수행할 필요성 있음.

## 2. 제언

### □ 생애주기에 따라 다른 효과성 증대 환경 조성

- 공통적으로 문화예술이라는 매체를 통해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하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환경에서 문화예술교육 효과가 증진됨. 한편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생애주기에 따라 효과성을 증대하는 환경에 차이가 나타남. 각 발달 상황에 맞는 교육환경 제공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의 효과를 더욱 증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지속적인 문화예술 교육 및 활동 지원

- 심화·연계 프로그램, 후속 프로그램, 커뮤니티 지원 등 문화예술 교육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질적 연구에 참여한 모든 집단에서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 지속적으로 교육이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없어 문화예술 활동 지속에 한계가 있었음. 현재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끝나고 쉽 없이 연결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문화예술 교육을 통해 만들어진 커뮤니티가 지속적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

□ 질 높고 다양한 교육 콘텐츠 개발을 위한 강사 지원

- 새롭고 질 높은 개발은 강사 개인의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강사의 역량 제고를 통한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 및 확대를 위해 문화예술강사 워크숍의 개최, 여러 문화예술교육의 사례 및 활동 공유, 예술 강사들 간의 소통 채널 마련, 다른 문화예술 분야와의 협업 기회 제공 등을 제안함.
- 아동과 청소년기에 미치는 교사의 영향을 고려할 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사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함. 구체적으로, 왕따 경험이 있는 아동 등 예술 강사가 친밀하게 다가가기 어려운 아동 또는 청소년에게 편하고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돕는 조언이나 사례 집에 대한 요구가 있었음.

---

## 참고문헌

---

- 강경선 (2011). 승화로서 예술의 치료적 기능에 관한 고찰. 예술심리치료연구, 7(3), 21-37.
- 강명임, 정민 (2018). 성인학습자의 문화예술교육 만족도가 자기효능감 및 정서 안정에 미치는 영향. 인문사회21, 9(2), 541-553.
- 강은영, 최미숙 (2014). 유아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1(2), 157-181.
- 권석만 (2004). 젊은이를 위한 인간관계의 심리학. 서울: 학지사.
- 김민진, 오미영 (2019). 회상중심 집단예술치료가 요양시설거주 치매 노인의 자아통합감과 삶의 질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 예술심리치료연구, 14(1), 249-271.
- 김병하, 남철현 (1999). 유배우 노인의 우울정도와 관련 요인 분석 연구. 한국노년학, 19(2), 173-192.
- 김소영, 이근매 (2010).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을 위한 사회성 향상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검증. 미술치료연구, 17(6), 1333-1355.
- 김영옥, 오수학 (2017). 노인의 규칙적인 운동참여가 신체조성과 체력에 미치는 효과의 메타 분석적 접근. 한국체육학회지-자연과학, 56(1), 753-771.
- 김화숙 (2018). 음악적 소통역량 함양을 위한 초등학교 단소 지도 단계 설계 및 효과성 검증: 민요 토리 연주를 중심으로. 인문사회21, 9(2), 882-894.
- 노승환, 조덕주 (2018). 문학, 음악, 연극 중심의 중학교 문화예술교육 통합 프로그램 적용 효과 분석. 문화예술교육연구, 13(6), 1-31.
- 노유진, 심교린 (2019). 국내 음악치료 연구에서 긍정심리 변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 동향 고찰, 한국예술치료학회지, 19(1), 265-279.
- 문현주, 권순재 (2015). 중년층의 여가충족, 부부관계 및 노후준비행동의 관계.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39(1), 55-66.

- 민경숙 (2018). 중산층 연소노인들의 문화예술교육 체험에 대한 현상학적 질적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10), 543-563.
- 박민지, 김지은(2017). 유아의 자기표현력과 행복감 증진을 위한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문화예술 교육. 아동과 권리, 21(4), 513-539.
- 박민진, 권지연 (2019). 한국의 고령화와 박물관□미술관 노인교육: 노인 대상 프로그램 및 노인주제 전시 사례연구. 박물관학보, 36, 43-66.
- 박선우 (2017). 무용교육이 성인여성의 우울감,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한국예술연구. 15, 289-302.
- 박소연, 박용호 (2016) 학교문화예술교육 효과측정지표 개발연구. 한국문화교육, 11(2), 27-53.
- 박소연, 이진구 (2019). 생애단계별 문화예술교육 효과지표 개발. 문화예술교육학회, 14(3), 21-45.
- 박영화, 고재홍. (2005). 부부의 자존감, 의사소통 방식, 및 갈등대처행동과 결혼만족도간의 관계: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9(1), 65-83.
- 박진영 (2019). 문화예술교육을 적용한 교양과목이 대학생의 핵심역량에 미치는 효과. 인문사회 21, 10(1), 287-301.
- 방은영 (2019). 그림책 연계 음악 감상활동이 유아의 조망수용능력에 미치는 영향. 예술교육 연구, 17(2), 23-41.
- 배나래 (2017). 지역아동센터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8(8), 115-123.
- 백령 (2012). CIPP 모델을 활용한 문화예술교육 교육효과 연구: 〈2011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을 중심으로. 문화예술경영학연구, 5(1), 29-50.
- 서봉연, 황상민 (1993). 서울대생의 심리사회 성숙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3). 69-96.
- 신명희, 서은희, 송수지, 김은경, 원영실, 노원경, 김정민, 강소연, 임호용 (2017). 발달심리학. 서울: 학지사.
- 신현경, 이은영 (2017). 마을공동체 기반의 문화예술교육 사례 연구: '살림꾼, 마을의 예술꾼 되

- 기'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문화예술교육연구, 12(2), 35-60.
- 양혜영 (2012).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술기획 방법론.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 유정분 (2014). 다도명상 프로그램이 직장여성의 정서안정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규용 (2012). 태권도 활동이 다운증후군 아동의 신체조정능력과 정서적 안정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민정, 최선남 (2014). 미술치료 과정에 나타난 생활지도원의 자기탐구. 미술치료연구, 21(6), 1427-1447.
- 이봉식 (2011) 초등 미술과에서 지적 감상 요소의 교수, 학습에 따른 미술 감상 태도의 변화. 미술연구논총, 30, 3-89.
- 이송하, 안지연 (2019). 50+세대의 융복합 문화예술교육 가치와 의의에 관한 질적연구. 한국과 학예술융합학회, 37(1), 195-209.
- 이옥희, 이지연 (2012). 중년기 생성감(Generativity) 척도개발 및 타당화. 상담학연구, 13(2), 665-688.
- 이원아, 문지영 (2019). 삶의 질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음악치료 효과 메타분석: 국내 음악치료 연구를 중심으로. 예술교육연구, 17(2), 223-251.
- 이은영, 고영미, 김은영 (2016). 미적체험을 강조한 유아 통합문화예술활동이 유아의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어린이미디어학회, 15(4), 1-22.
- 이채영, 박연선(2017). 문화예술교육이 유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그림책 활용 미술교육 중심으로. 기초조형학연구, 18(5), 483-496.
- 임승희, 김소영, 이유리 (2013). 문화예술교육의 효과 연구. 인문콘텐츠, (30), 225-245.
- 임영식, 정경은 (2017). 청소년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효과 척도개발: 토요문화학교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청소년문화포럼, (52), 103-132.
- 장미경, 정태연, 김근영 (2014). 발달심리. 서울: Knou PRESS.
- 장영희, 최성우 (2016). 초등학교 학부모의 문화예술활동 경험 및 경험 동기가 심리적 성숙에

- 미치는 영향. 문화예술교육연구, 12(4), 67-90.
- 전경란 (2017). 한국 문화예술교육 연구 경향 분석. 문화정책논총, 31(1), 76-96.
- 정경은, 임영식, 조영미 (2019). 청소년의 문화예술교육 경험차이와 효과 연구: 학생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비교. 청소년 문화포럼, (58), 115-143.
- 정경희 외 (2010). 베이비부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10-30-18).
- 정미경. (2006) 화가의 삶과 작품에 담긴 이야기 들려주기가 유아의 미술감상태도 및 감상능력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연구, 26(2). 5-25.
- 정현수, 한준, 김기현, 박종효 (2017). 문화예술교육의 가치 분석 연구. 문화예술교육연구, 12(2), 1-34.
- 정혜연 (2018). 나를 만나는 시간: 노령화시대의 미술관교육 프로그램 MeetMe. 미술과 교육, 19(3), 113-127.
- 최문임, 최규련. (2007). 중년기 여성의 성적 적응이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2(3), 59-83.
- 최봉영 (2012). 한국인에게 나는 누구인가. 서울: 지식산업사.
- 통계청 (2007). 2006년 사망원인 통계 결과.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6). 2016 문화예술교육 효과 지표 구축 기초 연구.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7). 2017 문화예술교육 효과 세부지표 구축 및 조사 연구.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8). 2018 문화예술교육 효과분석 연구.
- 한수정, 한경훈 (2013). 대학 신입생의 음악교과 교양수업과 학업적응, 사회적응 및 정서적응의 관계. 음악교육연구, 42(4), 291-324.
- 홍혜전 (2018). 중년부부대상 무용분야 문화예술교육이 부부관계 질에 미치는 효과. 한국무용과학회지, 35(3), 29-42.

Atchley, R. C. (2000). *Social forces and aging* (9th ed.), Belmont, CA: Wadsworth.

- Avinger, K. A. & Jones, R. A. (2007). Group treatment of sexually abused adolescent girls: a review of outcome studies.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35, 315-326.
- Baltes, P. B., Staudinger, U. M., & Lindenberger, U. (1999). Lifespan psychology: Theory and application to intellectual functioning.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0(1), 471-507
- Bandura, A. (1993). Perceived self efficacy in cognitive development and functioning. *Educational psychologist*, 28, 117-148.
- Bergen, D., & Meuer, D. (2000). Symbolic play, phonological awareness, and literacy skills at three age levels. In K.A. Roskos & J.F. Cristie (Eds.), *Play and literacy in early childhood: Research from multiple perspectives* (pp. 45-62). New York: Erlbaum.
- Blaser, D. G. (1982). Social Support and mortality in an elderly community population. *American Journal of Epidemiology*, 115, 684-694.
- Buhrmester, D., & Furman, W. (1987). The development of companionship and intimacy. *Child Development*, 58, 1101-1113.
- Burns, A., & Leonard, R. (2005). Chapters of our lives: Life narratives of midlife and older Australian women. *Sex roles*, 52(5-6), 269-277.
- Capon, N., & Kuhn, D. (1979). Logical reasoning of the supermarket: Adult females' use of a proportional reasoning strategy in an everyday context, *Developmental Psychology*, 15, 450-452.
- Craik, F. I. M., & Byrd, M. (1982). Aging and cognitive deficits: The role of attentional resources. In F. I. M. Craik & S. E. Trehub (Eds.), *Aging and cognitive processes*. New York: Plenum.
- Craik, F. I. M., & Jennings, J. J. (1992). Human memory. In F. I. M. Craik & T. A. Salthouse (Eds.), *The Handbook of aging and cognition*, Hillsdale, NJ: Erlbaum.
- Devall, E. M. & Miller, B. C. (1985). *Marriage and Family development* (6th ed.). Cambridge, New York: Harper & Row.
- Elkind, D. (1967). Egocentrism in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38, 1025-1034.
- Ellis, A. (1996). How I learned to help clients feel better and get better.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Practice, Training*, 33(1), 149-151.

- Emmons, R. A., & McCullough, M. E. (2004). *The Psychology of Gratitud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Erdley, C. A., & Day, H. J. (2017). Friendship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In M. Hojjat & A. Moyer (Eds.), *The psychology of friendship* (pp. 3–19). Oxford University Press.
- Erikson, E. H. (1980). *Identity and the life cycle*. New York: Norton.
- Erikson, E. H., Erikson, J. M., & Kivnick, H. Q. (1986). *Vital involvement in old age: The experience of old age in our time*. New York: Norton.
- Erikson, E. H. (1963).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Norton.
- Gardner, H. (1999). *Intelligences reframed: Multiple intelligences for the 21st century*. New York: Basic Books.
- Ginzberg, E. (1990). Career development. In D. Brown, L. Brooks, & Associates (Eds.),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San Francisco: Jossey-Bass.
- Goodman, G., & Silverstein, M. (2002). Grandparents raising grandchildren: Family structure and well-being in culturally diverse families. *The Gerontologist*, 42(5), 676-689.
- Guetzkow, J. (2002). *How the arts impact communities*. Centre for Arts and Cultural Policy Studies.
- Hagerty, B. M., Lynch-Saurer, J., Patusky, K. L., & Bouwsema, M. (1993). An emerging theory of human relatedness. *Journal of Nursing Scholarship*, 25, 291-296.
- Hapshire, & Matthijsse. (2010). Can arts projects improve young people's wellbeing? A social capital approach. *Social Science & Medicine*. 71(4), 708-716
- Hickling, A. K., & Wellman, H. M. (2001). The emergence of children's causal explanations and theories: Evidence from everyday conversat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37(5), 668-683.
- Hultsch, D. F., Hertzog, C., & Dixon, R. A. (1984). Text recall in adulthood: The role of intellectual abilities. *Developmental Psychology*, 20, 1193-1211.
- Jester, D. (2010). Wisdom: East and West. 2010 International Congress of the Royal College of Psychiatrists.
- Kausle, D. H. (1990). *Experimental psychology, cognition, and human aging* (2nd ed.). New

York: Springer-Verlag.

- Keating, D. P. (1980). Adolescent thinking. In S. S. Feldman & G. R. Elliot(Eds.), *At the threshold: The development adolescen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Kellogg, R. (1970). Understanding children's art. In P. Cramer(Ed.) *Reading in developmental Psychology Today*. Delmar, CA: CRM.
- Killen, M., & Nucci, L. P. (1995). Morality, autonomy, and social conflict. In M. Killen & D. Hart(Eds.), *Morality in everyday life* (pp. 52-86).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ingery, J. N., Erdley,C. A., & Marshall, K.C. (2011). Peer acceptance and friendship as predictors of early adolescents' adjustment across the middle school transition. *Merrill-Palmer Quarterly*, 57, 215-243.
- Kogan, N. (1997). Reflections and aesthetics and evolution. *Critical Review*, 11(2), 193-210.
- Labouvie-Vief, G. (1985). Intelligence and cognition. In J. E. Birren & K. W. Schaie (Eds.), *Handbook of the psychology of aging* (2nd ed.). Ney York: Van Nostrand Reinhold.
- Levinson, D. J. (1978). *The seasons of a man's life*. Random House Digital, Inc..
- Linn, V. C. (1983). Content, context, and process in reasoning.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3, 63-82.
- Lovelace, E. A. (1990). Aging and metacognitions concerning memory function. In E. A. Lovelace (Ed.). *Aging and cognition: Mental processes, self awareness and interventions*. Amsterdam: Elsevier.
- Maslow, A. H. (1974). Creativity in self-actualizing people. *Readings in human development: A humanistic approach*, 107-117.
- Marica, J, E. (1980). Identity in adolescence. In J. Adelson(Ed.), *Handbook of adolescent psychology* (pp. 157-187). New York: John Wiley.
- Neitzel, C., & Stright, A. D. (2003). Relations between parents' scaffolding and children's academic self-regulation: Establishing a foundation of self-regulatory competence.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7, 147-159.
- Orbuch, T. L., House, J. S., Mero, R. P., & Webster, P. S. (1996). Marital quality over the life



- course. *Social Psychology Quarterly*, 59(2), 162.
- Papalia, D. E., & Olds, S. W., & Feldman, R. D. (2009). *Human development* (11th ed.). McGraw-Hill.
- Perry Jr, W. G. (1999). *Forms of Intellectual and Ethical Development in the College Years: A Scheme*: Jossey-Bass Higher and Adult Education Series. San Francisco, CA: Jossey-Bass Publishers.
- Riegel, K. F. (1973). Dialectic operations: The final period of cognitive development. *Human development*, 16(5), 346-370.
- Royall, R. M. (1986). The effect of sample size on the meaning of significance tests. *The American Statistician*, 40(4), 313-315.
- Ruff, H. A., & Capozzoli, M. C. (2003). Development of attention and distractibility in the first 4 years of life. *Developmental Psychology*, 39, 877-890.
- Schaie, K. W. (1978). Toward a stage theory of adult cognitive development.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8(2), 129-138.
- Schaie, K. W. (2005). *Developmental influences on adult intelligence: The Seattle longitudinal study*. Oxford University Press.
- Seligman, M. E. P., & Csikszentmihalyi, M. (2000). Positive psychology: An introduction, *American Psychologist*, 55(1), pp. 5 – 14.
- Solomon, D., & Roloff, M. (2018). Relationship Initiation and Growth. In A. Vangelisti & D. Perlman (Eds.), *The Cambridge Handbook of Personal Relationships* (Cambridge Handbooks in Psychology, pp. 79-89).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uper (1990). *Career development: self concept theory*. New York: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Board.
- Thatcher, R. W., Walker, R., & Giduidice, S. (1987). Human cerebral hemispheres develop at different rates and ages, *Science*, 236, 1110-1113.
- Wechsler, D. (1944). *The Measurement of Adult Intelligence*. Baltimore, MD: Williams & Wilkins.
- Wilkie, J. R., Ferree, M. M., & Ratcliff, K. S. (1998). Gender and fairness: Marital satisfaction in two-earner coup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0(3) 577-594.
- Wood, D. (1996). *Move, sing, listen & play* (rev. ed). Toronto Thompson.

## 부록

### 1. 설문 동의서 및 설문지(유아 보호자용)

응답자	ID	—				
-----	----	---	--	--	--	--

\* 보호자 전화번호(핸드폰, 자택 중) 중 중간번호 기재

예) 핸드폰 번호가 01\*-0215-\*\*\*\*인 경우 또는 자택 전화번호가 02-215-\*\*\*\*인 경우

0	2	1	5
---	---	---	---

#### 설문조사 설명 및 동의서 (유아 보호자)



중앙대학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KOREA ARTS & CULTURE EDUCATION SERVICE

연구명

2019 문화예술교육 효과 분석 연구

연구 소개

#### 1. 조사목적 및 수행사항

중앙대학교 심리학과에서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한 유아를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유아의 보호자(이하 '참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문화예술교육의 효과를 발달시기별·사업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이해와 정책 사업 개선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2. 개인정보 수집 및 관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의 개인정보를 일부 수집하고자 합니다.

- 수집 목적: 2019 문화예술교육 효과 분석 검증의 유의미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전-사후 동일한 식별 필요함
- 수집 정보
  - 참여자의 자택 전화번호 혹은 핸드폰 번호의 중간자리 수집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연구 수행기간인 2019년 12월까지 개인정보를 보유하며, 연구 수행이 완료된 이후 참여자의 개인정보는 즉시 폐기됩니다.

#### 3. 참여자의 설문 내용 관련 자료 검토 내용

동일인 연구의 수행과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모니터링 요원, 점검자, 기관위원회 및 정부 관련 부처장 등이 관련 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연구대상자의 비밀보장을 침해하지 않으며 연구대상자의 기록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하여 통계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입니다.

#### 4. 자의적 참여 및 연구 참여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

참여자는 실험 중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추후 연구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의논할 내용이 있을 경우 연구책임자에게로 연락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주관기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책임 연구원: 정대연(중앙대 심리학과 교수)

연구 수행기관: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 보조원: 000(중앙대, 010-0000-0000)

#### 연구 참여 동의서

본인은 이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1. 나는 이 설명서를 읽었으며, 연구의 내용에 대해 만족할 만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2. 나는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3. 나는 이 연구에서 얻어진 나와 자녀에 대한 정보를 현행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 데 동의합니다.
4. 나는 언제라도 이 연구의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이 나에게 어떠한 해도 되지 않을 것을 압니다.

보호자 확인: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날 짜 : 2019년      월      일

☺ 해당되는 곳에 기입 및 “O 또는 V” 로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1> 다음은 귀하 자녀의 인적 특성과 관련된 질문들입니다.

1) 귀하 자녀의 만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만( )세

2) 귀하 자녀의 성별은 어떻게 되세요? ( )

① 남 성      ② 여 성

3) 귀하 자녀는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다닌 기간이 어떻게 되세요?

- 어린이집 : 약 ( )년 ( )개월

- 유 치 원 : 약 ( )년 ( )개월

4) 귀댁의 거주 행정구역은 어떻게 되세요? ( )

① 서울특별시 ② 부산광역시 ③ 대구광역시 ④ 인천광역시 ⑤ 대전광역시

⑥ 광주광역시 ⑦ 울산광역시 ⑧ 세종특별자치시 ⑨ 경기도 ⑩ 강원도

⑪ 충청남도 ⑫ 충청북도 ⑬ 전라남도 ⑭ 전라북도 ⑮ 경상남도

⑯ 경상북도 ⑰ 제주특별자치도

5) 본 설문지의 응답자 ID를 위해 사용한 번호에 표시해주시십시오.

① 핸드폰 번호(본인)      ② 자택 전화번호

<문2> 문화예술(교육) 활동 특성과 요구와 관련된 질문들입니다.

1) 귀하 자녀의 지금까지 문화예술(교육) 활동 경험은 어떻게 되십니까? ( )

⑩ 해당 없음	① 1년 미만	② 1년~3년 미만	③ 3년~5년 미만	④ 5년~7년 미만	⑤ 7년~9년 미만	⑥ 9년 이상
------------	------------	---------------	---------------	---------------	---------------	---------

2) 귀하 자녀가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하신 경우, 활동하신 문화예술(교육) 분야를 모두 표시해 주세요(복수응답 가능)

( )	( )	( )	( )	( )	( )	( )	( )	( )	( )
국악	연극	미술	(국악 제외한) 음악	영화	무용	만화/ 애니메 이션	공예	사진	디자인

3) 귀하 자녀가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하신 경우, 참여하신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명칭은 무엇입니까? (개방형: 복수응답 가능)

4) 귀하 자녀가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하신 경우, 향후 개선이나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개방형)

2.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해서 귀하 자녀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전혀 아니다”, “약간 아니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답해 주십시오.

No	문항	전혀 아니다	약간 아니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귀하 자녀는 어려운 문화예술작품에 대한 이해력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귀하 자녀는 문화예술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귀하 자녀는 문화예술 관련 능력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귀하 자녀는 문화예술관련 교육과정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5)	귀하 자녀는 문화예술관련 활동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6)	귀하 자녀는 남는 시간이 생기면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7)	귀하 자녀는 다른 사람의 감정에 대해 잘 이해한다.	①	②	③	④	⑤
(8)	귀하 자녀는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	①	②	③	④	⑤
(9)	귀하 자녀는 다른 사람의 입장을 잘 이해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귀하 자녀는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자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싶어 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귀하 자녀는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귀하 자녀는 스스로 행복한 편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귀하 자녀는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고 이해하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귀하 자녀는 새로운 문화를 접하는 것에 흥미로워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귀하 자녀는 우리나라에 다양한 문화가 많이 들어올수록 좋게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귀하 자녀는 상상력이 풍부하다.	①	②	③	④	⑤
(17)	귀하 자녀는 평소 다양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잘 생각하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18)	귀하 자녀는 무언가를 새롭게 시도하는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19)	귀하 자녀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의견을 말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0)	귀하 자녀는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표현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No	문항	전혀 아니다	약간 아니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21)	귀하 자녀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더 잘 이야기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2)	귀하 자녀는 문제가 해결된 후 문제해결책의 장/단점을 분석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3)	귀하 자녀는 문제해결과정에서 예상했던 목표와 실제결과를 비교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4)	귀하 자녀는 가장 좋은 해결책을 찾을 때까지 여러 방법을 찾아보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5)	귀하 자녀는 다른 사람과 소통을 원활히 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6)	귀하 자녀는 다른 사람의 대화를 집중해서 듣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7)	귀하 자녀는 다른 사람들이 느낌을 말할 때 귀 기울이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8)	귀하 자녀는 고민을 함께 나누는 친구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29)	귀하 자녀는 가족(보호자)과 대화를 자주 나누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30)	귀하 자녀는 가족(보호자)은 서로를 잘 이해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31)	귀하 자녀는 스스로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2)	귀하 자녀는 스스로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33)	귀하 자녀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4)	귀하 자녀는 분노, 포기, 조급함 등 부정적인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35)	귀하 자녀는 마음의 평안함을 유지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36)	귀하 자녀는 불안해져도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2. 설문 동의서 및 설문지(초등 저학년용)

응답자	ID	반	반	번	호	예) 2반 15번인 경우	0	2	1	5
-----	----	---	---	---	---	---------------	---	---	---	---

### 설문조사 설명 및 동의서(본인)



중앙대학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KOREA ARTS & CULTURE EDUCATION SERVICE

연구명

2019 문화예술교육 효과 분석 연구

연구 소개

#### 1. 조사목적 및 수행사항

중앙대학교 심리학과에서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문화예술교육의 효과를 발달시기별·사업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이해와 정책 사업 개선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2. 개인정보 수집 및 관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의 개인정보를 일부 수집하고자 합니다.

- 수집 목적: 2019 문화예술교육 효과 분석 검증의 유의미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전-사후 동일인 식별 필요함
- 수집 정보
  - 참여자가 초·중·고등학교에 현재 재학 중인 경우: 참여자의 현재 반, 번호 수집
  - 참여자가 초·중·고등학교에 현재 재학 중이지 않은 경우: 참여자가 보유한 자택 전화번호 혹은 핸드폰 번호의 중간자리 수집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연구 수행기간인 2019년 12월까지 개인정보를 보유하며, 연구 수행이 완료된 이후 참여자의 개인정보는 즉시 폐기됩니다.

#### 3. 참여자의 설문 내용 관련 자료 검토 내용

동일인 연구의 수행과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모니터링 요원, 점검자, 기관위원회 및 정부 관련 부처장 등이 관련 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연구대상자의 비밀보장을 침해하지 않으며 연구대상자의 기록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하여 통계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입니다.

#### 4. 자의적 참여 및 연구 참여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

참가자는 실험 중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추후 연구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의논할 내용이 있을 경우 연구책임자에게로 연락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주관기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책임 연구원: 정태연(중앙대 심리학과 교수)

연구 수행기관: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 보조원: 000(중앙대, 010-0000-0000)

### 연구 참여 동의서

본인은 이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1 나는 이 설명서를 읽었으며, 연구의 내용에 대해 만족할 만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 2 나는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 3 나는 이 연구에서 얻어진 나의 대한 정보를 현행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 데 동의합니다.
- 4 나는 언제라도 이 연구의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이 나에게 어떠한 해도 되지 않을 것을 압니다.

참여자 확인: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날 짜 : 2019년 월 일

☺ 해당되는 곳에 답을 쓰거나 “O 또는 V” 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다음은 여러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1) 나의 만 나이는? 만( )세(학년: )

2) 나의 성별은 ? ① 남 성 ② 여 성

3) 지금까지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한 적이 있나요? 있다면 얼마나 오래 했나요?

⑥ 해당없음	① 1년 미만	② 1년~3년 미만	③ 3년~5년 미만	④ 5년~7년 미만	⑤ 7년~9년 미만	⑥ 9년 이상
-----------	------------	------------------	------------------	------------------	------------------	------------

3-1)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했던 경우, 어떤 활동을 했는지 표시해 주세요(여러 개를 했다면 했던 활동을 모두 표시해 주세요).

( ) 국악	( ) 연극	( ) 미술	( ) (국악 제외한) 음악	( ) 영화	( ) 무용	( ) 만화/ 애니메 이션	( ) 공예	( ) 사진	( ) 디자인
-----------	-----------	-----------	--------------------------	-----------	-----------	-------------------------	-----------	-----------	------------

2. 다음은 나의 생각을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질문을 읽고 “전혀 아니다”, “약간 아니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중 하나에 표시해 주세요.

No	문 항	전혀 아니다	약간 아니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어려운 문화예술작품(음악, 그림, 연극, 무용, 사진 등)을 이해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문화예술(음악, 그림, 연극, 무용, 사진 등)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문화예술(음악, 그림, 연극, 무용, 사진 등) 활동을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문화예술(음악, 그림, 연극, 무용, 사진 등)을 배워 보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문화예술(음악, 그림, 연극, 무용, 사진 등) 활동을 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시간이 남으면 문화예술(음악, 그림, 연극, 무용, 사진 등) 활동을 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다른 사람의 기분이나 느낌을 잘 이해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다른 사람이 힘들 때 잘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다른 사람의 입장을 잘 이해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나로 태어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내 자신이 자랑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No	문 항	전혀 아니다	약간 아니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2)	나는 행복하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아는 것이 재미있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우리나라에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함께 사는 것이 좋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상상을 잘 한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남들이 안 하는 생각을 잘 한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새로운 무언가를 해 보는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내 생각을 말한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는 내 생각을 분명하게 말한다.	①	②	③	④	⑤
(21)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 생각을 더 잘 이야기한다.	①	②	③	④	⑤
(22)	나는 문제를 푼 후 그 방법이 좋았는지 혹은 나빴는지 생각해 본다.	①	②	③	④	⑤
(23)	나는 문제를 풀고 나서, 내가 생각했던 대로 됐는지 아닌지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4)	나는 문제를 풀 때, 가장 좋은 방법을 찾을 때까지 여러 방법을 찾아본다.	①	②	③	④	⑤
(25)	나는 다른 사람과 쉽게 이야기한다.	①	②	③	④	⑤
(26)	나는 다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다.	①	②	③	④	⑤
(27)	나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느낌을 말할 때 귀 기울인다.	①	②	③	④	⑤
(28)	나는 걱정거리를 이야기하는 친구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29)	나는 가족과 자주 이야기한다.	①	②	③	④	⑤
(30)	나와 가족은 서로를 잘 이해한다.	①	②	③	④	⑤
(31)	나는 나를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32)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다.	①	②	③	④	⑤
(33)	나는 좋은 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4)	나는 화나거나, 조급해져도 금방 괜찮아진다.	①	②	③	④	⑤
(35)	나는 보통 마음이 편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36)	나는 불안해져도 금방 마음이 편해진다.	①	②	③	④	⑤

©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3. 설문 동의서 및 설문지(초등 고학년, 청소년, 성인 전기, 중기, 후기, 노년용)

응답자	ID	—				
-----	----	---	--	--	--	--

\* 전화번호(핸드폰, 자택 중) 중 중간번호 기재

예) 핸드폰 번호가 01\*-0215-\*\*\*\*인 경우 또는 자택 전화번호가 02-215-\*\*\*\*인 경우

0	2	1	5
---	---	---	---

#### 설문조사 설명 및 동의서



중앙대학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KOREA ARTS & CULTURE EDUCATION SERVICE

연구명

2019 문화예술교육 효과 분석 연구

#### 연구 소개

##### 1. 조사목적 및 수행사항

중앙대학교 심리학과에서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한 성인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문화예술교육의 효과를 발달시기별·사업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이해와 정책 사업 개선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2. 개인정보 수집 및 관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의 개인정보를 일부 수집하고자 합니다.

- 수집 목적: 2019 문화예술교육 효과 분석 검증의 유의미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전-사후 동일인 식별 필요함
- 수집 정보
  - 참여자 자택 전화번호 혹은 핸드폰 번호의 중간자리 수집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연구 수행기간인 2019년 12월까지 개인정보를 보유하며, 연구 수행이 완료된 이후 참여자의 개인정보는 즉시 폐기됩니다.

##### 3. 참여자의 설문 내용 관련 자료 검토 내용

동일인 연구의 수행과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모니터링 요원, 점검자, 기관위원회 및 정부 관련 부처장 등이 관련 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연구대상자의 비밀보장을 침해하지 않으며 연구대상자의 기록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하여 통계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입니다.

##### 4. 자의적 참여 및 연구 참여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

참가자는 실험 중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추후 연구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의논할 내용이 있을 경우 연구책임자에게로 연락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주관기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책임 연구원: 정태연(중앙대 심리학과 교수)

연구 수행기관: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 보조원: 000(중앙대, 010-0000-0000)

#### 연구 참여 동의서

본인은 이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1. 나는 이 설명서를 읽었으며, 연구의 내용에 대해 만족할 만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2. 나는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3. 나는 이 연구에서 얻어진 나에 대한 정보를 현행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 데 동의합니다.
4. 나는 언제든지 이 연구의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이 나에게 어떠한 해도 되지 않을 것을 압니다.

참여자 확인: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날 짜 : 2019년      월      일

☺ 해당되는 곳에 기입 및 “O 또는 V” 로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

1. 다음은 귀하의 인적 특성과 관련된 질문들입니다.

1) 귀하의 만 나는? 만( )세

2) 귀하의 성별은 ? ① 남 성 ② 여 성

3) 본 설문지의 응답자 ID를 위해 사용한 번호에 표시해주시십시오.

① 핸드폰 번호(본인) ② 자택 전화번호

4) 귀하의 지금까지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기간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해당없음	① 1년 미만	② 1년~3년 미만	③ 3년~5년 미만	④ 5년~7년 미만	⑤ 7년~9년 미만	⑥ 9년 이상
-----------	------------	------------------	------------------	------------------	------------------	------------

4-1)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하신 경우, 활동하신 문화예술(교육) 분야를 모두 표시해 주  
세요(복수응답 가능).

( ) 국악	( ) 연극	( ) 미술	( ) (국악 제외한) 음악	( ) 영화	( ) 무용	( ) 만화/ 애니메 이션	( ) 공예	( ) 사진	( ) 디자인
-----------	-----------	-----------	--------------------------	-----------	-----------	-------------------------	-----------	-----------	------------

2. 다음은 각 항목에 대한 귀하의 인식을 묻는 질문들입니다. 귀하의 생각을 “전혀 아니다”, “약간 아니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로 답해 주십시오.

No	문 항	전혀 아니다	약간 아니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어려운 문화예술작품에 대한 이해력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문화예술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문화예술 관련 능력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문화예술관련 교육과정에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문화예술관련 활동에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남는 시간이 생기면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고 싶 다고 생각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다른 사람의 감정에 대해 잘 이해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다른 사람의 입장을 잘 이해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나로 다시 태어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No	문항	전혀 아니다	약간 아니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	----	-----------	-----------	----------	-----------	-----------

(11)	나는 내 자신이 자랑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내가 행복한 편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고 이해하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새로운 문화를 접하는 것이 흥미롭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우리나라에 다양한 문화가 많이 들어올수록 좋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상상력이 풍부하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평소 다양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잘 떠오른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무언가를 새롭게 시도하는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의견을 말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는 내 의견을 분명하게 표현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1)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 생각을 더 잘 이야기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2)	나는 문제가 해결된 후 문제해결책의 장/단점을 분석한다.	①	②	③	④	⑤
(23)	나는 문제해결과정에서 예상했던 목표와 실제 결과를 비교해 본다.	①	②	③	④	⑤
(24)	나는 가장 좋은 해결책을 찾을 때까지 여러 방법을 찾아본다.	①	②	③	④	⑤
(25)	나는 다른 사람과 소통이 원활하다.	①	②	③	④	⑤
(26)	나는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집중해서 듣는다.	①	②	③	④	⑤
(27)	나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느낌을 말할 때 귀 기울인다.	①	②	③	④	⑤
(28)	나는 고민을 함께 나누는 친구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29)	나는 가족(보호자)과 대화를 자주 나누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30)	나와 가족(보호자)은 서로를 잘 이해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31)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2)	나는 내 스스로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3)	나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4)	나는 분노, 포기, 조급함 등 부정적인 감정을 조절하는 힘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5)	나는 마음의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6)	나는 불안해져도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4. 설문 진행 가이드

### 설문 진행 가이드

\* 담당자 선생님께서는 다음의 순서대로 설문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1. 준비하기

- 설문 부수 확인
- 1페이지 상단 왼쪽 ID 기입란 유형 확인 (전화번호 기입 유형, 반 번호 기입 유형)

#### 2. 설문 진행

- 내용 안내: “본 설문은 문화예술교육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문화예술진흥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설문입니다. 교육 시작 시 1회, 교육이 끝날 때 1회 총 2회에 걸쳐 실시될 예정이며, 이 때문에 동일한 참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설문지 1페이지 상단 좌측에 ID를 기입해주시야 합니다. 2차 설문지에도 똑같은 ID 번호를 써주셔야 합니다.”

#### - ID 번호 기입 안내

- 1) 전화번호 유형: “ID 번호는 본인의 핸드폰이나 집 전화번호의 가운데 자리를 써주시면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핸드폰 뒷 네 자리는 연구진이 수집할 수 없으니 전화번호 가운데 자리를 써주시면 됩니다. 본 ID 번호는 1차 2차 설문 동일인 확인 여부 확인을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 유아의 경우, 보호자의 핸드폰 번호 가운데 자리를 쓸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 2) 반 번호 유형: “ID 번호는 본인이 다니고 있는 학교 반 번호를 써주시면 됩니다. 개인정보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서 학년은 수집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학 중인 학교에서 2학년 2반 15번인 경우 0215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본 ID 번호는 1차 2차 설문 동일인 확인 여부 확인을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 3) 전화번호 또는 반 번호를 적기 곤란한 경우, “전화번호나 반 번호를 쓰고 싶지 않은 경우는 자신이 기억하기 쉬운 번호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만, 동일인 식별을 위해 1차 설문 조사와 2차 설문 조사의 ID 번호가 동일해야 하므로 오늘 적은 번호를 꼭 기억해서 2차 설문 조사 때 같은 번호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동의서 서명 안내: “설문은 약 10분 정도 소요 예정이며, 정답은 없으니 본인이 생각하고 느끼는 대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설명문과 동의서를 잘 읽어보시고, 동의서에 서명을 한 후에 설문을 시작해주시기 바랍니다.”

### 3. 설문 완료 후

- 모든 설문지 수거 후 부수를 확인하여 주시고,
- 아래의 주소로 수거하신 설문지를 착불로 보내주시거나 설문지를 스캔하셔서 스캔본을 아래의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주소) (06974)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로 84 중앙대학교 203관 7층 심리학과 사무실 안정민  
연구원 앞

이메일) [dudmini\\_sa@naver.com](mailto:dudmini_sa@naver.com)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5. 초점집단 인터뷰 동의서 및 설명서

### 인터뷰 설명 및 동의서



중앙대학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KOREA ARTS & CULTURE EDUCATION SERVICE

연구명

2019 문화예술교육 효과 분석 연구

#### 연구 소개

##### 1. 조사목적 및 수행사항

중앙대학교 심리학과에서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문화예술교육 참여자를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초점집단 인터뷰(FGI)를 실시하여 문화예술교육의 효과를 발달시기별·사업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이해와 정책 사업 개선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2. 개인정보 수집 및 관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의 개인정보를 일부 수집하고자 합니다.

- 수집 목적: 2019 문화예술교육 효과 분석 검증의 유의미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본적 인구통계 정보 수집
- 수집 정보: 참여자 성별, 연령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연구 수행기간인 2019년 12월까지 개인정보를 보유하며, 연구 수행이 완료된 이후 참여자의 개인정보는 즉시 폐기됩니다.

##### 3. 참여자의 설문 내용 관련 자료 검토 내용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모니터링 요원, 점검자, 기관위원회 및 정부 관련 부처장 등이 관련 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연구대상자의 비밀보장을 침해하지 않으며 연구대상자의 기록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하여 통계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입니다.

##### 4. 자의적 참여 및 연구 참여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

참가자는 실험 중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추후 연구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의논할 내용이 있을 경우 연구책임자에게로 연락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주관기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책임 연구원: 정태연(중앙대 심리학과 교수)

연구 수행기관: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 보조원: 000(중앙대, 010-0000-0000)

#### 연구 참여 동의서

본인은 이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1. 나는 이 설명서를 읽었으며, 연구의 내용에 대해 만족할 만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2. 나는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3. 나는 이 연구에서 얻어진 나의 대한 정보를 현행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 데 동의합니다.
4. 나는 언제라도 이 연구의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이 나에게 어떠한 해도 되지 않을 것을 압니다.

참여자 확인: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날 짜 : 2019년 월 일

참여자 연령: 만( )세 성 별 : 남성 ☐ 여성 ☐

## 5. 초점집단 인터뷰 질문지

구분		초등 고학년~노인 집단	학부모 및 교사(담당자)	프로그램 운영 강사
0. 응답자 소개	라포 형성	프로그램에 대한 간단한 소개, 참여 기간 및 내용, 기억에 남는 활동, 프로그램 특징 및 특이사항 등	자녀(학생)이 참여했던 프로그램에 대한 간단한 소개, 참여 기간 및 내용, 기억에 남는 활동, 프로그램 특징 및 특이사항 등 - 프로그램 참여자 특징 및 특이사항	프로그램에 대한 간단한 소개, 운영 방식, , 프로그램 참여자 특징 및 특이사항, 프로그램 특징 및 특이사항 등
1. 문화예술 교육 참여 동기	참여 동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전 문화예술(교육) 경험</li> <li>- 참여 계기</li> <li>- 프로그램 시작 전 기대했던 것</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로그램 시작 전 기대했던 것</li> </ul>
2. 문화예술 교육 만족도 및 개선점	프로그램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것에 만족하시나요?</li> <li>- 만족 또는 불만족의 이유?</li> <li>- 가장 좋았던 프로그램 내용 및 아쉬웠던 프로그램 내용</li> <li>- 좋았던/ 아쉬웠던 이유?</li> <li>- 개선이 필요한 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로그램 진행 시 보람 있던 일, 좋았던 점</li> <li>- 프로그램의 장점 및 단점</li> <li>- 프로그램 진행 시 어려운 점</li> <li>- 개선사항</li> </ul>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로그램 운영이 잘 이루어졌나요?</li> <li>- 그 이유는?</li> <li>- 개선이 필요한 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로그램 운영 시 도움이 된 부분</li> <li>- 프로그램 운영 시 어려운 점</li> <li>- 효과적인 프로그램 시행을 위해 필요한 개선사항</li> </ul>
3. 문화예술 교육 효과	교육 효과 * 프로그램 참여 전-후 대비 변화를 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로그램 참여 후 어떤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 차원, 가족관계</li> <li>▶ 유아 및 청소년: 교우관계, 교사와의 관계</li> <li>▶ 성인: 일과 여가의 균형을 맞추는 데(워라벨) 도움이 되었나요?, 직장생활에서의 변화</li> <li>▶ 중년: 직장생활에서의 변화, 가족 관계의 변화</li> </ul> </li> <li>-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 힘들었던 점이 있었다면(생활습관, 문제행동, 정서표현, 관계적 문제 등), 프로그램 참여 후 변화가 있었나요?</li> <li>- 예상했던 변화는 무엇이었나요?</li> <li>- 예상하지 않았는데 일어난 긍정적 변화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로그램 참여 후 참여자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 차원, 작품의 변화, 프로그램 내에서의 활동 및 대인관계 변화</li> </ul> </li> </ul>

		<p>무엇인가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나타난 부정적 변화가 있었다면 무엇인가요?</li> <li>▶ 각 효과가 나타난 이유</li> </ul>	
4. 마무리	마무리	<p><i>인터뷰에서 언급하지 않은 내용 중,</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예술교육으로 인한 변화에 도움이 되었던 점</li> <li>- 추가하고 싶은 것</li> </ul>	